연구보고 19-R15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2019

- 총괄보고서

책임연구원 양계민
공동연구원 장윤선 정윤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연구보고 19-R15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2019 : 총괄보고서

책임연구원_ 양계민(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원_ 장윤선(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부연구위원)
정윤미(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전문연구원)
연구보조원_ 김주영(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연구사업운영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Abstract

국문초록

본 연구는 다문화청소년의 발달에 관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발달추이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다문화청소년 지원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타당성 있는 정책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과학적 근거 마련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연구목적을 위하여 크게 두 가지 영역에서 연구를 추진하였다.

첫째는 2011년에 구축된 1기 패널 대상 9차년도 추적 설문조사를 추진하였고, 축적된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이와 함께 다문화청소년 및 학부모 대상 심층면접을 실시함으로써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응을 위한 효과적 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둘째로는, 기존 패널과 더불어 현재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다문화청소년을 대상으로 새로이 신규패널을 구축함으로써 변화된 다문화지형의 양상을 반영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심리·사회적응의 주요 긍정요인은 가족의 지지, 학교 내 사회적 지지이며, 부정요인은 집단괴롭힘 피해경험으로 밝혀졌다. 둘째, 심리적응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는 다문화청소년과 학부모에 비해 교사들의 경우 더 높게 나타났다. 셋째, 다문화청소년과 어머니 모두 지역의 심리상담센터에 대한 인지도는 낮은 수준이었으며, 학교 상담실의 역할에 대해서도 다소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넷째, 현장전문가들은 다문화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심리상담 및 위기지원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크게 인식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응 및 위기지원을 위한 3가지 전략과 8가지 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

연구요약

1. 연구목적

●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의 목적

첫째, 다문화청소년의 발달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구축하고, 발달추이 분석을 통해 다문화청소년에 관한 과학적 정책수립 및 추진의 근거를 마련함.

둘째, 연구를 통해 구축된 기초자료 및 정책현황 분석을 통하여 다문화청소년을 위한 정책의 방향성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함.

● 2019년 중점 목표

첫째, 조사를 실시하여 2019년도 패널자료를 구축함.

둘째, 신규패널 구축 및 1차년도 패널자료를 수집함.

셋째,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응 및 위기지원방안을 모색함.

2. 연구방법

● 문헌연구

문헌연구에서는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응과 관련된 주요 변인들을 크게 부모요인, 사회적 지지요인, 문화적응요인, 차별 및 괴롭힘 피해경험요인으로 구분하여 국내외 선행연구를 분석하고, 국내 청소년대상 심리·사회적응 및 위기지원정책을 검토 및 분석함.

● 전문가 자문

전문가 자문은 크게 두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실시함. 첫째, 2018년에 개발된 신규패널 예비조사 설문지를 바탕으로 설문문항의 타당성과 적합성, 특히 인권침해 요소에 대한 학계 및 현장전문가의 의견을 수집함. 둘째,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응 현황을 이해하고 지원정책의 방향 및 정책과제 도출을 위한 현장전문가, 교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청소년상담센터 실무자를 대상으로 자문회의를 실시함.

● 양적연구

첫째, 2019년도 설문조사에서는 과거 CAPI 방식에서 TAPI 방식으로 변경함.

둘째, 2018년도 조사에 참여한 1기 패널 1,220가구의 청소년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9차년도 설문조사를 실시함.

셋째, 2019년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다문화청소년(국내출생, 중도입국자녀, 외국인가정자녀 포함)을 대상으로 신규패널을 구축함. 표본 이탈률을 고려하여 목표 표본크기는 2,100가구로 설계함.

● 면접조사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응현황, 학교 및 지역청소년상담센터의 정책적 지원에 대한 인식과 인지도, 필요한 지원과 요구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다문화청소년 14명과 학부모 34명 등 총 48명을 대상으로 FGI 방식의 면접조사를 실시함.

● 워크숍

첫째, 본 연구의 설문조사는 조사원의 가구방문을 통한 면접조사로 실시되므로 원활한 진행을 위한 전문조사원 대상 워크숍을 7회에 걸쳐 실시함.

둘째, 정책개발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을 실시하여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사회 적응 및 위기지원 방안을 논의함.

● 정책실무협의회

본 연구의 2019년 중점 목표 중 하나인 신규패널 구축을 위해 교육부의 교육기회보장과와 정책실무협의회를 실시하여 설문조사 협조요청 및 조사절차에 관해 논의함. 아울러 본 연구에서 최종적으로 도출된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사회 적응 및 위기지원을 위한 정책방안의 타당성과 실현가능성 제고를 위한 교육부 교육기회보장과 및 여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와 정책실무협의회를 개최함.

3. 주요결과

1) 다문화청소년의 8년간 발달 추이

(1) 가정요인

● 2018년 전국 2인 이상 가구소득 수준 대비 다문화가정의 월 평균 소득 수준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수준이나, 매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임.

● 다문화청소년의 어머니에 대한 인식은 아버지에 대한 인식보다 긍정적이나, 이러한 차이는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남.

(2) 학교생활 및 성취요인

● 학교생활에서 친구들과의 큰 어려움은 없으며, 집단괴롭힘의 피해 경험비율 또한 지속적으로 감소함.

●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학업성적에 대한 주관적 평가 및 만족도는 부정적으로 변화하며, 학교공부 어려움을 느끼는 비율도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남.

(3) 심리·사회적응요인

- 삶의 만족도는 중학교 진학 이후 뚜렷한 감소현상이 나타나며, 신체 만족도의 경우 고등학교 진학 이후 감소추세로 전환됨.
- 우울과 사회적 위축은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대체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나 변화의 폭은 삶의 만족도에 비해 작은 수준임.
- 고등학교 진학 이후 비행경험의 비율은 큰 폭으로 상승하나, 절대 값으로 보면 상당히 낮은 수준임.
- 가족의 지지는 비교적 높은 수준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음.
- 학교 안에서 도움을 주는 어른이 있다고 인식하는 정도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나, 학교 밖에서 도움을 주는 어른의 존재에 대한 인식 수준은 지속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함.

(4) 정체성요인

-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자신을 한국사람인 동시에 외국인 부모님 나라사람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 한국인 정체성과 다문화수용성은 전반적으로 높아지는 추세임.
- 외국인 부모님 나라의 문화에 대한 수용태도는 한국문화 수용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나, 중학교 진학 이후 소폭 상승함.

(5) 신체발달 및 건강요인

- 2018년도 학생 건강검사 표본 통계와 비교할 때, 키와 몸무게는 평균 수준의 성장을 보임.
- 건강상태에 대한 주관적 인식은 고등학교 진학 이후 다소 부정적으로 변화함.

2) 이탈패널 분석

- 2018년도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 이탈률은 1차년도에 구축된 1기 패널기준 24.9% 임.
- 제주 지역의 이탈률은 73.3%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대전(45.8%), 광주(45.2%) 순으로 나타남. 단, 제주 지역의 경우 1기 패널로 구축된 가구는 15가구에 불과하여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탈률의 변화 폭이 큼.
- 어머니 출신국가별 이탈률이 높은 국가는 카자흐스탄(57.1%), 러시아(47.1%), 한국(44.1%)이며, 캄보디아(12.5%)와 일본(18.1%)은 상대적으로 낮은 이탈률을 보임.
- 그 외, 월 평균 가구소득, 주관적 가정형편, 다문화청소년 어머니의 학력 수준에 따른 이탈률을 비교하면, '100만원 미만'의 월 평균 가구소득, 주관적 가정형편이 '잘 사는 편이다'로 응답한 집단, '대학원 이상'의 학력 수준 집단에서 이탈률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1기 패널로 구축된 이들 집단의 가구수가 다른 집단에 비해 매우 작기 때문에 한두 가구의 이탈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이탈사유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경우는 '연락 안됨'이며, '유학 또는 이민'의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음.

3)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응 현황

(1) 기초분석결과

- 중학교 2학년 재학 시기(2015년)와 고등학교 2학년 재학 시기(2018년)를 비교할 때, 긍정적 심리·사회적응 변인에 해당하는 삶의 만족도와 신체만족도는 낮아졌고, 부정적 변인에 해당하는 우울과 사회적 위축 정도는 높아짐.

● 중학교와 고등학교 재학 시기 모두,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삶의 만족도와 신체만족도는 높고, 우울과 사회적 위축은 낮음.

● 집단괴롭힘 피해경험이 있는 집단이 상대적으로 낮은 삶의 만족도와 신체만족도, 높은 수준의 우울과 사회적 위축을 보임.

● 학교 안에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어른의 존재를 인식하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삶의 만족도와 신체만족도는 높고, 우울과 사회적 위축 정도는 상대적으로 낮음. 단, 고등학교 2학년 재학 시기의 사회적 위축은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는 없음.

● 학교 밖에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어른의 존재가 있는 집단의 경우 그렇지 않는 집단에 비하여 삶의 만족도와 신체만족도는 높고, 우울 및 사회적 위축 정도는 낮음.

● 가정배경변인에 따른 심리·사회적응의 차이는 가구소득 수준에 따른 중학교 시기의 신체만족도와 부모의 학력 수준에 따른 중학교 우울 및 고등학교 사회적 위축정도에서만 유의함.

(2) 심층모형 분석결과

● 중학교 시기의 다문화청소년 심리·사회적응은 3개의 잠재프로파일로 분류될 수 있으며, 각 잠재프로파일의 특성은 다음과 같음.

첫째, 높은 수준의 삶의 만족도와 신체만족도를 보이며 낮은 수준의 우울 및 사회적 위축을 보이는 '우수 적응' 프로파일

둘째, 높은 수준의 우울 및 사회적 위축과 낮은 수준의 삶의 만족도 및 신체만족도를 보이는 '부적응' 프로파일

셋째, 삶의 만족도, 신체만족도, 우울, 사회적 위축 모두 평균 수준을 보이는 '평균 적응' 프로파일

● 고등학교 시기의 다문화청소년 심리·사회적응은 중학교 시기에 분류된 3개

잠재프로파일과 함께 새로운 잠재프로파일이 추가로 분류됨. 추가된 잠재프로파일은 평균 수준의 삶의 만족도와 신체만족도를 보이며, '우수 적응' 수준의 낮은 우울과 사회적 위축정도를 보이는 특성에 따라 '평균-우수 적응'으로 명명됨.

- 중학교 시기의 각 잠재프로파일로 분류된 다문화청소년의 비율은 '우수 적응' 33.5%, '평균 적응' 57.3%, '부적응' 9.2%이고, 고등학교 시기의 잠재프로파일별 비율은 '우수 적응' 14.1%, '평균 적응' 24.3%, '평균-우수 적응' 24.3%, '부적응' 10.0% 임.
- 중학교 시기의 심리·사회적응 잠재프로파일 분류에 영향을 주는 변인 중 '집단괴롭힘 피해경험'은 부정적 요인으로 밝혀졌고, '가족의 지지', '사회적 지지(학교 내)', '한국문화 수용태도', '어머니나라 문화 수용태도'는 긍정적 요인으로 나타남.
- 고등학교 시기에도 '집단괴롭힘 피해 경험'은 '부적응' 잠재프로파일로 분류될 확률을 높이는 데 유의한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가족의 지지'가 핵심적인 긍정요인인 것으로 나타남.
- 중학교 시기에서 고등학교 시기의 잠재프로파일 전이형태 중에서 '평균 적응'을 유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평균 적응'에서 '우수 적응'으로 전이되는 비율에 비해 '평균 적응'에서 '부적응'으로 전이되는 비율이 다소 높음.
- 중학교 시기 '우수 적응'에서 고등학교 시기 '부적응'으로 전이되는 비율은 가장 낮게 나타남.
- 중학교 시기 '부적응'으로 분류된 다문화청소년의 절반 이상이 고등학교 시기에 '평균 적응' 또는 '평균-우수 적응'으로 전이되는 양상을 보임.
- 중학교와 고등학교 시기의 심리·사회적응의 종단적 변화양상에 영향을 주는 주요 긍정요인으로 '사회적 지지(학교 내)'와 '친한 친구 수'로 나타남.

4)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응 관련 요구도

(1) 설문조사 분석결과

- 다문화가정의 자녀를 위한 특별지원을 경험한 청소년은 본 연구에 참여한 청소년의 절반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며, 2014년 경험률 31.7%에서 2018년 16.4% 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함.
- 유형별 특별지원 경험률을 비교할 때, 방과 후 수업료 지원과 현금지원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심리적응 프로그램의 연도별 경험률은 2~7% 로 매우 낮은 수준임.
- 다문화청소년의 요구도가 가장 높은 지원의 유형은 문화관련 지원과 학원비 지원과 같은 경제적 지원이며,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진로지원에 대한 요구도가 높아짐.
- 다문화청소년의 어머니는 학원비 지원과 같은 경제적 지원에 대한 요구도가 가장 높았고, 자녀의 연령이 올라감에 따라 심리적응 지원에 대한 요구 정도가 높아짐.
- 다문화청소년과 어머니와 달리 교사는 심리적응 프로그램 지원에 대한 요구도가 지속적으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특별지원 방식에 대해 다문화가정임이 드러나지 않는 것을 선호하는 정도는 다문화청소년보다 어머니가 높게 나타남.
- 가정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다문화가정을 지원하는 방식과 가정 형편이 어려운 가정만 지원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비슷한 수준의 선호도를 보임.

(2) 면접조사 분석결과: 다문화청소년

- 면접조사를 통해 파악된 다문화청소년들의 심리·사회적응 현황은 전반적으로 잘 적응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다문화배경으로 인하여 심리적 상처를 경험한 사례가 있으며, 이러한 경험은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는 것에 대해 불안감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함.
- 전반적으로 학교 내 상담실은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 가는 장소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으며, 학교교사에 대한 불신으로 학교는 심리적으로 어려울 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는 곳으로 인식함.
- 지역 심리상담센터에 대한 정보 부재로 인지도는 낮은 수준이며,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측면에서는 도움이 되지만 심리적 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함.
- 대체로 친구나 부모님과 고민 상담을 하지만 공감 이상의 해결책은 없어 답답함을 느낌.
- 상담을 위한 장소로 학교가 접근성 측면에서 좋지만 비밀보장을 우려함.
- 지역의 상담 및 정신보건 관련 기관을 이용하는 것은 비용과 접근성 측면에서 어려움을 느낌.

(3) 면접조사 분석결과: 다문화청소년의 어머니

- 다문화청소년의 어머니들은 자녀가 전반적으로 잘 적응하고 있다고 생각함.
- 대부분의 자녀들은 다문화 배경으로 인한 학교에서의 차별과 같은 부정적 사건 경험이 있으며, 그로 인한 심리적 상처가 남았고, 상대적으로 경제적 수준이 낮은 국가출신의 어머니를 둔 자녀를 대상으로 차별이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함.
- 주변의 차별적 시선과 행동으로 자녀들은 점차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가정에서도 믿을만한 경우가 아니면 다문화배경을 쉽게 드러낼 필요가 없다고 지도함.
- 차별의 주체가 교사인 경우가 다수이며, 교사로부터의 차별적 행동과 언어를 경험한 경우 상처는 더 심함.

- 학교에서 부당한 일을 당해도 부모님에게 말하지 않고 혼자 해결하거나 참고 넘어가는 자녀들이 대다수임.
- 한국국적을 취득한 어머니들의 경우 한국이름으로 개명하는 경우가 많은데, 다문화가정임이 자녀의 학교에 알려져 차별받는 것에 대한 걱정이 개명의 주요 이유임.
-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선별적 지원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며, 특별한 혜택이 제공되지 않으면서 차별만 유발하는 정책으로 인식함.
-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다문화이해교육 등을 통한 사회 전체의 다문화수용성과 민감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지원해주기를 원함.
- 자녀의 심리상담을 위한 주체로 학교에 대한 신뢰와 선호도가 전반적 높으며, 일부 학교에 대한 불신과 비밀보장 측면에서 지역 상담센터를 선호하기도 하지만, 학교 및 지역 상담센터 등 자녀가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함.

(4) 면접조사 분석결과: 다문화청소년 관련 전문가

- 다문화청소년들만의 심리발달에서 나타나는 특성이 존재하므로 이들에 대한 맞춤형 심리상담 및 위기지원방안의 마련이 필요함
- 심리·사회적응의 큰 문제가 발현되기 전 예방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함.
-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응에 있어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부모교육 의무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청소년상담전문가의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이해교육이 시급하며, 의사소통이 어려운 다문화청소년 상담을 위한 상담전문 통역사 양성이 필요함.
-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응 및 위기지원을 위한 효과적인 지역연계모델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5)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응 지원정책 현황

●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아동복지법」 등 국내 청소년관련 법에서는 다문화청소년에 법적 제한이 없음.

● 여성가족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청소년동반자사업, 청소년쉼터,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등의 특성을 분석함.

● 교육부: Wee프로젝트의 사업 내용을 분석함.

● 보건복지부: 드림스타트, 아동보호전문기관,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아동정신건강증진센터 등에 대해 분석함.

● 전반적으로 중앙정부 차원의 각종 지원정책에서 다문화청소년의 배경특성에 다른 제한은 존재하지 않으나 실질적으로 접근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함.

4. 정책제언

● 전략 1. 초기 발굴 및 예방적 접근 시스템 강화

○ 정책과제 1-1. 사례별 접근 시스템 구축

■ 출입국외국인청 미성년 입국자 교육 및 정착지원 연계서비스 제공

■ 다문화청소년 심리지원단 사업 추진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청소년업무 및 사례관리 업무 강화

■ 사례 발굴 및 처리과정에 관한 체계적 지침 제작 및 보급

○ 정책과제 1-2. 정보 및 이용접근성 제고

■ 지역 교육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단위학교 등의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활용한 지역 내 심리·사회적응 및 위기사례 지원 시스템 홍보 확대

○ 정책과제 1-3. 건강한 심리발달 환경 조성

■ 다문화가정 자녀의 심리·사회적응을 위한 부모교육 강화

■ 학생, 교사 등 학교 구성원 대상 다문화이해교육 강화

● 전략 2. 다문화청소년 심리·사회적응 및 위기지원 환경조성

○ 정책과제 2-1. 청소년상담 및 지원인력 다문화 역량강화

■ 청소년상담사, 청소년동반자, 학교전문상담교사 등 일반 청소년 심리·사회적응 지원 전문가 대상 다문화청소년 이해교육 실시

■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연계기관 종사자 대상 다문화청소년 이해교육 강화

■ 다문화청소년 상담매뉴얼 개발

○ 정책과제 2-2. 상담통역전문가 양성 및 전문성 강화

■ 상담통역전문가 양성

■ 상담통역전문가의 기본 행동지침과 업무매뉴얼 개발 및 보급

○ 정책과제 2-3. 통합적 지원 시스템 구축

■ 자녀 상담 시, 부모면담 및 부모교육 의무화 조항 제정

■ 위기사례 발생 시, 학교교사, 상담전문가, 사례관리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다문화청소년통합지원팀을 구성 및 운영

● 전략 3. 지역사회 중심 연계협력시스템 강화

○ 정책과제 3-1. 지역사회 다문화청소년 심리·사회적응 및 위기지원 연계 시스템 구축

■ 출입국외국인청에 미성년 입국자에 대한 지역사회 정보제공을 위한 전담 인력 배치

■ 지역 내 다문화청소년 지원협의체 운영

■ 청소년안전망(CYS-net: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내 다문화청소년 지원 및 교육기관 필수 포함

○ 정책과제 3-2. 다문화청소년의 전담 총괄부서 신설

■ 중앙단위의 다문화청소년 지원 총괄부서 신설

차 례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2019 : 총괄보고서

연구보고 19-R-15

제 1부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의 개요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3
2. 연구 추진경과 ····· 6
3. 연구 추진체계 ····· 8
4. 연구내용 ····· 9
5. 연구방법 ····· 19

Ⅱ. 다문화청소년의 정의 및 현황

1. 다문화청소년의 정의 ····· 27
2. 다문화청소년의 현황 ····· 28

Ⅲ. 1기 패널조사 및 관리

1. 조사개요 ····· 37
2. 표본설계 ····· 39

3. 조사내용 ····· 41
4. 조사절차 및 방법 ····· 81
5. 패널관리 ····· 83
6. 조사대상자 특성 ····· 86
7. 이탈패널 분석 ····· 89
8. 데이터 공개 ····· 101
9. 정기통계품질진단 ····· 105

Ⅳ. 신규패널조사 및 관리

1. 조사개요 ····· 111
2. 신규패널 예비조사 ····· 113
3. 표본설계 ····· 120
4. 조사내용 ····· 138
5. 조사절차 및 방법 ····· 151

제 2부 다문화청소년의 8년간 발달추이

Ⅴ. 다문화청소년의 8년간 발달 추이

1. 분석개요 ····· 161
2. 분석결과 ····· 163
3. 소결 및 시사점 ····· 190

제 3부 심층분석: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응

Ⅵ.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응과 위기지원 정책방안

1.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응에 관한 선행연구 ··· 197
2.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응 현황
   : 패널조사 자료분석 ····· 207
3.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응 관련 요구도 ····· 239
4. 국내 다문화청소년 심리·사회적응 및 위기지원
   정책현황 ····· 334

5. 다문화청소년 심리·사회적응 및 위기지원
정책방안 ····· 364

참고문헌 ····· 391

부 록 ····· 407
: 다문화청소년 패널데이터 활용논문 정리

ABSTRACT ····· 419

표목차

표 Ⅰ-1 대상별 설문지의 종류 ····· 10
표 Ⅰ-2 패널조사자료 분석의 내용과 주요 분석요인 및 변인 ····· 11
표 Ⅰ-3 면접조사 주요 내용 ····· 12
표 Ⅰ-4 전문가 자문회의 참석자 ····· 13
표 Ⅰ-5 전문가 자문회의 개요 ····· 19
표 Ⅰ-6 1기 패널조사 대상 및 내용 ····· 21
표 Ⅰ-7 신규패널조사 대상 및 내용 ····· 22
표 Ⅰ-8 면접조사 대상 및 내용 ····· 22
표 Ⅰ-9 워크숍 내용 ····· 23
표 Ⅰ-10 정책실무협의회 내용 ····· 24
표 Ⅲ-1 지역별 조사 모집단 분포 현황 ····· 39
표 Ⅲ-2 지역별 표본 배분 결과 ····· 40
표 Ⅲ-3 청소년용 설문지 조사영역 및 내용 구성(2011년~2019년) ·· 42
표 Ⅲ-4 학부모용 설문지 조사영역 및 내용 구성(2011년~2019년) ·· 44
표 Ⅲ-5 청소년용 설문지 문항 구성(2011년~2019년) ····· 47
표 Ⅲ-6 학부모용 설문지 문항 구성(2011년~2019년) ····· 60
표 Ⅲ-7 2019년 청소년용 설문지 변경 내용 ····· 73
표 Ⅲ-8 2019년 학부모용 설문지 변경내용 ····· 78
표 Ⅲ-9 연도별 조사기간 ····· 82
표 Ⅲ-10 조사원 교육 일정 ····· 83
표 Ⅲ-11 패널관리 방법 및 내용 ····· 84
표 Ⅲ-12 연구윤리교육 참여 현황(최근 4년간) ····· 86
표 Ⅲ-13 1기 패널 연도별 조사대상 학생 수 ····· 87
표 Ⅲ-14 조사대상자의 성별 분포 ····· 88
표 Ⅲ-15 조사대상자의 지역별 분포 ····· 89
표 Ⅲ-16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 지역별 패널 이탈현황(전체) ····· 90
표 Ⅲ-17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 어머니 출신국별 패널 이탈현황(전체) ·· 91

표 Ⅲ-18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 어머니 출신국별 패널 이탈현황 (2018년도) ····· 92
표 Ⅲ-19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 가구 소득 구간별 패널 이탈현황 (전체) ····· 93
표 Ⅲ-20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 가구 소득 구간별 패널 이탈현황 (2018년) ····· 94
표 Ⅲ-21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 가정형편별 패널 이탈현황(전체) ···· 95
표 Ⅲ-22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 가정형편별 패널 이탈현황(2018년도) ····· 95
표 Ⅲ-23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 어머니 직업여부별 패널 이탈현황 (전체) ····· 96
표 Ⅲ-24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 어머니 직업여부별 패널 이탈현황 (2018년도) ····· 96
표 Ⅲ-25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 어머니 학력별 패널 이탈현황(전체) ·· 97
표 Ⅲ-26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 어머니 학력별 패널 이탈현황 (2018년도) ····· 98
표 Ⅲ-27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 패널 이탈사유(전체) ····· 99
표 Ⅲ-28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 패널 이탈사유(2018년도) ····· 100
표 Ⅲ-29 데이터 활용 건수 ····· 104
표 Ⅲ-30 논문 분석 주제 ····· 105
표 Ⅳ-1 요인별 청소년대상 설문조사문항 ····· 114
표 Ⅳ-2 요인별 어머니대상 설문조사문항 ····· 115
표 Ⅳ-3 예비조사 참여자 특성 ····· 116
표 Ⅳ-4 심층면접 참여자 특성 ····· 117
표 Ⅳ-5 예비조사문항 신뢰도 분석 ····· 118
표 Ⅳ-6 심층면접 도출 내용 ····· 119
표 Ⅳ-7 신규패널 표본설계 내용 ····· 120
표 Ⅳ-8 초등학교 4학년 다문화청소년의 시/도별 분포 현황 - 국제결혼가정의 국내 출생 자녀 ····· 121
표 Ⅳ-9 초등학교 4학년 다문화청소년의 시/도별 분포 현황 - 국제결혼가정의 중도입국 자녀 ····· 122
표 Ⅳ-10 초등학교 4학년 다문화청소년의 시/도별 분포 현황 - 외국인가정 자녀 ····· 123
표 Ⅳ-11 초등학교 4학년 다문화청소년의 시/도별 분포 현황 - 다문화가정 자녀 전체 ····· 123

표 Ⅳ-12 부모의 출신국가별, 시/도별 다문화가정 학생 수 현황
- 초등학교 4학년 기준 ····· 124
표 Ⅳ-13 다문화가정 학생이 존재하는 초등학교 분포
- 초등학교 4학년 기준 ····· 127
표 Ⅳ-14 다문화가정 유형별 표본배분 결과 및 비교 ····· 129
표 Ⅳ-15 다문화가정 유형별 시/도별 표본배분 결과 ····· 130
표 Ⅳ-16 다문화가정 유형별 시/도별 추가 표본배분 ····· 131
표 Ⅳ-17 다문화가정 유형별 시/도별 표본 학교 수 ····· 132
표 Ⅳ-18 신규패널 조사를 위한 6종 설문지 ····· 139
표 Ⅳ-19 청소년 설문지의 문항별 출처 및 수정내용 ····· 140
표 Ⅳ-20 어머니 설문지의 문항별 출처 및 수정내용 ····· 146
표 Ⅳ-21 조사원 교육 일정(신규패널) ····· 157
표 Ⅴ-1 다문화청소년 8년간 변화추이 비교 영역(2011년~2018년)
····· 162
표 Ⅴ-2 월 평균 소득수준 변화추이 ····· 164
표 Ⅴ-3 아버지에 대한 자랑스러움 변화추이 ····· 165
표 Ⅴ-4 어머니에 대한 자랑스러움 변화추이 ····· 165
표 Ⅴ-5 부모의 양육태도(감독) 변화추이 ····· 166
표 Ⅴ-6 부모의 양육태도(방임) 변화추이 ····· 167
표 Ⅴ-7 학교생활에서 친구들과 어려운 점(중복응답) 변화추이 ····· 168
표 Ⅴ-8 학교공부에서 어려운 점 변화추이 ····· 170
표 Ⅴ-9 집단괴롭힘 피해경험 변화추이 ····· 171
표 Ⅴ-10 학교성적 수준 변화추이 ····· 172
표 Ⅴ-11 성적에 대한 만족도 변화추이 ····· 173
표 Ⅴ-12 성취동기 변화추이 ····· 174
표 Ⅴ-13 학업적 포부수준 변화추이 ····· 175
표 Ⅴ-14 삶의 만족도 변화추이 ····· 176
표 Ⅴ-15 신체만족도 변화추이 ····· 176
표 Ⅴ-16 우울 변화추이 ····· 177
표 Ⅴ-17 사회적 위축 변화추이 ····· 178
표 Ⅴ-18 비행경험 변화추이 ····· 179
표 Ⅴ-19 친한 친구의 수 변화추이 ····· 180
표 Ⅴ-20 가족의 지지 변화추이 ····· 181
표 Ⅴ-21 학교 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와주는 어른이 있는지 여부
변화추이 ····· 182

표 Ⅴ-22 학교 밖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와주는 어른이 있는지 여부 변화추이 ····· 183
표 Ⅴ-23 국적에 대한 인식 변화추이 ····· 184
표 Ⅴ-24 한국인정체성 변화추이 ····· 185
표 Ⅴ-25 다문화수용성 변화추이 ····· 185
표 Ⅴ-26 이중문화수용태도(전체) 변화추이 ····· 186
표 Ⅴ-27 이중문화수용태도(한국문화) 변화추이 ····· 187
표 Ⅴ-28 이중문화수용태도(외국인 부모님 나라문화) 변화추이 ····· 187
표 Ⅴ-29 키 변화추이 ····· 188
표 Ⅴ-30 몸무게 변화추이 ····· 189
표 Ⅴ-31 건강상태에 대한 주관적 인식 변화추이 ····· 190
표 Ⅴ-32 2011-2018 8년간 변화추이 주요 분석결과 ····· 194
표 Ⅵ-1 삶의 만족도 ····· 210
표 Ⅵ-2 신체만족도 ····· 211
표 Ⅵ-3 우울 ····· 213
표 Ⅵ-4 사회적 위축 ····· 214
표 Ⅵ-5 모형 적합도 ····· 219
표 Ⅵ-6 2015년(중2 시기) 심리·사회적응 잠재프로파일 분류 영향 요인 ····· 228
표 Ⅵ-7 2018년(고2 시기) 심리·사회적응 잠재프로파일 분류 영향 요인 ····· 230
표 Ⅵ-8 2015-2018년 심리·사회적응 잠재프로파일전이 영향 요인 ·· 231
표 Ⅵ-9 패널조사 자료분석 주요결과 ····· 237
표 Ⅵ-10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지원 경험 여부(2014~2018년) ·· 241
표 Ⅵ-11 지원 유형별 경험률(2014~2016년) ····· 242
표 Ⅵ-12 지원 유형별 경험률(2017~2018년) ····· 242
표 Ⅵ-13 지원받은 프로그램의 도움 정도(2014~2018년) ····· 243
표 Ⅵ-14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특별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 ·· 244
표 Ⅵ-15 지원 유형별 요구도(2014~2016년): 다문화청소년 ····· 246
표 Ⅵ-16 지원 유형별 요구도(2017~2018년): 다문화청소년 ····· 246
표 Ⅵ-17 지원 유형별 요구도(2014~2016년): 다문화청소년의 어머니 ····· 247
표 Ⅵ-18 지원 유형별 요구도(2017~2018년): 다문화청소년의 어머니 ····· 247
표 Ⅵ-19 지원 유형별 요구도(2014~2016년): 교사 ····· 248

표 Ⅵ-20 교사가 인식하는 지원 프로그램의 효과성(2016) ····· 250
표 Ⅵ-21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특별지원의 방식에 대한 의견 ···· 251
표 Ⅵ-22 국가의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지원의 방식에 대한 의견 ····· 252
표 Ⅵ-23 다문화청소년을 위한 지원 요구도 관련 주요 패널자료 ㅋ 분석결과 ····· 255
표 Ⅵ-24 면접조사대상자 개요 ····· 257
표 Ⅵ-25 1기 패널 다문화청소년 및 어머니 ····· 257
표 Ⅵ-26 신규패널 학부모 ····· 258
표 Ⅵ-27 면접조사의 주요 내용 ····· 260
표 Ⅵ-28 면접조사의 도출 결과 ····· 310
표 Ⅵ-29 전문가 자문회의 참석자 개요 ····· 313
표 Ⅵ-30 전문가 자문회의 참석자 특성 ····· 314
표 Ⅵ-31 자문회의 주요 내용 ····· 315
표 Ⅵ-32 자문회의 도출결과: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응의 특수성 ····· 318
표 Ⅵ-33 자문회의 도출결과: 가정환경의 중요성 ····· 319
표 Ⅵ-34 자문회의 도출결과: 초기 단계의 예방적 지원시스템 구축의 중요성 ····· 320
표 Ⅵ-35 자문회의 도출결과: 다문화청소년 상담의 특성 및 요구 ··· 322
표 Ⅵ-36 자문회의 도출결과: 청소년관련 전문가 역량강화의 필요성 ····· 324
표 Ⅵ-37 자문회의 도출결과: 지역연계의 필요성 및 한계 ····· 326
표 Ⅵ-38 자문회의 도출결과: 청소년안전망(CYS-net: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작동의 어려움 ····· 328
표 Ⅵ-39 자문회의 도출결과: 다문화청소년 지원의 제한 ····· 330
표 Ⅵ-40 자문회의 도출결과: 전체 요약 ····· 331
표 Ⅵ-41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개요 ····· 343
표 Ⅵ-42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CYS-Net ····· 344
표 Ⅵ-43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의 개요 ····· 346
표 Ⅵ-44 청소년쉼터의 개요 ····· 347
표 Ⅵ-45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사업의 개요 ····· 349
표 Ⅵ-46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의 개요 ····· 351
표 Ⅵ-47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무지개청소년센터의 개요 ····· 353
표 Ⅵ-48 Wee프로젝트의 개요 ····· 355

표 Ⅵ-49 드림스타트 사업의 개요 ····· 357
표 Ⅵ-50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개요 ····· 359
표 Ⅵ-51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의 개요 ····· 360
표 Ⅵ-52 아동·청소년정신건강복지센터의 개요 ····· 362
표 Ⅵ-53 본 연구의 도출 결과 요약 ····· 367
표 Ⅵ-54 정책과제별 추진로드맵 ····· 389

그림목차

그림 Ⅰ-1. 연차별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 및 연구주제 ····· 7
그림 Ⅰ-2.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 유지율 ····· 8
그림 Ⅰ-3. 2019년도 연구 추진체계 ····· 8
그림 Ⅰ-4.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의 조사모형 ····· 9
그림 Ⅰ-5. 연구의 흐름도 ····· 18
그림 Ⅱ-1. 부모배경 및 출생지에 따른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구분 ···· 28
그림 Ⅱ-2. 다문화 출생아 수 및 전체 출생 중 다문화 비중 (2008~2017) ····· 30
그림 Ⅱ-3. 연령별 외국인주민 자녀 현황(2017년) ····· 31
그림 Ⅱ-4. 학교급별 다문화학생 현황(2012, 2018) ····· 32
그림 Ⅱ-5. 다문화학생 현황 변화 추이(2012~2018년) ····· 33
그림 Ⅲ-1. 1기 패널조사 핵심 주제 및 주요 연구 내용 ····· 38
그림 Ⅲ-2. 1기 패널조사 조사 참여 안내문 및 동의서 ····· 71
그림 Ⅲ-3. 1기 패널가구 표본 유지율 ····· 87
그림 Ⅲ-4. 데이터 신청서 양식 ····· 102
그림 Ⅲ-5. 통계품질진단 흐름도 ····· 107
그림 Ⅳ-1. 신규패널조사 추진절차 및 내용 ····· 112
그림 Ⅳ-2. 신규패널 조사문항설계 방향 및 원칙 ····· 138
그림 Ⅳ-3. 신규패널조사 단계별 추진과정 ····· 152
그림 Ⅳ-4. 신규패널 조사 참여 안내문 및 조사 참여 동의서 ····· 154
그림 Ⅳ-5. 신규패널조사 실시 안내 배너 ····· 156
그림 Ⅵ-1. 심층모형분석 3단계 ····· 218
그림 Ⅵ-2. 모형 적합도 비교 ····· 220
그림 Ⅵ-3. 2015년(중2 시기) 잠재프로파일 유형 ····· 221
그림 Ⅵ-4. 2018년(고2 시기) 잠재프로파일 유형 ····· 223
그림 Ⅵ-5. 2015-2018년 잠재프로파일 전이형태 ····· 225
그림 Ⅵ-6. 최종 연구모형 ····· 226

그림 Ⅵ-7. 다문화가정의 자녀를 위한 특별지원의 요구 정도 ····· 244
그림 Ⅵ-8.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심리적응 지원프로그램의 요구 정도 ····· 249
그림 Ⅵ-9. 다문화가정임이 드러나지 않게 지원하는 방식의 요구 정도 ····· 251
그림 Ⅵ-10. 가정형편에 상관없이 모든 다문화가정을 지원하는 방식의 요구 정도 ····· 253
그림 Ⅵ-11. 본 연구의 정책제언 도출 절차 ····· 366
그림 Ⅵ-12. 다문화청소년 심리·사회적응 및 위기지원정책의 방향과 과제 ····· 376
그림 Ⅵ-13. 다문화청소년 심리·사회적응 및 위기지원을 위한 지역사회연계시스템(안) ····· 388

제 I 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 추진경과
3. 연구 추진체계
4. 연구내용
5. 연구방법

서 론[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 사회가 다문화화 되어감에 따라 다문화청소년의 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고, 다문화청소년 구성도 과거에 비해 다양해지고 있다. 다문화청소년들이 우리 사회의 관심대상으로 등장했던 초기 당시에는 주로 국내출생 다문화청소년들이 대다수였고 주요 관심의 대상이었던 것에 비하여, 최근 들어서는 외국에서 출생하여 입국한 이주청소년과 국내에서 출생했으나 부모 모두 외국출생인 청소년, 최근 들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난민청소년 등 보다 다양한 청소년들에 대한 이해 및 현황파악이 요구되고 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2011년부터 다문화청소년의 적응과 통합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종단패널연구를 추진해왔으며, 이 연구를 통해 다문화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기여하고자 노력해 왔다. 그러나 다문화청소년 정책이 추진되던 초기와 달리 다문화의 지형이 변화하여 어린 연령층의 청소년들을 위주로 하는 정책에는 한계가 있고, 점차 자라나는 다문화청소년들의 진로, 취업, 결혼, 군 입대 등 보다 다양한 청년기 이슈들이 다루어질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또한 이와 더불어 최근 들어 외국에서 출생 및 성장한 후 한국으로 입국하는 청소년들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다.

1) Ⅰ장은 양계민(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집필함.

다문화청소년정책 초기 정책의 관심은 다문화집단의 사회통합과 다문화청소년의 인적자원으로써의 개발이라는 관점이었다고 생각된다. 그러한 관점이 잘못된 것은 아니나, 자칫 우리 사회에 통합될 가치가 있는 청소년 또는 인적자원으로써의 가치가 있는 청소년만이 지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가정을 하게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아직 성인의 연령에 도달하지 않은 만 18세 이하의 모든 청소년들은 그들의 사회적 가치와 상관없이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의하여 생존권, 보호권, 참여권, 발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이와 관련하여 협약이행의 의무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이면 누구든지 그들의 국적, 종교, 인종과 상관없이 그들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United Nations 2019)[2]. 국내출생 다문화청소년의 경우는 대부분 한국국민이므로 청소년 대상 지원에서 특별히 배제되거나 하는 일은 없다. 그러나 제도적으로 배제되지 않는 것이 실제 지원을 받는 데 문제가 없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한국국적을 지니지 않은 외국인가정자녀와 중도입국청소년들의 경우는 국내출생 다문화청소년들과는 상황이 다르기에, 중도입국청소년 또는 외국인가정자녀의 발달현황과 기본적인 권리 보장 현황 등에 대해서도 기초자료를 파악하고 올바른 정책 방향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는 기존의 국내출생 다문화청소년으로 구성된 1기 패널을 보다 장기적으로 추적함으로써 이들의 청년기, 성인기로의 이행을 파악하는 동시에 새로이 신규패널을 구축함으로써 한국사회의 변화된 다문화적 상황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기존의 타 패널연구와 달리 본 연구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는 단순히 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하는 데에만 목적이 있지 않다. 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나 그 목적은 다문화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을 위한 정책방안 마련

2) United Nations (2019).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1989). https://www.unhcr.org/uk/4aa76b319.pdf 에서 2019년 10월 10일 인출.

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단순히 조사만을 하기 보다는 다양한 방식으로 다문화청소년의 현황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정책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한국의 다문화청소년 지형은 매우 급속하게 다변화하고 있기에 현장의 변화하는 상황을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해진 조사만을 추진하는 것은 실제 사회현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의 목적은 첫째, 다문화청소년의 발달에 대한 기초자료를 구축하고, 다문화청소년의 발달추이를 분석함으로써 다문화청소년에 관한 과학적 정책수립과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구축한 기초자료 및 정책현황분석을 통하여 다문화청소년들을 위한 정책의 방향성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것이다(양계민, 황진구, 연보라, 정윤미, 2018: 5). 이 중 2019년도의 중점목표는 첫째, 1기 패널의 9차 패널조사를 추진하는 것, 둘째, 신규패널을 구축하고 자료를 수집하는 것, 셋째, 올해의 심층주제인 심리·사회적응과 관련된 결과를 분석하고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연구의 목적	■ 다문화청소년의 발달에 대한 기초자료 구축하고, 다문화청소년의 발달추이를 분석함으로써 다문화청소년에 관한 과학적 정책수립 및 추진의 근거를 마련함. ■ 구축한 기초자료 및 정책현황분석을 통하여 다문화청소년들을 위한 정책의 방향성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함.

2019년 중점목표	■ 1기 패널 2019년도 패널자료 구축 ■ 신규패널 패널구축 및 자료수집 ■ 다문화청소년들의 심리·사회적응 및 위기지원방안 모색

* 본 연구의 다문화청소년은 '부모님 중 한 명 이상이 이주의 배경을 지닌 9세에서 24세 까지의 청소년'을 의미하며, 출생지를 기준으로 볼 때, 국내출생자와 외국출생자를 모두 포함한다.
* 출처: 양계민 외(2018: 6) 수정

2. 연구 추진경과

본 연구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총 9년간 3단계에 걸쳐 연구를 수행하였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발달과정 추적을 위한 종단연구」라는 명칭으로 3년간 1단계 연구가 수행되었다. 2010년에는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 종단연구를 위한 예비조사가 실시되었으며, 2011년에는 종단연구의 본조사가 시작되었다. 2011년에 본조사와 취약계층 청소년과의 비교 연구가 실시되었으며, 2012년에는 일반가정 청소년과의 비교연구가 실시되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라는 명칭으로 5년간 2단계 연구가 수행되었다. 1단계 연구에서는 집단 대 집단의 비교연구가 실시되었으나, 2단계 연구에서는 다문화청소년 발달단계별 주요주제를 선정하여 다문화청소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았다. 2단계 연구가 시작된 2013년에는 다문화청소년들의 학업 및 학교생활의 변화를 살펴보았고, 2014년에는 심리, 정서, 사회적응, 문제행동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2015년에는 자아정체성 및 이중문화정체성에 대해 연구하였으며, 2016년에는 진로의식 및 태도를 다루었다. 2단계 연구의 마지막 해인 2017년에는 그 간의 연구를 총정리하고 전반적인 발달양상에 대한 종단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후 2018년부터는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라는 명칭으로 3단계 연구가 시작되었다. 2018년에는 기존의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적하며, 이들의 진로발달 및 진로관련 요구를 분석하였다. 또한 3단계 연구의 첫 해인 2018년에는 기존패널에 더하여 새로운 패널구축을 위한 예비연구로 표본설계, 조사문항구성, 예비조사 등이 추진되었다.

2019년 연구는 1단계 구축한 패널에 대한 조사와 2018년 예비조사를 추진한 신규패널 구축 연구가 추진되었다. 따라서 현재 고등학교 3학년인 1기 패널조사와 현재 초등학교 4학년인 청소년 대상의 신규패널조사가 동시에 이루어졌다.

단계	과제명	연도	WAVE	학년	연구내용 및 주제
1단계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발달과정 추적을 위한 종단연구	2010년	예비조사	초4	예비조사
		2011년	WAVE1	초4	취약계층 청소년과 비교
		2012년	WAVE2	초5	일반가정 청소년과 비교
2단계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2013년	WAVE3	초6	학업 및 학교생활
		2014년	WAVE4	중1	심리, 정서, 사회적응, 문제행동
		2015년	WAVE5	중2	자아정체성 및 이중문화정체성
		2016년	WAVE6	중3	진로의식 및 태도
		2017년	WAVE7	고1	총체적 발달
3단계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2018년	WAVE8	고2	진로발달현황 및 요구
			예비조사	초4	예비조사
		2019년	WAVE9	고3	심리·사회적응
			WAVE1	초4	-

* 출처: 양계민 외(2018: 8) 그림 I -2 수정

그림 I-1. 연차별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 및 연구주제

1기 패널의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는 2011년 전국의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다문화청소년이 속한 1,625가구를 표집하여 본조사에 착수하였다. 2018년에는 총 1,220가구가 조사에 참여하여, 현재 패널 유지율은 75.1%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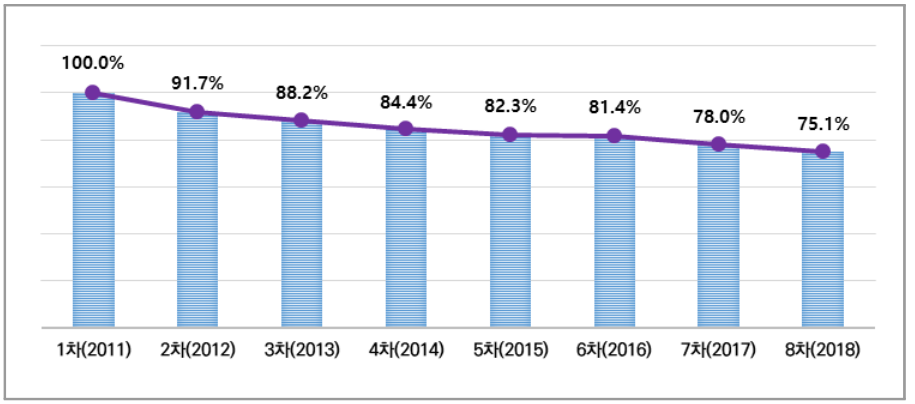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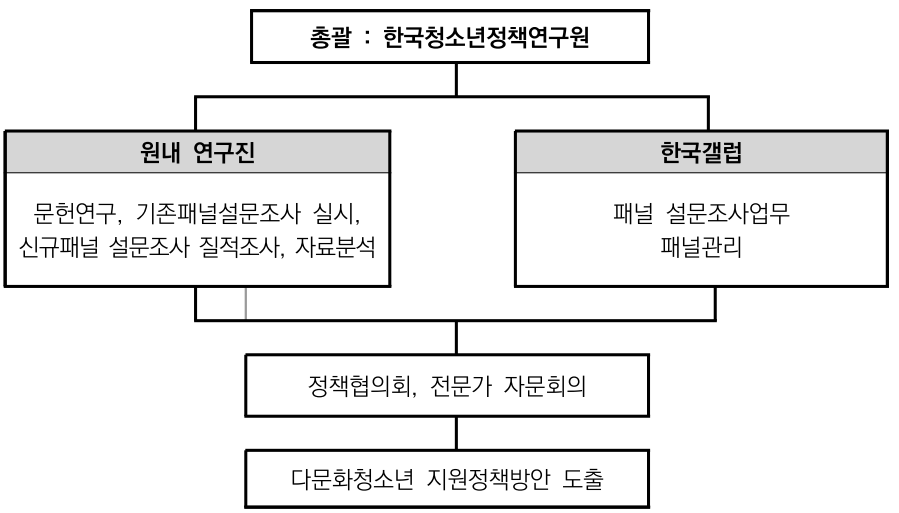


그림 I-2.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 유지율

3. 연구 추진체계



* 출처: 양계민, 윤민종, 신현옥, 최홍일(2016: 11) 그림 Ⅰ-3 수정

그림 I-3. 2019년도 연구 추진체계

4. 연구내용

2019년도 연구의 주요 내용은 크게 볼 때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기존의 1기 패널조사와 신규패널 구축, 그리고 정책연구이다. 1기 패널조사는 앞에서 이미 기술한 바와 같이 2011년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구축하여 현재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고, 최고 청소년연령인 24세까지 추적을 할 예정이다. 또한 이와 더불어 올해 시작되는 신규패널 역시 1기 패널과 동일하게 2019년 현재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패널을 구축할 예정이며 역시 24세까지 추적조사 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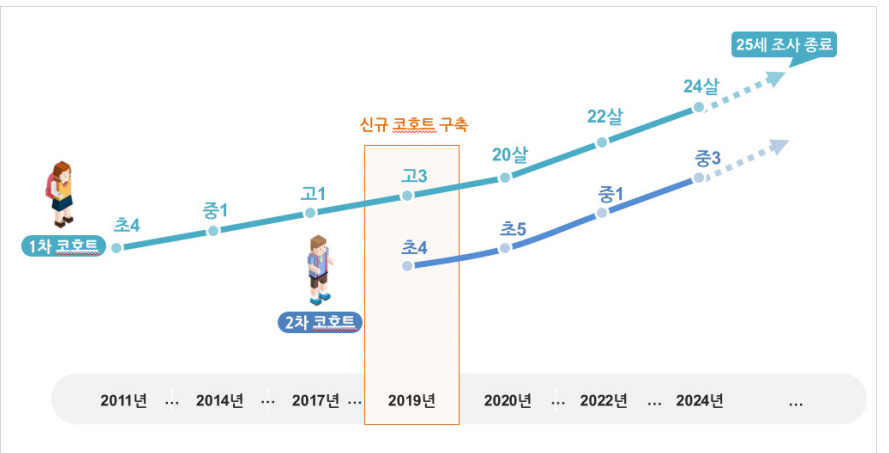


그림 I-4.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의 조사모형

2019년도 주요 연구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1기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

(1) 1기 패널 추적조사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2019」의 주요한 연구내용 중 하나는 기존에 구축한 패널을 조사하고 유지하는 것이다. 2018년까지 조사 된 가구는 총 1,220가구이며, 1,220가구를 대상으로 9차년도(2019년) 조사를 실시하였다. 2019년은 기존의 1기 패널이 고등학교 3학년이 되는 시기로 고3 시기에 적합한 문항을 중심으로 소폭 수정을 거쳐서 문항수정을 완수하였고, 수정된 문항을 중심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현재 시점으로 1기 패널의 조사 완료율은 2018년도 패널 유지가구 1,220가구 중 1,164가구로 전년 대비 95.4%가 유지된 상태이다. 조사대상자는 일반가구, 학업중단청소년가구, 재참여가구 등 총 3종으로 구분하여 각 집단별로 청소년용, 부모용(외국인부모, 한국인부모, 대체양육자)으로 나누어 추진하였다. 외국인부모용 설문지는 대만어, 러시아어, 몽골어, 베트남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태국어, 필리핀어 총 9개 국어로 변역하여 조사하였다.

표 I-1 대상별 설문지의 종류

범주	일반가구	학업중단청소년가구	재참여가구
설문 종류	■ 청소년용 설문지 ■ 부모용 설문지 • 외국인부모용 설문지 • 한국인부모용 설문지 • 대체양육자용 설문지	■ 청소년용 설문지 ■ 부모용 설문지 • 외국인부모용 설문지 • 한국인부모용 설문지 • 대체양육자용 설문지	■ 청소년용 설문지 ■ 부모용 설문지 • 외국인부모용 설문지 • 한국인부모용 설문지 • 대체양육자용 설문지
비고	※ 외국인부모용 설문지는 9개 국어로 번역된 번역본이 함께 제시됨: 대만어, 러시아어, 몽골어, 베트남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태국어, 필리핀어 ※ 대체양육자 설문지는 현재 어머니가 주 양육자가 아닌 경우 청소년의 양육을 맡고 있는 어른이 작성함.		

* 출처: 양계민 외(2016: 13) 표 Ⅰ-2 수정

(2) 패널조사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구축한 패널조사자료 분석은 크게 세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분석되었다. 첫째, 2011년부터 2018년까지 다문화청소년의 8년간 발달추이 분석으로, ⅰ)가정요인, ⅱ)학교생활 및 성취요인, ⅲ)심리·사회적응요인, ⅳ)정체성요인, ⅴ)신체발달 및 건강요인 등 총 다섯까지 영역을 중심으로 8년간 변화를 비교분석하였다. 둘째,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응 현황에 대한 분석으로 중학교와 고등학교 재학기간 동안의 변화양상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심리·사회적응 영역에 해당하는 변인 중 중학교와 고등학교 조사시점에서 공통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진 ⅰ)삶의 만족도, ⅱ)신체만족도, ⅲ)우울, ⅳ)사회적 위축 등을 중심으로 기초 및 심층모형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다문화청소년의 요구도와 관련된 분석으로 ⅰ)다문화청소년 대상 지원프로그램의 경험유무, ⅱ)다문화청소년 대상 특별지원프로그램의 필요성(심리적응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를 중심으로), ⅲ)다문화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지원방식에 대한 의견 등 총 세 가지 영역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표 Ⅰ-2 패널조사자료 분석의 내용과 주요 분석요인 및 변인

분석내용	주요 분석 요인 및 변인
1. 다문화청소년의 8년간 발달 추이 분석	■ 가정요인 ■ 학교생활 및 성취요인 ■ 심리·사회적응요인 ■ 정체성요인 ■ 신체발달 및 건강요인
2.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응 현황	■ 삶의 만족도 ■ 신체만족도 ■ 우울 ■ 사회적 위축
3. 다문화청소년의 요구도	■ 다문화청소년 대상 지원프로그램 경험 ■ 다문화청소년 대상 특별지원의 요구도 ■ 다문화청소년 지원방식에 대한 의견

(3) 면접조사

면접조사는 2019년도 연구주제인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응 현황과 정책적 지원실태 및 요구도 파악을 위하여 수행되었다. 면접조사대상은 본 조사에 참여하고 있는 1기 패널 참여자 14명과 그들의 어머니 14명, 그리고 신규로 구축하고 있는 현재 초등학교 4학년 청소년의 학부모 20명 등 총 48명 이었다. 초등학교 4학년의 경우 심리·사회적응과 관련된 면접조사를 하기에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여 다문화청소년은 현재 고등학교 3학년인 1기 패널 참여자로 한정하였다. 각 대상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I-3 면접조사 주요 내용

조사대상	조사대상자	조사내용
다문화 청소년	■ 1기 패널 참여자 청소년 총 14명(서울·경기지역 5명, 대구·경북지역 4명, 광주·전남지역 5명)	■ 심리적 어려움 ■ 차별경험 및 차별 시 대처방법 ■ 학교 및 지역사회상담에 대한 인식, 이용경험 ■ 심리·사회적응을 위한 요구도 (※ 어머니는 동일한 내용에 대하여 자녀를 중심으로 질문)
어머니	■ 1기 패널 참여 청소년의 어머니 총 14명(서울·경기지역 5명, 대구·경북지역 4명, 광주·전남지역 5명) ■ 신규패널 참여 청소년의 어머니 총 20명(서울·경기지역 5명, 대구·경북지역 4명, 광주·전남지역 5명, 대전충청지역 6명	

(4) 전문가 자문회의

본 연구에서 두 가지 목적을 위하여 전문가 자문회의를 실시하였다. 첫째는 신규패널 조사지 개발을 위하여 전년도에 개발 및 조사된 예비조사 설문내용을 최종 결정하기 위한 절차였고, 둘째는 다문화청소년들의 심리·사회적응 현황을 보다 객

관적으로 파악하고 정책적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하기 위한 절차였다. 전문가 자문회의 개요는 아래와 같다.

표 I-4 전문가 자문회의 참석자

주제	참석자
1. 신규패널 설문지 검토	■ 현장전문가 및 학계 전문가 총 5명
2. 다문화청소년 심리·사회적응 현황 및 지원방안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청소년사업 담당자 4명 ■ 다문화청소년 관련 현장전문가 6명 ■ 상담교사 및 상담사 7명 ■ 청소년상담복지센터전문가 3명

(5) 통계품질진단

본 연구는 2013년 국가승인을 받았고(승인번호 제402003호), 2014년 통계청의 정기통계품질진단을 1차로 받았다. 정기 품질진단의 주기는 5년으로, 2019년 다시 정기통계품질진단 대상 통계로 선정되어 2차 품질진단을 받았다. 그 결과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의 정기통계품질진단결과 6개 품질차원별로 보았을 때, 관련성에서 4.8점, 정확성에서 4.8점, 시의성/정시성에서 4.5점, 비교성에서 5.0점, 일관성에서 5.0점, 접근성/명확성에서 3.0점을 받아서 전체 평점은 5점 만점에 4.5점을 획득하였다. 이에 대해 가중치 및 추가점수를 반영한 최종 점수는 총점 97.6점을 획득하여 본 연구를 통해 생산하는 통계의 품질이 우수함을 확인하였다.

(6) 데이터 공개작업

데이터 공개를 위한 작업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는 이미 2018년에 공개된 1~6차년도의 데이터(2011년~2016년)에 대한 공개작업이다. 본 연구

의 경우 기존의 데이터 공개는 연구계획서를 받아서 일정 절차를 거친 후 제공되는 방식이다. 따라서 연구계획서를 받아서 내용을 검토한 후 본 데이터로 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계획서에 대하여 데이터 활용관련 유의사항 및 보완서약서를 받고 개별적으로 전송하고 있다. 연구계획서를 미리 받아서 검토 후 데이터를 공개하는 이유는 본 데이터를 활용하는 연구자들로 하여금 자신이 작성하는 논문이 어떤 의미를 지닐 수 있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보고 책임 있는 결과를 산출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데이터 공개작업의 두 번째는 2017년도 조사자료에 대한 데이터 공개를 위한 준비작업이다. 이를 위해서는 데이터 클리닝을 진행함과 동시에 공개 데이터에 대한 설문지, 유저가이드, 코드북 등도 공개 가능한 형식으로 수정 보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최종 클리닝된 데이터와 관련 자료는 12월 31일까지 본 원의 홈페이지를 통해 기존 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2) 신규패널 구축

(1) 예비조사결과 분석

본 연구에서는 신규패널 구축 및 자료수집을 위하여 2018년 예비조사를 추진한 바 있다. 따라서 2기 신규패널조사에 앞서 조사의 타당성을 제고하고자 신규패널 예비조사 결과를 분석하였다. 예비조사 결과 분석을 통해서 조사방법과 조사내용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것이 주요 목적인데, 첫째, 조사방법과 관련하여 학교를 통한 패널조사 대상자 접촉의 타당성, 효율적 접촉방안 방안, 조사과정의 어려움이나 문제점 등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고, 둘째, 조사내용과 관련한 사항으로 신규패널로 구성한 설문내용의 타당성과 적절성을 파악하였다. 즉, 조사대상자들의 설문내용에 대한 이해도, 설문문항 로직의 타당성, 설문문항의 타당성, 인권침

해요소 등을 파악하였다. 또한 한국어 이해가 어려운 청소년들의 경우 조사원 매칭방안(통역자 포함 등)에 대해서도 모색하고자 하였다.

(2) 신규패널 표본설계

신규패널 구축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8년에 표본설계연구를 추진한 바 있으나, 예산을 고려한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2019년도 신규패널 본조사를 위한 예산, 조사기간, 대상자 특성 등을 고려한 유형별 표본설계를 추진하고 그에 근거하여 본조사를 실시하고자 하였다. 특히 신규패널의 경우, 1기 패널조사와 달리 중도입국청소년과 외국인가정자녀를 포함한 표본 설계를 추진하였다. 조사 모집단은 2019년 기준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국제결혼가정자녀, 중도입국자녀, 외국인가정자녀와 그들의 어머니로 표본추출 틀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자료이며, 표본의 규모는 전국 2,100명으로 설계하였다.

(3) 신규패널 설문지 수정

신규패널 설문지는 2018년 연구에서 이미 개발된 바 있고, TAPI(Tablet Assisted Personal Interviewing)시스템을 구축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따라서 2019년에는 예비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다문화청소년, 학부모, 학교교사, 현장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설문문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설문문항을 도출하였다. 최종 설문지를 토대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IRB위원회에 심사를 받고, 심사를 통과한 후 TAPI 시스템을 수정하고, 총 9개 나라의 언어로 번역작업을 실시하였다. 외국어 번역작업은 최대한 내용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번역, 역번역의 작업을 거친 뒤, 최종적으로 다시 전문가의 감수를 받아 최종본을 확정하였다.

(4) 통계승인

최종적으로 신규패널 표본설계와 조사문항 수정을 마친 후 설문지 및 조사과정에 대하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IRB를 통과하였고(승인번호: 201904-HR-고유-002-01), 통계변경승인을 획득하였다(승인번호: 제402003호).

(5) 신규패널조사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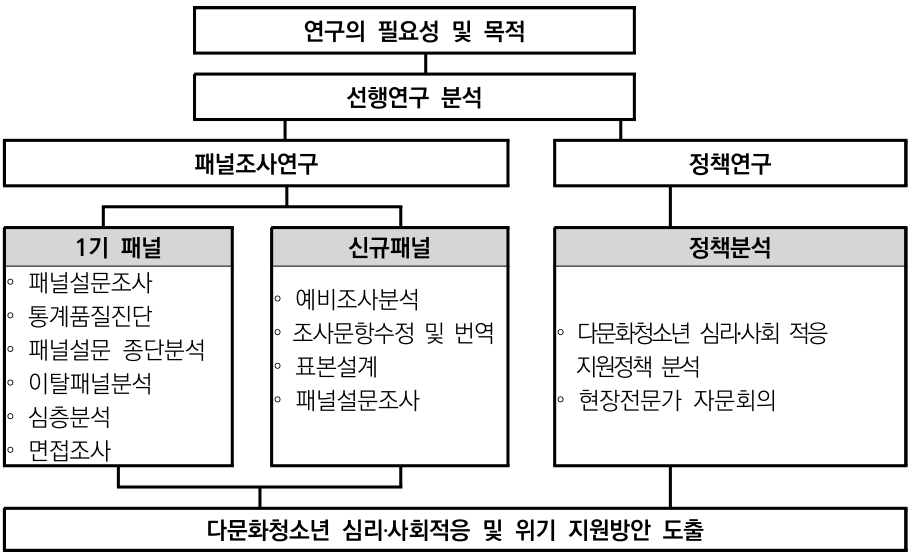
신규패널조사의 경우 1차 패널구축이기에 통계승인 후 각 교육부가 전국 시·도 교육청에 조사안내 및 협조공문을 발송하고, 각 시·도교육청에서 표본으로 선정된 단위학교로 공문을 전달한 후, 학교 내에서는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초등학교 4학년 다문화청소년의 학부모를 먼저 접촉하여 조사승낙이 이루어진 후, 학부모 동의서 및 청소년 동의서를 받은 후 조사를 추진하였다. 신규패널의 표본추출틀은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통계로, 표본규모는 교육부 분류기준으로 국내출생, 중도입국, 외국인가정 자녀 모두 포함한 총 2,100명이 목표이다.

3) 정책연구

앞에서 이미 한번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는 종단연구이나 기존의 타 패널조사와 달리 다문화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 데이터 생산 및 기초분석에 그 목적을 두고 있지 않다. 다문화청소년의 발달에 대한 기초자료를 구축하고, 다문화청소년의 발달추이를 분석함으로써 다문화청소년에 관한 과학적 정책수립 및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고, 동시에 구축한 기초자료 및 정책현황 분석을 통하여 다문화청소년들을 위한 정책의 방향성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개발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양계민, 황진구, 연보라, 정윤미, 2018: 5). 이러한 연구목

적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연구사업으로 단순히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다문화청소년 지원정책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기 어렵고, 개인연구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매년 주제를 정하여 다문화청소년의 당면과제 및 향후 우리 사회의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모색해 왔다. 2019년의 주제는 심리·사회적응으로 과거 2014년에 한번 다룬 적이 있다. 그러나 2014년의 경우 전반적인 심리·사회적응을 중심으로 포괄적으로 다루었고, 2019년에는 심리·사회적 적응에 대한 지원시스템에 대한 분석, 그리고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차별 등을 중심으로 보다 집중적인 분석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흐름도를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즉, 본 연구에서는 1기 패널과 신규 패널 2개의 코호트를 유지하고 동시에 정책연구를 통하여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응 및 위기지원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출처: 양계민 외(2016: 16) 그림 Ⅰ-4 수정

그림 Ⅰ-5. 연구의 흐름도

5. 연구방법

1) 문헌연구

문헌연구에서는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응과 관련된 주요 변인들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부모요인, 사회적 지지요인, 문화적응요인, 차별 및 괴롭힘 피해경험과 관련하여 다문화청소년들의 심리·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중심으로 국내외 선행연구를 분석하였다. 또한 이와 더불어 국내의 청소년 대상 심리·사회적응 및 위기지원정책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현재 존재하는 각종 심리·사회적응 및 위기지원 정책에 대한 다문화청소년의 접근성 및 이용상의 한계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2) 전문가 자문

전문가 자문회의는 크게 세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추진하였다. 첫째는 2018년에 개발된 신규패널 설문지 예비조사지의 타당성과 적합성, 특히 인권침해의 요소 등에 대하여 학계 및 현장전문가 대상 전문가 자문회의를 실시하였다. 둘째는 정책의 방향 및 정책과제 도출을 위하여 현장전문가, 교사, 청소년상담센터실무자 등 다양한 관련전문가를 대상으로 자문회의를 실시하였다.

표 I-5 전문가 자문회의 개요

분류	No	성명	소속	일시
신규패널설문지 검토	1	김○○	○○재단	3. 28
	2	강○○	○○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3	허○○	○○아동청소년센터	
	4	전○○	○○대학교	
	5	신○○	○○지원본부	

분류		No	성명	소속	일시
다문화 청소년 심리·사회 적응현황 및 지원방안 도출	다문화가족 센터 청소년 사업 담당자	6	강○○	○○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7. 12
		7	이○○	△△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7. 23
		8	최○○	□□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7. 25
		9	최○○	◇◇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7. 26
	다문화청소년 관련 현장전문가	10	조○○	○○글로벌센터	1. 24
		11	강○○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9.10
		12	허○○	○○아동청소년센터	
		13	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14	김○○	○○이주청소년센터	
		15	김○○	□□청소년교육센터	9. 24
	상담교사 및 상담사	16	최○○	○○아동청소년센터	10.4
		17	이○○	○○청소년교육센터	
		18	박○○	○○이주청소년센터	
		19	김○○	○○청소년센터	
		20	김○○	○○중학교	10.8
		21	고○○	○○다문화교육지원센터	
		22	문○○	○○교육지원청 Wee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전문가	23	서○○	○○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0.8
		24	이○○	△△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5	배○○	□□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3) 양적연구

(1) 1기 패널

우선 기존의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에서 2011년부터 추적 조사한 1기 패널에 대한 양적조사를 실시하였다. 모집단은 2011년 당시 초등학교 4학년이었던 현재 고3에 재학 중인 다문화청소년으로, 2018년도에 조사완료 된 1,220가구의 청소년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종단추적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방법은 가구방문을 통한

면접조사로, 과거 CAPI(Computer Assisted Personal Interviewing)방식에서 TAPI(Tablet Assisted Personal Interviewing)조사방식으로 변경하여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현재 1,164가구를 완료하였다.

표 I-6 1기 패널조사 대상 및 내용

주요 요소	내용
모집단	2019년 현재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다문화청소년(2011년 당시 4학년)
표집틀	2011 교육과학기술부 다문화가정 학생현황
표본수	8차년도 조사 완료된 1,220가구의 청소년 및 학부모
표집방법	기 구축된 패널 전수를 대상으로 9차년도 조사 실시
조사방법	가구 방문 면접조사
자료수집방법	태블릿을 통한 구조화된 조사표(TAPI)
조사시기	2019년 6월 ~ 9월

(2) 신규패널

올해 추진하는 중요한 양적연구의 하나는 신규패널 구축이다. 신규패널은 2019년 현재 전국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다문화청소년으로, 교육부 교육통계를 표집틀로 활용하였다. 표본 수는 국내출생자녀, 중도입국자녀, 외국인가정자녀를 포함하여 총 2,100가구 이상을 구축하고자 한다. 2018년 신규패널 설계에서는 2018년 초등학교 3학년을 기준으로 국내출생, 중도입국, 외국인가정 자녀의 비율을 고려하여 이상적인 표본 수를 2,000가구로 제시한 바 있다(양계민, 2018: 43). 그러나 조사대상자에 중도입국청소년과 외국인가정자녀가 포함되어 체류 불안정 등 이탈률이 높을 가능성을 대비하여 최소 2,100가구를 구축하고자 설계하였다.

표 I-7 신규패널조사 대상 및 내용

주요 요소	내용
모집단	2019년 현재 전국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다문화청소년
표집틀	교육부 교육통계의 전국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다문화학생
표본수	국내출생, 중도입국, 외국인가정자녀 약 2,100가구 이상
표집방법	교육부 교육통계를 표집틀로 확률비례계통추출법 적용
조사방법	가구 및 학교 방문면접조사
자료수집방법	태블릿을 통한 구조화된 조사표(TAPI)
조사시기	2019년 6월 ~ 12월

4) 면접조사

면접조사에서는 다문화청소년들의 심리·사회적응과 관련하여 현황과 정책적 지원현황, 요구도 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다문화청소년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FGI(Focus Group Interview)방식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의 내용은 다문화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심리적 어려움과 차별경험, 심리적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떤 방식으로 해소하는지, 학교나 지역 청소년상담센터에 대한 인식과 인지도,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응을 위해 필요한 지원이나 요구사항 등이었다.

표 I-8 면접조사 대상 및 내용

대상	세부 사항
조사대상자	■ 1기 패널 참여 청소년 14명 ■ 1기 패널 참여 청소년의 어머니 14명 ■ 신규패널 참여 청소년의 어머니 20명
조사방식	■ FGI(Focus Group Interview)
조사내용	■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적 어려움 및 차별경험 ■ 심리적 어려움이 있을 때 해소방법

대상	세부 사항
	■ 학교 또는 지역 청소년상담센터에 대한 인식 ■ 심리·사회적응을 위해 필요한 지원 및 요구
조사시간	■ 1시간 반 ~ 2시간
면접자	■ 본 연구 연구진

5) 기타

○ 워크숍

기타 방법으로 워크숍은 1차 패널조사 진행을 위한 조사원 워크숍을 5월~6월에 걸쳐서 총 7최 실시하였고, 2차로는 본 연구의 결과를 모두 종합하여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응 및 위기지원 정책개발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을 추진하였다.

표 I-9 워크숍 내용

차수	주요내용	참석자 범위	개최시기
1회	패널조사 진행을 위한 조사원 워크숍	연구진, 조사업체, 조사원	5월, 6월
2회	정책개발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	다문화청소년 전문가 및 연구진	10월

○ 정책실무협의회

2019년도 본 연구는 신규패널 구축이라는 중요한 작업을 추진함과 동시에 다문화청소년 심리·사회적응 및 위기지원을 위한 정책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정부부처와의 정책실무협의회는 매우 중요하다. 특히 학교를 중심으로 신규패널 구축을 추진하는 만큼 교육부의 협조는 결정적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진은 교육부의

교육기회보장과와 2019년 5월 2일 정책실무협의회를 추진하였고 그 결과 교육부 협조공문으로 신규패널 구축을 추진하였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에서 최종 도출된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응 및 위기지원을 위한 정책방안을 교육부 및 여성가족부와 협의함으로써 정책의 타당성과 실현가능성을 제고하였다.

표 I-10 정책실무협의회 내용

차수	주요내용	부처	개최시기
1차	신규패널 구축을 위한 협조 요청	교육부	5. 2
2차	다문화청소년 심리·사회적응 및 위기지원방안에 대한 정책(안)협의	여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 다문화가족과)	11.11
3차	다문화청소년 심리·사회적응 및 위기지원방안에 대한 정책(안)협의	교육부 (교육기회보장과)	11.28

제II장

다문화청소년의 정의 및 현황

1. 다문화청소년의 정의
2. 다문화청소년의 현황

Ⅱ 다문화청소년의 정의 및 현황[3)]

1. 다문화청소년의 정의

본 연구에서 '다문화청소년'은 '본인 또는 부모가 이주의 배경을 지닌 청소년기 연령(「청소년 기본법」 기준: 9세-24세)인 자'로 정의한다(양계민, 강경균, 2017: 21의 수정). 최근 현장에서는 국내출생자와 외국출생자를 구분하여 국내출생자를 '다문화청소년'이라고 칭하고 외국출생자를 '이주배경청소년'이라고 구분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적절한 구분이라고 볼 수 없다. 다문화청소년들이 사회적으로 등장한 이후 '다문화청소년'이라는 용어가 부정적 고정관념과 연합되어 변경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그에 따라 본인이나 가족이 '이주'의 경험이 있는 모든 경우, 북한이탈청소년까지 포함하여 '이주배경청소년'이라 칭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어다(이민경, 이수정, 2010: 83). 그 후 '이주배경청소년'이라 칭하게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두 용어는 별개의 범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본 연구의 경우는 최근의 보다 다양화된 다문화청소년 지형을 반영하여 부모의 배경과 출생지 요인을 기준으로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정의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2018년도 신규패널설계 보고서(양계민, 2018: 14)에서 이미 정의한 바 있는데, 과거 다문화청소년 종단패널 1기 연구에서는 아래 그림 중 외국인과 외국인 결혼가정의 국내출생 외국인가정 자녀를 다문화청소년의 범주로

3) Ⅱ장의 1절은 양계민(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절은 장윤선(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과 정윤미(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전문안겨원)이 집필함.

개념화하지 않았었다. 그러나 다문화청소년의 현황을 파악할수록 다양한 유형들이 발견되고, 지금까지 고려되지 못했던 대상들에 대한 현황 및 요구파악이 필요한 시점에 도달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신규패널을 구축하는 3단계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집단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자 다음과 같이 네 집단을 '다문화청소년'의 정의에 포함한다. 따라서 반드시 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학생만을 다문화청소년으로 개념화하지는 않는다. 다만, 학교밖 다문화청소년들의 모집단 수 자체가 파악되지 않기도 하고 현재 가장 명확한 모집단이 존재하는 통계인 교육부 자료를 조사의 표본틀로 사용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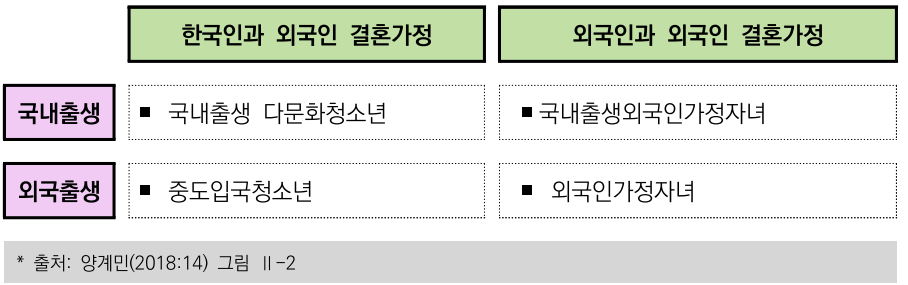


그림 Ⅱ-1. 부모배경 및 출생지에 따른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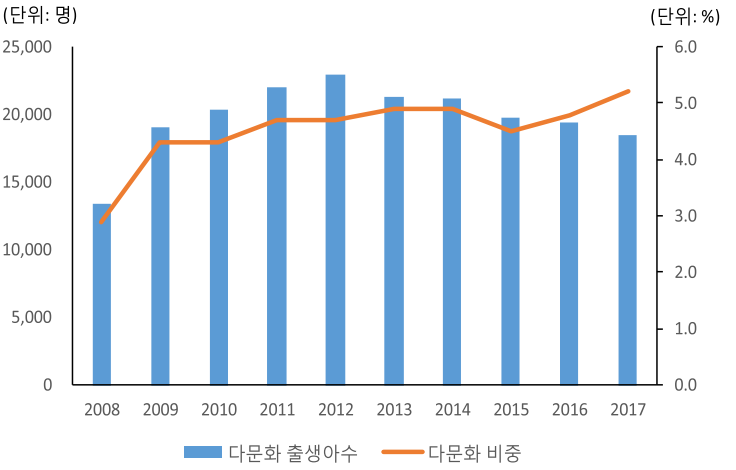
2. 다문화청소년의 현황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다문화청소년은 '본인이나 가족이 이주배경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기 연령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정의될 수 있다(양계민, 강경균, 2017: 21). 하지만 다문화청소년 관련 정책을 수행하는 정부부처에서 정의하는 다문화청소년의 개념은 다소 차이가 있다.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청소년은 국제결혼가정의 자녀로 24세 이하인 사람으로 부나 모 중 한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인 사람의 자녀로 한정된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청소년복지 지원법」에서 정의하는 다문화청소년은 다문화가족의 자녀뿐만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 자녀 등 해외에서 국내로 이주한 청소년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여 정의하고 있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8조). 또한 다문화청소년의 학교 입학 등과 관련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는 다문화청소년의 범위로 북한이탈주민, 중도입국청소년, 재외국민자녀, 외국인인 아동 또는 학생, 다문화가족 자녀(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까지 포함하여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 정의하는 다문화청소년보다 그 범위가 확대되었다.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정의 및 포함 범위가 부처마다 다른 것처럼 이들에 대한 현황 역시 부처마다 다른 기준에 의해 파악되고 있다. 우선 통계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다문화 출생아[4] 수는 2008년 13,443명 이후 꾸준히 증가하며 2017년 기준 출생아 수는 18,440명에 이르렀다. 이러한 수치는 전체 출생아 중에서 다문화의 비중이 2008년 2.9%에서 2017년 5.2%로 증가한 것으로, 현재 전체 출생아 20명 중 1명은 다문화 배경을 가진 출생아인 것을 보여준다(통계청, 2018). 그림 Ⅱ-2에 나타난 바와 같이 다문화 출생아 수의 증가 추세는 2012년 이후 다소 주춤하나 전체 출생아 중에서 다문화 출생아 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4) 부부 모두 혹은 남편이나 아내 중 한 쪽이 외국인 또는 귀화자인 부부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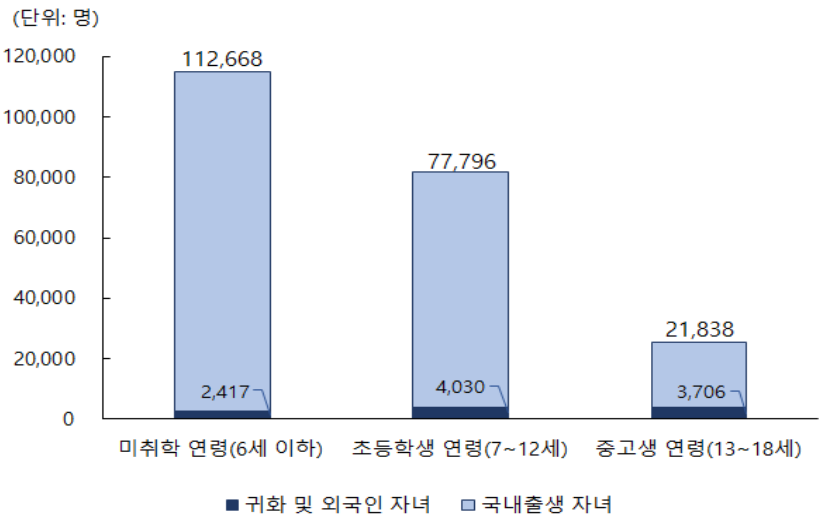


* 출처: 통계청(2018.11.23.) 2017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

그림 II-2. 다문화 출생아 수 및 전체 출생 중 다문화 비중(2008~2017)

행정안전부에서는 외국인주민 현황 중 외국인주민 자녀[5]에 대해 파악하고 있다. 2017년 11월 1일 기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자녀의 수는 2016년 대비 10.5% 증가한 222,455명이다(행정안전부, 2018). 연령 및 유형별로 살펴보면(그림 II-3 참조), 6세 이하 미취학 아동은 115,085명으로 전체 외국인주민 자녀의 51.7%로 가장 많고, 연령대와 무관하게 대부분이 국내출생 외국인주민 자녀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연령대별 귀화 및 외국인 자녀의 비율을 비교해보면, 미취학 연령에 해당하는 외국인 자녀의 비중은 2.1%에 불과하나, 중고생 연령에 해당하는 외국인 자녀의 비중은 14.5%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인다.

5) 외국인주민 자녀는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의 자녀 및 한국인과 결혼한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의 자녀로 미성년자만 집계하였음. 외국인주민 자녀(출생)는 외국인 또는 귀화한 자의 자녀로 국적법 제2조(출생에 의한 국적취득)에 따른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



* 출처: 행정안전부(2018). 2017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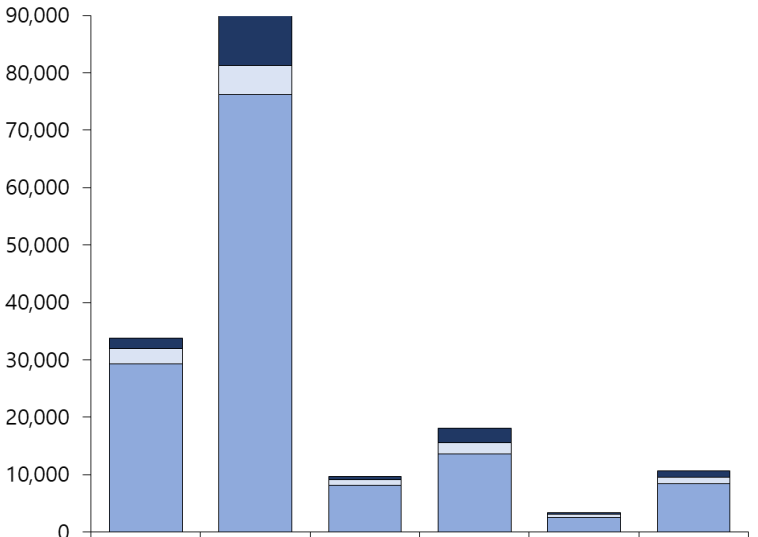
그림 II-3. 연령별 외국인주민 자녀 현황(2017년)

교육부에서는 초·중·고등학교 및 각종 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학생[6]을 파악하고 있다. 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학생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학생에서 다문화학생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2년 4월 1일 기준 다문화학생의 수는 45,954명으로 전체 학생의 약 0.7%를 차지하였으나, 2018년 4월 1일 기준 전체 학생의 약 2.2%에 해당하는 122,212명으로 3배 정도 증가하였다(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18a). 그림 II-4와 II-5는 최근 7년간(2012년~2018년) 다문화학생 유형에 따른 현황 변화 추이를 보여준다.

최근 7년간 다문화학생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국내 출생과 중도입국의 증가폭은 약 2배였다. 특히 외국인 가정 자녀의 수가 2012년 2,626명에서 2018년 15,629명으로 약 6배가량 증가하였다.

6) 다문화학생의 수는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국내출생 및 중도입국 자녀)와 외국인 가정의 자녀수의 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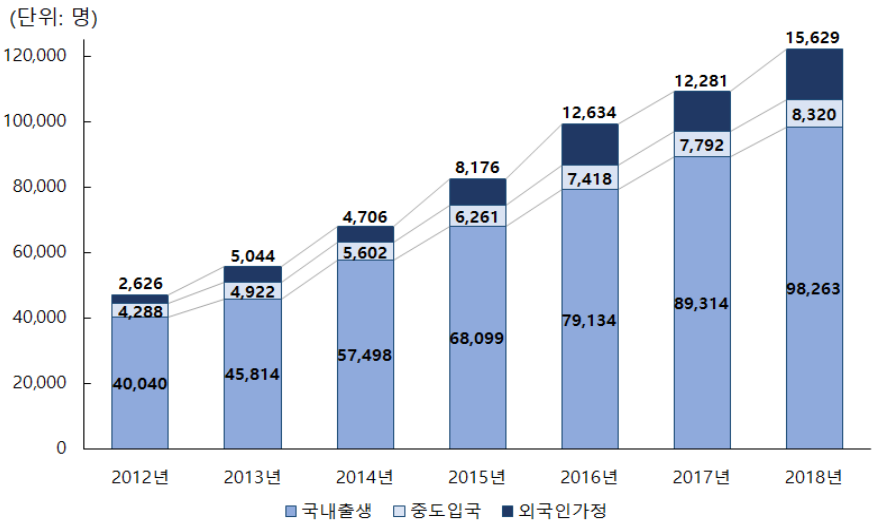
각종 학교를 제외한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학생의 수를 2012년과 2018년을 기준으로 비교하면, 2012년에 비해 2018년의 다문화학생 수는 초등학교에서 가장 크게 증가하였다. 2018년에도 2012년과 같이 모든 학교급에서 국제결혼가정의 국내출생자녀의 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외국인가정의 자녀의 비율 증가폭 또한 매우 크게 나타났다.



(단위: 명)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2012년	2018년	2012년	2018년	2012년	2018년
외국인가정	1,789	11,823	448	2,562	326	1,142
중도입국	2,669	5,023	985	1,907	547	1,185
국내출생	29,282	76,181	8,194	13,599	2,536	8,361

* 출처: 교육과학기술부, 한국교육개발원 (2012). 간추린 교육통계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18a). 간추린 교육통계

그림 II-4. 학교급별 다문화학생 현황(2012, 2018)



* 출처: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18). 2018년 교육기본통계 주요내용

그림 II-5. 다문화학생 현황 변화 추이(2012~2018년)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다문화청소년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그에 따라 전체 청소년 중에서 다문화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증가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다문화청소년의 유형별 규모 역시 아직까지는 대부분이 국내출생 미취학 연령에 해당하나, 중도입국 및 외국인가정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다문화청소년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다문화 지형의 변화가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시점에서 다문화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사회에 적응하여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 및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객관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고 그런 점에서 본 연구의 신규패널 구축은 사회적으로 매우 필요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

제Ⅲ장

1기 패널 조사 및 관리

1. 조사개요
2. 표본설계
3. 조사내용
4. 조사절차 및 방법
5. 패널관리
6. 조사대상자 특성
7. 이탈패널 분석
8. 데이터 공개
9. 정기통계품질진단

Ⅲ

1기 패널조사 및 관리[7)]

1. 조사개요

본 연구는 다문화청소년의 발달을 이해하기 위한 종단자료를 구축하고, 다년간 발달추이를 분석함으로써 다문화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적응을 위한 과학적 정책수립과 추진의 근거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양계민 외, 2018: 5). 이와 같은 목적에 따라 2011년 당시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다문화청소년과 그들의 어머니를 포함한 1,625가구로 구축된 1기 패널을 대상으로 매년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2019년 9차년도 조사를 위한 연구가 수행중이다. 본 연구는 매년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을 함께 실시하고 있는데, 설문조사를 위한 조사내용은 연구결과 및 조사대상의 연령과 사회적 상황을 고려하여 매년 수정·보완되고 있다. 조사 내용의 자세한 수정내용은 본장의 3절에 자세히 제시되어 있다. 심층면접의 경우, 물리적·시간적 여건 상 1기 패널을 구성하는 모든 청소년과 어머니를 대상으로 실시하지는 않으며, 일부 대상자를 선정하여 각 해의 중심 연구주제에 관한 FGI(Focus Group Interview)를 실시하고 있다.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수행되었던 패널조사를 간략히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7) Ⅲ장의 1절과 2절, 5절과 6절은 장윤선(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3절과 4절은 장윤선(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과 정윤미(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7절, 8절, 9절은 정윤미(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집필함.

연도	핵심 주제	주요 연구 내용
2011	취약계층 청소년과 비교	■ 본조사 설문 문항 최종 선정 ■ 본조사 연구방법 최종 결정 ■ 2011년도 1차 종단연구 패널 구축(초4)
2012	일반가정 청소년과 비교	■ 패널 설문조사(2차년도 추적조사, 초5) ■ 패널 질적조사(1차) ■ 심리적 변인중심 분석 ■ 국내 다문화가족지원정책 분석
2013	학업 및 학교생활	■ 패널 설문조사(3차년도 추적조사, 초6) ■ 패널 질적조사(2차) ■ 국가통계승인(승인번호: 제 40203호) ■ 학업 및 학교생활 중심 분석 ■ 다문화청소년 지원의 방향성 및 학업관련 정책제언
2014	심리·정서, 사회적응, 문제행동	■ 패널 설문조사(4차년도 추적조사, 중1) ■ 패널 질적조사(3차) ■ 심리, 정서, 사회적응 중심 분석 및 정책방안 제시 ■ 정기통계품질진단
2015	자아정체성 및 이중문화정체성	■ 패널 설문조사(5차년도 추적조사, 중2) ■ 패널 질적조사(4차) ■ 한국인 정체성 및 이중문화정체성 중심 분석 및 정책방안 제시
2016	진로의식 및 태도	■ 패널 설문조사(6차년도 추적조사, 중3) ■ 진로의식 및 진로방안 중심 분석 및 지원방안 제시
2017	6년간 발달추이	■ 패널 설문조사(7차년도 추적조사, 고1) ■ 6년간 발달추이 분석 ■ 다문화청소년정책 전반의 분석 및 방안 제시 ■ 다문화패널 학술대회
2018	진로발달	■ 패널 설문조사(8차년도 추적조사, 고2) ■ 진로발달 현황 및 국내·외 진로지원 정책 분석 ■ 진로지원정책방안 제시
2019	심리·사회적응	■ 패널 설문조사(9차년도 추적조사, 고3) ■ 심리·사회적응 현황 및 변화양상 분석 ■ 심리·사회적응 지원방안 제시 ■ 정기통계품질진단

* 출처: 양계민, 강경균(2017: 8) 그림 Ⅰ-2 수정

그림 Ⅲ-1. 1기 패널조사 핵심 주제 및 주요 연구 내용

2. 표본설계[8)]

1) 모집단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의 1기 패널 모집단은 2011년 기준 전국의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다문화가정의 학생으로 선정하였다. 초등학교 4학년은 청소년기 전 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아동의 성장과 발달과정에 대한 지속적이고 종합적인 이해를 할 수 있으면서, 동시에 조사에 대한 이해와 성실한 조사 참여가 가능한 인지발달 수준을 보이는 최소연령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1기 패널 표본을 구축하기 위하여 시·도교육청의 협조를 바탕으로 집계된 초등학교 4학년 다문화학생을 조사 모집단으로 선정하여 표본추출을 실시하였고, 협조가 구해지지 않은 4개의 시·도는 2010년 기준의 자료로 대체하였다. 이렇게 집계된 전국 초등학교 4학년 다문화학생의 지역별 분포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Ⅲ-1 지역별 조사 모집단 분포 현황

단위: 빈도(%)

지역	학교	학생	지역	학교	학생
서울	264 (10.4)	510 (11.5)	광주	75 (3.0)	110 (2.5)
인천	119 (4.7)	228 (5.1)	전북	175 (6.9)	318 (7.1)
경기	514 (20.3)	1,006 (22.6)	전남	228 (9.0)	475 (10.7)
부산	114 (4.5)	185 (4.2)	대전	49 (1.9)	64 (1.4)
울산	39 (1.5)	59 (1.3)	충북	118 (4.7)	196 (4.4)
경남	226 (8.9)	351 (7.9)	충남	175 (6.9)	279 (6.3)
대구	80 (3.2)	107 (2.4)	강원	150 (5.9)	234 (5.3)
경북	173 (6.8)	281 (6.3)	제주	38 (1.5)	49 (1.1)
합계				2,537 (100.0)	4,452 (100.0)

* 출처 : 양계민 김승경, 박주희 (2011: 118) 표 V-1 수정

8) 1기 패널의 표본설계는 해당 패널이 구축된 2011년과 동일한 내용으로 2011년 연구보고서(양계민, 김승경, 박주희, 2011: 111-121)의 내용을 요약 및 수정하였다.

2) 표본추출

1기 패널의 표본추출을 위한 목표 표본의 크기는 다문화가정 1,600가구로 설정하였는데, 이는 조사 모집단인 초등학교 4학년 다문화학생 4,452명의 35.9%에 해당한다. 본 조사를 위해 집계된 모집단 정보가 다양하지 않다는 한계로, 지역을 기준으로 모집단을 층화하였다. 조사 단위는 다문화청소년과 어머니이지만 학교를 표본추출의 단위로 결정하고, 층화변수인 16개 시·도별 할당된 학생 수를 기준으로 목표 표본크기에 도달 할 수 있는 1,000개의 학교를 선정하고 확률비례계통추출법(PPS: Probability Proportional to Size sampling)을 통해 표본을 배분하였다(양계민 외, 2018: 34). 지역별 표본으로 선정된 학교의 모든 4학년 다문화학생과 그들의 어머니를 조사대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2011년 당시 부득이하게 표본을 대체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연구책임자의 승인을 통해 대체하고, 이후 표본에서 이탈한 가구에 대한 경우는 대체하지 않았다(양계민, 강경균, 2017: 73). 시·도별 표본배분 결과는 〈표 Ⅲ-2〉와 같다.

표 Ⅲ-2 지역별 표본 배분 결과

단위: 빈도(%)

지역	학교	학생	지역	학교	학생
서울	100 (10.0)	173 (10.8)	광주	29 (2.9)	39 (2.4)
인천	47 (4.7)	79 (4.9)	전북	67 (6.7)	108 (6.8)
경기	196 (19.6)	362 (22.6)	전남	87 (8.7)	163 (10.2)
부산	56 (5.6)	85 (5.3)	대전	19 (1.9)	24 (1.5)
울산	21 (2.1)	28 (1.8)	충북	45 (4.5)	67 (4.2)
경남	86 (8.6)	125 (7.8)	충남	79 (7.9)	113 (7.1)
대구	31 (3.1)	38 (2.4)	강원	57 (5.7)	83 (5.2)
경북	66 (6.6)	97 (6.1)	제주	14 (1.4)	16 (1.0)
합계				1,000 (100.0)	1,600 (100.0)

* 출처 : 양계민 김승경, 박주희 (2011: 120) 표 V-2 수정

3. 조사내용

1) 조사영역 및 내용 구성

2019년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 1기 패널은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2011년 조사 구축 당시 다양한 환경 안에서 종단의 관점으로 다문화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을 파악하고자 조사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조사내용 구성을 위한 이론적 검토 및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조사영역, 조사항목 및 조사내용을 구성하였다(양계민 외, 2018: 35). 본 종단조사는 브론펜브레너(Bronfenbrenner)의 생태체계이론(ecosystem theory)에 근거하여 개인과 개인을 둘러싼 환경(가정, 학교, 지역사회 등)의 영향을 고려한 조사영역을 구성하였다(양계민 외, 2018: 35).

1기 패널의 조사대상은 청소년과 학부모 조사로 구분되고,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의 영역은 크게 다문화 관련 요인, 개인 요인, 환경 요인 등 네 가지 영역으로 구분된다. 첫째로 다문화 관련 요인은 언어적 환경 및 능력, 개인의 이중문화와 관련된 경험 및 인식, 다문화 가족 지원 정책의 수혜 경험, 지원에 대한 인식 및 선호 등으로 조사항목이 구성되었다. 둘째로, 개인요인은 건강상태 및 신체만족도 등 신체관련 요인, 사회·정서·행동 영역인 자아존중감, 우울, 삶의 만족도, 비행, 인지 관련 영역인 성적, 성취 동기, 진로관련 영역 및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셋째, 환경관련 요인에서는 부모, 친구, 학교생활, 지역사회 지지망 등 하위 요인을 측정하였고, 마지막 기타 요인으로 학업 중단 위험 요인과 방과후활동으로 구성되었다. 학부모 조사는 배경변인, 문화특성(외국인 학부모에 한함), 개인 및 환경적 요인으로 구성되어있다. 자세한 차수별 조사영역 및 내용 구성은 〈표 Ⅲ-3〉과 〈표 Ⅲ-4〉에 정리되어 있다.

표 Ⅲ-3 청소년용 설문지 조사영역 및 내용 구성(2011년~2019년)

구분		조사항목	2011 (1차 년도)	2012 (2차 년도)	2013 (3차 년도)	2014 (4차 년도)	2015 (5차 년도)	2016 (6차 년도)	2017 (7차 년도)	2018 (8차 년도)	2019 (9차 년도)
대영역	소영역										
다문화 관련 요인	언어 능력	· 부모의 외국인 여부	○	○	○	○	○	○	○	○	○
		· 외국 출신 부모의 한국어 실력	○	○	○	○	○	○	×	×	×
		· 부모와의 의사소통 시 사용언어	○	○	○	○	○	○	○	○	○
		· 부모 간 의사소통 시 사용언어	○	○	○	○	○	○	○	○	○
		· 자신의 한국어 실력	○	○	○	○	○	○	×	×	×
		· 사용가능한 외국어	○	○	○	○	○	○	○	○	○
		· 외국 출신 부모 나라 언어실력	○	○	○	○	○	○	○	○	○
		· 가족 외의 사람에게 한국어를 배운 경험	×	○	○	×	×	×	×	×	×
	이중 문화 경험	· 국적에 대한 인식	○	○	○	○	○	○	○	○	○
		· 외국 출신 부모 나라 방문여부	○	○	○	○	○	○	○	○	○
		· 외국 출신 부모 가족의 한국방문경험여부	○	○	○	○	○	○	○	○	○
		· 외국 출신 부모 나라에 대한 관심정도	○	○	○	○	○	○	○	○	○
		· 문화적응스트레스	○	○	○	○	○	○	×	×	×
		· 국가정체성	○	○	○	○	○	○	○	○	○
		· 이중문화수용태도	○	○	○	○	○	○	○	○	○
		· 다문화수용성	×	○	○	○	○	○	○	○	○
		· 다문화가족 자녀임을 알렸는지 여부	×	×	×	○	○	○	○	○	○
	지원 정책에 대한 태도	· 다문화가족정책지원경험	×	○	○	○	○	○	○	○	○
		· 선호하는 지원방식	×	○	○	○	○	○	○	○	○
		· 향후 원하는 지원내용	×	○	○	○	○	○	○	○	○
개인 요인	신체	· 건강상태	○	○	○	○	○	○	○	○	○
		· 신체만족도	○	○	○	○	○	○	○	○	○
	사회·정서·행동	· 자아존중감 Ⅰ, Ⅱ	○	○	○	○	○	○	○	○	○
		· 자아탄력성	○	○	○	○	○	×	×	×	×
		· 삶의 만족도	○	○	○	○	○	○	○	○	○
		· 우울	×	○	○	○	○	○	○	○	○
		· 사회적 위축	×	○	○	○	○	○	○	○	○
		· 비행	×	×	○	○	○	○	○	○	○
		· 현재 고민 및 걱정거리	×	×	×	×	×	×	○	○	○
	인지	· 학교성적	○	○	○	○	○	○	○	○	○
		· 성취동기	○	○	○	○	○	○	○	○	○
		· 성적에 대한 만족도	○	○	○	○	○	○	○	○	○
	진로	· 희망 교육수준	×	×	×	×	×	○	○	○	○
		· 중학교 졸업 후 계획	×	×	×	×	×	○	×	×	×

구분		조사항목	2011 (1차 년도)	2012 (2차 년도)	2013 (3차 년도)	2014 (4차 년도)	2015 (5차 년도)	2016 (6차 년도)	2017 (7차 년도)	2018 (8차 년도)	2019 (9차 년도)
대영역	소영역										
		· 고등학교 졸업 후 계획	×	×	×	×	×	×	○	○	○
		· 직업 선택 시 주요 고려사항Ⅰ,Ⅱ	○	○	○	○	○	○	○	○	○
		· 희망직업	×	×	×	×	×	○	○	○	○
		· 아르바이트 경험	×	×	×	×	×	×	○	○	○
		· 학교진로교육 및 활동 참여	×	×	×	×	×	×	○	○	○
		· 학교진로교육 및 활동 전반적 만족도	×	×	×	×	×	×	○	○	○
		· 진로태도	×	×	×	○	○	○	○	○	○
		· 진로에 대해 의논하는 사람	×	×	×	○	○	○	○	○	○
		· 진로장벽인식	×	×	×	×	×	○	○	○	○
		· 부모님 진로관련 행동	×	×	×	×	×	○	○	○	○
환경 요인	부모 와의 관계	· 가족의 지지	○	○	○	○	○	○	○	○	○
		· 부모님의 지지Ⅰ,Ⅱ	×	×	×	○	○	○	○	○	○
		· 부모에 대한 생각	○	○	○	○	○	○	○	○	○
		· 부모의 양육태도	○	○	○	○	○	○	○	○	○
		· 부모님과 활동 및 대화	×	×	×	×	×	×	○	○	○
	친구	· 친한 친구 수	○	○	○	○	○	○	○	○	○
		· 친구의 지지	○	○	○	○	○	○	×	×	×
		· 교우관계Ⅰ,Ⅱ(적응)	○	○	○	○	○	○	○	○	○
		· 집단괴롭힘 피해경험	○	○	○	○	○	○	○	○	○
	학교 생활	· 학교생활의 어려운 점	○	○	○	○	○	○	○	○	○
		· 학교공부의 어려운 점	○	○	○	○	○	○	○	○	○
		· 학교적응: 학습활동	○	○	○	○	○	○	×	×	×
		· 학교적응: 학업	×	×	×	×	×	×	○	○	○
		· 교사의 지지	○	○	○	○	○	○	×	×	×
		· 교사와의 관계Ⅰ,Ⅱ(적응)	○	○	○	○	○	○	○	○	○
		· 학교내 도움 받을 수 있는 사람	○	○	○	○	○	○	○	○	○
		· 방과후 프로그램 참여 현황	○	×	×	×	×	×	×	×	×
		· 고등학교 생활	×	×	×	×	×	×	○	○	○
		· 학교생활 만족도	×	×	×	×	×	×	○	○	○
	지역사회 지지망	· 학교밖에서 도움 받을 수 있는 사람	○	○	○	○	○	○	○	○	○
		· 거주지역에 대한 인식	○	○	○	○	○	○	×	×	×
기타	학업 중단 위험 요인	· 생활 및 태도	×	×	×	○	○	○	○	○	○
		· 친구 및 선후배의 영향	×	×	×	○	○	○	○	○	○

구분		조사항목	2011 (1차 년도)	2012 (2차 년도)	2013 (3차 년도)	2014 (4차 년도)	2015 (5차 년도)	2016 (6차 년도)	2017 (7차 년도)	2018 (8차 년도)	2019 (9차 년도)
대영역	소영역										
	방과후 활동	· 교과목 관련 학습 활동 시간	×	×	×	○	○	○	○	○	○
		· 특기적성 활동 시간	×	×	×	○	○	○	○	×	×
		· 청소년 활동 참여 경험	×	×	×	×	×	×	×	○	○

* 출처: 양계민 외 (2018: 36-37) 표 Ⅱ-4 수정

표 Ⅲ-4 학부모용 설문지 조사영역 및 내용 구성(2011년~2019년)

구분		조사항목	2011 (1차 년도)	2012 (2차 년도)	2013 (3차 년도)	2014 (4차 년도)	2015 (5차 년도)	2016 (6차 년도)	2017 (7차 년도)	2018 (8차 년도)	2019 (9차 년도)
대영역	소영역										
배경 변인	가족특성	· 배우자와의 결혼 상태	○	○	○	○	○	○	○	○	○
		· 초혼여부	○	○	○	○	○	○	○	○	×
		· 자녀의 아버지와 현재 배우자 일치여부	○	○	○	○	○	○	○	○	×
		· 자녀 아버지의 동일 여부	○	○	○	○	○	×	×	×	×
		· 가정의 경제적 수준	○	○	○	○	○	○	○	○	○
문화 특성	언어 능력	· 모국어	○	○	○	○	○	○	○	○	○
		· 한국에서 거주한 기간	○	○	○	○	○	○	○	○	○
		· 한국어 공부 경험	○	○	○	○	○	×	×	×	×
		· 한국어 수준	○	○	○	○	○	○	○	○	○
	이중 문화 경험	· 걱정거리를 의논할 수 있는 사람	○	○	○	○	○	○	○	○	○
		· 한국생활이 모국문화와 달라서 어려운 점	○	○	○	○	○	○	○	○	○
		· 국적 정체성	○	○	○	○	○	○	○	○	○
		· 주로 어울리는 사람	○	○	○	○	○	○	○	○	○
		· 모국음식을 자주 하는 정도	○	○	○	○	○	○	○	○	○
		· 주로 따르는 가치관	○	○	○	○	○	○	○	○	○
		· 모국에 대한 생각	○	○	○	○	○	○	○	○	○
		· 평소에 말을 할 때 사용하는 언어	○	○	○	○	○	○	○	○	○
		· 평소에 글을 쓸 때 사용하는 언어	○	○	○	○	○	○	○	○	○
		· 문화적응스트레스	○	○	○	○	○	○	○	○	○
		· 문화적응 유형	×	○	○	○	○	○	○	○	○

구분		조사항목	2011 (1차 년도)	2012 (2차 년도)	2013 (3차 년도)	2014 (4차 년도)	2015 (5차 년도)	2016 (6차 년도)	2017 (7차 년도)	2018 (8차 년도)	2019 (9차 년도)
대영역	소영역										
	지원 정책에 대한 태도	· 자녀 다문화가족정책지원경험	○	○	○	○	○	○	○	○	○
		· 선호하는 지원방식	×	○	○	○	○	○	○	○	○
		· 선호하는 지원의 종류	×	○	○	○	○	○	○	○	○
개인 및 환경 요인	신체적·심리적 특성	· 자아존중감	○	○	○	○	○	○	○	○	○
		· 일상생활 스트레스	○	○	○	○	○	○	○	○	○
		· 전반적 건강	○	○	○	○	○	○	○	○	○
		· 심리적·신체적 건강	○	○	○	○	○	○	○	○	○
		· 개인주의 집단주의 가치	×	○	○	○	○	○	○	○	○
	자녀 교육 관련 특성	· 자녀가 가족 외의 사람에게 한국어를 배운 경험	×	○	○	×	×	×	×	×	×
		· 5-7세경 주양육자	○	○	○	×	×	×	×	×	×
		· 자녀교육관련 주 의사결정자	○	○	○	○	○	○	○	○	○
		· 자녀의 학교 교육에 대한 도움 정도	○	○	○	○	○	○	○	○	○
		· 자녀학교문제, 숙제지도 하는 사람	○	○	○	○	○	○	○	○	○
		· 자녀의 성적향상을 위한 노력	○	○	○	○	○	○	○	○	○
		· 자녀의 학교생활을 위해 하는 활동	○	○	○	○	○	○	○	○	○
		· 자녀의 학교준비물 도와주는 사람	○	○	○	×	×	×	×	×	×
		· 자녀 재학 학교의 다문화가족 관련 프로그램 진행 여부	○	○	○	○	○	○	×	×	×
		· 지원프로그램의 제공 장소 선호도	○	○	○	○	○	○	○	○	○
		· 선호하는 자녀 교육방식	○	○	○	○	○	○	×	×	×
		· 학교 다문화가족 학부모 교육 경험	○	○	○	○	○	○	×	×	×
		· 방과후 교육(사교육 포함)	○	×	×	○	○	○	○	○	○
		· 특기적성 교육	×	×	×	×	×	×	○	○	○
	자녀 진학/진로 지도 관련 특성	· 희망하는 자녀의 교육수준	○	○	○	○	○	○	○	○	○
		· 자녀의 장래 직업에 대한 기대 Ⅰ,Ⅱ	○	○	○	○	○	○	○	○	○
		· 자녀가 나중에 갖기 원하는 직업	×	×	×	×	×	○	○	○	○
		· 자녀 진로지원 행동	×	×	×	×	×	○	○	○	○
		· 자녀의 진로지도와 관련한 지원요구	×	×	×	×	×	○	○	○	○
		· 자녀의 진로·진학 설명회 참석	×	×	×	×	×	×	×	○	○
	양육 관련 특성	· 자녀 지도 시 어려운 점	×	×	×	○	○	○	○	○	○
		· 부모효능감	○	○	○	○	○	○	○	○	○
		· 자녀와 대화 시 사용언어	○	○	○	○	○	○	○	○	○

구분		조사항목	2011 (1차 년도)	2012 (2차 년도)	2013 (3차 년도)	2014 (4차 년도)	2015 (5차 년도)	2016 (6차 년도)	2017 (7차 년도)	2018 (8차 년도)	2019 (9차 년도)
대영역	소영역										
		· 자녀와의 의사소통 정도	○	○	○	○	○	○	○	○	○
		· 자녀가 잘하기 바라는 언어	○	○	○	○	○	○	○	○	○
		· 자녀가 한국어 외 잘하기 바라는 언어	×	×	×	×	×	×	○	○	○
		· 자녀가 한국어와 모국어 외에 배우기(잘하기) 바라는 언어	○	○	○	○	○	○	○	○	○

* 출처: 양계민 외 (2018: 38-39) 표 Ⅱ-5 수정

2) 조사문항 구성

본 종단조사에서 사용된 조사문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문항 내용과 출처, 그리고 연도별 변동사항을 간략히 아래의 표에 제시하였다.

표 Ⅲ-5 청소년용 설문지 문항 구성(2011년~2019년)

구분		조사항목	하위문항	질문	출처	2011 (1차)	2012 (2차)	2013 (3차)	2014 (4차)	2015 (5차)	2016 (6차)	2017 (7차)	2018 (8차)	2019 (9차)
다문화 관련 요인	언어 능력	· 부모의 외국인 여부		부모님 중 어느 쪽이 외국출신이십니까?	연구진 작성	문1	문1	문1	문1	문1	문1	문1	문1	문1
		· 외국 출신 부모의 한국어 실력	말하기 쓰기 읽기 듣기	외국인 부모님의 한국어 능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Portes, A., & Rumbaut, R. G. (2008)의 CILS 문항 응용	문2	문2	문2	문2	문2	문2	-	-	-
		· 부모와의 의사소통 시 사용언어		학생은 외국인 부모님과 서로 대화할 때 어느 나라 말을 주로 사용하십니까?	CILS 문항 수정	문3	문3	문3	문3	문3	문3	문2	문2	문2
		· 부모 간 의사소통 시 사용 언어		아버지와 어머니는 서로 대화할 때 어느 나라 말을 주로 사용하십니까?	CILS 문항 응용	문4	문4	문4	문4	문4	문4	문3	문3	문3
		· 자신의 한국어 실력	말하기 쓰기 읽기 듣기	학생은 한국어를 얼마나 잘한다고 생각합니까?	CILS 문항 수정	문5	문5	문5	문5	문5	-	-	-	-
		· 사용가능한 외국어	사용가능한 외국어 여부	학생은 한국어 이외에 사용할 수 있는 외국어가 있습니까?	연구진 작성	문6	문6	문6	문6	문6	문5	문4	문4	문4
			(있다면) 사용가능한 외국어의 종류	(한국어 외에 사용할 수 있는 외국어가 있다면) 학생은 어떤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잘하는 외국어를 최대 3개까지만 알려주세요.	연구진 작성	문6-1	문6-1	문6-1	문6-1	문6-1	문5-1	문4-1	문4-1	문4-1
		· 외국 출신 부모 나라 언어실력	말하기 쓰기 읽기 듣기	학생은 외국인 부모님 나라의 언어를 얼마나 잘한다고 생각합니까?	연구진 작성	문7	문7	문7	문7	문7	문6	문5	문5	문5
		· 가족 외의 사람에게 한국어를 배운 경험	초등학교 입학 전 한국어 학습경험 여부	학교에 입학하기 전, 또는 초등학교 저학년(1, 2, 3학년) 때 한국어를 별도로 배운 적이 있습니까? 가족에게 배운 것을 제외하고 응답해 주세요.	연구진 작성	-	문33	문33	-	-	-	-	-	-
			(있다면) 누구에게/어디서			-	문33-1	문33-1	-	-	-	-	-	-
	이중 문화 경험	· 국적에 대한 인식		학생은 자신이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CILS 문항 수정	문8	문8	문8	문8	문8	문7	문6	문6	문6
		· 외국 출신	방문여부	학생은 작년 조사 이후부터 지금까지 외	연구진 작성	문9	문9	문9	문9	문9	문8	문7	문7	문7

구분		조사항목	하위문항	질문	출처	2011 (1차)	2012 (2차)	2013 (3차)	2014 (4차)	2015 (5차)	2016 (6차)	2017 (7차)	2018 (8차)	2019 (9차)
		부모 나라 방문여부		국인 부모님의 나라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출생 또는 살았던 적	학생은 외국인 부모님의 나라에서 태어나거나 살았던 적이 있습니까?	연구진 작성	문9-1	-	-	-	-	-	-	-	-
			(있다면) 방문횟수	학생은 작년 조사 이후부터 지금까지 외국인 부모님의 나라에 몇 번 가보았습니까?	연구진 작성	문9-2	문9-1	문9-1	문9-1	문9-1	문8-1	문7-1	문7-1	문7-1
		· 외국 출신 부모 가족의 한국방문 경험여부		작년 조사 이후로 외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 부모님의 가족들(할머니, 할아버지, 삼촌, 이모, 고모 등)이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연구진 작성	문10	문10	문10	문10	문10	문9	문8	문8	문8
		· 외국 출신 부모 나라에 대한 관심정도		학생은 외국인 부모님 나라에 대해 얼마나 관심이 있습니까?	연구진 작성	문11	문11	문11	문11	문11	문10	문9	문9	문9
		· 문화적응 스트레스	※ 문화적응 관련 항목(4점 척도)	다음은 학생의 평소 생각에 대한 질문입니다. 학생의 생각을 가장 잘 설명하는 보기의 번호를 골라주세요.	Hovey & King(1996)을 번안 및 수정하여 사용한 노충래 (2000)를 수정한 홍진주 (2004) 수정	문21	문21	문21	문21	문21	문22	-	-	-
		· 국가정체성	※ 한국에 대한 생각 항목(4점 척도)	다음은 한국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입니다. 학생의 생각을 가장 잘 설명하는 보기의 번호를 골라주세요.	성한기(2001) 발췌 및 수정	문22	문22	문22	문22	문22	문23	문47	문44	문44
		· 이중문화수용태도	※ 한국 문화 및 외국인 부모님 나라 문화 관련 항목 (4점 척도)	다음은 학생의 평소 생활과 태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자신의 특성을 가장 잘 설명하는 보기의 번호를 골라주세요.	노충래, 홍진주 (2006) 발췌 및 수정	문23	문23	문23	문23	문23	문24	문48	문45	문45
		· 다문화수용성	※ 문화적 배경이 다른 경우 수용 정도 관련 항목 (4점 척도)	아래 각 항목에 대해 학생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학생의 생각을 가장 잘 설명하는 보기의 번호를 골라주세요.	양계민, 정진경 (2008) 수정·보완한 이경상, 백혜정, 이종원, 김지영 (2011)	-	문45	문45	문45	문45	문46	문46	문43	문43

구분		조사항목	하위문항	질문	출처	2011 (1차)	2012 (2차)	2013 (3차)	2014 (4차)	2015 (5차)	2016 (6차)	2017 (7차)	2018 (8차)	2019 (9차)
		· 다문화가족 자녀임을 알렸는지 여부	친구들이 알고 있는지 여부	학교 친구들은 학생이 다문화가족 자녀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연구진 작성	-	-	-	문49	문49	문39	문25	문22	문22
			직접 알렸는지 여부	학교 친구들에게 자신이 다문화가족 자녀라는 것을 직접 알렸습니까?	연구진 작성	-	문48	문48	문49-1	문49-1	문39-1	문25-1	문22-1	문22-1
			(직접 알렸다면) 알린 후 달라진 점	(직접 알렸다면) 알리고 나서 친구들과의 사이에서 무엇인가 달라진 점이 있었습니까?	연구진 작성	-	문48-1	문48-1	문49-2	문49-2	문39-2	문25-2	문22-2	문22-2
			(직접 알렸다면) 알린 것에 대한 생각	(직접 알렸다면) 자신이 다문화가족 자녀라는 것을 친구들에게 알린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연구진 작성	-	문48-2	문48-2	문49-3	문49-3	문39-3	문25-3	문22-3	문22-3
			(알리지 않았다면) 알리지 않은 이유	친구들이 모른다면, 친구들에게 알리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연구진 작성	-	문48-3	문48-3	문49-4	문49-4	문39-4	문25-4	문22-4	문22-4
			(알리지 않았다면) 향후 알릴 예정인지	친구들이 모른다면, 앞으로도 친구들에게 자신이 다문화가족 자녀라는 것을 알리지 않을 생각입니까?	연구진 작성	-	문48-4	문48-4	문49-5	문49-5	문39-5	문25-5	문22-5	문22-5
	지원정책에 대한 태도	· 다문화가족 관련 정책 지원경험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	작년 조사 이후부터 지금까지 학교나 기타 다른 기관으로부터 다문화가족이기 때문에 지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연구진 작성	-	문46	문46	문46	문46	문47	문57	문54	문54
			(있다면) 지원받은 내용	학교나 기타 다른 기관에서 다문화가족이라고 하여 작년 조사 이후부터 지금까지 어떤 지원들을 받았습니까? 받은 경험이 있는 지원의 종류를 모두 골라 주세요.	연구진 작성	-	문46-1	문46-1	문46-1	문46-1	문47-1	문57-1	문54-1	문54-1
			(있다면) 지원의 중복 여부	문 46-1에서 말한 지원 중에서 같은 종류의 지원이 여러 번 중복되어 제공된 적이 있습니까?	연구진 작성	-	문46-2	문46-2	문46-2	문46-2	-	-	-	-
			(있다면) 중복지원된 내용	만일 같은 종류의 지원이 여러 번 중복되어 제공된 적이 있다면 주로 어떤 것들이 중복적으로 지원 되었습니까? 본인의 참여 여부와는 상관없이 학교나 기타 다른 기관에서 중복적으로 제공된 적이 있는 것을 모두 골라주세요.	연구진 작성	-	문46-3	문46-3	문46-3	문46-3	-	-	-	-
			(있다면) 중복적으로 지	이 중 본인이 중복적으로 제공받은 것(참	연구진 작성	-	문46-4	문46-4	문46-4	문46-4	-	-	-	-

구분		조사항목	하위문항	질문	출처	2011 (1차)	2012 (2차)	2013 (3차)	2014 (4차)	2015 (5차)	2016 (6차)	2017 (7차)	2018 (8차)	2019 (9차)
			원받은 내용	여한 것)은 무엇인지 모두 골라주세요.										
			지원에 대한 태도	다문화가족 자녀만을 위하여 특별지원을 해 주는 것에 대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연구진 작성	-	문46-5	문46-5	-	-	-	-	-	-
				다문화가족 자녀에게만 주어지는 특별지원에 대해 고맙다는 생각이 듭니까?	연구진 작성	-	문46-6	문46-6	-	-	-	-	-	-
			(있다면) 지원의 적정성	지금까지 받았던 다문화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한 지원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었습니까?	연구진 작성	-	문46-7	문46-7	문46-5	문46-5	문47-2	문57-2	문54-2	문54-2
		· 선호하는 지원방식	다문화가족 자녀 특별지원 필요성	다문화 가족 자녀를 다문화 가족이 아닌 가정의 자녀와 구별하여 특별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연구진 작성	-	-	-	문47	문47	문48	문58	문55	문55
			특별지원 방식	특별지원을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까?	연구진 작성				문47-1	문47-1	문48-1	문58-1	문55-1	문55-1
			선호하는 국가의 다문화가족 지원방식	국가에서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까?	연구진 작성	-	문47	문47	문48	문48	문49	문59	문56	문56
		· 향후 원하는 지원내용		앞으로 다문화가족 자녀를 위한 지원을 해준다면 어떤 것들을 해주길 원합니까? 원하는 것을 모두 골라주세요.	연구진 작성	-	문49	문49	문50	문50	문50	문60	문57	문57
개인 요인	신체	· 건강상태		또래들과 비교해 볼 때 학생의 건강 상태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김지경, 백혜정, 임희진, 이계오 (2010)	문14	문14	문14	문14	문14	문13	문44	문41	문41
		· 신체만족도	※ 외모 관련 생각 항목(4점 척도)	다음은 학생의 외모에 관한 질문입니다. 자신에 대해 가장 잘 설명하는 보기의 번호를 골라주세요.	한상분(1992) 발췌	문20	문20	문20	문20	문20	문21	문41	문38	문38
	사회·정서·행동	· 자아존중감 I	※ 자아 존중 정도 관련 항목 (4점 척도)	다음은 학생 자신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입니다. 자신에 대해 가장 잘 설명하는 보기의 번호를 골라주세요.	박난숙, 오경자 (1992) 발췌	문19 (4개 항목)	문19 (4개 항목)	문19 (4개 항목)	문19 (4개 항목)	문19 (4개 항목)	문20 (4개 항목)	-	-	-
		· 자아존중감 II	※ 자아 존중 정도 관련 항목 (5점 척도)	다음은 학생 자신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입니다. 자신에 대해 가장 잘 설명하는 보기의 번호를 골라주세요.	Rosenberg (1965) 발췌	-	-	-	-	-	-	문40 (9개 항목)	문37 (9개 항목)	문37 (9개 항목)

구분		조사항목	하위문항	질문	출처	2011 (1차)	2012 (2차)	2013 (3차)	2014 (4차)	2015 (5차)	2016 (6차)	2017 (7차)	2018 (8차)	2019 (9차)
		· 자아탄력성	※ 자아 탄력성 관련 항목(4점 척도)	다음은 학생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신에 대해 가장 잘 설명하는 보기의 번호를 골라주세요.	Block, & Kremen (1996)을 유성경, 심혜원 (2002)이 번안 및 수정·보완한 척도를 권지은 (2003, 재인용)에서 인용하여 수정한 김지경 외 (2010)	문39	문39	문39	문39	문39	-	-	-	-
		· 삶의 만족도	※ 행복함 정도 관련 항목(4점 척도)	다음은 학생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신에 대해 가장 잘 설명하는 보기의 번호를 골라주세요.	김신영, 임지연, 김상욱, 박승호, 유성렬, 최지영, 이가영 (2006) 인용한 김지경 외(2010)	문40	문40	문40	문40	문40	문41	문43	문40	문40
		· 우울	※ 우울함 정도 관련 항목(4점 척도)	다음은 학생의 기분에 관한 질문입니다. 자신에 대해 가장 잘 설명하는 보기의 번호를 골라주세요.	김광일, 김재환, 원호택 (1984)을 발췌·수정·보완한 이경상 외(2011)	-	문43	문43	문43	문43	문44	문42	문39	문39
		· 사회적 위축	※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관련 항목(4점 척도)	다음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학생이 느끼는 기분에 관한 질문입니다. 자신에 대해 가장 잘 설명하는 보기의 번호를 골라주세요.	김선희, 김경연 (1998)을 수정·보완한 이경상 외(2011)	-	문44	문44	문44	문44	문45	문45	문42	문42
		· 비행	※ 비행 행동 유형 항목 지난 1년간 경험 여부 및 횟수	학생은 지난 1년 동안 다음의 행동을 한 적이 있습니까?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한 경험이 있는 경우, 지난 1년 간 몇 회나 했습니까?	이경상, 김진호, 오해섭, 김희진 (2003)을 수정·보완한 이경상 외 (2011)을 수정·보완하여 사용	-	-	문50	문51	문51	문57	문63	문60	문60

구분		조사항목	하위문항	질문	출처	2011 (1차)	2012 (2차)	2013 (3차)	2014 (4차)	2015 (5차)	2016 (6차)	2017 (7차)	2018 (8차)	2019 (9차)
		· 현재 고민 및 걱정거리	※ 평소 걱정, 고민 관련 항목 (4점 척도)	현재 고민이나 걱정거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신의 상황을 가장 잘 설명하는 보기의 번호를 골라주세요.	유한구, 김영식. 류지영, 신동중, 이은혜 (2016)에서 발췌 및 수정	-	-	-	-	-	-	문39	문36	문36
	인지	· 학교성적	국어	다음은 학생의 성적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과목에 대해 자신의 성적이 해당되는 번호를 솔직하게 골라주세요.	이경상, 조혜영, 박연수 (2004) 발췌	문29 (5개 항목)	문29 (5개 항목)	문29 (5개 항목)	문30 (5개 항목)	문30 (5개 항목)	문31 (5개 항목)	문16 (6개 항목)	문13 (6개 항목)	문13 (6개 항목)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전공교과											
		· 성취동기	※ 성취동기 관련 항목(4점 척도)	다음은 학생의 평소 생각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입니다. 자신에 대해 가장 잘 설명하는 보기의 번호를 골라주세요.	Yu & Yang (1994) 발췌 및 수정보완	문16	문16	문16	문16	문16	문15	문19	문16	문16
		· 성적에 대한 만족도		학생은 자신의 성적에 대해 얼마나 만족합니까? 아래에서 해당 번호를 골라주세요.	연구진 작성	문30	문30	문30	문31	문31	문32	문17	문14	문14
	진로	· 희망 교육수준	희망하는 교육수준	학생은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기를 원합니까?	연구진 작성	문18	문18	문18	문18	문18	문16	문34	문31	문31
			(대학교육이상 희망 시) 희망하는 수준	만일 대학교 이상 교육받기를 원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수준을 원합니까?	연구진 작성	-	-	-	-	-	문16-1	문34-1	문31-1	문31-1
			대학원 이상 교육받기를 원한다면 어느 단계까지 교육받기를 원합니까?	연구진 작성	-	-	-	-	-	-	문16-2	문34	문34	문31
			(대학교육이상 희망 시) 대학 진학 희망 이유	대학에 진학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연구진 작성	-	-	-	-	-	-	문34-2	문31-2	문31-2
			(대학교육이상 희망 시) 희망 진학 계열	대학교에 간다면 어떤 계열에 진학할 생각입니까?	연구진 작성	-	-	-	-	-	-	문34-3	문31-3	문31-3
			(진학 계열 결정 시) 희망 진학 학과 결정 여부	어떤 학과에 진학할지 정했습니까?	연구진 작성	-	-	-	-	-	-	문34-4	문31-4	문31-4
			(희망 진학 학과 결정 시)	진학하고자 하는 학과명을 기입해	연구진 작성	-	-	-	-	-	-	문	문	문

구분	조사항목	하위문항	질문	출처	2011 (1차)	2012 (2차)	2013 (3차)	2014 (4차)	2015 (5차)	2016 (6차)	2017 (7차)	2018 (8차)	2019 (9차)
		희망 진학 학과명	주세요.								34-4-1	31-4-1	31-4-1
	· 중학교 졸업 후 계획		학생은 중학교 졸업 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연구진 작성	-	-	-	-	-	문17	-	-	-
	· 고등학교 졸업 후 계획	· 고등학교 졸업 후 계획	고등학교 졸업 직후 계획은 무엇입니까? 다음 중 하나만 골라 주세요.	연구진 작성	-	-	-	-	-	-	문35	문32	문32
		· 해외 유학을 가고자 하는 이유	해외 유학을 가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연구진 작성	-	-	-	-	-	-	문35-1	문32-1	문32-1
		· 취업 또는 창업을 하려는 이유	취업 또는 창업을 하려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연구진 작성	-	-	-	-	-	-	문35-2	문32-2	문32-2
		· 고등학교 졸업 후 계획을 정하지 못한 이유	고등학교 졸업 직후의 계획을 결정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연구진 작성	-	-	-	-	-	-	문35-3	문32-3	문32-3
	· 직업 선택 시 주요 고려사항 I		학생이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를 순서대로 2가지만 골라주세요.	연구진 작성	문17	문17	문17	문17	문17	문18	-	-	-
	· 직업 선택 시 주요 고려사항 II		학생이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를 순서대로 2가지만 골라주세요.	유한구 외(2016)에서 발췌 및 수정	-	-	-	-	-	-	문37	문34	문34
	· 희망직업	· 미래 직업 결정 여부	학생은 미래에 어떤 직업을 가질지 결정하였습니까?	연구진 작성	-	-	-	-	-	-	문36	문33	문33
		· (직업 결정 시) 직업명	미래에 가장 갖고 싶은 직업을 한 가지만 적어주세요.	연구진 작성	-	-	-	-	-	문19	문36-1	문33-1	문33-1
		· (직업 결정 시) 직업 관련 정보 인지 (3개 항목, 4점 척도)	그 직업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각 항목별로 해당되는 보기의 번호를 골라주세요.	유한구 외(2016)에서 발췌 및 수정	-	-	-	-	-	-	문36-2	문33-2	문33-2
		· (직업 미결정 시) 결정하지 못한 이유	미래의 직업을 아직 결정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유한구 외(2016)에서 발췌 및 수정	-	-	-	-	-	-	문36-3	문33-3	문33-3
	· 학교 진로교육 및 활동 참여	※ 각 항목 참여 여부 및 (참여 시) 만족도(5점 척도)	작년 조사 이후부터 현재까지 학교에서 진행하는 진로교육 및 활동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각 활동별로 참여	연구진 작성	-	-	-	-	-	-	문28	문25	문25

구분		조사항목	하위문항	질문	출처	2011 (1차)	2012 (2차)	2013 (3차)	2014 (4차)	2015 (5차)	2016 (6차)	2017 (7차)	2018 (8차)	2019 (9차)
				여부와 만족도를 응답해 주세요.										
		· 학교 진로교육 및 활동 전반적 만족도	※ 5점 척도	학교에서 진행하는 진로교육 및 활동에 대해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고 있습니까?	연구진 작성	-	-	-	-	-	-	문29	문26	문26
		· 아르바이트 경험	· 아르바이트 경험	작년 조사 이후부터 현재까지 돈을 받고 일을 한 적이 있습니까? (현장체험 및 현장실습 제외)	유한구 외(2016)에서 발췌 및 수정	-	-	-	-	-	-	문38	문35	문35
			· (아르바이트 경험 시) 일의 종류	어떤 종류의 일이었습니까? 가장 오래 일 한 순서대로 세 가지만 골라주세요.	유한구 외(2016)에서 발췌 및 수정	-	-	-	-	-	-	문38-1	문35-1	문35-1
			· (아르바이트 경험 시) 일을 하게 된 이유	일을 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유한구 외(2016)에서 발췌 및 수정	-	-	-	-	-	-	문38-2	문35-2	문35-2
		· 진로태도	※ 진로에 대한 생각 및 태도 관련 항목 (4점 척도)	다음은 학생의 진로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자신의 진로에 대한 생각을 가장 잘 설명하는 보기의 번호를 골라주세요.	이기학, 한종철 (1997) 발췌	-	-	-	문52 (10개 항목)	문52 (10개 항목)	문51 (10개 항목)	문30 (8개 항목)	문27 (8개 항목)	문27 (8개 항목)
		· 진로에 대해 의논하는 사람		자신의 진로에 대해 주로 누구와 의논합니까?	최영애(2006) 발췌 및 수정	-	-	-	문53	문53	문52	문32	문29	문29
		· 진로장벽인식	※ 진로, 직업 관련 생각 및 태도 항목(4점 척도)	학생의 현재 상태를 가장 잘 설명하는 보기의 번호를 골라주세요.	이은설(2005) 발췌	-	-	-	-	-	문53	문31	문28	문28
		· 부모님 진로관련 행동	※ 부모님의 진로 지도 관련 항목 (아버지, 어머니 각 4점 척도)	다음은 학생의 부모님에 대한 질문입니다. 부모님에 대해 가장 잘 설명하는 보기의 번호를 골라주세요.	조아라, 윤성근, 양은주(2013) 발췌 및 수정	-	-	-	-	-	문54	문33	문30	문30
환경적 특성	부모와의 관계	· 가족의 지지	※ 가족 관련 항목 (4점 척도)	다음은 학생의 가족에 관한 질문입니다. 자신의 가족을 가장 잘 설명하는 보기의 번호를 골라주세요.	한미현(1996) 발췌	문25	문25	문25	문25	문25	문26	문49	문46	문46
		· 부모님의 지지 I	※ 부모님 관련 항목 (4점 척도)	다음은 학생의 부모님에 관한 질문입니다. 학생의 부모님에 대해 가장 잘 설명하는 보기의 번호를 골라주세요.	김순규(2001)	-	-	-	문26 (6개 항목)	문26 (6개 항목)	문27 (6개 항목)	-	-	-
		· 부모님의 지지 II	※ 부모님 관련	다음은 학생의 부모님에 관한 질문입	김의철, 박영신	-	-	-	-	-	-	문50	문47	문47

구분		조사항목	하위문항	질문	출처	2011 (1차)	2012 (2차)	2013 (3차)	2014 (4차)	2015 (5차)	2016 (6차)	2017 (7차)	2018 (8차)	2019 (9차)
			항목 (5점 척도)	니다. 학생의 부모님에 대해 가장 잘 설명하는 보기의 번호를 골라주세요.	(1999)							(9개 항목)	(9개 항목)	(9개 항목)
		· 부모에 대한 생각	아버지에 대한 생각	학생은 아버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연구진 작성	문26	문26	문26	문27	문27	문28	문53	문50	문50
			어머니에 대한 생각	학생은 어머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연구진 작성	문27	문27	문27	문28	문28	문29	문54	문51	문51
			외국인 부모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어려운 점	(문1에서 아버지가 외국인인 경우) 나와 아버지 사이에서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연구진 작성	문28	문28	문28	문29	문29	문30	문55	문52	문52
				(문1에서 어머니가 외국인인 경우) 나와 어머니 사이에서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연구진 작성	문28-1	문28-1	문28-1	문29-1	문29-1	문30-1	문55-1	문52-1	문52-1
		· 부모의 양육태도	※ 부모님(보호자)의 평소 양육 관련 항목(4점 척도)	학생이 부모님(보호자)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신의 부모님(보호자)에 대해 가장 잘 설명하는 보기의 번호를 골라주세요.	허묘연(2000) 수정·발췌한 김지경 외(2010) 및 이경상 외(2011)	문41	문41	문41	문41	문41	문42	문56	문53	문53
		· 부모님과 활동 및 대화	부모님과의 활동 빈도 (5개 항목)	부모님(또는 보호자)과 함께 다음 활동을 얼마나 자주 합니까?	유한구 외(2016)에서 발췌 및 수정	-	-	-	-	-	-	문51	문48	문48
			부모님과의 대화 빈도 (5개 항목)	부모님(또는 보호자)과 다음 내용에 대해 얼마나 자주 대화를 합니까?	연구진 작성	-	-	-	-	-	-	문52	문49	문49
	친구	· 친한 친구 수		학생은 친한 친구가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연구진 작성	문12	문12	문12	문12	문12	문11	문10	문10	문10
		· 친구의 지지	※ 평소 친구들의 행동 관련 항목 (4점 척도)	다음은 친구들에 관한 질문입니다. 자신과 친구들의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하는 보기의 번호를 골라주세요.	한미현(1996) 발췌	문32 (7개 항목)	문32 (7개 항목)	문32 (7개 항목)	문33 (7개 항목)	문33 (7개 항목)	문34 (3개 항목)	-	-	-
		· 교우관계 I (적응)	※ 평소 학교 친구들과의 관계 관련 항목 (4점 척도)	다음은 학생의 학교친구들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가장 잘 설명하는 보기의 번호를 골라주세요.	민병수(1991)를 사용한 정화실(2009, 재인용)을 수정·보완한 김지경 외(2010)	문37 (5개 항목)	문37 (5개 항목)	문37 (5개 항목)	문37 (5개 항목)	문37 (5개 항목)	문38 (5개 항목)	-	-	-

구분		조사항목	하위문항	질문	출처	2011 (1차)	2012 (2차)	2013 (3차)	2014 (4차)	2015 (5차)	2016 (6차)	2017 (7차)	2018 (8차)	2019 (9차)
		· 교우관계 II (적응)	※ 평소 학교 친구들과의 관계 관련 항목 (5점 척도)	다음은 학생의 학교친구들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가장 잘 설명하는 보기의 번호를 골라주세요.	김정남(2013), 황여정, 김경근 (2006) 일부 발췌 및 수정 보완	-	-	-	-	-	-	문21 (4개 항목)	문18 (4개 항목)	문18 (4개 항목)
		· 집단괴롭힘 피해경험	※ 학교에서 집단괴롭힘 관련 항목(4점 척도)	학생은 이번 학기동안 다른 학생들과의 사이에서 다음과 같은 일이 얼마나 자주 있었습니까?	이해경, 김혜원 (2001) 수정	문24	문24	문24	문24	문24	문25	문23	문20	문20
	학교 생활	· 학교생활의 어려운 점		학생이 학교에서 친구들과 생활하는데 있어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가장 어려운 점을 세 가지만 답해주세요.	연구진 작성	문13	문13	문13	문13	문13	문12	문24	문21	문21
		· 학교공부의 어려운 점		학생이 학교 공부를 하는데 있어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연구진 작성	문15	문15	문15	문15	문15	문14	문18	문15	문15
		· 학교적응: 학습활동	※ 학교수업 태도 관련 항목 (4점 척도)	다음은 학생의 학교수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가장 잘 설명하는 보기의 번호를 골라주세요.	민병수(1991)를 사용한 정화실 (2009, 재인용)을 수정·보완한 김지경 외 (2010)	문36 (5개 항목)	문36 (5개 항목)	문36 (5개 항목)	문36 (5개 항목)	문36 (5개 항목)	문37 (5개 항목)	-	-	-
		· 학교적응: 학업	※ 학업 관련 항목(5점 척도)	다음은 학생의 학교수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가장 잘 설명하는 보기의 번호를 골라주세요.	김정남(2013)에서 일부 발췌	-	-	-	-	-	-	문20 (4개 항목)	문17 (4개 항목)	문17 (4래 항목)
		· 교사의 지지	※ 평소 담임선생님과의 관계 관련 항목(4점 척도)	다음은 현재의 담임선생님에 관한 질문입니다. 학생과 담임선생님의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하는 보기의 번호를 골라주세요.	한미현(1996) 발췌 및 수정	문31 (6개 항목)	문31 (6개 항목)	문31 (6개 항목)	문32 (6개 항목)	문32 (6개 항목)	문33 (3개 항목)	-	-	-
		· 교사와의 관계 I (적응)	※ 평소 학교선생님과의 관계 관련 항목(4점 척도)	학생의 학교 선생님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가장 잘 설명하는 보기의 번호를 골라주세요.	민병수(1991)를 사용한 정화실 (2009, 재인용)을 수정·보완한 김지경 외(2010)	문38 (5개 항목)	문38 (5개 항목)	문38 (5개 항목)	문38 (5개 항목)	문38 (5개 항목)	문40 (5개 항목)	-	-	-
		· 교사와의 관계 II	※ 평소 학교선생님과	학생의 학교 선생님에 대한 질문입니	황여정, 김경근	-	-	-	-	-	-	문22	문19	문19

구분	조사항목	하위문항	질문	출처	2011 (1차)	2012 (2차)	2013 (3차)	2014 (4차)	2015 (5차)	2016 (6차)	2017 (7차)	2018 (8차)	2019 (9차)
	(적응)	의 관계 관련 항목(5점 척도)	다. 자신의 생각을 가장 잘 설명하는 보기의 번호를 골라주세요.	(2006), 김자경 외(2010), 유한구 외(2016) 발췌 및 수정보완							(3개 항목)	(3개 항목)	(3개 항목)
	· 학교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도움을 주는 어른이 있는지 여부	학교 내에서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친구나 담임선생님 외에 도와주는 어른이 있습니까?	연구진 작성	문34	문34	문34	문34	문34	문35	문26	문23	문23
		(있다면) 누구인지	(학교 내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면) 도와주는 어른은 누구입니까? 모두 골라주세요.	연구진 작성	문34-1	문34-1	문34-1	문34-1	문34-1	문35-1	문26-1	문23-1	문23-1
	· 방과후 프로그램 참여현황	방과 후 프로그램 참여 여부	학생은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방과 후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연구진 작성	문33	-	-	-	-	-	-	-	-
		(있다면) 무엇인지		연구진 작성	문33-1	-	-	-	-	-	-	-	-
	· 고등학교 생활	고등학교 유형	현재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는 어떤 종류의 학교입니까?	고입정보포털(2017)을 참고하여 연구진 구성	-	-	-	-	-	-	문11	문11	문11
		고등학교 선택 이유		연구진 작성	-	-	-	-	-	-	문12	-	-
		고등학교 선택 시기		유한구 외(2016)에서 발췌	-	-	-	-	-	-	문13	-	-
		고등학교 유형 선택에 영향을 준 사람		유한구 외(2016)에서 발췌	-	-	-	-	-	-	문14	-	-
		전공		고입정보포털(2017)을 참고하여 연구진 구성	-	-	-	-	-	-	문11-1	-	-
		전공명		고입정보포털(2017)을 참고하여 연구진 구성	-	-	-	-	-	-	문11-1	문11-2	문11-2
		전공/계열 선택 이유	전공을 선택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유한구 외(2016)에서 발췌	-	-	-	-	-	-	문11-2	문11-3	-
		계열(문과/이과/예체능)		연구진 작성	-	-	-	-	-	-	-	문11-1	문11-1

구분		조사항목	하위문항	질문	출처	2011 (1차)	2012 (2차)	2013 (3차)	2014 (4차)	2015 (5차)	2016 (6차)	2017 (7차)	2018 (8차)	2019 (9차)
			전공 유무		연구진 작성	-	-	-	-	-	-	-	문11-2	문11-2
			전공 변경 유무		연구진 작성	-	-	-	-	-	-	-	문 11-2-1	-
		· 학교생활 전반적 만족도	※ 5점 척도	현재 학교생활에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고 있습니까?	연구진 작성	-	-	-	-	-	-	문15	문12	문12
	지역사회지지망	· 학교밖에서 도움 받을 수 있는 사람	도움을 주는 어른이 있는지 여부	학교밖에서 학생에게 어려운 일이 생겼거나 숙제를 해야 할 때, 가족이나 학교선생님 외에 도와주는 어른이 있습니까?(동거가족 제외)	연구진 작성	문35	문35	문35	문35	문35	문36	문27	문24	문24
			(있다면) 누구인지	(학교밖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면) 도와주는 어른은 누구입니까? 모두 골라주세요.	연구진 작성	문35-1	문35-1	문35-1	문35-1	문35-1	문36-1	문27-1	문24-1	문24-1
		· 거주지역에 대한 인식	※ 평소 동네 사람들과의 관계 관련 항목 (4점 척도)	학생이 동네와 동네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동네 사람들에 대한 생각을 가장 잘 설명하는 보기의 번호를 골라주세요.	Carolina Population Center (2009)를 번안 후 수정·보완한 김지경 (2010)	문42	문42	문42	문42	문42	문43	-	-	-
	학업중단위험요인	· 생활 및 태도	※ 학업중단요인 - 평소 생활 및 태도 관련 항목(6개 4점 척도, 2개 경험 여부)	다음은 학생의 평소 생활과 태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평소 자신의 상황을 가장 잘 설명하는 보기의 번호를 골라주세요.	이자영, 강석영, 김한주, 이유영, 양은주 (2010) 발췌	-	-	-	문54	문54	문58	문64	문61	문61
		· 친구 및 선후배의 영향	※ 학업중단요인 - 친구 및 선후배 영향 관련 항목 (해당 여부)	다음은 학생의 친구 및 선후배에 관한 질문입니다. 학생의 친구 및 선후배에 대해 가장 잘 설명하는 보기의 번호를 골라주세요.	김순규(2001) 발췌 및 수정	-	-	-	문57	문57	문59	문65	문62	문62
	학습활동	· 교과목 관련 학습 활동 시간	※ 학습 활동 유형 참여 여부 및 빈도 (방과후 활동, 과외 활동)	학생은 공부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활동을 일주일에 평균 얼마나 합니까? ※예체능을 제외한 교과목 학습 활동만 포함됩니다.	김지경 외 (2010) 수정	-	-	-	문55 (7개 유형)	문55 (7개 유형)	문55 (7개 유형)	문61 (6개 유형)	문58 (6개 유형)	문58 (6개 항목)
		· 특기적성 활동 시간	※ 특기적성 활동 유형 참여 여부 및 빈도(방과	학생은 다음과 같은 활동(학교 정규 수업 제외)을 일주일에 얼마나 합니까?	김지경 외 (2010) 수정	-	-	-	문56 (6개 유	문56 (6개 유	문56 (6개 유	문62 (5개 유	-	-

구분		조사항목	하위문항	질문	출처	2011 (1차)	2012 (2차)	2013 (3차)	2014 (4차)	2015 (5차)	2016 (6차)	2017 (7차)	2018 (8차)	2019 (9차)
			후 활동, 과외 활동)	※ 방과후 교육 활동도 포함됩니다. (단, 예체능 외에 교과목(수학, 영어 등) 관련 활동은 제외)					형)	형)	형)	형)		
		· 청소년 활동 참여 경험	※ 청소년 활동 유형 참여 여부 및 빈도	지난 1년 동안 학생은 다음과 같은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까?	연구진 작성	-	-	-	-	-	-	-	문59	문59

* 출처: 양계민 외 (2018: 40-55) 표 Ⅱ-6 수정

표 Ⅲ-6 학부모용 설문지 문항 구성(2011년~2019년)

구분		조사항목	하위문항	질문	출처	2011 (1차)	2012 (2차)	2013 (3차)	2014 (4차)	2015 (5차)	2016 (6차)	2017 (7차)	2018 (8차)	2019 (9차)
배경변인	가족특성	· 배우자와의 결혼상태		귀하의 현재 결혼 상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연구진 작성	문37	문42	문42	문43	문43	문46	문44	문45	문45
		· 초혼여부		현재 결혼은 초혼이십니까?	연구진 작성	문38	문43	문43	문44	문44	문47	문45	문46	-
		· 자녀의 아버지와 현재 배우자 일치여부		설문에 응답하는 자녀는 현재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입니까?	연구진 작성	문39	문44	문44	문45	문45	문48	문46	문47	-
		· 자녀 아버지의 동일 여부		자녀들의 아버지는 모두 같은 분이십니까?	연구진 작성	문40	문45	문45	문46	문46	-	-	-	-
		· 가정의 경제적 수준	월평균 소득수준(세전)	귀 댁의 월평균 소득수준은 얼마나 되십니까?	연구진 작성	원부	문46	문46	문47	문47	문49	문47	문48	문46
			주요 소득원	주요 소득원은 누구입니까?	연구진 작성	원부	문 46-1	문 46-1	문 47-1	문 47-1	문 49-1	문 47-1	문 48-1	문46-1
			가정형편에 대한 지각	현재 귀 댁의 가정 형편은 어떻습니까?	연구진 작성	원부	문 46-2	문 46-2	문 47-2	문 47-2	문 49-2	문 47-2	문 48-2	문46-2
다문화적 특성	언어능력	· 모국어		귀하의 모국어는 무엇입니까?	연구진 작성	문1	문1	문1	문1	문1	문1	문1	문1	문1
		· 한국에서 거주한 기간		귀하가 지금까지 한국에 거주한 기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연구진 작성	문2	문2	문2	문2	문2	문2	문2	문2	문2
		· 한국어 공부 경험	현재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는지 여부	귀하는 현재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습니까?	연구진 작성	문3	문3	문3	문3	문3	-	-	-	-
			(있다면) 어디에서 공부하는지	한국어를 주로 공부하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연구진 작성	문 3-1	문 3-1	문 3-1	문 3-1	문 3-1	-	-	-	-
			(있다면) 공부한 기간	한국어를 얼마나 오랫동안 공부했습니까?	연구진 작성	문 3-2	-	-	-	-	-	-	-	-
		· 한국어 수준	말하기	귀하는 현재 한국어를 얼마나 잘 할 수 있습니까?	CILS 문항 수정	문4	문4	문4	문4	문4	문3	문3	문3	문3
			쓰기											
			읽기											
			듣기											
	이중문화	· 걱정거리를 의논할 수 있는 사람	주변에 걱정거리를 의논할 수 있는 사람이	귀하가 자신의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거나 귀하의 걱정거	Kim, U. (1988) 수정 및 보완	문24	문24	문24	문22	문22	문24	문22	문23	문23

구분		조사항목	하위문항	질문	출처	2011 (1차)	2012 (2차)	2013 (3차)	2014 (4차)	2015 (5차)	2016 (6차)	2017 (7차)	2018 (8차)	2019 (9차)
			있는지 여부	리를 같이 의논할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있습니까?										
			(있다면) 의논할 수 있는 사람 수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문 24-1	문 24-1	문 24-1	문 22-1	문 22-1	문 24-1	문 22-1	문 23-1	문23-1
		· 한국생활이 모국문화와 달라서 어려운 점		귀하가 한국에서 생활하는 데 있어 모국의 문화와 달라서 어려운 점이 얼마나 있습니까?	Kim, U. (1988) 수정 및 보완	문25	문25	문25	문23	문23	문25	문23	문24	문24
		· 국적 정체성		귀하는 스스로를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Kim, U. (1988) 수정 및 보완	문26	문26	문26	문24	문24	문26	문24	문25	문25
		· 주로 어울리는 사람		귀하는 주로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십니까?	Kim, U. (1988) 수정 및 보완	문27	문27	문27	문25	문25	문27	문25	문26	문26
		· 모국음식을 자주 하는 정도		귀하는 집에서 모국 음식을 자주 해 드십니까?	Kim, U. (1988) 수정 및 보완	문28	문28	문28	문26	문26	문28	문26	문27	문27
		· 주로 따르는 가치관		귀하는 생활을 하는데 있어 주로 어떤 가치관에 따라 행동하십니까?	Kim, U. (1988) 수정 및 보완	문29	문29	문29	문27	문27	문29	문27	문28	문28
		· 모국에 대한 생각		귀하는 자신의 모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Kim, U. (1988) 수정 및 보완	문30	문30	문30	문28	문28	문30	문28	문29	문29
		· 평소에 말을 할 때 사용하는 언어		귀하가 평소 말을 할 때, 주로 사용하는 언어는 무엇입니까?	Kim, U. (1988) 수정 및 보완	문31	문31	문31	문29	문29	문31	문29	문30	문30
		· 평소에 글을 쓸 때 사용하는 언어		귀하가 평소 글을 쓸 때, 주로 사용하는 언어는 무엇입니까?	Kim, U. (1988) 수정 및 보완	문32	문32	문32	문30	문30	문32	문30	문31	문31
		· 문화적응 스트레스	※ 한국 생활 시 문화 차이 관련 어려움 항목(5점 척도)	다음은 한국에서 귀하가 생활하시면서 느끼는 일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각 문항에 대해	이승종(1995) 번안, 이소래(1997)가 북한이탈주민으	문36	문36	문36	문34	문34	문37	문35	문36	문36

구분		조사항목	하위문항	질문	출처	2011 (1차)	2012 (2차)	2013 (3차)	2014 (4차)	2015 (5차)	2016 (6차)	2017 (7차)	2018 (8차)	2019 (9차)
				자신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보기의 번호를 골라주세요.	로 수정하여 사용한 것을 수정 후 사용									
		· 문화적응 유형	※ 한국인, 모국인과의 교류 및 평소 생각 항목 (5점 척도)	다음은 귀하가 일상생활에서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평소 귀하의 느낌을 가장 잘 설명하는 보기의 번호를 골라주세요.	Barry(2001) 발췌	-	문37 (28개 항목)	문37 (28개 항목)	문35 (28개 항목)	문35 (28개 항목)	문38 (12개 항목)	문36 (12개 항목)	문37 (12개 항목)	문37 (12개 항목)
	지원 정책에 대한 태도	· 자녀의 다문화가족정책 지원 경험	지원받은 경험 여부	작년 조사 이후부터 지금까지 귀하의 자녀가 학교나 기타 다른 기관으로부터 다문화가족이기 때문에 지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연구진 작성	-	문39	문39	문37	문37	문40	문38	문39	문39
			(있다면) 받은 지원의 종류	귀하의 자녀가 학교나 기타 다른 기관에서 다문화가족이라고 하여 작년 조사 이후부터 지금까지 어떤 지원들을 받았습니까? 받은 경험이 있는 지원의 종류를 모두 골라주세요.	연구진 작성	-	문 39-1	문 39-1	문 37-1	문 37-1	문 40-1	문 38-1	문 39-1	문39-1
			(있다면) 받은 지원이 중복 여부	문37-1에서 말한 지원 중에서 같은 종류의 지원이 여러 번 중복되어 제공된 적이 있습니까?	연구진 작성	-	문 39-2	문 39-2	문 37-2	문 37-2	-	-	-	-
			(중복되었다면) 중복된 지원의 종류	만일 같은 종류의 지원이 여러 번 중복되어 제공된 적이 있다면 주로 어떤 것들이 중복적으로 지원되었습니까? 귀 자녀의 참여 여부와는 상관없이 학교나 기타 다른 기관에서 중복적으로 제공된 적이 있는 것을 모두 골라주세요.	연구진 작성	-	문 39-3	문 39-3	문 37-3	문 37-3	-	-	-	-
			(중복되었다면) 중복적으로 지원받은 내용	이 중 귀하의 자녀가 중복적으로 제공받은 것 (참여한 것)은 무엇인지 모두 골라주세요.	연구진 작성	-	문 39-4	문 39-4	문 37-4	문 37-4	-	-	-	-

구분		조사항목	하위문항	질문	출처	2011 (1차)	2012 (2차)	2013 (3차)	2014 (4차)	2015 (5차)	2016 (6차)	2017 (7차)	2018 (8차)	2019 (9차)
			지원에 대한 태도	귀하의 자녀가 다문화가족 자녀만을 위한 특별지원을 받았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습니까?	연구진 작성	-	문 39-5	문 39-5	-	-	-	-	-	-
				귀하는 다문화가족 자녀에게만 주어지는 특별지원에 대해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까?	연구진 작성	-	문 39-6	문 39-6	-	-	-	-	-	-
			(있다면) 제공받은 지원의 필요성	귀하의 자녀가 제공받은 지원은 자녀에게 필요한 것이었습니까?	연구진 작성	-	문 39-7	문 39-7	문 37-5	문 37-5	문 40-2	문 38-2	문 39-2	문39-2
		· 선호하는 지원방식	다문화가족 자녀 특별지원 필요성	다문화가족 자녀를 다문화가족이 아닌 가정의 자녀와 구별하여 특별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연구진 작성	-	-	-	문38	문38	문41	문39	문40	문40
			특별지원 방식	특별지원을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연구진 작성	-	-	-	문 38-1	문 38-1	문 41-1	문 39-1	문 40-1	문40-1
			선호하는 국가의 다문화가족 지원방식	귀하는 국가에서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연구진 작성	-	문40	문40	문39	문39	문42	문40	문41	문41
		· 선호하는 지원의 종류		귀하는 앞으로 다문화가족 자녀를 위한 지원을 해준다면 어떤 것들을 해주길 원하십니까? 원하는 것을 모두 골라주세요.	연구진 작성	-	문41	문41	문40	문40	문43	문41	문42	문42
개인 및 환경 요인	어머니의 신체적·심리적	· 자아존중감	※ 자아 존중 관련 항목 (5점 척도)	다음은 귀하 자신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신을 가장 잘 설명하는 보기의 번호를 골라주세요.	Rosenberg (1965) 발췌	문20	문20	문20	문18	문18	문20	문18	문19	문19
		· 일상생활 스트레스	※ 지난 1주일간 스트레스 요소	지난 1주일 동안 다음의 각 항목들은 귀하에게 얼마나 걱정	김정희(1995) 발췌 및 수정	문21	문21	문21	문19	문19	문21	문19	문20	문20

구분		조사항목	하위문항	질문	출처	2011 (1차)	2012 (2차)	2013 (3차)	2014 (4차)	2015 (5차)	2016 (6차)	2017 (7차)	2018 (8차)	2019 (9차)
	특성		항목(4점 척도)	거리가 되었습니까? 다음 중 가장 적절한 보기의 번호를 골라주세요.										
		· 전반적 건강		귀하의 전반적인 건강상태는 어떻습니까?	연구진 작성	문22	문22	문22	문20	문20	문22	문20	문21	문21
		· 심리적·신체적 건강	※ 신체, 심리적 건강 상태 관련 항목 (5점 척도)	다음은 귀하의 건강에 관한 질문들입니다. 질문을 읽으시고 자신을 가장 잘 나타낸다고 생각되는 보기의 번호를 골라주세요.	Cawte(1972)를 황정규 (1997)가 사용한 문항 수정	문23	문23	문23	문21	문21	문23	문21	문22	문22
		· 개인주의 집단주의 가치	※ 개인 성향 관련 항목 (4점 척도)	다음은 귀하가 일상생활에서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평소 귀하의 느낌을 가장 잘 설명하는 보기의 번호를 골라주세요.	Singelis, Triandis, Bhawuk, & Gelfand (1995)	-	문38 (32개 항목)	문38 (32개 항목)	문36 (32개 항목)	문36 (32개 항목)	문39 (12개 항목)	문37 (12개 항목)	문38 (12개 항목)	문38 (12개 항목)
	자녀 교육 관련 특성	· 자녀가 가족 외의 사람에게 한국어를 배운 경험	초등학교 입학 전 한국어 학습 경험 여부	귀하의 자녀가 학교에 입학하기 전, 또는 초등학교 저학년(1, 2, 3학년) 때 한국어를 별도로 배운 적이 있습니까? 가족에게 배운 것은 제외하고 응답해 주세요.	연구진 작성	-	문14	문14	-	-	-	-	-	-
			(있다면) 누구에게/어디서	어디에서 배웠습니까? 모두 골라주세요.	연구진 작성	-	문 14-1	문 14-1	-	-	-	-	-	-
		·5-7세경 주양육자		귀하의 자녀가 만 6세 이전이었을 때, 주로 누가 자녀를 돌보았습니까?	연구진 작성	문5	문5	문5	-	-	-	-	-	-
		· 자녀교육관련 주 의사결정자		귀하의 가정에서는 자녀 교육과 관련된 결정을 할 때 주로 누가 결정합니까?	연구진 작성	문7	문7	문7	문6	문6	문5	문5	문5	문5
		· 자녀의 학교 교육에 대한 도움 정도		귀하는 귀하가 자녀의 학교 교육에 얼마나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연구진 작성	문8	문8	문8	문7	문7	문6	문6	문6	문6

구분		조사항목	하위문항	질문	출처	2011 (1차)	2012 (2차)	2013 (3차)	2014 (4차)	2015 (5차)	2016 (6차)	2017 (7차)	2018 (8차)	2019 (9차)
		· 자녀 학교문제, 숙제지도 하는 사람		귀하의 자녀가 학교에서 문제가 생겼거나 어려운 숙제를 해야 할 때 주로 누가 도와줍니까?	연구진 작성	문9	문9	문9	문8	문8	문7	문7	문7	문7
				귀하의 자녀가 학교에서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자녀를 주로 누가 도와줍니까?(7차~9차년도)										
		· 자녀의 성적향상을 위한 노력	※ 자녀 공부 도움 평소 행동 항목 (5점 척도)	귀하는 자녀의 성적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일들을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	연구진 작성	문11 (9개 항목)	문11 (9개 항목)	문11 (9개 항목)	문10 (9개 항목)	문10 (9개 항목)	문11 (9개 항목)	문11 (7개 항목)	문11 (7개 항목)	문11 (7개 항목)
		· 자녀의 학교생활을 위해 하는 활동	※ 자녀 학교에서 학부모 활동 참여 관련 항목(4점 척도)	귀하는 자녀의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활동을 1년에 몇 번이나 하십니까?	연구진 작성	문12 (9개 항목)	문12 (9개 항목)	문12 (9개 항목)	문11 (9개 항목)	문11 (9개 항목)	문12 (9개 항목)	문12 (4개 항목)	문12 (4개 항목)	문12 (4개 항목)
		·자녀의 학교 준비물 도와주는 사람		귀 댁은 자녀의 학교준비물을 주로 누가 챙겨 줍니까?	연구진 작성	문13	문13	문13	-	-	-	-	-	-
		· 자녀 재학 학교의 다문화가족 관련 프로그램 진행 여부	다문화가족 관련 프로그램 진행 여부	현재 귀하의 자녀가 다니고 있는 학교는 다문화가족 자녀를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연구진 작성	문15	문15	문15	문12	문12	문13	-	-	-
			(있다면) 도움이 되는지 여부	현재 학교에서 지원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자녀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연구진 작성	문 15-1	문 15-1	문 15-1	문 12-1	문 12-1	문 13-1	-	-	-
		· 지원프로그램의 제공 장소 선호도		만일 귀하의 자녀가 학교공부 또는 취미활동 등을 무료로 배울 수 있다면 어디에서 배우기를 원하십니까?	연구진 작성	문16	문16	문16	문13	문13	문14	문16	문16	문16
		· 선호하는 자녀 교육방식		귀하는 자녀가 어떤 방식으로 교육받기를 원하십니까?	연구진 작성	문17	문17	문17	문14	문14	문15	-	-	-
		· 학교 다문화가족 학부모 교육 경험	다문화가족 학부모 교육 실시 여부	작년 조사 이후 귀 자녀의 학교에서 다문화가족 학부모를 위한 교육을 한 적이 있습니까?	연구진 작성	문18	문18	문18	문16	문16	문18	-	-	-

구분		조사항목	하위문항	질문	출처	2011 (1차)	2012 (2차)	2013 (3차)	2014 (4차)	2015 (5차)	2016 (6차)	2017 (7차)	2018 (8차)	2019 (9차)
			(있다면) 도움이 되었는지 여부	학교에서 실시한 교육 프로그램이 도움이 되었습니까?	연구진 작성	문 18-1	문 18-1	문 18-1	문 16-1	문 16-1	문 18-1	-	-	-
		· 방과후 교육 (사교육 포함)	방과후 교육 프로그램 경험	귀하의 자녀는 현재 학교에서 실시하는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연구진 작성	문14	-	-	-	-	-	-	-	-
				참여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아래의 보기 중 해당되는 것을 3가지만 골라주세요.	연구진 작성	문 14-1	-	-	-	-	-	-	-	-
			방과후 교육 (사교육 포함) 경험	귀하의 자녀는 작년 조사 이후, 학교에서 방과후 보충수업을 받거나 사교육(학원, 과외수업, 인터넷 강의 등)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있다면, 사교육비로 월 평균 얼마 정도를 지출하셨습니까?	김지경 외(2010)	-	-	-	문41	문41	문44	문42	문43	문43
			월평균 방과후 교육 (사교육 포함) 비용			-	-	-	문 41-1	문 41-1	문 44-1			
			방과후 교육 (사교육 포함)을 받는 이유	귀하의 자녀가 작년 조사 이후, 방과후 교육(사교육 포함)을 받은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순서대로 2가지만 골라주세요.	김지경 외(2010)	-	-	-	문 41-2	문 41-2	문 44-2	문 42-1	문 43-1	문 43-1
			방과후 교육 (사교육 포함) 비용의 가계 부담 정도	귀 자녀의 방과후 교육(사교육 포함) 비용은 가계에 어느 정도 부담이 됩니까?	김지경 외(2010)	-	-	-	문 41-3	문 41-3	문 44-3	문 42-2	문 43-2	문 43-2
			방과후 교육 (사교육 포함)을 받지 않는 이유	자녀가 방과후 교육(사교육 포함)을 받지 않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순서대로 2가지만 골라주세요.	김지경 외(2010)	-	-	-	문42	문42	문45	문 42-3	문 43-3	문43-3
		· 특기적성교육	특기적성 교육 경험	귀하는 작년 조사 이후, 음악, 미술, 체육, 컴퓨터 등과 같은 자녀의 특기적성교육과 관련하여 교육비를 지출한 적이 있습니까?	연구진 작성	-	-	-	-	-	-	문43	문44	문44

구분		조사항목	하위문항	질문	출처	2011 (1차)	2012 (2차)	2013 (3차)	2014 (4차)	2015 (5차)	2016 (6차)	2017 (7차)	2018 (8차)	2019 (9차)
			특기적성 교육 월평균 비용	교과목 외 특기적성교육과 관련하여 지출한 월 평균 교육비는 얼마나 됩니까?	연구진 작성	-	-	-	-	-	-	문 43-1	문 44-1	문44-1
			특기적성 교육 월평균 비용의 가계 부담 정도	귀 자녀의 특기적성교육과 관련하여 지출한 교육비는 가계에 어느 정도 부담이 됩니까?	연구진 작성	-	-	-	-	-	-	문 43-2	문 44-2	문44-2
	자녀 진학 / 진로 지도 관련 특성	· 희망하는 자녀의 교육수준	희망하는 자녀의 교육수준	귀하는 자녀가 어느 수준까지 교육받기를 원하십니까?	연구진 작성	문6	문6	문6	문5	문5	문4	문4	문4	문4
			(대학교육이상 희망 시) 희망하는 수준	만일 대학교 이상 교육받기를 원하신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수준을 원하십니까?	연구진 작성	문6-1	문6-1	문6-1	문5-1	문5-1	문4-1	문4-1	문4-1	문4-1
				대학원 이상 교육 받기를 원하신다면 어느 단계까지 교육받기를 원하십니까?	연구진 작성	-	-	문6-2	문5-2	문5-2	문4-2	문4-2	문4-2	문4-2
		· 자녀의 장래 직업에 대한 기대 I		귀하는 자녀가 나중에 어떤 종류의 직업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연구진 작성	문10	문10	문10	문9	문9	문8	-	-	-
		· 자녀의 장래 직업에 대한 기대 II		귀하는 자녀가 나중에 어떤 종류의 직업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유한구 외(2016)	-	-	-	-	-	-	문8	문8	문8
		· 자녀가 나중에 갖기 원하는 직업		자녀가 나중에 가졌으면 하는 직업을 한 가지만 적어주세요. ※ 구체적인 직업명을 기입해 주세요.(예. 간호사, 미용사 등)	연구진 작성	-	-	-	-	-	문9	문9	문9	문9
		· 자녀 진로지원 행동	※ 자녀 진로 지도 관련 항목(4점 척도)	귀하는 자녀의 진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행동이나 생각을 얼마나 하십니까? 현재 상태를 가장 잘 설명하는 보기의 번호를 골라주세요.	조아라, 윤성근, 양은주(2013) 발췌 및 수정	-	-	-	-	-	문10	문10	문10	문10

구분		조사항목	하위문항	질문	출처	2011 (1차)	2012 (2차)	2013 (3차)	2014 (4차)	2015 (5차)	2016 (6차)	2017 (7차)	2018 (8차)	2019 (9차)
		· 자녀의 진로지도와 관련한 지원 요구	※ 자녀 진로 지도 관련 지원 (5점 척도)	자녀의 진로 지도와 관련해서 다음 내용에 대한 도움이 얼마나 필요하십니까?	연구진 작성	-	-	-	-	-	문17	문16	문15	문15
		· 자녀의 진로·진학 설명회 참석	자녀의 진로·진학 설명회 참석 여부	귀하는 작년 조사 이후부터 지금까지 자녀의 진로·진학 설명회에 참석하신 적이 있습니까? 학교, 학원, 교육청 등에서 진행한 것을 모두 포함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연구진 작성	-	-	-	-	-	-	문13 (3개 항목)	문13	문13
			(설명회 참석 시) 개최 기관	귀하가 작년 조사 이후부터 지금까지 참석한 진로·진학 설명회는 어느 기관이 개최한 것이었습니까? 모두 말씀해 주십시오.	연구진 작성	-	-	-	-	-	-	-	문 13-1	문 13-1
			향후 자녀의 진로·진학 설명회 참석 의향	앞으로 자녀의 진로·진학 설명회에 참석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연구진 작성	-	-	-	-	-	-	-	문14	문14
			(향후 설명회 참석 시) 희망 개최 기관	다음 중 어느 기관에서 자녀의 진로·진학 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연구진 작성	-	-	-	-	-	-	-	문 14-1	문 14-1
			(향후 설명회 미참석 시) 참석 의향이 없는 이유	자녀의 진로·진학 설명회에 참석할 생각이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연구진 작성	-	-	-	-	-	-	-	문 14-2	문 14-2
	양육 관련 특성	· 자녀 지도 시 어려운 점		귀하가 자녀를 지도할 때,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연구진 작성	-	-	-	문15	문15	문16	문15	문17	문17
		· 부모효능감	※ 부모의 역할 충족 정도 관련 항목 (5점 척도)	다음은 귀하가 자녀를 키우는데 있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귀하에게 해당되는 보기의 번호를 골라주세요.	Gibaude-Wallston & Wandersman (1978)의 문항을 번안·수정한 신숙재 (1997) 수정	문19	문19	문19	문17	문17	문19	문17	문18	문18

구분		조사항목	하위문항	질문	출처	2011 (1차)	2012 (2차)	2013 (3차)	2014 (4차)	2015 (5차)	2016 (6차)	2017 (7차)	2018 (8차)	2019 (9차)
		· 자녀와 대화 시 사용언어		귀하는 자녀와 대화를 할 때, 어떤 언어를 사용하십니까?	연구진 작성	문33	문33	문33	문31	문31	문33	문31	문32	문32
		· 자녀와의 의사소통 정도		귀하는 자녀와 대화를 할 때 의사소통이 얼마나 잘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연구진 작성	문34	문34	문34	문32	문32	문34	문32	문33	문33
		· 자녀가 잘하기 바라는 언어		귀하는 자녀가 어떤 언어를 잘했으면 좋겠습니까?	CILS 문항 수정	문35	문35	문35	문33	문33	문35	문33	문34	문34
		· 자녀가 한국어 외에 배우기 바라는 언어		한국어 외에 자녀가 가장 잘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언어는 무엇입니까?	연구진 작성	-	-	-	-	-	-	문34	문35	문35
		· 자녀가 한국어나 모국어 외 배우기 바라는 언어		한국어나 모국어 외에 자녀가 추가로 배우게 하고 싶은 언어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문 35-1	문 35-1	문 35-1	문 33-1	문 33-1	문36	문 34-1	문 35-1	문 35-1
				그렇다면 자녀가 어떤 언어를 잘하기를 바라시는지 모국어를 제외하고 골라주세요(7~9차년도)										

* 출처: 양계민 외 (2018: 56-67) 표 Ⅱ-7 수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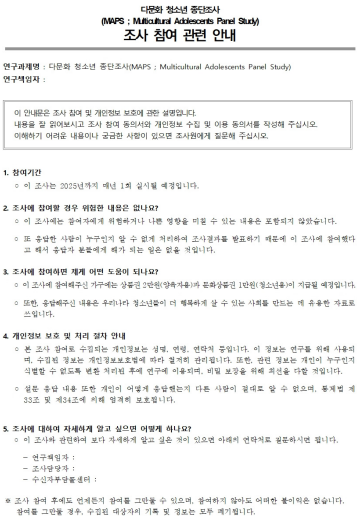
3) 2019년 설문지 변경 절차 및 내용

(1) 설문지 변경 절차

2019년도 1기 패널 조사대상 청소년들은 현재 고등학교 3학년으로, 2018년 조사문항과 유사하되, 고등학교 3학년의 상황에 맞추어 내용상 수정이 필요한 부분, 응답의 명료성을 높이기 위한 부분 등 일부 문항을 수정하였다. 설문지 변경을 위하여 수차례에 걸쳐 연구진 회의를 하였고, 이후 기관 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 통계청 행정자료 우선활용 검토 및 통계청 변경 승인의 절차를 거쳐 설문지를 최종 수정하였다.

① 연구진 회의

기존패널 설문지 내용 검토를 위해 연구진 회의를 진행하였다. 전체적으로 설문지 문항은 큰 변화 없이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였으나, 고등학교 생활과 관련한 문항 중 올해 조사가 필요하지 않은 일부 문항(전공 및 계열 등)은 검토하여 수정 및 삭제하였다. 또한 일부 문항에서 응답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보기 및 예시 등을 제거하여 응답자들의 혼란을 줄이고자 하였다.



다문화 청소년 종단조사
(MAPS ; Multicultural Adolescents Panel Study)

조사 참여 관련 안내

연구과제명 : 다문화 청소년 종단조사(MAPS ; Multicultural Adolescents Panel Study)
연구책임자 :

이 안내문은 조사 참여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설명입니다.
내용을 잘 읽어보시고 조사 참여 동의서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작성해 주십시오.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조사원에게 질문해 주십시오.

1. 참여기간

○ 이 조사는 2025년까지 매년 1회 실시될 예정입니다.

2. 조사에 참여할 경우 위험한 내용은 없나요?

○ 이 조사에는 참여자에게 위험하거나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 또 응답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게 처리하여 조사결과를 발표하기 때문에 이 조사에 참여했다고 해서 응답자 본인에게 해가 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3. 조사에 참여하면 제게 어떤 도움이 되나요?

○ 이 조사에 참여해주신 가구에는 상품권 2만원(양육자용)과 문화상품권 1만원(청소년용)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 또한, 응답해주신 내용은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유용한 자료로 쓰입니다.

4. 개인정보 보호 및 처리 절차 안내

○ 본 조사 참여로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성명, 연령, 연락처 등입니다. 이 정보는 연구를 위해 사용되며, 수집된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철저히 관리합니다. 또한, 관련 정보는 개인이 누구인지 식별할 수 없도록 변형 처리된 후에 연구에 이용되며, 비밀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설문 응답 내용 또한 개인이 어떻게 응답했는지 다른 사람이 절대로 알 수 없으며, 통계법 제33조 및 제34조에 의해 철저히 보호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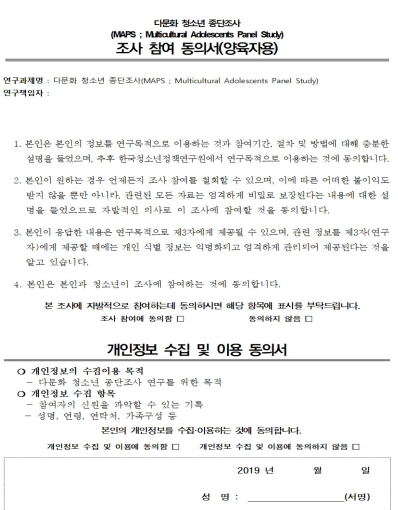
5. 조사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하나요?

○ 이 조사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하게 알고 싶은 것이 있으면 아래의 연락처로 질문하시면 됩니다.

- 연구책임자 :
- 조사담당자 :
- 수신자부담콜센터 :

※ 조사 참여 후에도 언제든지 참여를 그만둘 수 있으며, 참여하기 않아도 어떠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참여를 그만둘 경우, 수집된 대상자의 기록 및 정보는 모두 폐기합니다.

조사 참여 관련 안내



다문화 청소년 종단조사
(MAPS ; Multicultural Adolescents Panel Study)

조사 참여 동의서(양육자용)

연구과제명 : 다문화 청소년 종단조사(MAPS ; Multicultural Adolescents Panel Study)
연구책임자 :

1. 본인은 본인의 정보를 연구목적으로 이용하는 것과 참여기간, 절차 및 방법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며, 추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연구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본인이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조사 참여를 철회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관련된 모든 자료는 엄격하게 비밀로 보장된다는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자발적인 의사로 이 조사에 참여할 것을 동의합니다.
3. 본인이 응답한 내용은 연구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될 수 있으며, 관련 정보를 제3자(연구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개인 식별 정보는 익명화되고 엄격하게 관리되어 제공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4. 본인은 본인과 청소년이 조사에 참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본 조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데 동의하시면 해당 항목에 표시를 부탁드립니다.
조사 참여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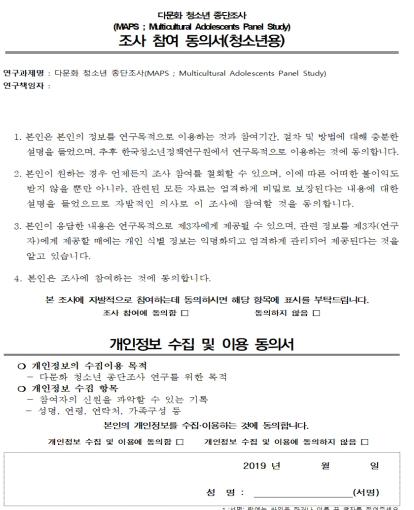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다문화 청소년 종단조사 연구를 위한 목적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참여자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 기록
– 성명, 연령, 연락처, 가족구성 등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2019 년 월 일

성 명 : _____(서명)

* 서명 란에는 싸인을 하거나 이름 끝 글자를 적어주세요



다문화 청소년 종단조사
(MAPS ; Multicultural Adolescents Panel Study)

조사 참여 동의서(청소년용)

연구과제명 : 다문화 청소년 종단조사(MAPS ; Multicultural Adolescents Panel Study)
연구책임자 :

1. 본인은 본인의 정보를 연구목적으로 이용하는 것과 참여기간, 절차 및 방법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며, 추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연구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본인이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조사 참여를 철회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관련된 모든 자료는 엄격하게 비밀로 보장된다는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자발적인 의사로 이 조사에 참여할 것을 동의합니다.
3. 본인이 응답한 내용은 연구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될 수 있으며, 관련 정보를 제3자(연구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개인 식별 정보는 익명화되고 엄격하게 관리되어 제공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4. 본인은 조사에 참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본 조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데 동의하시면 해당 항목에 표시를 부탁드립니다.
조사 참여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다문화 청소년 종단조사 연구를 위한 목적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참여자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 기록
– 성명, 연령, 연락처, 가족구성 등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2019 년 월 일

성 명 : _____(서명)

* 서명 란에는 싸인을 하거나 이름 끝 글자를 적어주세요

조사 참여 동의서(양육자용) 조사 참여 동의서(청소년용)

그림 Ⅲ-2. 1기 패널조사 조사 참여 안내문 및 동의서

②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는 인간대상 연구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국내법)」과 「헬싱키 선언(국제 지침)」 등의 생명윤리를 준수하기 위해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의를 받았다.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의를 위해 연구계획 심의 신청서, 연구계획서, 생명윤리교육 이수증, 설문지, 조사 참여 설명서 및 동의서, 연구자의 생명윤리 준수 서약서 등을 2019년 4월 5일 제출하였다. 4월 18일 조건부 승인이 되었으며, 이에 대한 수정 및 소명 후 4월 24일 최종 승인 되었다.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승인번호는 201904-HR-고유-002-01이다.

③ 행정자료 우선활용 검토 및 변경승인

본 조사는 올해 2개의 코호트 조사가 진행되었다. 기존 1기 패널의 경우 2019년 현재 고등학교 3학년으로, 이들에게 적합하지 않은 문항은 삭제하였고, 설문지 전체적으로 척도를 통일하는 등의 수정을 실시하였다. 2018년부터 통계법 제18조 2항에 따라 변경 청하기 전, 국가 통계 작성 시 행정자료 활용을 통해 해당 조사항목의 내용 파악이 가능한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함에 따라 2019년 4월 5일 통계청 행정자료관리과에 행정자료 활용을 통해 조사문항을 파악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요청하였다. 그 결과 2019년 4월 12일자로 행정자료 활용이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으며, 이 후 통계변경승인을 추진하였다. 2019년 변경승인은 기존패널에 새로운 코호트가 추가되는 것으로 기존패널의 조사내용 변경사항 및 신규패널 표본설계와 조사내용을 중심으로 변경승인이 진행되었다. 조사내용과 관련하여 특별한 요청사항은 없었으나, 직업분류와 관련하여 2018년부터 시행된 7차 한국표준직업분류를 사용할 것을 요청받아 추후 이를 공표시 반영하기로 하였다. 기존패널과 새롭게 추가되는 신규패널에 대한 내용 및 통계

청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2019년 5월 1일 변경승인을 완료하였다(승인번호: 제402003호).

(2) 설문지 변경 내용

이상 기술한 2019년 1기 패널의 설문지 변경 절차에 따라 최종적으로 수정한 설문지 변경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청소년용 설문지

청소년용 설문지는 크게 변화된 것이 없으나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 전공/계열이 이미 정해진 관계로 중복질문이 불필요한 문항을 수정하거나 삭제하였으며, 설문문항에서 응답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예시 등도 삭제하였다.

표 Ⅲ-7 2019년 청소년용 설문지 변경 내용

변경 전(2018년)		변경 후(2019년)		변경 사유	비고
번호	내용	번호	내용		
표지	■ 학교명/학교코드	표지	상동		동일
표지	■ 가구번호	표지	상동		동일
표지	■ 응답자 성명/연령/성별	표지	상동		동일
문1	외국출신인 부모	문1	상동		동일
문2	외국인 부모와 의사소통 시 사용 언어	문2	상동		동일
문3	부모 간 의사소통 시 사용언어	문3	상동		동일
문4 문 4-1	사용가능한 외국어 및 종류	문4 문 4-1	상동		동일
문5	외국인 부모 나라 언어 실력	문5	상동		동일
문6	국가에 대한 정체성	문6	상동		동일
문7	외국출신 부모 국가	문7	상동		동일

변경 전(2018년)		변경 후(2019년)		변경 사유	비고
번호	내용	번호	내용		
문 7-1	방문 여부 및 횟수	문 7-1			
문8	외국출신 부모의 가족들 한국 방문 여부	문8	상동		동일
문9	외국인 부모의 출신 국가에 대한 관심 정도	문9	상동		동일
문10	친한 친구 수	문10	상동		동일
문11	현재 재학중인 고등학교 종류	문11	상동		동일
문 11-1	(일반고/자율고) 학생의 계열 문11-1. 학생의 계열은 무엇입니까? 1. 문과 2. 이과 3. 예체능 4. 정하지 않음	문 11-1	(일반고/자율고) 학생의 계열 · 보기 변경 문11-1. 학생의 계열은 무엇입니까? 1. 문과 2. 이과 3. 예체능	· 고등학교 3학년에 진학함에 따라, 4. 정하지 않음 보기를 삭제함	변경
문 11-2	전공유무	문 11-2	상동		동일
문 11-2-1	(특수목적고/특성화고) 전공 변경 유무	-	-	· 다시 물어볼 필요가 없는 문항으로 삭제	삭제
문 11-3	전공/계열 선택 이유	-	-	· 다시 물어볼 필요가 없는 문항으로 삭제	삭제
문12	현재 학교생활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문12	상동		동일
문13	학생의 성적	문13	상동		동일
문14	성적에 대한 만족도	문14	상동		동일
문15	학교공부의 어려운 점	문15	상동		동일
문16	성취 동기	문16	상동		동일
문17	학교수업에 대한 생각	문17	상동		동일
문18	학교 친구들에 대한 생각	문18	상동		동일
문19	학교 선생님에 대한 생각	문19	상동		동일
문20	집단괴롭힘 피해경험	문20	상동		동일
문21	학교생활에서 어려운 점	문21	상동		동일
문22 문 22-1	다문화가족 자녀 공개 여부	문22 문 22-1	상동		동일
문 22-2 문 22-3	다문화가족 자녀 공개 후 변화 및 공개에 대한 생각	문 22-2 문 22-3	상동		동일

변경 전(2018년)		변경 후(2019년)		변경 사유	비고
번호	내용	번호	내용		
문 22-4 문 22-5	다문화가족 비공개 이유 및 향후 공개 여부	문 22-4 문 22-5	상동		동일
문23 문 23-1	학교 내 도와주는 어른 '5.교과과목 선생님 (체육, 음악, 미술 등)	문23 문 23-1	학교 내 도와주는 어른 '5.교과과목 선생님'	· 항목 수정 : 교과과목 선생님의 예시 삭제 : 응답자들의 응답시 혼란(다른반 선생님과 교과과목 선생님)을 줄이고자 예시, 삭제	변경
문24 문 24-1	학교 밖 도와주는 어른	문24 문 24-1	상동		동일
문25	학교 진로교육 및 활동 참여	문25	상동		동일
문26	학교 진로교육 및 활동 전반적 만족도	문26	상동		동일
문27	진로에 대한 생각	문27	상동		동일
문28	학생의 진로 관련 생각 및 행동	문28	상동		동일
문29	진로에 대해 주로 의논하는 사람	문29	상동		동일
문30	학생 부모님의 진로 관련 생각 및 행동	문30	상동		동일
문31 문 31-1	학생의 희망 교육수준	문31 문 31-1	상동		동일
문 31-2	대학에 진학하고자 하는 이유	문 31-2	상동		동일
문 31-3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 계열	문 31-3	상동		동일
문 31-4 문 31-4 -1	진학하고자 하는 학과	문 31-4 문 31-4 -1	상동		동일
문32	고등학교 졸업 직후 계획	문32	상동		동일
문 32-1	해외 유학을 가고자 하는 이유	문 32-1	상동		동일
문 32-2	취업 또는 창업을 하려는 이유	문 32-2	상동		동일

변경 전(2018년)		변경 후(2019년)		변경 사유	비고
번호	내용	번호	내용		
문 32-3	고등학교 졸업 직후 계획을 정하지 못한 이유	문 32-3	상동		동일
문33	미래 직업 결정 여부	문33	상동		동일
문 33-1	갖고 싶은 직업명 미래에 가장 갖고 싶은 직업을 한 가지만 적어주세요. ※ 구체적인 직업명을 기입해 주세요.(예. 초등학교 교사, 대학 교수, 의사, 간호사, 미용사 등)	문 33-1	갖고 싶은 직업명 미래에 가장 갖고 싶은 직업을 한 가지만 적어주세요.	· 문항 수정 : 직업 예시 삭제 : 응답자 응답시 혼란을 줄이고 다양한 직업을 기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명 내용 삭제	변경
문 33-2	직업에 대한 인지 정도 (3개 항목)	문 33-2	상동		동일
문 33-3	미래의 직업을 결정하지 못한 이유	문 33-3	상동		동일
문34	직업 선택 시 주요 고려사항	문34	상동		동일
문35	돈을 받고 일한 경험	문35	상동		동일
문 35-1	(일한 경험이 있다면) 일의 종류	문 35-1	상동		동일
문 35-2	(일한 경험이 있다면) 일을 하게 된 이유	문 35-2	상동		동일
문36	평소 고민이나 걱정거리	문36	상동		동일
문37	자아존중감	문37	상동		동일
문38	자신의 외모에 대한 생각	문38	상동		동일
문39	평소 기분(우울)	문39	상동		동일
문40	삶에 대한 생각	문40	상동		동일
문41	건강 상태	문41	상동		동일
문42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문42	상동		동일
문43	다문화 수용성	문43	상동		동일
문44	한국에 대한 생각	문44	상동		동일
문45	문화 적응 관련	문45	상동		동일
문46	가족에 대한 인식	문46	상동		동일
문47	부모님(또는 보호자) 지지	문47	상동		동일
문48	부모님(또는 보호자)과의 활동	문48	상동		동일
문49	부모님(또는 보호자)과의 대화	문49	상동		동일
문50	아버지에 대한 생각	문50	상동		동일

변경 전(2018년)		변경 후(2019년)		변경 사유	비고
번호	내용	번호	내용		
문51	어머니에 대한 생각	문51	상동		동일
문52 문 52-1	외국인 부모에 대한 어렵거나 힘든 점	문52 문 52-1	상동		동일
문53	부모님(보호자)에 대한 생각	문53	상동		동일
문54	학교나 다른 기관에서 다문화 가족 지원 여부	문54	상동		동일
문 54-1	학교나 다른 기관에서 다문화 가족 지원 내용	문 54-1	상동		동일
문 54-2	받은 지원에 대한 필요성	문 54-2	상동		동일
문55 문 55-1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특별지원의 필요 여부 및 지원 방식	문55 문 55-1	상동		동일
문56	국가에게 바라는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방식	문56	상동		동일
문57	향후 지원요구내용	문57	상동		동일
문58	과외 활동 시간 (공부 관련 학습 활동)	문58	상동		동일
문59	청소년 활동 참여 경험 (9개 활동)	문59	상동		동일
문60	비행행동 경험	문60	상동		동일
문61	평소 생활 및 태도	문61	상동		동일
문62	친구 및 선후배	문62	상동		동일
문 63 문 63-1 문 63-2	설문 시 어려운 문항 및 그 이유	-	-	· 문항 삭제 : 9년째 진행되는 조사로 문항에 큰 변화가 없어 해당 문항 삭제	삭제

② 학부모용 설문지

청소년용과 마찬가지로 학부모용 설문지 역시 크게 변경된 사항은 없다. 다만 응답자들의 응답 시 이해를 돕기 위해 용어 및 활동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거나, 응답과 관련한 혼란을 줄이기 위해 설명을 삭제하였다. 또한 척도 중 5점 척도

문항의 경우 '반반이다'로 제시되었던 응답항목을 '중간이다'로 수정하여 다른 5점 척도 문항과 통일하였다. 설문지의 변경 내용은 아래 표와 같으며, 수정 후 최종 확정된 설문지는 한국어 외 9개 외국어(영어, 일어, 중국어, 대만어, 베트남어, 태국어, 러시아어, 필리핀어, 몽골어 등)로 번역되어 사용하고 있다.

표 Ⅲ-8 2019년 학부모용 설문지 변경내용

변경 전(2018년)		변경 후(2019년)		변경 사유	비고
번호	내용	번호	내용		
표지	■ 학교명/학교코드	표지	상동		동일
표지	■ 가구번호	표지	상동		동일
표지	■ 응답자 성명/연령	표지	상동		동일
문1	모국어 종류	문1	상동		동일
문2	한국에 거주한 기간	문2	상동		동일
문3	한국어 실력 정도	문3	상동		동일
문4 문4-1 문4-2	희망하는 자녀의 교육수준	문4 문4-1 문4-2	상동		동일
문5	자녀 교육 관련 의사결정자	문5	상동		동일
문6	학교 교육에 도움을 주는 정도	문6	상동		동일
문7	학교에서 자녀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주로 도와주는 사람	문7	상동		동일
문8	희망하는 자녀의 직업 종류	문8	상동		동일
문9	자녀가 나중에 갖길 원하는 직업 자녀가 나중에 가졌으면 하는 직업을 한 가지만 적어 주세요. ※구체적인 직업명을 기입해 주세요.(예. 초등학교 교사, 대학 교수, 의사, 간호사, 미용사 등)	문9	자녀가 나중에 갖길 원하는 직업 자녀가 나중에 가졌으면 하는 직업을 한 가지만 적어 주세요. ※구체적인 직업명을 기입해 주세요.	· 문항 수정 : 설문문항 하단의 괄호 안 예시 삭제 : 응답자가 다양한 직업을 기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명 내용 삭제	변경
문10	자녀의 진로와 관련된 행동이나 생각	문10	상동		동일
문11	자녀의 성적 향상을 위한 노력	문11	상동		동일

변경 전(2018년)		변경 후(2019년)		변경 사유	비고
번호	내용	번호	내용		
문12	자녀의 학교생활 관련 참여 정도	문12	자녀의 학교생활 관련 참여 정도	· 문항 설명 추가 : 학교생활 관련 활동의 명확한 구분을 위해 설명 추가	변경
문13	자녀의 진로·진학 설명회 참석 여부	문13	상동		동일
문13-1	(설명회 참석 시) 개최 기관(복수응답)	문13-1	상동		동일
문14	향후 자녀의 진로 설명회 참석 의향	문14	상동		동일
문14-1	(향후 설명회 참석 의향이 있을 시) 선호하는 개최 기관	문14-1	상동		동일
문14-2	(향후 설명회 참석 의향이 없을 시) 참석 의향이 없는 이유	문14-2	상동		동일
문15	자녀의 진로 지도 관련 도움이 필요한 내용	문15	상동		동일
문16	자녀의 무료 교육을 희망하는 기관	문16	상동		동일
문17	자녀 지도 시 어려운 점	문17	상동		동일
문18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 가지고 있는 생각 / 척도 :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3. 반반이다 4. 그런 편이다 5. 매우 그렇다	문18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 가지고 있는 생각 / 척도 :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3. 중간이다 4. 그런 편이다 5. 매우 그렇다	· 응답 척도 수정 : 응답 척도 중 가운데 척도를 '반반이다 →중간이다'로 수정 : 다른 설문문항 응답척도와 통일성을 가지게 하기 위해 수정	변경
문19	자신에 대한 생각	문19	상동		동일
문20	평소 걱정거리	문20	상동		동일
문21	전반적인 건강상태	문21	상동		동일
문22	건강 관련 사항	문22	상동		동일
문23 문23-1	주변에 자신의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거나 걱정거리를 의논할 수 있는 사람 존재 여부 및 규모	문23 문 23-1	상동		동일
문24	문화적 차이로 인한 어려움 정도	문24	상동		동일
문25	자신에 대한 국가 정체성	문25	상동		동일
문26	평소 주로 어울리는 사람	문26	상동		동일

변경 전(2018년)		변경 후(2019년)		변경 사유	비고
번호	내용	번호	내용		
문27	모국음식 섭취 빈도	문27	상동		동일
문28	따르는 가치관	문28	상동		동일
문29	모국에 대한 자랑스러움 정도	문29	상동		동일
문30	평소 말할 때 주로 사용하는 언어	문30	상동		동일
문31	평소 글을 쓸 때 주로 사용하는 언어	문31	상동		동일
문32	자녀와 대화 시 사용하는 언어	문32	상동		동일
문33	자녀와 대화 시 의사소통 정도	문33	상동		동일
문34	자녀가 잘하길 원하는 언어	문34	상동		동일
문35 문35-1	한국어 외에 자녀가 잘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언어	문35 문 35-1	상동		동일
문36	한국생활에 대한 생각 7.나는 내가 외국에서 왔다는 이유 때문에 위축된다	문36	한국생활에 대한 생각 7.나는 내가 외국에서 왔다는 이유 때문에 위축된다 *위축: 자신감이 없고 기를 펴지 못하는 상태	· 응답문항의 단어 설명 추가 : 응답자가 단어에 대해 더 잘 이해하고 정확한 답변을 하도록 하기 위해 설명 추가	변경
문37	일상생활에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느낌1	문37	상동		동일
문38	일상생활에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느낌2	문38	상동		동일
문39	학교나 다른 기관에서 다문화가족 지원 여부	문39	상동		동일
문39-1	학교나 다른 기관에서 다문화가족 지원 내용	문 39-1	상동		동일
문39-2	받은 지원에 대한 필요성	문 39-2	상동		동일
문40 문 40-1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특별지원의 필요 여부 및 지원 방식	문40 문 40-1	상동		동일
문41	국가에게 바라는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방식	문41	상동		동일
문42	향후 지원 요구 내용	문42	상동		동일
문43	자녀의 교과목 관련 방과후 보충수업 및 사교육 참여 여부/월 평균 비용	문43	상동		동일
문 43-1	자녀가 교과목 관련 사교육을 받는 이유	문 43-1	상동		동일

변경 전(2018년)		변경 후(2019년)		변경 사유	비고
번호	내용	번호	내용		
문 43-2	교과목 관련 사교육 비용의 가계 부담 정도	문 43-2	상동		동일
문 43-3	자녀가 교과목 관련 사교육을 받지 않는 이유	문 43-3	상동		동일
문44 문 44-1 문 44-2	자녀의 특기적성교육 관련 교육비 지출 여부/월 평균 교육비/가계 부담 정도	문44 문 44-1 문 44-2	상동		동일
문45	결혼 상태	문45	상동		동일
문46	초혼 여부	-	-	· 문항 삭제 : 응답자의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민감한 문항으로 삭제	삭제
문47	현재 배우자와 자녀를 낳았는지 여부	-	-	· 문항 삭제 : 응답자의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민감한 문항으로 삭제	삭제
문48	월평균 소득수준	문48	상동		동일
문 48-1	주요 소득원	문 48-1	상동		동일
문 48-2	가정 형편	문 48-2	상동		동일
문49 문 49-1 문 49-2	설문 시 어려운 문항 및 그 이유	-	-	· 문항 삭제 : 9년째 진행되는 조사로 문항에 큰 변화가 없어 해당 문항 삭제	삭제

4. 조사절차 및 방법

1) 조사절차

1기 패널의 경우 2011년 1차년도 조사부터 2018년 8차년도 조사까지 모두 CAPI(Computer Assistant Personal Interview) 시스템을 구축하여 실시하였으나, 2018년도 신규패널 예비조사에서 시험 도입한 TAPI(Tablet Assistant

Personal Interview)시스템을 1기 패널에도 적용하기로 결정하였다. 그 외에는 이전 연도와 동일하게 진행하였다. 연도별 조사자료의 비교 가능성을 고려하여 가급적 동일한 기간에 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본 조사의 연도별 조사기간은 〈표 Ⅲ-9〉와 같다.

표 Ⅲ-9 연도별 조사기간

연도	조사대상 기간	조사실사 기간	최초결과공표
2011	과거부터 현재	2011. 8 ~ 2011. 11	2011. 12. 31
2012	2011년 조사 참여 이후부터 현재	2012. 6 ~ 2012. 8	2012. 12. 31
2013	2012년 조사 참여 이후부터 현재	2013. 5 ~ 2013. 7	2013. 12. 31
2014	2013년 조사 참여 이후부터 현재	2014. 6 ~ 2014. 8	2014. 12. 31
2015	2014년 조사 참여 이후부터 현재	2015. 5 ~ 2015. 8	2015. 12. 31
2016	2015년 조사 참여 이후부터 현재	2016. 5 ~ 2016. 7	2016. 12. 31
2017	2016년 조사 참여 이후부터 현재	2017. 7 ~ 2017.10	2018. 12. 31
2018	2017년 조사 참여 이후부터 현재	2018. 7 ~ 2018.10	2019. 12. 31
2019	2018년 조사 참여 이후부터 현재	2019. 6 ~ 2019.10	2020. 12. 31(예정)

* 출처 : 양계민 외(2018: 82) 표 Ⅱ-11 수정

2019년은 1기 패널의 조사대상자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되는 시점으로, 대학교 입시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최대한 빠른 시점에 조사에 착수하여 마무리하고자 하였다. 이에 여름 방학이 시작되기 전에 조사를 시작하여, 가능한 방학 중에 조사가 마무리되도록 실시하였으나, 일부 연락이 원활하지 못한 가구로 인하여 10월에 조사가 마무리되었다.

2) 조사원 교육 및 관리

본 연구의 2018년 기준 패널 유지율은 75.1%로 유사 패널 조사와 비교했을

때, 매우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높은 패널 유지율은 전문적인 조사원 교육과 관리가 큰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1기 패널의 1차년도 조사가 시작된 2011년 당시 아동·청소년 관련 조사 경험이 풍부한 전문 조사원을 선발하였고, 이후 동일 조사원이 가구를 매년 방문하여 조사원과 조사대상자와의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2018년을 기준으로 볼 때 조사원 유지율은 97.1%로, 거의 모든 조사원이 지속적으로 동일 가구를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양계민 외, 2018: 84).

2019년도 연구에서도 조사원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교육의 주요내용으로는 조사에 대한 기본 이해, 패널 유지 및 관리의 중요성, 패널 유지 관리 방안, 조사원의 기본자세, 사례 교육을 통한 오류 발생 방지 등이다. 특히 2019년 조사부터 새롭게 TAPI 방식을 도입하였으므로, TAPI 이용방법 숙지 및 사용 실습이 핵심 내용으로 교육이 진행되었다. 각 지역별 조사원 교육 일정은 다음과 같다.

표 Ⅲ-10 조사원 교육 일정

지역	일시	장소	참석조사원 수
서울	2019년 5월 30일(목)	한국갤럽 본사	30
대전	2019년 5월 31일(금)	한국갤럽 대전지사	13
강원	2019년 5월 31일(금)	춘천시 회의실	5
대구	2019년 6월 3일(월)	한국갤럽 대구지사	14
부산	2019년 6월 4일(화)	한국갤럽 부산지사	18
광주	2019년 6월 5일(수)	한국갤럽 광주지사	18
제주	2019년 6월 7일(금)	제주시 회의실	2

5. 패널관리

1) 패널 유지율 관리

장기적 패널조사에서 패널의 이탈을 방지하는 것은 조사결과의 타당성과 신뢰

성 확보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하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패널을 관리하고 있는데, 양계민 외(2018: 87-92)에 이미 제시되어 있고 매년 동일한 방식으로 추진되므로, 본 절에서는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간략하게 요약하여 제시하였다.

표 Ⅲ-11 패널관리 방법 및 내용

관리 방법	내용
전화관리	■ 이사 및 연락처 변경으로 인한 연락 두절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년 1회 이상 조사에 참여한 가구에 전화하여 기본 정보 업데이트
연하장 및 명절선물 제공	■ 이전 연도 조사에 참여한 가구를 대상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연하장과 명절 선물을 제공 ■ 담당 조사원의 이름과 연락처를 함께 제공하여 유대관계 유지
리플릿 제작 및 배부	■ 조사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조사 목적, 기관 안내, 이전 연도 주요 조사결과 요약 등의 내용을 포함한 리플릿 제작 ■ 리플릿은 10개 언어로 번역되어 가구방문 조사시 제공
답례품 제공	■ 매년 조사실시 후, 조사에 참여한 청소년과 학부모에게 소정의 금액을 상품권으로 지급
홈페이지 운영	■ 조사 홍보 및 주요 사항 안내를 목적으로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를 위한 전용 홈페이지 운영(http://maps.gallup.co.kr)
수신자 부담 전화 운영	■ 본 조사와 관련하여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수신자 부담 전화(080-336-2580)를 운영
연락처 및 접촉 경로 확대	■ 조사에 참여하는 청소년과 어머니 외 가구 구성원의 연락처를 수집하여 다양한 접촉 경로 마련 ■ 휴대전화 메신저(예: 카카오톡)의 사용 빈도가 높아짐에 따라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원활한 접촉 경로 마련
이사가구 추적조사	■ 전화관리를 통해 파악된 이사시기에 맞춰 추가 전화조사를 실시하여 이사로 인한 표본이탈 방지
가구정보 변동시 자발적 통보가구 인센티브 제공	■ 가구정보 변동사항을 가구 구성원이 사전에 알릴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해당 사항을 적극 홍보

2) 개인정보 관리

개인정보보호 및 관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강화됨에 따라, 본 조사에서는 이에 수집된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있다. 자료수집 과정에서는 조사원 대상 개인정보보호 관련 교육을 통하여 가구방문조사 과정에서 관련 자료가 유출되지 않게 방지하고 있으며, 조사에 사용되는 태블릿 PC에는 모두 암호를 설정하여 정보 유출을 방지하고 있다. 더불어 가구방문 이후 관련 자료는 모두 회수하여 파기하고, 전체 가구명부는 암호화 하여 접근권한이 승인된 일부 연구진만 접근이 가능하게 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역시, 정보보안담당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자료가 보관되는 서버실에 접근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서버실 출입대장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 또한 사전 승인된 USB 외 별도의 저장장치와 클라우드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공표자료의 경우, 개인별 일련번호를 무작위로 부여하여 개인 식별을 방지하고 있으며, 자녀의 학교명과 나이, 부모의 직업과 나이 및 학력 등 개인정보는 조사결과 공표 항목에서 제외하여 정보유출에 대처하고 있다. 아울러, 조사대상의 연락처, 주소 등의 정보는 조사수행업체의 담당자만 관리·보관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조사과정에서 연구윤리 준수를 위한 노력으로 모든 연구진이 연구윤리교육을 정기적으로 이수하고 있으며, 2019년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기관생명윤리심의회(IRB: Institutional Review Board)심의를 통과하였다(IRB 승인번호: 201904-HR-고유-002-01). 연구진의 연구윤리교육 참여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Ⅲ-12 연구윤리교육 참여 현황(최근 4년간)

번호	과정명	수료날짜	운영기관	비고
1	방문형 연구윤리(IRB) 교육과정	2016.3.8.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연구책임자
2	참여연구원을 위한 연구윤리(인문사회계)	2017.6.1.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연구책임자
3	참여연구원을 위한 연구윤리(인문사회계)	2018.4.19.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공동연구원
4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	2018.4.19.	질병관리본부	공동연구원
5	참여연구원을 위한 연구윤리(인문사회계)	2018.4.20.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공동연구원
6	인간대상연구자를 위한 생명윤리교육	2018.6.1.	(재)국가생명윤리정책원	공동연구원
7	인간대상연구자를 위한 생명윤리교육	2019.2.28.	(재)국가생명윤리정책원	공동연구원

* 출처 : 양계민 외(2018: 94) 표 Ⅱ-15 수정

6. 조사대상자 특성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실시된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체 1,220가구가 참여하여, 표본 유지율은 75.1%로 매우 높은 수준을 보였다. 조사에 참여한 학생 수[9]를 기준으로 보면, 1차년도에 참여한 1,635명 가운데 1,229명이 참여하여 75.2%의 유지율을 보였다.

9) 패널가구 수와 패널 조사대상 학생 수의 차이는 쌍둥이 자녀를 둔 가구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또한 패널 조사대상 학생 수의 경우 기존 보고서에서는 학교 내 재학 중인 학생 수로 집계하였으나 실제 학업을 중단한 다문화청소년도 조사하여 조사대상 학생 수에 포함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기존 보고서들과 조사대상 학생 수, 조사대상자의 성별 및 지역별 분포 결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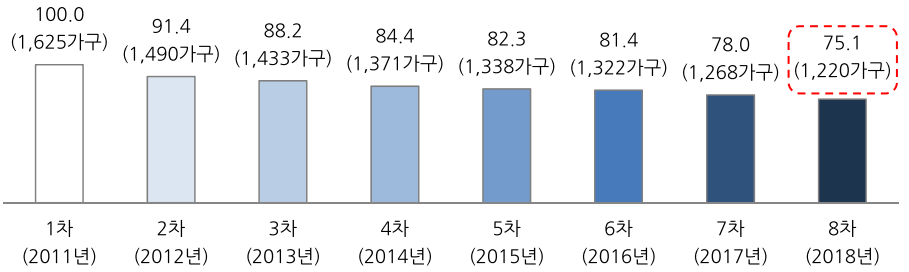


그림 Ⅲ-3. 1기 패널가구 표본 유지율

표 Ⅲ-13 1기 패널 연도별 조사대상 학생 수

단위: 명(%)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1,635 (100.0)	1,500 (91.7)	1,443 (88.3)	1,381 (84.5)	1,348 (82.4)	1,332 (81.5)	1,277 (78.1)	1,229 (75.2)
	-8.3%p	-3.4%p	-3.8%p	-2.1%p	-0.9%p	-3.4%p	-2.9%p

* 출처 : 양계민 외(2018: 94) 표 Ⅱ-16 수정

1차년도 조사에서 2차년도 조사가 실시되는 시점에서 가장 높은 패널 이탈률이 나타났으나 이후 점차 이탈률은 낮아졌고, 조사대상이 고등학교에 진학한 2017년도 조사에서 다소 이탈률이 높아졌다.

1) 성별 조사대상자 분포

조사대상자의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표 Ⅲ-14〉와 같이 연도별로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14 조사대상자의 성별 분포

단위: 명(%)

연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남	805(49.2)	740(49.3)	706(48.9)	675(48.9)	662(49.1)	655(49.2)	624(48.9)	601(48.9)
여	830(50.8)	760(50.7)	737(51.1)	706(51.1)	686(50.9)	677(50.8)	653(51.1)	628(51.1)
합계	1,635	1,500	1,443	1,381	1,348	1,332	1,277	1,229

* 출처 : 양계민 외(2018: 95) 표 Ⅱ-17 수정

2) 지역별 조사대상자 분포

조사대상자의 연도별 지역 분포 현황은 〈표 Ⅲ-15〉와 같다. 성별과 마찬가지로 지역별 분포 현황 또한 연도별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1기 패널의 대표성이 잘 유지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표 Ⅲ-15 조사대상자의 지역별 분포

단위: 명(%)

지역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서울	182(11.1)	157(10.5)	150(10.4)	146(10.6)	143(10.6)	141(10.6)	130(10.2)	123(10.0)
부산	74(4.5)	67(4.5)	60(4.2)	58(4.2)	55(4.1)	53(4.0)	52(4.1)	52(4.2)
대구	42(2.6)	37(2.5)	34(2.4)	31(2.2)	30(2.2)	30(2.2)	29(2.3)	28(2.3)
인천	68(4.2)	64(4.3)	63(4.4)	61(4.4)	57(4.2)	57(4.3)	53(4.1)	49(4.0)
광주	42(2.6)	34(2.3)	30(2.1)	28(2.0)	28(2.1)	26(1.9)	26(2.0)	26(2.1)
대전	25(1.5)	20(1.3)	18(1.2)	16(1.2)	16(1.2)	15(1.1)	11(0.9)	11(0.9)
울산	31(1.9)	29(1.9)	29(2.0)	27(2.0)	27(2.0)	25(1.9)	24(1.9)	23(1.9)
경기	384(23.5)	347(23.1)	330(22.9)	303(21.9)	290(21.5)	289(21.7)	277(21.7)	263(21.4)
강원	90(5.5)	85(5.7)	83(5.8)	81(5.9)	81(6.0)	81(6.1)	82(6.4)	81(6.6)
충북	75(4.6)	65(4.3)	61(4.2)	60(4.3)	60(4.5)	60(4.5)	58(4.5)	55(4.5)
충남	117(7.2)	109(7.3)	107(7.4)	104(7.5)	103(7.6)	104(7.8)	101(7.9)	96(7.8)
전북	108(6.6)	102(6.8)	99(6.9)	99(7.2)	98(7.3)	98(7.4)	94(7.4)	94(7.6)
전남	160(9.8)	153(10.2)	153(10.6)	151(10.9)	150(11.1)	146(11.0)	144(11.3)	139(11.3)
경북	102(6.2)	102(6.8)	101(7.0)	97(7.0)	97(7.2)	96(7.2)	93(7.3)	90(7.3)
경남	120(7.3)	116(7.7)	113(7.8)	107(7.8)	102(7.6)	101(7.6)	97(7.6)	94(7.6)
제주	15(0.9)	13(0.9)	12(0.8)	12(0.9)	11(0.8)	10(0.7)	6(0.5)	5(0.4)
합계	1,635	1,500	1,443	1,381	1,348	1,332	1,277	1,229

* 출처 : 양계민 외(2018: 96) 표 Ⅱ-18 수정

7. 이탈패널 분석

이탈패널 분석은 다문화청소년의 배경특성별 패널 이탈현황과 주요 이탈사유 등 두 가지를 중심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1) 배경특성별 패널 이탈현황

(1) 지역별 패널 이탈현황

2018년도 조사의 경우 전체 가구 기준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 이탈률은 24.9%으로 나타난 바 있다. 시도 지역별 가구수 대비 이탈률을 살펴보면, 제주지역이 11가구(73.3%)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대전(11가구, 45.8%), 광주(19가구, 45.2%) 등의 순이었다. 그에 비하여 강원(9가구, 10.0%)과 경북(12가구, 11.9%)은 이탈률이 가장 낮은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역의 경우 패널이탈률이 높은 이유는 구축 당시부터 15가구만이 구축되어있는 상황이기에 한 두가정의 탈락이 이탈률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일 뿐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표 Ⅲ-16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 지역별 패널 이탈현황(전체)

시/도	구축 패널 가구수	이탈 가구수	이탈률(%)		유지율(%)
			전체 이탈 가구수 대비	시/도별 가구수 대비	
서울	179	57	14.1	31.8	68.2
부산	74	19	4.7	25.7	74.3
대구	42	14	3.5	33.3	66.7
인천	67	23	5.7	34.3	65.7
광주	42	19	4.7	45.2	54.8
대전	24	11	2.7	45.8	54.2
울산	31	8	2.0	25.8	74.2
경기	383	121	29.9	31.6	68.4
강원	90	9	2.2	10.0	90.0
충북	74	19	4.7	25.7	74.3
충남	117	20	4.9	17.1	82.9
전북	108	14	3.5	13.0	87.0
전남	160	21	5.2	13.1	86.9
경북	101	12	3.0	11.9	88.1
경남	118	27	6.7	22.9	77.1
제주	15	11	2.7	73.3	26.7
합계	1,625	405	100.0	24.9	75.1

(2) 어머니 출신국별 패널 이탈현황

두 번째로 어머니 출신국가에 따라 패널이탈률이 달라지는지 분석하였다. 우선 전체 가구 기준의 가구수 대비 이탈률을 살펴보면, 어머니 출신국이 카자흐스탄(57.1%), 러시아(47.1%), 한국(44.1%)인 경우 이탈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캄보디아(12.5%), 우즈베키스탄(16.7%), 일본(18.1%)인 경우 이탈률이 낮게 나타났다. 국가에 따라서는 초기에 구축된 가수의 수가 적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보이기도 하나 한국의 경우는 초기 구축된 가구 수가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탈락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관리방안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표 Ⅲ-17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 어머니 출신국별 패널 이탈현황(전체)

출신국가	패널 가구수	이탈 가구수	이탈률(%)	
			전체 이탈 가구수 대비	출신국가별 가구수 대비
한국	68	30	7.4	44.1
중국(한족, 기타민족)	125	40	9.9	32.0
중국(조선족)	318	105	25.9	33.0
베트남	42	14	3.5	33.3
필리핀	400	83	20.5	20.8
일본	525	95	23.5	18.1
대만	7	2	0.5	28.6
몽골	8	3	0.7	37.5
태국	56	7	1.7	12.5
캄보디아	3	1	0.2	33.3
우즈베키스탄	12	2	0.5	16.7
러시아	17	8	2.0	47.1
인도네시아	9	3	0.7	33.3
카자흐스탄	7	4	1.0	57.1
말레이시아	2	-	-	-
키르키스스탄	4	1	0.2	25.0

출신국가	패널 가구수	이탈 가구수	이탈률(%)	
			전체 이탈 가구수 대비	출신국가별 가구수 대비
기타	22	7	1.7	31.8
합계	1,625	405	100.0	24.9

그러나 2018년 조사 시 출신국가별 가구수 대비 이탈률을 살펴보면, 키르키스스탄(25.0%), 베트남(10.0%)이 높게 나타났고, 어머니 출신국이 한국인 경우는 이탈가구의 수가 오히려 1가구에 불과하여 한국가구의 패널유지율이 어느 정도 안정된 것으로 해석된다.

표 Ⅲ-18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 어머니 출신국별 패널 이탈현황(2018년도)

출신국가	패널 가구수	이탈 가구수	이탈률(%)	
			전체 이탈 가구수 대비	출신국가별 가구수 대비
한국	40	1	2.0	2.5
중국(한족, 기타민족)	89	5	9.8	5.6
중국(조선족)	224	11	21.6	4.9
베트남	30	3	5.9	10.0
필리핀	331	14	27.5	4.2
일본	441	12	23.5	2.7
대만	5	-	-	-
몽골	5	-	-	-
태국	51	3	5.9	5.9
캄보디아	2	-	-	-
우즈베키스탄	10	-	-	-
러시아	9	-	-	-
인도네시아	6	-	-	-
카자흐스탄	3	-	-	-
말레이시아	2	-	-	-
키르키스스탄	4	1	2.0	25.0
기타	16	1	2.0	6.3

출신국가	패널 가구수	이탈 가구수	이탈률(%)	
			전체 이탈 가구수 대비	출신국가별 가구수 대비
합계	1,268	51	100.0	4.0

(3) 월 평균 가구소득별 패널 이탈현황

다음으로 월 평균 가구소득별 가구수 대비 이탈률을 살펴보았는데, 100만원 미만(42.9%)의 가구에서 이탈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400~500만원 미만 집단의 이탈률이 14.2%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Ⅲ-19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 가구 소득 구간별 패널 이탈현황(전체)

월 평균 가구소득	패널 가구수	이탈 가구수	이탈률(%)	
			전체 이탈 가구수 대비	소득별 가구수 대비
100만원 미만	49	21	5.2	42.9
100-200만원 미만	358	105	25.9	29.3
200-300만원 미만	482	122	30.1	25.3
300-400만원 미만	400	86	21.2	21.5
400-500만원 미만	190	27	6.7	14.2
500만원 이상	121	34	8.4	28.1
모름/무응답주)	25	10	2.5	40.0
합계	1,625	405	100.0	24.9

주) 모름/무응답은 어머니 조사 미참여(학생만 조사 참여) 및 응답 거절로 인함

이를 다시 2018년 기준으로 살펴보면, 300~400만원 미만 집단의 이탈률이 4.6%, 500만원 이상인 집단의 이탈률이 4.5%로 다른 집단에 비하여 다소 높게 나타났다.

표 Ⅲ-20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 가구 소득 구간별 패널 이탈현황(2018년)

월 평균 가구소득	패널 가구수	이탈 가구수	이탈률(%)	
			전체 이탈 가구수 대비	소득별 가구수 대비
100만원 미만	29	1	2.0	3.4
100-200만원 미만	263	10	19.6	3.8
200-300만원 미만	370	11	21.6	3.0
300-400만원 미만	329	15	29.4	4.6
400-500만원 미만	169	6	11.8	3.6
500만원 이상	89	4	7.8	4.5
모름/무응답[주]	19	4	7.8	21.1
합계	1,268	51	100.0	4.0

주) 모름/무응답은 어머니 조사 미참여(학생만 조사 참여) 및 응답 거절로 인함

(4) 주관적 가정경제수준별 패널 이탈현황

실질적 소득과는 별개로 본인이 지각하는 주관적 가정경제수준에 따라 패널 이탈률을 다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잘 사는 편이다(46.3%)'라고 응답한 집단의 이탈률이 가장 높게 나왔고, 다음이 '아주 잘산다(33.3%)'고 응답한 집단의 이탈률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으며, 가장 낮은 이탈률을 보인 집단은 '어려운 편이다(20.6%)'라고 응답한 집단이었다.

표 Ⅲ-21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 가정형편별 패널 이탈현황(전체)

본인 지각 가정형편	패널 가구수	이탈 가구수	이탈률(%)	
			전체 이탈 가구수 대비	가정형편별 가구수 대비
아주 어렵다	204	55	13.6	27.0
어려운 편이다	608	125	30.9	20.6
보통이다	743	195	48.1	26.2
잘사는 편이다	41	19	4.7	46.3
아주 잘 산다	6	2	0.5	33.3
모름/무응답주)	23	9	2.2	39.1
합계	1,625	405	100.0	24.9

주) 모름/무응답은 어머니 조사 미참여(학생만 조사 참여) 및 응답 거절로 인함

주관적 가정경제수준별 패널 이탈률을 2018년도 기준으로 다시 살펴본 결과, '아주 어렵다'라고 응답한 집단의 이탈률이 5.1%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잘사는 편'이라고 응답한 집단의 이탈률이 4.3%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22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 가정형편별 패널 이탈현황(2018년도)

본인 지각 가정형편	패널 가구수	이탈 가구수	이탈률(%)	
			전체 이탈 가구수 대비	가정형편별 가구수 대비
아주 어렵다	157	8	15.7	5.1
어려운 편이다	499	18	35.3	3.6
보통이다	567	20	39.2	3.5
잘사는 편이다	23	1	2.0	4.3
아주 잘 산다	4	-	-	-
모름/무응답주)	18	4	7.8	22.2
합계	1,268	51	100.0	4.0

주) 모름/무응답은 어머니 조사 미참여(학생만 조사 참여) 및 응답 거절로 인함

(5) 어머니 직업 여부별 패널 이탈현황

다음으로 어머니가 직업이 있는지 여부에 따른 패널이탈률을 분석하였다. 어머니의 직업은 조사를 위한 접촉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기 때문으로, 어머니가 직업이 '없는 경우' 이탈률이 31.0%로 나타나 '있는 경우'(22.0%)보다 조금 더 높았다.

표 Ⅲ-23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 어머니 직업여부별 패널 이탈현황(전체)

어머니 직업 여부	패널 가구수	이탈 가구수	이탈률(%)	
			전체 이탈 가구수 대비	어머니 직업 여부별 가구수 대비
있다	1,100	242	59.8	22.0
없다	525	163	40.2	31.0
합계	1,625	405	100.0	24.9

이를 다시 2018년 기준으로 살펴보면, 어머니가 직업이 '있는' 경우가 4.1%로 '없는' 경우(3.7%)보다 조금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어머니가 직업이 있는 경우 조사를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표 Ⅲ-24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 어머니 직업여부별 패널 이탈현황(2018년도)

어머니 직업 여부	패널 가구수	이탈 가구수	이탈률(%)	
			전체 이탈 가구수 대비	어머니 직업 여부별 가구수 대비
있다	892	37	72.5	4.1
없다	376	14	27.5	3.7
합계	1,268	51	100.0	4.0

(6) 어머니 학력별 패널 이탈현황

마지막으로 어머니 학력에 따른 패널 이탈현황을 살펴보면, 어머니의 학력수준이 '대학원 이상'인 경우 패널 이탈률이 다른 집단에 비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석사 63.2%, 박사 37.5%).

표 Ⅲ-25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 어머니 학력별 패널 이탈현황(전체)

어머니 학력수준	패널 가구수	이탈 가구수	이탈률(%)	
			전체 이탈 가구수 대비	어머니 학력별 가구수 대비
안 받았음	1	-	-	-
초등학교	28	5	1.2	17.9
중학교	130	31	7.7	23.8
고등학교	698	178	44.0	25.5
대학교(4년제 미만)	458	98	24.2	21.4
대학교(4년제 이상)	283	78	19.3	27.6
대학원 석사과정	19	12	3.0	63.2
대학원 박사과정	8	3	0.7	37.5
합계	1,625	405	100.0	24.9

어머니 학력에 따른 패널 이탈현황을 2018년 기준으로 살펴보면, 석사과정이 25.0%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Ⅲ-26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 어머니 학력별 패널 이탈현황(2018년도)

어머니 학력수준	패널 가구수	이탈 가구수	이탈률(%)	
			전체 이탈 가구수 대비	어머니 학력별 가구수 대비
안 받았음	1	-	-	-
초등학교	23	-	-	-
중학교	102	3	5.9	2.9
고등학교	541	21	41.2	3.9
대학교(4년제 미만)	376	17	33.3	4.5
대학교(4년제 이상)	212	8	15.7	3.8
대학원 석사과정	8	2	3.9	25.0
대학원 박사과정	5	-	-	-
합계	1,268	51	100.0	4.0

2) 주요 이탈사유

패널 이탈사유를 살펴보면, '연락이 안 되거나 전화를 안 받음'(26.7%)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유학, 이민(17.0%)', '학생이 하기 싫어함(7.4%)'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유학이나 이민으로 인한 이탈률이 17%나 되는 것은 다문화청소년 패널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예를 들면, 한국노동패널조사 18차('15년도) 기초분석보고서를 살펴보면, 이탈한 가구들의 이탈사유로 '이사추적 실패(54.0%)'가 가장 많았고, '강력거절(32.4%)', '접촉 불가(12.3%)'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해외 체류 중', '이민', '병환' 등을 포함한 '기타'의 사유는 1.3%에 불과하기 때문이다(김유빈, 이지은, 최승주, 신선옥, 이혜정, 정현상, 2018: 23).

표 Ⅲ-27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 패널 이탈사유(전체)

이탈사유			이탈 가구	이탈률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연락 안 됨	연락 안 됨	연락이 안 되거나 전화를 안 받음	108	26.7
유학, 이민 등	유학, 이민 등	유학, 이민 등	69	17.0
강력거절	조사에 참여하는 것이 귀찮고 싫음	강력 거절	28	6.9
		바쁘다며 거절	28	6.9
		아버지가 반대함	20	4.9
		더 이상 참여하고 싶지 않음	15	3.7
		약속 후 연락피함/거절	15	3.7
		귀찮고 싫다며 거절	9	2.2
		관리조사 시 이미 거절 의사 밝혔다며 거절	8	2.0
		도움되는지 모르겠고 하기 싫음	6	1.5
		이사 후 주소지 안 알려주고 연락 피함	5	1.2
		의무가 아니면 하기 싫음	4	1.0
		혜택도 없고, 시간도 없다며 거절	4	1.0
		개인적인 일 말하는 것 싫음	3	0.7
		약속 피하여 방문하여 설득했으나 강력거절	3	0.7
		다문화관련 조사 참여하기 싫음	2	0.5
		찾아오는 것 싫다며 거절	2	0.5
		어머니 거절, 아버님께 협조를 구했으나 바쁘고 집안 사정 있다며 거절	1	0.2
		지난번에도 학교요청으로 겨우 했다고 함	1	0.2
	조사에 참여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음	학생이 하기 싫어함	30	7.4
		개인사정으로 거절	12	3.0
		건강상의 이유로 거절	9	2.2
		학생의 사정으로 진행 불가(체육부, 기숙사, 시설 등)	7	1.7
		어머니 가출 후 타가구원 거절	6	1.4
		가족 간병으로 바쁨	2	0.5
		남편 사망 후 거절	2	0.5
		부모님 이혼 후 아버지와 자녀 이사. 조사 참여 거절	2	0.5
		아버지 사망 후 어머니, 학생 가출	1	0.2
		학생이 친엄마에게 감(친엄마 조사 거절)	1	0.3
기타	기타	기타(학생 사망, 친엄마가 한국사람으로, 다시 합가 등)	2	0.6
계			405	100.0

2018년 기준으로 이탈사유를 살펴보면 '강력 거절'이 21.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연락이 안 되거나 전화를 안 받음(19.6%)', '바쁘다며 거절(15.7%)', '유학/이민(9.8%)', '학생이 하기 싫어함(9.8%)의 순이었다.

표 Ⅲ-28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 패널 이탈사유(2018년도)

이탈사유			이탈 가구	이탈률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연락 안 됨	연락 안 됨	연락이 안 되거나 전화를 안 받음	10	19.6
유학, 이민 등	유학, 이민 등	유학, 이민 등	5	9.8
강력거절	조사에 참여하는 것이 귀찮고 싫음	강력 거절	11	21.6
		바쁘다며 거절	8	15.7
		귀찮고 싫다며 거절	3	5.9
		아버지가 반대함	2	3.9
		약속 후 연락피함/거절	2	3.9
		혜택도 없고, 시간도 없다며 거절	1	2.0
	조사에 참여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음	학생이 하기 싫어함	5	9.8
		부모님 이혼 후 아버지와 자녀 이사. 조사 참여 거절	2	3.9
		가족 간병으로 바쁨	1	2.0
		건강상의 이유로 거절	1	2.0
계			51	100.0

1기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가 8년이 된 만큼 거절의 의사를 지니는 것은 당연한 일일 수 있다. 2019년에는 1기 패널참여자들이 고등학교 3학년이 되고, 2020년에는 고교 졸업 후 대학진학 및 취업 등 후기청소년기로 진입하는 만큼 보다 간소하고 주요 내용만을 담은 간략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8. 데이터 공개

1) 데이터 공개 과정

다문화청소년 패널자료는 2018년 데이터 공개를 위해 연구진 회의 및 학술대회를 통해 데이터를 이용해 본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의견조사(설문, FGI)를 실시하였고, 통계 및 다문화와 인권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데이터 공개를 위한 서면 자문 및 자문회의를 실시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일부 문항은 재범주화하여 공개하였고, 단기조사로 인하여 패널을 활용하기에 어려움이 있거나 개인과 관련하여 민감할 수 있는 일부 문항은 비공개 항목으로 분류하였다.

2019년 12월 31일부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데이터 아카이브 홈페이지를 통해 1차(2011년)부터 6차(2016년) 조사까지의 다문화청소년과 다문화학부모 데이터, 유저가이드, 코드북과 조사표를 공개하였다. 다만 본 조사의 대상자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MAPS) 데이터 활용 보안 서약서, 다문화청소년 패널(MAPS) 데이터 활용 시 주의사항 안내 및 데이터 신청서(연구계획서)를 제출 받아 검토 후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10].

10) 자세한 데이터 공개 과정은 양계민 외(2018).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2018: 총괄보고서」 p.99-110의 내용 참조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MAPS) 데이터 활용 보안 서약서

※ 다음의 보안 관련 사항을 읽고 동의 여부를 ✔표 해 주십시오.

1. 제공받은 데이터를 타인과 공유, 판매, 양도 및 배포하지 않음.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2. 조사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엄격히 보호함.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3. 본 데이터로 활용한 논문은 연구계획서를 제출한 주제에 한하여 작성함.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4. 연구계획서를 제출한 주제가 아닌 다른 주제로 논문을 작성할 경우 연구계획서를 다시 제출함.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5. 본 데이터로 논문을 출판한 경우 개재정보 및 논문(PDF화일)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 제출함.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6. 본 데이터를 활용하여 논문 게재시 지침서에 제시된 주제어 및 사사표기를 함.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위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성실히 준수할 것에 동의합니다.

소속 :
성명 : (서명)

년 월 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 귀하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MAPS) 데이터 활용 보안서약서

다문화청소년패널(MAPS)데이터 활용 시 주의사항

○ 본 패널은 다문화청소년과 그들의 어머니를 조사대상으로 한 연구로, 잘못된 분석결과의 공표가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패널을 활용하여 학술적인 용도 등으로 사용할 경우 아래의 사항에 대해 숙고하여 발표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본 자료를 활용하여 학술논문을 발표할 경우 결과 해석이 특정 국가 및 다문화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을 강화시키는 데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숙고함.

  □ 예 □ 아니오
- 본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해석할 경우 다문화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결과를 집단 대 집단으로 단순하게 비교하여 발표하는 것에 주의함.

  □ 예 □ 아니오
- 본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할 때는 그 결과가 다문화적 특성에 기인한 것인지 사회경제적 배경에서 기인한 것인지 등을 면밀히 분석한 후 제시함.

  □ 예 □ 아니오
- 본 자료를 분석한 논문결과 보고 시 인종차별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유의함.

  □ 예 □ 아니오
- 본 자료를 분석한 연구결과가 다문화청소년과 다문화 가정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숙고함.

  □ 예 □ 아니오

소속 :
성명 : (서명)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MAPS) 데이터 활용 시 주의사항

데이터 신청서

이 름		소속기관	
직 위		전 공	
이 메 일		전 화	
연구주제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연구내용 및 방법			
기대되는 결과 및 시사점			
요청 데이터			
청소년데이터 □		학부모데이터 □	

※ 연구계획서에 근거하여 데이터를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신청서

그림 Ⅲ-4. 데이터 신청서 양식

데이터 신청 접수는 메일을 통해 받고 있으며, 데이터 계획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검토하여 특이사항(데이터에 없는 변수를 활용한 연구계획서 등)이 없을 경우 신청한 데이터를 연구자에게 전달한다. 1월에서 10월 11일까지 총 275건[11]의 데이터 신청서가 접수되었으며, 총 262건에 대해 데이터를 제공하였다. 다문화청소년 패널 데이터에서 확인할 수 없는 변수를 이용하겠다는 내용의 연구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혹은 특정 지역이나 특정 다문화 집단(중도입국 등)을 분석 대상으로 한 연구계획서 등에 대해서는 데이터를 전달하지 않았으며, 사유에 대해 신청자에게 전달하였다.

2019년에는 7차년도 데이터 공개를 준비하고 있으며, 7차년도 데이터 역시 2019년 12월 31일에 공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한 사항을 본원 데이터 아카이브 홈페이지(http://www.nypi.re.kr/archive)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하였다. 7차년도 데이터 공개 작업에서도 7차년도 데이터 클리닝 및 유저가이드, 코드북 수정 등의 작업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7차년도의 경우 패널들이 고등학교에 진학 한 시기로 이 시기 설문문항이나 척도 등의 변화가 있어 이 부분에 대해 이용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기술할 것이며, 또한 데이터 클리닝은 7차년도 데이터 클리닝을 진행하면서(횡단 데이터 클리닝) 동시에 1~6차년도의 데이터도 포함하여 데이터 클리닝(종단 데이터 클리닝)을 하고 있다.

2) 데이터 활용 실적

다문화청소년 패널데이터는 2017년 다문화청소년 패널 학술대회(MAPS학술대회)를 통해 처음 공개하였고, 2018년 12월 31일에 1~6차년도 데이터를 공개하였다. 2019년 11월 30일까지 306건의 데이터 신청서가 접수되었고, 289건의 데이

11) 한 사람이 2개 이상의 연구주제를 제출 할 경우 2건 이상으로 접수되었으며, 연구주제 변경 등으로 인해 다시 연구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도 있어, 총 접수 인원수와 데이터 신청 수는 다름.

터 신청서에 대해 다문화청소년 패널 데이터를 전달하였다.

2019년 10월 11일까지 다문화청소년 패널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결과를 외부에서 활용한 건수를 살펴보면, 총 96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학위논문이 총 10편으로 박사학위논문 4편, 석사학위논문이 6편 발표되었으며, 학술지에 게재된 학술논문은 총 49편 활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학술대회 발표 논문은 2017년에 진행된 다문화청소년 패널 학술대회(MAPS 학술대회) 발표 논문 건수는 32편이며, 기타 외부 학술대회에서 발표 된 논문은 3편이다.

표 Ⅲ-29 데이터 활용 건수

구분		활용실적(편)
학위논문	박사학위논문	4
	석사학위논문	6
학술논문	전문 학술지 논문	49
학술대회 발표논문	MAPS학술대회	32
	기타 학술대회	5
계		96

발표된 논문들 중 학위논문과 학술논문 총 59편의 논문 주제를 살펴보면, 심리·사회적응 20편, 학교생활 및 학습활동 16편, 문화적응 9편, 진로 및 지원정책 9편, 부모자녀관계 5편으로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응과 학교생활 및 학습활동 분야에 가장 많은 연구가 발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7년 다문화청소년 패널 학술대회 당시 관심주제 응답율과 유사[12]하게 나타나, 전반적으로 연구자들의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주로 심리·사회적응 및 학교생활, 학습활동 등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12) 다문화청소년 패널 관심주제(중복응답): 심리·사회적응(71.4%), 문화적응 및 정체성(67.3%), 학교적응 및 학업성취(55.1%)의 순으로 나타남.

표 Ⅲ-30 논문 분석 주제

주제	활용실적(편, %)
심리·사회적응	20편(33.9)
학교생활 및 학습활동	16편(27.1)
문화적응	9편(15.3)
진로 및 지원정책	9편(15.3)
부모자녀관계	5편(8.5)
계	59편(100.0)

학위논문과 학술논문 58편의 주제어[13]를 분석하였다. 주제어에서 다문화와 다문화청소년, 다문화어머니, 다문화청소년 패널 등은 제외하고 분석하였다. 총 217개의 주제어가 확인되었으며, 그 중 통계분석법과 관련한 주제어(24개)를 제외한 193개의 주제어를 살펴보았다. 주요주제어는 문화적응 24개, 학교 적응 17개, 자아존중감 16개, 진로 관련 13개, 괴롭힘 혹은 비행(폭력) 12개, 자아탄력성 11개, 사회적 지지 10개, 이중문화 9개 등으로 파악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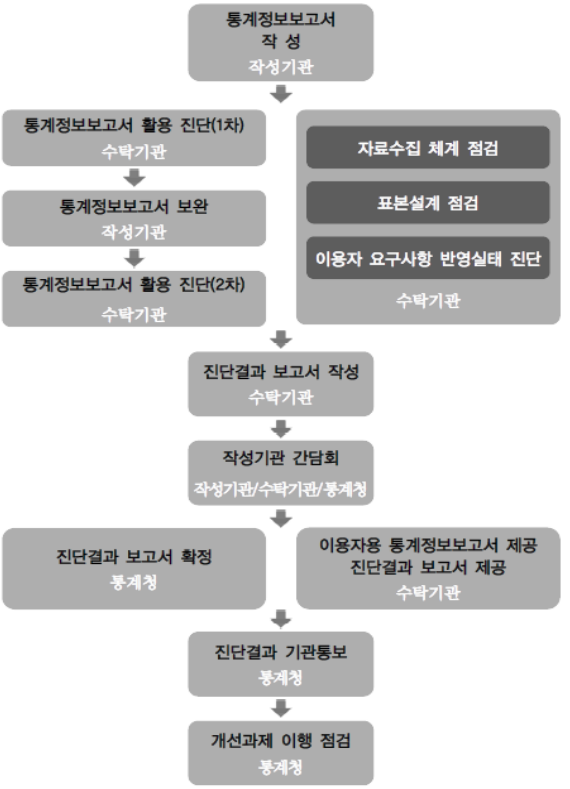
9. 정기통계품질진단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는 2013년 국가승인통계(승인번호 제402003호)로 승인받은 이후 2014년 정기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였으며, 이후 매년 자체품질진단을 실시하였다. 2019년에 정기통계품질대상 통계로 선정되어 품질진단을 받았다. 통계품질진단은 통계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유용하게 이용되는지 살펴보는 것으로 관련성, 정확성, 시의성/정시성, 비교성, 일관성, 접근성/명확성의 6개의 차원에서 진단한다(통계청, 2019: 9, 12). 이를 위해 품질진단을 위한 통계정보보고서를 작성하였는데, 통계정보보고서는 총 10장[14]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13) 학위논문 중 논문에 키워드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논문의 서지사항에 나타난 주제어를 정리하였으며, 논문과 서지사항에 나타난 주제어가 없는 1편의 논문을 제외하였다.

장별로 품질지표를 제시하고 있다(통계청, 2019: 39). 통계품질진단을 위해 다문화청소년 패널에 대한 통계정보보고서 작성 및 작성 내용을 증빙하는 자료를 통계정책관리 시스템에 업로드(2019년 3월 8일, 금) 하였으며, 1차 통계정보보고서 내용에 대한 보완 요청이 있어 보완 후 다시 업로드(2019년 5월 23일, 목)하였다. 이후 7월 초에 정기통계품질진단팀과 통계청, 다문화청소년 패널 연구진이 간담회를 진행하였고, 7월 말에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 정기품질진단 결과보고회에 참석하였다. 이후 진단 정기품질진단팀에서 진단결과보고서를 확정한 후 진단결과를 본원으로 통보하였다(통계청, 2019: 10). 정기품질진단을 위해 작성한 통계정보보고서 내용 중 일부 내용(예산, 연구진 개인정보 등)을 수정·보완한 이용자용 통계정보보고서를 9월에 통계정책관리시스템에 업로드하였다. 이후 통계청에서 진단결과를 기관에 최종 통보하였고, 정기품질진단을 통해 제시된 개선과제를 추후 다문화청소년 패널 조사 수행 시 이행할 예정이다.

14) 조사개요, 통계의 작성 목적 및 이용, 조사설계, 자료수집, 행정자료활용, 자료처리, 통계추정 및 분석, 통계공표, 관리 및 이용자 서비스, 통계기반 및 개선, 참고문헌 총 10장으로 구성



* 출처 : 통계청 (2019:10). 2019년 국가통계 품질관리 매뉴얼. 정기통계품질진단

그림 Ⅲ-5. 통계품질진단 흐름도

다문화청소년 패널의 정기통계품질진단은 10개의 항목 중 행정자료활용 항목을 제외한(해당사항 없음) 9개 항목을 6개 차원에서 이루어졌는데(통계청, 2019.11)[15]. 진단 결과, 총점은 5점 만점으로 하면, 4.5점이고, 가중치와 정성평가 및 추가점수를 포함한 총점은 최종 97.6점을 받아서 본 통계의 품질이 매우

15)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 정기품질진단 결과에 대한 내용은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 2019년 정기통계품질진단 결과보고서(2019.11)의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하였음.

우수함을 확인하였다. 품질차원별 5점 척도 점수를 살펴보면, 비교성과 일관성은 5.0으로 받았으며, 접근성/명확성이 3.0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통계정보보고서 10장의 영역별로 살펴보면, 10장 중 통계의 작성 목적 및 이용과 자료처리, 통계 기반 및 개선 5.0점을 받았으며, 통계공표, 관리 및 이용자 서비스가 3.9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품질차원에서 접근성/명확성, 통계 영역별 통계공표, 관리 및 이용자 서비스가 가장 낮게 나타나는 이유는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의 메타정보 제공의 내용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추후 이러한 점 등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제Ⅳ장
신규패널조사 및 관리

1. 조사개요
2. 신규패널 예비조사
3. 표본설계
4. 조사내용
5. 조사절차 및 방법

Ⅳ 신규패널조사 및 관리[16)]

1. 조사개요

Ⅱ장 다문화청소년의 정의 및 현황에서 살펴본 다문화청소년의 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청소년 중에서 다문화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과거에 비해 다문화청소년의 구성원 또한 다양해지는 추세이다. 1기 패널이 구축된 2011년에는 외국인가정의 자녀가 전체 다문화청소년의 약 5.6%에 불과하였으나, 2018년에는 약 12.8%로 그 비중이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따라서 2019년도 연구에서는 점차 복잡해지고 있는 다문화청소년의 지형을 반영할 수 있는 신규패널을 구축함으로써 다양한 다문화청소년의 특성을 보다 정확하고 과학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신규패널 구축을 위하여, 2018년도 연구에서 당시 전국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다문화청소년과 그들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고, 2019년도 연구에서는 예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19년 기준 전국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다문화청소년과 그들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신규패널의 1차년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후 1기 패널과 마찬가지로 매년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이들이 법적으로 청소년으로 분류되는 만 24세가 되는 2033년까지 조사를 수행할 예정이다. 신규패널 조사를 위한 추진절차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6) Ⅳ장의 1절, 2절, 3절, 5절은 양계민(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4절은 정윤미(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이 집필함.

* 출처: 양계민(2018: 103) 그림 Ⅵ-1 수정

그림 Ⅳ-1. 신규패널조사 추진절차 및 내용

2. 신규패널 예비조사

표본설계 및 조사내용의 타당성을 확보하여 보다 안정적인 신규패널 구축을 위하여 2018년도 연구에서는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앞서 기술된 바와 같이, 신규패널의 구축 목적은 1기 패널이 구축되었던 시점과 비교하여 국제결혼가정의 중도입국 자녀와 외국인가정의 자녀의 수가 급격히 증가한 우리나라의 다문화적 상황을 반영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신규패널의 목표 모집단은 국제결혼가정의 국내출생 자녀와 중도입국 자녀, 그리고 외국인가정의 자녀를 모두 포함한 다문화 청소년으로 정의된다. 예비조사는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매년 조사하는 교육기본통계 자료 중 2018년 4월 1일 기준 전국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다문화학생을 조사 모집단으로 설정하여 표본을 추출하였다.

1) 예비조사대상 및 방법

예비조사는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실시되었으며, 문헌연구와 총 7회에 걸친 전문가 자문회의를 바탕으로 조사문항을 개발하고 수정·보완하였다. 신규패널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문항은 1기 패널과 세대비교를 위하여 최대한 기존 설문조사문항을 동일하게 유지하는 원칙을 바탕으로, 새로운 다문화적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설문조사문항의 개발 절차 및 내용은 2018년도 신규패널설계보고서(양계민, 2018)에 자세하게 제시되어 있으며, 조사대상별 주요문항 내용은 〈표 Ⅳ-1〉과 〈표 Ⅳ-2〉와 같다. 문항의 내용에 따라 일부 문항의 경우, 외국 또는 국내에서 출생한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개발되었다.

표 Ⅳ-1 요인별 청소년대상 설문조사문항

요인		내용
개인	학교 생활	학교생활적응, 학교생활 친구관련 어려운 점, 학교공부의 어려운 점, 담임 선생님과의 관계, 집단괴롭힘 피해경험, 학교 내 도와주는 어른, 지난 학기 성적, 성적에 대한 만족도
		학교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점*, 한국에 오기 전 학교 경험*, 한국 학교 입학 학년*, 한국 입국 후 초등학교 입학 전 생활*, 한국 입국 후 한국어 교육 경험*
	방과 후 활동	방과 후 시간, 교과목관련 활동시간, 특기적성 활동시간, 문화관련 활동
	진로	희망 교육수준, 희망 직업, 진로·진학 관련 부모와의 대화, 학교를 마친 후 일하고 싶은 곳
	심리·사회 적응 및 건강	자존감, 사회적 역량, 삶의 만족, 차별경험, 차별경험 시 대처 방법, 지각된 다문화 수용성, 걱정거리, 주관적 건강상태, 스트레스, 친한 친구 수, 친구들과의 관계, 친한 친구 국적*
	문화적응 및 이중문화	국가정체성, 문화적응스트레스, 이중문화수용태도, 외국출신 부모의 한국어 실력, 외국출신 부모와 의사소통 시 사용언어, 외국출신 부모나라의 언어교육, 외국출신 부모 나라 언어 능력
		외국출신 부모 국가 방문 여부**, 외국출신 부모 국가 방문 횟수**
		국적취득 희망여부*, 한국거주 희망여부*, 한국어 능력*
가정	부모와의 관계 및 가정환경	부모의 외국인 여부, 가정형편, 부모의 지지, 아버지에 대한 생각, 어머니에 대한 생각,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와의 활동, 부모와의 대화 시간, 방과 후 보호자 부재여부
		한국에 오기 전 부모님과 떨어져 산 기간*, 부모님과 떨어져 있는 동안 함께 산 사람*
지역	지역사회 지지	학교 밖 도와주는 어른

* 외국출생자녀만 해당, ** 국내출생자녀만 해당

* 출처: 양계민(2018: 81) 표 Ⅵ-5 수정

표 Ⅳ-2 요인별 어머니대상 설문조사문항

요인	내용
가족 및 배경 특성	가족구성원, 교육정도, 국적(출생 시/현재), 조사대상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 조사학생의 성별과 연령, 비자종류, 한국 입국시기, 직업, 연락처, 모국어, 배우자와의 결혼상태, 초혼여부, 배우자 관계 만족, 월평균 소득, 주요 소득원, 가정형편에 대한 지각
자녀 교육 및 양육	자녀와 대화 시 사용언어, 자녀와의 의사소통 정도, 자녀의 모국(본국)어 능력, 자녀가 모국어 못하는 이유, 초등학교 입학 전 주 양육자, 자녀교육 관련 지원 정도, 희망하는 자녀의 교육수준과 직업, 자녀의 거주방식, 선호하는 자녀의 교육 방식, 사교육 여부 및 비용 부담정도, 자녀 양육 시 어려운 점, 부모효능감
	한국 입국 후 초등학교 입학까지 걸린 기간*, 입학 전 소요기간 이유*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연령**, 입학 늦은 이유**
심리·사회 적응 및 건강	자아존중감, 차별경험 여부, 차별경험 시 대처 방법, 주관적 건강상태
문화적응	한국어 학습 경험, 한국어 학습 시기, 한국어 학습 방식, 한국어 공부 기간, 한국어 수준, 걱정거리 의논할 수 있는 사람, 평소 주로 어울리는 사람, 한국생활이 모국문화와 달라서 어려운 점, 문화적응 스트레스, 문화적응유형
정책적 지원에 대한 태도	다문화가정 지원프로그램 제공 선호 장소, 서비스 지원 경험 및 도움정도, 다문화가정 대상 특별지원 필요성 및 지원 방법

* 외국출생자녀의 어머니만 해당, ** 국내출생자녀의 어머니만 해당

* 출처: 양계민(2018: 89) 표 Ⅵ-6 수정

개발된 설문지는 TAPI(Tablet Assistant Personal Interview) 시스템으로 구축되어 전문 조사원이 방문면접조사 방식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018년 11월부터 시작된 설문조사는 최종 21019년 3월 8일에 완료되었다. 광주, 강원, 제주를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의 109개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310명과 그들의 어머니 306명이 예비조사에 참여하였는데, 310명의 다문화청소년들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국제결혼가정의 국내출생자녀는 244명으로 전체 설문조사 참여자의 78.7%를 차지하였고, 국제결혼가정의 중도입국 자녀와 외국인가정의

자녀는 각각 13명(4.2%), 53명(17.1%)이 설문조사에 참여하였다. 앞서 살펴본 다문화학생 현황과 비교해 볼 때, 중도입국 자녀의 비율이 다소 낮으나, 국내출생 자녀와 외국인가정의 자녀의 비율은 대체로 현황을 잘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성별 및 지역별 예비조사 참여자의 비율은 〈표 Ⅳ-3〉과 같다.

표 Ⅳ-3 예비조사 참여자 특성

단위: 빈도(%)

구분		국제결혼가정 국내출생 자녀	국제결혼가정 중도입국 자녀	외국인가정 자녀	전체
성별	남학생	129 (52.9)	7 (53.8)	19 (35.8)	155 (50.0)
	여학생	115 (37.1)	6 (37.2)	34 (54.2)	155 (50.0)
지역	서울	5 (2.0)	1 (7.7)	1 (1.9)	7 (2.3)
	부산	7 (2.9)	2 (15.4)	0 (0.0)	9 (2.9)
	대구	0 (0.0)	0 (0.0)	1 (1.9)	1 (0.3)
	인천	14 (5.7)	0 (0.0)	1 (1.9)	15 (4.8)
	대전	1 (0.4)	0 (0.0)	1 (1.9)	2 (0.6)
	울산	5 (2.0)	0 (0.0)	0 (0.0)	5 (1.6)
	세종	1 (0.4)	0 (0.0)	0 (0.0)	1 (0.3)
	경기	50 (20.5)	3 (23.1)	38 (71.7)	91 (29.4)
	충북	6 (2.5)	0 (0.0)	0 (0.0)	6 (1.9)
	충남	6 (2.5)	1 (7.7)	5 (9.4)	12 (3.9)
	전북	1 (0.4)	1 (7.7)	0 (0.0)	2 (0.6)
	전남	41 (16.8)	0 (0.0)	1 (1.9)	42 (13.5)
	경북	41 (16.8)	0 (0.0)	3 (5.7)	44 (14.2)
	경남	66 (27.0)	5 (38.5)	2 (3.8)	73 (23.5)
계		244 (100.0)	13 (100.0)	53 (100.0)	310 (100.0)

예비조사에 참여한 다문화청소년의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경기, 경남, 전북, 전남 순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지역에서는 5% 미만의 비율을 보였다. 예비조사 표본의 지역 분포는 모집단의 지역 구성비를 고려할 때 서울의 비율이 다소 낮았으나, 전반적으로 모집단은 지역 분포가 잘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예비조사 설문조사와 더불어, 예비조사를 실시했던 전문 조사원과 예비조사에 참여했던 다문화청소년 및 그들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조사절차 및 조사문항의 내용에 관한 개선 의견 수집을 위하여 심층면접(FGI: Focus Group Interview)을 실시하였다. 그들의 특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 Ⅳ-4 심층면접 참여자 특성

구분	전문 조사원	다문화청소년과 어머니
참여자	■ 조사원 5명 ■ 컨택원 2명	■ 국제결혼 국내출생 자녀와 외국인 어머니 3쌍 - 어머니 국적: 베트남, 중국, 몽골 ■ 국제결혼가정 중도입국 자녀와 외국인 어머니 1쌍 - 어머니 국적: 베트남 ■ 외국인가정 자녀와 외국인 어머니 3쌍 - 어머니 국적: 방글라데시, 미국, 중국
면접 실시일	2019.2.15.	2019.3.15.
조사 방법	FGI(Focus Group Interview)	

2) 예비조사 결과

예비조사를 통해 수집된 다문화청소년과 어머니의 응답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문항의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사문항별 하나의 구인을 측정하는 하위문항 간의 내적일관성 지수인 Cronbach α값은 〈표 Ⅳ-5〉와 같다. 모든 조사문항의

신뢰도는 .753에서 .876의 범위로 대체적으로 양호한 수준이었다. 단, 청소년 대상 조사문항 중 하나인 문화적응스트레스를 측정하는 10개 하위문항 중 하나의 문항에서 부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5 예비조사문항 신뢰도 분석

구분	문항	하위 문항 수	척도	신뢰도 (Cronbach α)
청소년 대상 조사문항	친구들과의 관계	3	5	.876
	학교생활적응	4	4	.753
	담임 선생님과의 관계	3	5	.855
	자존감	3	4	.820
	사회적 역량	3	4	.845
	삶의 만족	3	4	.804
	문화적응스트레스	10	4	.786/.828*
	국가정체성	4	4	.819
	이중문화수용태도	10	4	.778
	부모의 지지	6	4	.854
	부모의 양육태도: 감독	5	4	.803
	부모의 양육태도: 방임	10	4	.785
학부모 대상 조사문항	부모효능감	9	5	.832
	문화적응스트레스	8	5	.857
	문화적응유형: 동화	3	5	.853
	문화적응유형: 통합	3	5	.791
	문화적응유형: 분리	3	5	.822
	문화적응유형: 주변화	3	5	.786
	자존감	9	5	.852

* 부적상관관계를 보인 하위문항 삭제 후 신뢰도

예비조사에 참여한 전문 조사원, 청소년과 그들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조사과정에서 발생하였던 어려운 점이나 개선이 필요한 점, 조사문항내용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실시한 심층면접에서 도출된 내용은 〈표 Ⅳ-6〉과 같다.

표 Ⅳ-6 심층면접 도출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조사원	■ 학교 현장에서 원활한 협조요청 위해 교육부 공문 등 필요 ■ 학교로 발송되는 공문에 요청하고자 하는 핵심 협조사항을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음 ■ 다문화청소년의 부모님과 학교 선생님들에게 제공할 본 조사에 관한 간단한 안내 자료를 제작할 필요가 있음 ■ 아랍어를 사용하는 가구 수가 많이 있어 설문지 아랍어 번역 추가 필요 ■ 외국인 어머니와 초등학교 4학년 학생 수준에 비해 다소 어려운 단어(예: 위축, 유능)가 사용된 조사문항 수정 또는 단어 설명 추가 필요 ■ 자녀가 부모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와 관련된 문항의 경우, 솔직하게 응답할 수 있도록 어머니와 자녀가 분리될 필요가 있음 ■ 학부모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조사원증 제공 필요
청소년	■ 설문조사 소요시간이 길어서 집중하는 데 어려움 ■ 태블릿 PC를 사용하여 설문조사에 참여하는 것이 재미있었음 ■ 조사문항의 일분 단어(예: 협력, 여가) 의미를 모름 ■ 친한 친구의 국적을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있음 ■ 향후 매년 조사에 참여해야 한다면 참여할 의사가 있음
학부모	■ 학교 선생님의 사전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대부분 참여할 의향이 있음 ■ 대부분 설문조사를 집에서 실시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부담은 없음 ■ 일부 학부모의 경우 학교에 모여서 조사를 실시함 ■ 설문조사 답례품을 자녀에게 주는 것보다 학부모에게 주는 것을 선호함

3. 표본설계[17)]

2019년도에 새로이 구축하는 신규패널의 표본설계를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Ⅳ-7 신규패널 표본설계 내용

분 류	내 용
모집단 및 표본추출틀	■ 목표 모집단 : 전국 다문화가족 청소년 및 그들의 어머니 ■ 조사 모집단 : 2019년 기준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국제결혼/중도입국/외국인 가정의 청소년 및 그들의 어머니 ■ 표본추출틀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센터 자료(2018년 4월 1일 기준)
목표오차 또는 표본규모	■ 표본규모 : 전국 2,100명 ■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 ±2.1%p
표본추출방식 (층화, 특성, 분류지표 포함)	■ 명시적 층화 : 다문화가족 유형(국제결혼 가정의 국내출생, 중도입국 자녀, 외국인가정 자녀), 17개 시/도 ■ 내재적 층화 : 부모의 출신국가 ■ 표본추출단위 - 1차(psu) : 학교 → 다문화학생 수 기준 확률비례추출 - 2차(ssu) : 학교 내 다문화학생 → 전수조사
표본배정방식	■ 다문화가족 유형별 : 50명 우선할당 후 나머지는 비례배분 ■ 17개 시/도별 : 비례배분
추정식	■ 표본 가중값을 적용하고, 표본설계에 적합한 모수추정법 적용
주요항목별 공표범위	■ 성별, 다문화가족 유형별, 어머니 출신국가별, 어머니 학력별, 가구소득별, 지역 규모별 ■ 조사된 사례수가 작거나 상대표준오차가 큰 경우(25% 이상)에는 유사 인접층을 통합하여 공표하거나 내부 자료만으로 활용할 것이며, 모수추정 후 공표범위는 통계청과 협의를 통해서 최종 결정

17) 신규패널 설계의 경우 2018년도에 이미 설계된 내용으로 기본적인 설계의 개요는 동일하고 다만 표본추출의 규모가 변경된 상황이다. 따라서 2018년도 신규패널보고서(양계민, 2018: 35-60) 3장의 내용을 발췌하여 수정 보완하였다.

1) 모집단 정의 및 현황

본 연구의 목표 모집단은 교육부 기준의 다문화가정 학생들로 국제결혼가정, 외국인가정, 중도입국에 해당하는 모든 학생들로(양계민, 2018: 38), 조사 모집단은 조사시점 기준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다문화가정 학생들이다. 조사 모집단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2019년 현재 초등학교 4학년인 학생들의 시/도별 분포 특성을 다음 〈표 Ⅳ-8〉 ~ 〈표 Ⅳ-11〉에 제시하였다. 분석기준은 2018년 4월 1일 기준으로 2018년에 3학년인 학생들이었다. 조사대상인 초등학교 3학년의 다문화가정 학생 수는 전체 17,134명이고 이 중에서 남학생과 여학생은 각각 8,805명(51.4%)과 8,329명(48.6%)이었다(양계민, 2018: 38). 다문화가정 내 하위 유형별로 보면 국제결혼가정의 국내출생 자녀가 14,163명으로 82.7%를 차지해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는 외국인가정이 2,069명으로 12.1%이고, 국제결혼가정의 중도입국 자녀가 902명으로 5.3%를 차지하고 있다(양계민, 2018: 38).

표 Ⅳ-8 초등학교 4학년 다문화청소년의 시/도별 분포 현황 – 국제결혼가정의 국내 출생 자녀

구분	남자	여자	합계
전국	7,299	6,864	14,163
서울	762	696	1,458
부산	347	337	684
대구	235	242	477
인천	366	344	710
광주	209	163	372
대전	193	132	325
울산	212	178	390
세종	49	33	82
경기	1,510	1,393	2,903
강원	249	225	474

구분	남자	여자	합계
충북	306	316	622
충남	529	517	1,046
전북	437	451	888
전남	541	505	1,046
경북	592	566	1,158
경남	643	658	1,301
제주	119	108	227

* 출처 : 양계민(2018: 39)의 표 Ⅲ-1.

표 Ⅳ-9 초등학교 4학년 다문화청소년의 시/도별 분포 현황 – 국제결혼가정의 중도입국 자녀

구분	남자	여자	합계
전국	458	444	902
서울	81	88	169
부산	26	16	42
대구	12	18	30
인천	42	38	80
광주	5	7	12
대전	8	6	14
울산	6	9	15
세종	2	2	4
경기	162	144	306
강원	6	6	12
충북	12	15	27
충남	21	26	47
전북	14	8	22
전남	14	13	27
경북	11	12	23
경남	25	24	49
제주	11	12	23

* 출처 : 양계민(2018: 39)의 표 Ⅲ-2.

표 Ⅳ-10 초등학교 4학년 다문화청소년의 시/도별 분포 현황 – 외국인가정 자녀

구분	남자	여자	합계
전국	1,048	1,021	2,069
서울	255	288	543
부산	23	11	34
대구	16	31	47
인천	85	59	144
광주	18	26	44
대전	6	10	16
울산	20	12	32
세종	3	1	4
경기	437	393	830
강원	1	9	10
충북	34	27	61
충남	58	43	101
전북	9	14	23
전남	8	13	21
경북	28	30	58
경남	40	33	73
제주	7	21	28

* 출처 : 양계민(2018: 40)의 표 Ⅲ-3.

표 Ⅳ-11 초등학교 4학년 다문화청소년의 시/도별 분포 현황 – 다문화가정 자녀 전체

구분	남자	여자	합계
전국	8,805	8,329	17,134
서울	1,098	1,072	2,170
부산	396	364	760
대구	263	291	554
인천	493	441	934

구분	남자	여자	합계
광주	232	196	428
대전	207	148	355
울산	238	199	437
세종	54	36	90
경기	2,109	1,930	4,039
강원	256	240	496
충북	352	358	710
충남	608	586	1,194
전북	460	473	933
전남	563	531	1,094
경북	631	608	1,239
경남	708	715	1,423
제주	137	141	278

* 출처 : 양계민(2018: 40)의 표 Ⅲ-4.

아래의 〈표 Ⅳ-12〉는 부모의 출신국가별, 시/도별 학생 수의 분포 현황을 정리한 으로, 부모의 출신국이 베트남인 경우가 6,287명(36.7%)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중국(3,878명, 22.6%), 필리핀(1,602명, 9.3%%), 중국(한국계)(1,575명, 9.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Ⅳ-12 부모의 출신국가별, 시/도별 다문화가정 학생 수 현황 – 초등학교 4학년 기준

구분	일본	중국	중국 (한국계)	대만	몽골	필리핀	베트남	태국	인도 네시아
전국	719	3,878	1,575	60	391	1,602	6,287	192	70
서울	135	686	420	13	62	146	434	11	3
부산	44	133	36	3	9	89	324	3	3
대구	8	115	39	3	11	27	253	2	6
인천	30	334	73	8	19	53	221	12	4

구분	일본	중국	중국 (한국계)	대만	몽골	필리핀	베트남	태국	인도 네시아
광주	13	70	18	0	13	44	172	4	0
대전	16	69	19	0	7	35	142	3	5
울산	10	88	44	2	12	27	204	3	3
세종	5	8	12	0	2	6	47	0	0
경기	181	1,170	547	16	119	323	984	59	27
강원	22	75	41	1	7	67	193	6	2
충북	21	122	38	3	27	73	327	11	2
충남	39	233	65	2	17	164	516	15	4
전북	41	189	48	1	13	134	382	11	1
전남	57	137	47	2	30	160	537	18	3
경북	30	178	52	2	20	94	706	11	5
경남	51	201	60	1	21	115	760	21	2
제주	16	70	16	3	2	45	85	2	0

구분	남부 아시아	중앙아 시아	미국	러시아	유럽	아프 리카	오세 아니아	기타	합계
전국	613	617	130	285	80	45	26	564	17,134
서울	66	41	33	26	13	15	8	58	2,170
부산	36	18	7	21	4	4	2	24	760
대구	33	24	5	10	1	0	0	17	554
인천	32	64	6	29	5	7	1	36	934
광주	19	39	1	9	2	1	1	22	428
대전	13	13	9	4	4	1	1	14	355
울산	14	7	1	4	4	0	1	13	437
세종	2	1	1	2	1	0	0	3	90
경기	112	192	39	113	24	13	3	117	4,039
강원	31	19	3	4	0	0	2	23	496
충북	19	33	2	12	3	0	1	16	710
충남	30	52	5	16	2	0	2	32	1,194
전북	39	10	3	6	1	1	0	53	933
전남	67	9	1	3	0	0	0	23	1,094
경북	23	41	10	7	8	3	2	47	1,239

구분	일본	중국	중국 (한국계)	대만	몽골	필리핀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경남	61	50	4	18	4	0	1	53	1,423
제주	16	4	0	1	4	0	1	13	278

* 출처 : 양계민(2018: 41)의 표 Ⅲ-5.

2) 표본추출

(1) 표본추출틀

본 연구의 표본추출틀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센터 자료(2018년 4월 1일 기준)의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 리스트였다. 전국 초등학교의 다문화 학생 4학년 분포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표 Ⅳ-13〉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2019년도에 4학년인 학생들을 추출해야 하므로 2018년 자료에서는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표본틀로 하였고, 그 결과 추출된 다문화가정 3학년 학생이 재학 중인 초등학교 수는 4,805개교였다. 그 중 국제결혼가정의 국내출생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는 4,612개교, 국제결혼가정의 중도입국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는 645개교, 외국인가정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는 729개교였다. 전체 초등학교 수의 합계는 총 5,986개교로서 이 중 1,007개교는 다문화가정 유형이 중복된 경우이다.

표 Ⅳ-13 다문화가정 학생이 존재하는 초등학교 분포 – 초등학교 4학년 기준

구분	국제결혼가정의 국내 출생 자녀	국제결혼가정의 중도입국 자녀	외국인가정 자녀	전체 다문화가정 자녀	
				합계	구성비(%)
전국	4,612	645	729	4,805	100.0
서울	447	115	162	485	10.1
부산	237	33	24	246	5.1
대구	175	28	24	182	3.8
인천	202	52	55	214	4.5
광주	124	11	12	128	2.7
대전	108	13	13	115	2.4
울산	98	13	19	99	2.1
세종	30	4	4	31	0.6
경기	930	191	241	999	20.8
강원	214	11	9	217	4.5
충북	203	23	24	210	4.4
충남	341	36	41	347	7.2
전북	303	19	17	306	6.4
전남	331	23	13	339	7.1
경북	380	20	26	389	8.1
경남	404	35	30	408	8.5
제주	85	18	15	90	1.9

* 출처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18b).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센터 내부자료.

(2) 표본크기 결정

표본크기의 결정 요소로는 생산되는 통계의 목표표본오차의 크기와 주어진 예산, 조사시간 등을 고려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주어진 환경들을 고려하고 1차 코호트와 비교를 위해 2,000가구를 최소 유효표본 크기로 설정하였다. 1차 코호트 패널조사의 유지율이 5년차에 82.3%, 8년차에 75.1%임을 고려했을 때, 신규패널의 경우 조사시작 8년 후인 2027년도에 1,502명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전국단위, 다문화가정유형별로 일정수준의 규모를 유지할 수 있는 타당한 통계로 생각된다.

다만, 표본배분 과정에서 패널조사라는 점을 고려하고, 다문화가족 유형별/시도별 표본배분 결과를 검토하여 일부 층에 100가구의 표본을 추가로 배분하여 총 2,100가구를 구축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다문화가정 유형별 배분 방안을 비교 분석하여, '우선할당(50명) 후 비례배분법'을 최종 배분법으로 선정하였으며, 시도별 배분 과정에서 일부를 추가하여, 국제결혼가정의 국내 출생 자녀에 1,600가구, 국제결혼가정의 중도입국 자녀에 200가구, 외국인가정에 300가구의 표본크기를 할당하였다. 이 때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국제결혼가정의 국내 출생 자녀 ±2.4%p, 국제결혼가정의 중도입국 자녀 ±6.2%p, 외국인가정 자녀 ±5.33%p였고, 표본추출률은 국제결혼가정의 국내출생 자녀의 경우 0.113, 국제결혼가정의 중도입국 자녀 0.222, 외국인가정 자녀 0.145로 나타났다.

(3) 층화

본 표본의 층화는 17개 시·도별 조사데이터의 비교분석결과에서 일정수준의 신뢰성을 갖도록 설계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다문화청소년의 특성은 교육부 기준 다문화학생 내 하위유형 및 부모의 출신 국가, 지역규모(시/도) 등에 따라 서로 다를 것을 상정하여 이들 변수를 층화변수로 사용하였다. 다만, 층화변수의 수준이 표본크기에 비해 지나치게 세분화될 경우에는 과잉 층화로 표본 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가능성에 대비하여(양계민, 2018: 44) 부모의 출신 국가는 잠재적 층화변수로 활용하여 층화 효과를 유지하고자 하였다. 조사 완료 후에는 층별 표본 분포를 산출하고, 빈도수가 작은 경우에는 유사 또는 인접층들을 통합하여 가중치 계산과 분석을 검토할 예정이다.

(4) 표본배분

표본 배분은 2019년 제2기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의 표본크기를 2,000명으로 정했을 경우, 다문화가정 유형과 시/도별로 할당하고자 하였다. 먼저, 통계작성 단위 또는 분석 단위로서 3가지 다문화가정 유형이 의미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표본배분 방법을 제곱근 비례배분, 변형 비례배분(50명 우선할당 후 비례배분)과 기대 표본오차를 동일하게 설정하는 방법을 검토하였다(양계민, 2018: 44). 3가지 표본배분방법으로 할당한 결과를 제시하면 표 Ⅳ-14에 제시하였다. 〈표 Ⅳ-14〉에 나타난 바와 같이 3가지 표본배분 방법 중 층별 안정적인 통계생산을 고려하고, 모집단과 표본의 구성비, 기대표본오차, 추출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변형 비례배분 방식을 적용한 결과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변형비례배분 방법을 최적 배분법으로 선정하였다.

표 Ⅳ-14 다문화가정 유형별 표본배분 결과 및 비교

구분		국내 출생	중도입국	외국인가정	전체
모집단	합계	14,163	902	2,069	17,134
	구성비	82.7%	5.3%	12.1%	100.0%
제곱근 비례배분	할당표본	1,224	308	468	2,000
	표본 구성비	61.2%	15.4%	23.4%	100.0%
	기대표본오차	2.73%p	4.62%p	4.07%p	2.1%p
	추출률	8.64%	34.1%	22.6%	11.7%
50+비례배분	할당표본	1,580	147	273	2,000
	표본 구성비	79.0%	7.4%	13.6%	100.0%
	기대표본오차	2.37%p	7.55%p	5.64%p	2.1%p
	추출률	11.2%	16.3%	13.2%	11.7%
동일 기대표본오차	할당표본	888	462	650	2,000
	표본 구성비	44.4%	23.1%	32.5%	100.0
	기대표본오차	3.25%p	3.25%p	3.25%p	2.1%p

구분		국내 출생	중도입국	외국인가정	전체
	추출률	6.3%	51.2%	31.4%	11.7%

* 출처 : 양계민(2018: 45)의 표 Ⅲ-7 수정.

변형 비례배분(50명 우선할당 후 비례배분) 방법을 적용한 결과를 기준으로 시/도별 비례배분법을 적용하여 할당한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 〈표 Ⅳ-15〉와 같다.

표 Ⅳ-15 다문화가정 유형별 시/도별 표본배분 결과

구분	국내 출생	중도입국	외국인가정	전체
전국	1,580	147	273	2,000
서울	163	28	72	263
부산	76	7	4	87
대구	53	5	6	64
인천	79	13	19	111
광주	41	2	6	49
대전	36	2	2	40
울산	44	2	4	50
세종	10	2	2	14
경기	324	48	107	479
강원	53	2	2	57
충북	69	4	8	81
충남	117	8	13	138
전북	99	4	3	106
전남	117	4	3	124
경북	129	4	8	141
경남	145	8	10	163
제주	25	4	4	33

* 출처 : 양계민(2018: 45)의 표 Ⅲ-8.

본 연구는 패널조사라는 점을 고려하고, 다문화가족 유형별/시도별 표본배분 결과를 보완하여 일부 층에 표본을 추가로 배분하여 모든 셀의 표본크기가 3명 이상이 되도록 하였다.

표 Ⅳ-16 다문화가정 유형별 시/도별 추가 표본배분

구분	국내 출생			중도입국			외국인가정			전체		
	배분 결과	표본 추가	최종 결과	배분 결과	표본 추가	최종 결과	배분 결과	표본 추가	최종 결과	배분 결과	표본 추가	최종 결과
전국	1,580	20	1,600	147	53	200	273	27	300	2,000	100	2,100
서울	163	0	163	28	3	31	72	1	73	263	4	267
부산	76	0	76	7	3	10	4	2	6	87	5	92
대구	53	0	53	5	3	8	6	2	8	64	5	69
인천	79	0	79	13	3	16	19	2	21	111	5	116
광주	41	0	41	2	3	5	6	2	8	49	5	54
대전	36	0	36	2	3	5	2	2	4	40	5	45
울산	44	0	44	2	3	5	4	2	6	50	5	55
세종	10	15	25	2	2	4	2	1	3	14	18	32
경기	324	0	324	48	6	54	107	0	107	479	6	485
강원	53	0	53	2	3	5	2	1	3	57	4	61
충북	69	0	69	4	3	7	8	2	10	81	5	86
충남	117	0	117	8	3	11	13	2	15	138	5	143
전북	99	0	99	4	3	7	3	2	5	106	5	111
전남	117	0	117	4	3	7	3	2	5	124	5	129
경북	129	0	129	4	3	7	8	1	9	141	4	145
경남	145	0	145	8	3	11	10	1	11	163	4	167
제주	25	5	30	4	3	7	4	2	6	33	10	43

* 출처 : 양계민(2018: 45)의 표 Ⅲ-8 수정

표본추출에 필요한 학교 수는 4학년에 재학 중인 다문화학생 수를 다문화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 수로 나눈 수가 된다. 학교 당 평균 다문화가정 학생 수는 국제결혼가정의 국내 출생 자녀 3.070명(=14,163/4,612), 중도입국 자녀 1.398명(=902/645), 외국인가정 자녀 2.838명(=2,069/729) 이므로 표본추출에 필요한 초등학교 수는 국제결혼가정의 국내 출생 자녀 521개교, 국제결혼가정의 중도입국 자녀 143개교, 외국인가정 자녀 105개교이다. 따라서 필요한 최종 표본 학교 수를 하위 유형별로 정리하여 제시하면 〈표 Ⅳ-17〉과 같다. 이는 1차 표본추출단위(PSU : primary sampling unit)학교로 동일 학교 내에 국내출신, 중도입국과 외국인가정 등의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혼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층이 겹치지 않도록 다문화가정 학생수가 많은 층으로 우선 분류하고 만일에 동수인 경우에는 중도입국이나 외국인 가정의 층으로 분류하였다.

표 Ⅳ-17 다문화가정 유형별 시/도별 표본 학교 수

구분	국내 출생		중도입국		외국인가정		전체	
	모집단	표본	모집단	표본	모집단	표본	모집단	표본
전국	4,612	521	645	143	729	106	4,805	770
서울	447	53	115	22	162	26	485	101
부산	237	25	33	7	24	2	246	34
대구	175	18	28	6	24	3	182	27
인천	202	26	52	11	55	7	214	44
광주	124	13	11	3	12	3	128	19
대전	108	12	13	3	13	1	115	16
울산	98	14	13	4	19	2	99	20
세종	30	8	4	3	4	1	31	12
경기	930	106	191	39	241	38	999	183
강원	214	17	11	4	9	1	217	22
충북	203	22	23	5	24	4	210	31
충남	341	38	36	8	41	5	347	51
전북	303	32	19	5	17	2	306	39
전남	331	38	23	5	13	2	339	45
경북	380	42	20	5	26	3	389	50

구분	국내 출생		중도입국		외국인가정		전체	
	모집단	표본	모집단	표본	모집단	표본	모집단	표본
경남	404	47	35	8	30	4	408	59
제주	85	10	18	5	15	2	90	17

* 출처 : 양계민(2018: 46)의 표 Ⅲ-9.

(5) 표본추출

본 조사에서의 표본추출 단위는 학교이며, 추출된 학교에서는 다문화가정에 해당하는 학생(2019년 초등학교 4학년)을 전수조사 하는 것이 원칙이다(양계민, 2018: 47). 표본 학교 추출은 각 층별로 살펴보면, 층 내에서는 다문화가정 학생 수가 많은 학교의 추출률을 크게 하기 위해서 학생 수를 기준으로 확률비례추출법(probability proportional sampling)을 적용하여 표본학교를 선정하였고(양계민, 2018: 47), 추출된 표본학교의 4학년 다문화가정 학생들은 다문화가정 유형과 무관하게 모두 추출되도록 하였다. 이 때, 〈표 Ⅳ-17〉에 제시된 모집단 학교 수를 시/도별, 다문화학생의 하위 유형별 층 내에서 주소를 기준으로 정렬한 후, 다시 다문화가정 4학년 학생 수를 기준으로 확률비례추출법으로 선정함으로써 부모의 출신국가별 표본 분포가 모집단의 분포와 유사하도록 추출하고자 하였다.

3) 가중치 산정

(1) 패널구축 첫해(WAVE 1)의 가중치

조사된 표본 조사 단위가 모집단의 추출 단위들을 대표할 수 있도록 수치로 연계하는 승수를 가중치(weight)라고 하며, 최종 가중치는 설계가중치와 응답률

보정, 사후층화 보정을 반영하는 3개의 가중치 요소를 곱하여 계산하게 된다(양계민, 2018: 47). 이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설계가중치(base weight)는 표본추출률의 역수로 하며, 본 연구의 경우, 학교 선정은 확률비례추출법을 적용하고 표본 학교 내의 모든 다문화가정 학생을 조사하므로 다음 식으로 산출하였다.

$$w_{1.hij} = \frac{\sum_{i=1} X_{hi}}{n_h X_{hi}} \quad \cdots \ (1)$$

여기서 h는 층(다문화가정 유형, 시/도)을 나타내고, X_{hi}는 h층, i 학교의 다문화가정 학생 수를 나타내며, j는 조사된 학생을 나타낸다.

둘째, 무응답보정 가중치 계산은 다음과 같다. 선정된 표본 학교 내의 모든 학생이 응답할 경우에는 응답률은 1.0이지만 이 중에서 일부가 응답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응답자와 응답자의 특성이 유사하다는 가정 하에서 응답률의 역수를 무응답 보정 가중치로 하여 다음 식으로 계산한다(양계민, 2018: 48).

$$w_{2.hij} = \frac{R_{hi}}{r_{hi}} \quad \cdots \ (2)$$

여기서 R_{hi} 와 r_{hi}는 각각 h층, i학교의 조사대상자 수와 실제 조사 성공한 학생 수를 나타낸다(양계민, 2018: 48).

셋째로, 사후층화 보정가중치는 학생의 성별과 부 또는 모의 출신국가별로 조사항목의 특성이 다를 경우, 해당 변수에 대한 획득 가능한 정보를 활용하여 가중치의 합계와 이들 정보간의 비(ratio)를 사후층화 보정 계수라 하며, 이를 BF_{hij}로 표시한다(양계민, 2018: 48).

마지막으로 최종가중치는 위에서 각각 설명한 설계가중치, 무응답 보정 계수와 사후층화 보정 계수를 곱하여 다음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양계민, 2018: 48-49).

$$w_{fhij} = w_{1.hij} \cdot w_{2.hij} \cdot BF_{hij} \cdots (3)$$

(2) 조사 2년차(WAVE Ⅱ) 이후 가중치

위의 식(3)에 주어진 가중치는 조사 첫해(WAVE 1)의 가중치이며 앞으로 패널조사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조사연차별로 가중치 계산의 기준이 되는 값이 된다. 따라서 2019년 조사에서는 식(3)에 주어진 가중치를 사용하게 되지만 2020년 이후의 조사에서는 패널조사에 적합한 종단가중치를 산출하고 조사된 데이터를 분석할 경우에도 종단가중치를 이용해야하므로 종단가중치의 계산방법을 아래와 같이 설명할 수 있다(양계민, 2018: 49).

2019년에 조사된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가중치는 식(3)에 의해서 계산하고 이를 w^1_{fhij} 로 표시하고 2020년 조사에서 응답한 표본학생의 가중치는 제2차년도 가중치이므로 w^2_{fhij} 로 나타내고 아래와 같은 식(4)를 이용하여 산출한다.

$$w^2_{fhij} = w^1_{fhij} \cdot \widehat{p_{hij}}^{-1} \cdots (4)$$

여기서 $\widehat{p_{hij}}$는 2020년도의 조사에서 응답확률을 나타내며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서 산출하게 된다(양계민, 2018: 49).

① 2020년 조사에서 각 학생별 응답여부를 2019년 조사 데이터세트와 대비하여 분석

② 2020년 조사에서 응답여부에 영향을 미친 주요 조사항목들을 식별

③ 2020년 조사에서 응답여부를 종속변수로 두고 응답여부에 영향을 주는 조사항목들을 설명변수(X_j)로 한 로지스틱회귀모형을 분석하고 회귀계수를 추정

④ 개인별로 설명변수에 해당되는 조사항목의 응답 값을 적합한 로지스틱회귀모형에 대입하여 응답확률($\widehat{p_{hij}}$)을 아래 식으로 계산

$$\widehat{p_{hij}} = \frac{\exp(\sum_{j=0}^{k} \widehat{\beta}_j X_j)}{1 + \exp(\sum_{j=0}^{k} \widehat{\beta}_j X_j)}$$

따라서 무응답 보정 계수는 응답확률의 역수이므로 아래와 같이 계산할 수 있다.

$$\widehat{p_{hij}}^{-1} = 1 + [\exp(\sum_{j=0}^{k} \widehat{\beta}_j X_j)]^{-1}$$

2020년도 이후의 패널조사에서 종단가중치는 식(4)로 계산하지만 횡단가중치는 종단가중치와 조사연차별로 주어진 모집단 분포 특성에 관한 정보를 결합하여 계산하게 되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연차에 응답한 패널의 분포와 종단가중치 그리고 모집단 분포특성의 정보를 이용해야하므로 매년 새로운 자료에 근거하여 계산이 될 것이다.

4) 모수추정

모평균이나 모비율을 특정 연도에 대한 특성을 기준으로 추정할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횡단면 가중치를 적용하여 추정량을 계산하게 된다. 예를 들어 2019년의 모수 추정량은 식 (3)에 주어진 가중치식을 이용하여 다음 식 (5)로 계산하고 2020년 이후에는 해당연도의 가중치를 적용하게 된다. 연도간의 변동의 경우는 각 연도별로 해당되는 종단가중치를 적용한 모수추정량을 식(5)를 적용하여 계산한 후에 분석한다.

$$\hat{\mu} = \frac{\sum_{h}\sum_{i}\sum_{j} w_{fhij} y_{hij}}{\sum_{h}\sum_{i}\sum_{j} w_{fhij}} \quad \cdots (5)$$

여기서 모비율 산출 시 y_{hij}는 1 또는 0의 값을 가진다.

모평균이나 모비율 추정량의 분산 추정량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구할 수 있다 (양계민, 2018: 50).

$$\hat{V}(\hat{\mu}) = \sum_{h=1}^{H} \frac{n_h(1-f_h)}{n_h - 1} \sum_{i=1}^{n_h} (e_{hi\cdot} - \bar{e}_{h\cdot})^2 \quad \cdots (6)$$

- $f_h = \frac{n_h}{N_h}$
- $e_{hi\cdot} = \left[\sum_{j=1}^{m} w_{hij}(y_{hij} - \hat{\bar{Y}})^2\right] / w_{\cdot\cdot}$, $\bar{e}_{h\cdot} = (\sum_{i=1}^{n_h} e_{hi\cdot})/n_h$

또한 추정량의 표준오차 및 상대표준오차는 아래와 같은 식으로 구할 수 있다.

$$\widehat{SE}(\hat{\mu}) = \sqrt{\hat{V}(\hat{\mu})} \cdots (7)$$

$$\widehat{RSE}(\hat{\mu}) = \frac{\sqrt{\hat{V}(\hat{\mu})}}{\hat{\mu}} \times 100(\%) \cdots (8)$$

조사 완료 후에는 복합표본설계 추정에 적합한 SAS의 PROC surveymean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모든 모수추정치와 분산추정치 및 상대표준오차(변동계수) 등을 계산함으로써 생산된 통계치의 정확성과 타당성을 검토할 것이다.

4. 조사내용

2018년도 연구에서는 신규패널의 조사문항은 아래의 6개 방향과 원칙을 바탕으로 설계되었다(양계민, 2018: 63).

신규패널 조사문항설계 방향 및 원칙

1. 1기 패널과 상호비교가 가능해야 한다.
2. 비(非)다문화가정의 청소년들과 비교가 가능해야 한다.
3. 새로운 다문화적 환경의 변화요인을 반영해야 한다.
4. 다문화가정을 위한 지원정책의 효과성 분석이 가능해야 한다.
5. 국외 다문화청소년과의 비교가 가능해야한다.
6. 설문조사문항은 조사 참여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수준으로 간명해야 한다.

그림 Ⅳ-2. 신규패널 조사문항설계 방향 및 원칙

조사문항설계의 기본 방향과 원칙에 따라 조사요인별 내용을 추출하고, 해당 문항을 개발하기 위하여 1기 패널 조사문항 검토, 문헌연구, 전문가 자문회의를 실시하였다.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 개발된 설문지는 다문화청소년 대상 설문지

2종과 어머니용 설문지 4종으로, 총 6종이 개발되었으며, 이를 사용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 실시 이후, 신뢰도 분석 및 여러 차례 연구진 회의와 다문화청소년 분야의 전문가 5인이 참석한 자문회의를 통해 예비 조사문항을 수정·보완하여 신규패널을 위한 최종 조사문항을 확정하였다. 예비조사에서 사용된 설문지의 출처 및 수정내용은 양계민(2018: 82-92)의 〈표 Ⅳ-6〉과 〈표 Ⅳ-8〉에 상세하게 제시되어 있음에 따라, 본 절에서는 예비조사 실시 이후 최종 도출된 설문지의 수정내용을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표 Ⅳ-18 신규패널 조사를 위한 6종 설문지

학생	다문화청소년의 어머니
국내출생 청소년용	국내출생 청소년의 외국인 어머니용
	국내출생 청소년의 한국인 어머니용
외국출생 청소년용	외국출생 청소년의 외국인 어머니용
	외국출생 청소년의 한국인 어머니용

표 Ⅳ-19 청소년 설문지의 문항별 출처 및 수정내용

요인	내용	국내 출생	외국 출생	출처	수정내용
학교 생활	학교생활	○	○	청소년종합 실태조사 (2017)°	기존문항 유지
	학교생활 어려운 점 (친구)	○	○	MAPS 1기 일부 발췌	■ 문구수정 - 나를 다른 아이들과 다르게 차별하는 것 ⇒ 나를 다른 아이들과 다르게 대하는 것
	학교공부의 어려운 점	○	○	MAPS 1기	기존문항 유지
	학교생활 전체에서 가장 어려운 점	○	○	연구진 작성	■ 문항추가 - 국내출생 청소년용 설문지에 추가
	담임선생님과의 관계	○	○	MAPS 1기	기존문항 유지
	집단괴롭힘 피해경험	○	○	MAPS 1기	기존문항 유지
	학교 내 도와주는 어른 존재 여부	○	○	MAPS 1기	기존문항 유지
	(있다면) 학교 내 도와주는 어른 누구인가	○	○	MAPS 1기	기존문항 유지
	지난학기 성적	○	○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 (2018)°°	기존문항 유지
	성적에 대한 만족도	○	○	MAPS 1기	기존문항 유지
방과 후 생활	방과후 활동	○	○	청소년 종합실태조사 (2017)	기존문항 유지
	교과목관련 활동시간	-	○	MAPS 1기	■ 삭제
	특기적성 활동시간	-	○	MAPS 1기	■ 삭제

요인	내용	국내 출생	외국 출생	출처	수정내용
	문화생활, 스포츠 관람, 레저시설 이용	○	○	2017년 사회조사 표°°° 발췌 및	■ 수정 - 박물관 관람, 미술관 관렴 예시 삭제
진로	학생의 희망 교육수준	○	○	MAPS 1기	기존문항 유지
	어른이 되어서 가장 갖고 싶은 직업	○	○	MAPS 1기	■ 수정 - 문항에 제시된 예시 삭제
	학교를 마친 후 일하고 싶은 곳	○	○	연구진 구성	기존문항 유지
	미래, 진로, 진학 관련 부모와의 대화	○	○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 (2018)	기존문항 유지
심리 사회 적응 및 건강	자존감	○	○	청소년 종합실태조사 (2017)	■ 수정 - ‘가치 있는 사람’ 의미 추가
	사회적 역량	○	○	청소년 종합실태조사 (2017)	■ 수정 - ‘협력’ 의미 추가
	삶의 만족	○	○	MAPS 1기	기존문항 유지
	차별경험 피해여부	○	○	국내 난민아동 한국사회 적응 실태조사 (2018)°°°°	기존문항 유지
	차별경험 가해자	○	○		기존문항 유지
	차별경험 대처	○	○		기존문항 유지
	지각된 다문화 수용성	○	○	연구진 작성	기존문항 유지
	걱정거리	○	○	MAPS 1기	■ 응답방식수정 -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로 응답 ⇒ ‘해당 없음’ 항목 추가 ■ 수정 - ‘진학, 진로 문제’ 의미 추가

요인	내용	국내 출생	외국 출생	출처	수정내용
					■ 하위문항 추가 - 부모님과의 갈등을 두 문항으로 분리 ⇒ 아버지와의 갈등/어머니와의 갈등 -비자/체류 문제
	건강평가	○	○	청소년 종합실태조사 (2017)	기존문항 유지
	스트레스	○	○	청소년 종합실태조사 (2017)	기존문항 유지
	친한 친구 수	○	○	MAPS 1기	기존문항 유지
	친한 친구 국적	-	○	연구진 구성	■ 하위문항 삭제 -친한 친구의 전체 수는 자동 산출로 변경하고 삭제 ■ 문구수정 -이 중에서 한국친구는 몇 명인가요? ⇒ 한국에서 태어난 친구 -이 중 학생과 출생국이 같은 친구는 몇 명인가요? ⇒ 나와 같은 나라에서 태어난 친구 -이 중 그 외 다른 나라에서 온 친구는 몇 명인가요? ⇒ 다른나라에서 태어난 친구
	친구들과의 관계	○	○	MAPS 1기	기존문항 유지
문화 적응 및 이중 문화	외국출신부모의 한국어 실력	○	○	MAPS 1기	기존문항 유지
	아버지와 의사소통 시 사용언어	○	○	MAPS 1기	기존문항 유지
	어머니와 의사소통 시 사용언어	○	○	MAPS 1기S	기존문항 유지
	외국출신 부모나라의 언어교육	○	○	연구진 작성	기존문항 유지

요인	내용	국내 출생	외국 출생	출처	수정내용
	외국출신 부모 나라 언어 실력	○	○	MAPS 1기	기존문항 유지
	국가에 대한 정체성	○	○	MAPS 1기	기존문항 유지
	외국출신 부모 국가 방문 여부	○	-	MAPS 1기	기존문항 유지
	외국출신 부모 국가 방문 횟수	○	-	MAPS 1기	기존문항 유지
	문화적응스트레스	○	○	MAPS 1기	■ 하위문항 삭제 -신뢰도 분석결과 부적상관 (10)(아버지/어머니/부모님)나라보다 한국에서 더 잘살 수 있을 것이다
	국가정체성	○	○	MAPS 1기	기존문항 유지
	이중문화수용태도	○	○	MAPS 1기	기존문항 유지
가정 요인	부모의 외국인 여부	○	○	MAPS 1기	기존문항 유지
	가정형편	○	○	연구진 작성	기존문항 유지
	부모의 지지	○	○	MAPS 1기	기존문항 유지
	아버지에 대한 생각	-	-	MAPS 1기	■ 삭제
	어머니에 대한 생각	-	-	MAPS 1기	■ 삭제
	부모의 양육태도	○	○	MAPS 1기	기존문항 유지
	부모와의 활동	○	○	청소년 종합실태조사 (2017)	기존문항 유지
	부모와의 대화 시간	○	○	청소년 종합실태조사 (2017)	■ 수정 - 여가활동 예시 추가
	방과후 보호자 부재	○	○	청소년 종합실태조사 (2017)	기존문항 유지
중도 입국	한국에 오기 전 부모님과 떨어져 산 기간	-	-	연구진 작성	■ 삭제
	부모님과 떨어져 있는 동안 함께 산 사람	-	-	연구진 작성	■ 삭제

요인	내용	국내 출생	외국 출생	출처	수정내용
	한국에 오기 전 학교 경험	-	○	연구진 작성	■ 응답항목 삭제 및 수정 -'한 달에 5~7일 결석' 삭제 -'한 달에 8-10일 결석' 삭제 -'한 달에 11일 이상 결석' ⇒'한 달에 5일 이상 결석'
	한국 입학(편입) 학년	-	○	연구진 작성	
	한국 입국 후 초등학교 입학 전 생활	-	○	연구진 작성	■ 수정 - 오자마자 ⇒ 오자마자(입국 후 1달 이내)
	한국 입국 후 한국어 교육 경험	-	○	연구진 작성	기존문항 유지
	한국어 실력	-	○	MAPS 1기	기존문항 유지
	국적취득 희망	-	○	연구진 작성	기존문항 유지
	한국거주 희망	-	○	연구진 작성	■ 문항 및 응답 항목 수정 -학생은 언제까지 한국에 살고 싶나요? ① 가능한 계속, ② 당장 돌아가고 싶다, ③초등학교를 마칠 때까지, ④ 중학교를 마칠 때까지, ⑤ 고등학교를 마칠 때까지, ⑥ 대학교를 마칠 때까지 ⇒ 학생은 앞으로 한국에서 계속 살고 싶나요? ① 예, ② 아니오 ■ '한국에서 계속 살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항의 응답항목 수정 및 삭제 -한국에서 학교 다니는 것이 힘들어서 ⇒ 한국의 학교공부가 어려워서 -'한국 또는 한국 사람들이 싫어서' 삭제 -'한국에서 계속 살 수 있는 비자를 받지 못해서' 삭제
	학교생활 전체에서 가장 어려운점	-	○	연구진 작성	기존문항 유지

요인	내용	국내 출생	외국 출생	출처	수정내용
지역 사회 지지	학교 밖 도와주는 어른 존재 여부	○	○	MAPS 1기	기존문항 유지
	(있다면) 학교 밖 도와주는 어른 누구인가	○	○	MAPS 1기	■ 수정 - '멘토 선생님' 의미 추가

* 출처: 양계민(2018: 82-87) 표 Ⅳ-6 수정
청소년종합실태조사(2017)° : 백혜정, 임희진, 김현철, 유성렬 (2017). **2017년 청소년종합실내조사** (연구보고 2017-10). 서울: 여성가족부.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2018)°° : 하형석, 이종원, 김성은, 한지형 (2018).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 Ⅸ: 사업보고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7년 사회조사표°°° : 통계청 (2017). **2017년 사회조사표(청소년)**. http://kostat.go.kr.에서 2018년 7월 27일 인출.
국내 난민아동 한국사회 적응 실태조사(2018)°°°° :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아동복지연구소 (2018). **국내 난민아동 한국사회 적응 실태조사** (연구보고 2017-11). 서울: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아동복지연구소.

표 Ⅳ-20 어머니 설문지의 문항별 출처 및 수정내용

요인	내용	국내 출생	외국 출생	출처	수정내용
가족 및 배경 특성	성별	○	○	MAPS 1기	기존문항 유지
	생년월일	○	○	MAPS 1기	기존문항 유지
	응답자와의 관계	○	○	MAPS 1기	기존문항 유지
	교육정도	○	○	MAPS 1기	기존문항 유지
	조사대상 청소년의 학교	○	○	MAPS 1기	기존문항 유지
	국적(출생시/현재)	○	○	MAPS 1기	기존문항 유지
	비자종류	○	○	연구진 구성	기존문항 유지
	입국시기	○	○	연구진 구성	기존문항 유지
	직업	○	○	MAPS 1기	기존문항 유지
	연락처	○	○	MAPS 1기	기존문항 유지
	모국어	○	○	MAPS 1기	기존문항 유지
	배우자와의 결혼상태	○	○	MAPS 1기	■ 삭제
	초혼여부	○	○	MAPS 1기	■ 삭제
	배우자 관계 만족	○	○	국내 난민아동 한국사회 적응 실태조사 (2018)	■ 문항 및 응답항목 수정 -귀하는 배우자와의 관계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① 전혀 만족하지 못한다, ② 별로 만족하지 못한다, ③ 보통이다, ④ 약간 만족한다, ⑤ 매우 만족한다 ⇒ 배우자와의 사이는 어떻습니까? ① 매우 나쁘다, ② 나쁜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좋은 편이다, ⑤ 매우 좋다
	월평균 소득	○	○	MAPS 1기	■ 작성기준 변경 -세전 소득 ⇒ 실수령액
	주요 소득원	○	○	MAPS 1기	기존문항 유지

요인	내용	국내 출생	외국 출생	출처	수정내용
	가정형편에 대한 지각	○	○	MAPS 1기	기존문항 유지
자녀 교육 및 양육	자녀와 대화시 사용언어	○	○	MAPS 1기	기존문항 유지
	자녀와의 의사소통 정도	○	○	MAPS 1기	기존문항 유지
	자녀의 모국(본국)어 능력	○	○	연구진 구성	기존문항 유지
	자녀가 모국어 못하는 이유	○	○	연구진 구성	기존문항 유지
	한국에 오기 전 자녀가 부모님과 떨어져 산 기간	-	○	연구진 작성	■ 추가 -청소년용 문항에서 어머니용 문항으로 변경
	자녀가 부모님과 떨어져 있는 동안 함께 산 사람	-	○	연구진 작성	■ 추가 -청소년용 문항에서 어머니용 문항으로 변경
	초등학교 입학 전 주양육자	○	○	MAPS 1기 연구진 수정	기존문항 유지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연령	○	-	연구진 구성	기존문항 유지
	입학 늦은 이유	○	-	연구진 구성	■ 응답항목 삭제 및 수정 -학교입학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지 못해서 ⇒ 삭제 -입학해야 하는 시기를 몰라서 ⇒ 삭제 -학교에서 입학허가를 해주지 않아서 ⇒ 학교에서 바로 입학 허가를 해주지 않아서 -가녀가 다른 가족(동생 등)을 돌봐야 하는 상황이어서 ⇒ 가족들이 너무 바빠서
	입국 후 초등학교	-	○	연구진 구성	기존문항 유지

요인	내용	국내 출생	외국 출생	출처	수정내용
	입학까지 걸린 기간				
	입학 전 소요기간 이유	-	○	연구진 구성	■ 응답항목 삭제 및 수정 -학교입학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지 못해서 ⇒ 삭제 -입학해야 하는 시기를 몰라서 ⇒ 삭제 -학교에서 입학허가를 해주지 않아서 ⇒ 학교에서 바로 입학 허가를 해주지 않아서 -가녀가 다른 가족(동생 등)을 돌봐야 하는 상황이어서 ⇒ 가족들이 너무 바빠서
	자녀교육 관련 주 의사결정자	○	○	MAPS 1기	■ 응답항목 추가 -부부공동
	자녀의 학교교육에 대한 도움정도	○	○	MAPS 1기	기존문항 유지
	자녀의 학교문제나 숙제지도를 주로 하는 사람	○	○	MAPS 1기	기존문항 유지
	자녀의 성적향상을 위한 노력	○	○	MAPS 1기	기존문항 유지
	자녀의 학교생활을 위해 하는 활동	○	○	MAPS 1기 연구진 수정	■ 수정 - 활동 항목 의미 추가
	희망하는 자녀의 교육수준	○	○	MAPS 1기	기존문항 유지
	자녀의 거주방식	○	○	연구진 구성	■ 문항 및 응답 항목 수정 -향후 귀하의 자녀는 한국에서 어떤 방식으로 거주할 예정입니까? ① 귀화를 신청할 예정이다, ② 영주권을 신청할 예정이다, ③학교를 마칠 때까지만 거주하고 졸업 추에는 나의 모국으로 갈 예정이다, ④ 학교를 마치기 전에 나의 모국으로 갈 예정이

요인	내용	국내 출생	외국 출생	출처	수정내용
					다, ⑤ 입양절차를 신청할 예정이다, ⑥ 학교를 마친 후 한국에서 일하게 할 생각이다 ⇒ 귀하의 자녀를 한국에서 계속 거주하게 할 생각이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하위 문항 추가 -한국에서 어떤 형태로 거주하게 살 생각입니까? -언제까지 한국에서 살게 할 예정입니까?
	자녀가 나중에 갖기를 원하는 직업	○	○	MAPS 1기	■ 수정 - 문항에 제시된 예시 삭제
	선호하는 자녀의 교육방식	○	○	MAPS 1기	기존문항 유지
	사교육 경험 여부 및 비용 부담정도	○	○	MAPS 1기	■ 하위 문항수정 -방문교육사업(한국어교육서비스) ⇒ 자녀 한국어 교육 -방문교육사업(자녀생활서비스) ⇒ 삭제 -자녀 언어발달지원 사업 ⇒ 삭제 -언어영재교실(이중언어교실) ⇒ 자녀 이중언어 교육 -무료 자녀건강검진 ⇒ 삭제 -학습지도 ⇒ 교과목 학습지도 -에체능 교육 ⇒ 특기적성 교육 -한국문화 이해 교육 ⇒ 문화체험 -상담 및 치료 ⇒ 심리적응 프로그램
	자녀 양육시 어려운 점	○	○	국내 난민아동 한국사회 적응 실태조사 (2018)	■ 수정 - ‘유능한’ 의미 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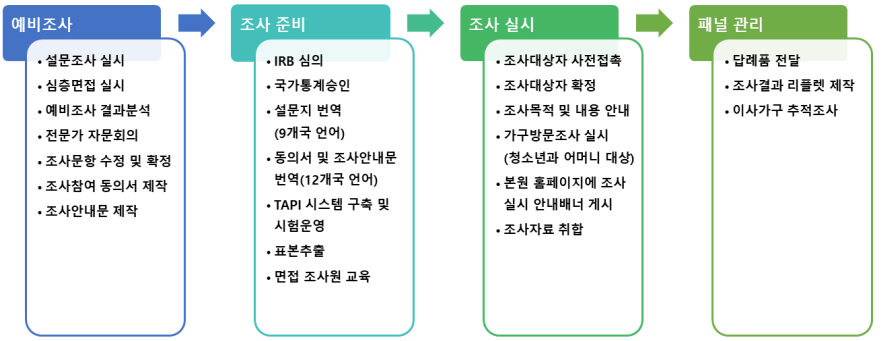
요인	내용	국내 출생	외국 출생	출처	수정내용
				연구진 수정	
	부모효능감	○	○	MAPS 1기	■ 응답항목 수정 -반반이다 ⇒ 중간이다
심리 사회 적응 및 건강	자아존중감	○	○	MAPS 1기	■ 응답항목 수정 -나는 좋은 품성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 나는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차별경험 피해여부	○	○	국내 난민아동 한국사회 적응 실태조사 (2018) 연구진 수정	기존문항 유지
	차별경험 가해자	○	○		기존문항 유지
	차별경험 대처	○	○		■ 응답항목 수정 -상담기관, 센터 등에 문의 하였다 ⇒ 외국인 관련 상담기관, 센터 등에 문의하였다 -차별시정 관련 기관에 진정/신고하였다 ⇒ 관련 기관에 진정/신고하였다
	전반적 건강	○	○	MAPS 1기	기존문항 유지
문화 적응	한국어 학습 경험	○	○	MAPS 1기	기존문항 유지
	한국어 학습 시기	○	○	연구진 구성	기존문항 유지
	한국어 학습 방식	○	○	MAPS 1기 연구진 수정	■ 수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복지관 등에서 교육을 수강했다 ⇒ 다문화가족지원텐서, 복지관 등에 가서 교육을 받았다 -방문교육서비스를 받았다 ⇒ 집에서 방문교육서비스를 받았다
	한국어 공부 기간	○	○	MAPS 1기	기존문항 유지
	한국어 수준	○	○	MAPS 1기	기존문항 유지
	걱정거리를 의논할 수 있는 사람	○	○	MAPS 1기	기존문항 유지
	주로 어울리는 사람	○	○	MAPS 1기	기존문항 유지

요인	내용	국내 출생	외국 출생	출처	수정내용
	한국생활이 모국문화와 달라서 어려운 점	○	○	MAPS 1기	기존문항 유지
	문화적응 스트레스	○	○	MAPS 1기	■ 하위문항 수정 -나는 사회생활에서 한국 사람들과 다르게 취급된다 ⇒ 나는 사회생활에서 한국 사람들과 다른 대우를 받는다 -한국 사람들은 내가 외국에서 왔다는 편견을 가지고 있다 ⇒ 한국사람들은 내가 외국에서 왔다는 이유로 편견을 가지고 있다
	문화적응유형	○	○	MAPS 1기	기존문항 유지
지원에 대한 태도	지원프로그램 제공장소 선호	○	○	MAPS 1기	■ 수정 - 지역의 청소년 시설 ⇒ 지역의 아동센터 또는 청소년센터
	서비스 지원 경험 및 도움정도	○	○	김영혜, 김다경 (2016)	기존문항 유지
	특별지원 필요성	○	○	MAPS 1기	■ 수정 - 이주배경청소년 ⇒ 다문화청소년
	특별지원 방법	○	○	MAPS 1기	기존문항 유지

* 출처: 양계민(2018: 90-92) 표 Ⅳ-8 수정

5. 조사절차 및 방법

신규패널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절차를 살펴보면 예비조사를 실시한 것을 제외한 대부분의 절차는 1기 패널의 조사와 동일하며, 이를 도식화 하면 다음과 같다.



* 출처: 양계민 외(2018: 83) 그림 Ⅱ-2 수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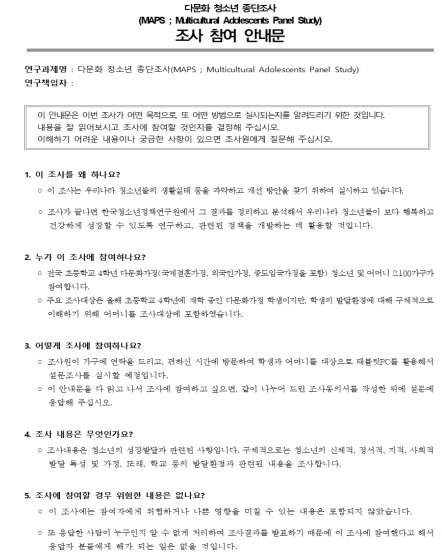
그림 Ⅳ-3. 신규패널조사 단계별 추진과정

1) 조사준비

①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의

1기 패널조사와 마찬가지로, 신규패널 조사실시에 앞서 개발된 설문지와 조사대상 청소년과 그들의 어머니에게 제공 될 조사 참여 동의서 등의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Institutional Review Board) 심의를 거쳐 2019년 4월 24일 최종 승인 받았다. 따라서 본 조사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과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연구계획서의 과학적·윤리적 타당성이 확보되었으며, 조사대상자의 개인정보가 보장됨을 검증받았다고 볼 수 있다(IRB 승인번호: 201904-HR-고유-002-01).

신규패널의 경우 올해 처음 패널이 구축되는 단계이기에 조사 참여 안내문에 본 조사의 목적, 조사참여 대상자, 조사내용, 조사방식, 개인정보 보호 및 처리절차 등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포함하였다.



다문화 청소년 종단조사
(MAPS ; Multicultural Adolescents Panel Study)
조사 참여 안내문

연구과제명 : 다문화 청소년 종단조사(MAPS ; Multicultural Adolescents Panel Study)
연구책임자 :

이 안내문은 이번 조사가 어떤 목적으로 또 어떤 방법으로 실시되는지를 알려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내용을 잘 읽어보시고 조사에 참여할 것인지를 결정해 주십시오.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조사원에게 질문해 주십시오.

1. 이 조사를 왜 하나요?
○ 이 조사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생활실태 등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 조사가 끝나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그 결과를 정리하고 분석해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보다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관련된 정책을 개발하는 데 활용할 것입니다.

2. 누가 이 조사에 참여하나요?
○ 전국 초등학교 4학년 다문화가정(국제결혼가정, 외국인가정, 중도입국가정을 포함) 청소년 및 어머니 2,100가구가 참여합니다.
○ 주요 조사대상은 올해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다문화가정 학생이지만, 학생의 발달환경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어머니를 조사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3. 어떻게 조사에 참여하나요?
○ 조사원이 가구에 연락을 드리고, 편하신 시간에 방문하여 학생과 어머니를 대상으로 태블릿PC를 활용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 이 안내문을 다 읽고 나서 조사에 참여하고 싶으면, 같이 나누어 드린 조사동의서를 작성한 뒤에 설문에 응답해 주십시오.

4. 조사 내용은 무엇인가요?
○ 조사내용은 청소년의 성장발달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청소년의 신체적, 정서적, 지적, 사회적 발달 특성 및 가정, 또래, 학교 등의 발달환경과 관련된 내용을 조사합니다.

5. 조사에 참여할 경우 위험한 내용은 없나요?
○ 이 조사에는 참여자에게 위험하거나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 또 응답한 사항이 누구인지 알 수 없게 처리하여 조사결과를 발표하기 때문에 이 조사에 참여했다고 해서 응답자 본인에게 해가 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6. 조사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나요?
○ 조사에 걸리는 시간은 대략 30분 정도인데, 사람에 따라서 더 빨리 또는 늦게 끝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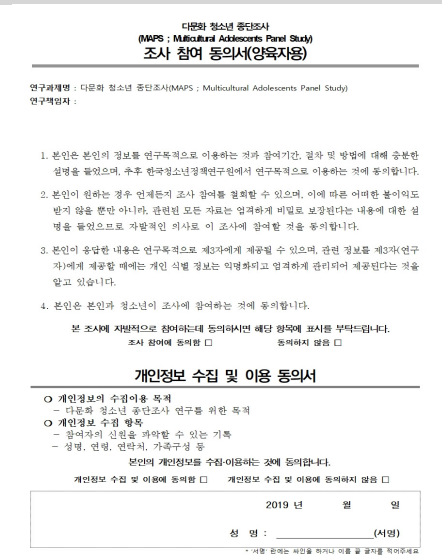
7. 조사에 참여하지 않거나 중간에 그만 둘 수 있나요?
○ 이 조사는 패널조사(Panel survey)로, 매년 1회 동일한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조사 참여에 동의해 주시면 매년 1회 조사원이 연락을 드리고 방문해서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조사 참여 후에도 언제든지 참여를 그만둘 수 있으며, 참여하지 않아도 어떠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참여를 그만둘 경우, 수집된 대상자의 기록 및 정보는 모두 폐기됩니다.

8. 조사에 참여하면 제게 어떤 도움이 되나요?
○ 이 조사에 참여해주신 가구에는 상품권 2만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 또한 응답해주신 내용은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유용한 자료로 쓰입니다.

9. 개인정보 보호 및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 본 조사 참여로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성명, 연령, 연락처 등입니다. 이 정보는 연구를 위해 사용되며, 수집된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철저히 관리됩니다. 또한, 관련 정보는 개인이 누구인지 식별할 수 없도록 변환 처리된 후에 연구에 이용되며, 비밀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설문 응답 내용 또한 개인이 어떻게 응답했는지 다른 사람이 절대로 알 수 없으며, 통계법 제33조 및 제34조에 의해 엄격히 보호됩니다.

10. 조사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하나요?
○ 이 조사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하게 알고 싶은 것이 있으면 아래의 연락처로 질문하시면 됩니다.
- 연구책임자 :
- 조사담당자 :
- 수신자부담콜센터 :

조사 참여 안내문



다문화 청소년 종단조사
(MAPS ; Multicultural Adolescents Panel Study)
조사 참여 동의서(양육자용)

연구과제명 : 다문화 청소년 종단조사(MAPS ; Multicultural Adolescents Panel Study)
연구책임자 :

1. 본인은 본인의 정보를 연구목적으로 이용하는 것과 참여기간, 절차 및 방법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며, 추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연구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본인이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조사 참여를 철회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관련된 모든 자료는 엄격하게 비밀로 보장된다는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자발적인 의사로 이 조사에 참여할 것을 동의합니다.
3. 본인이 응답한 내용은 연구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될 수 있으며, 관련 정보를 제3자(연구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개인 식별 정보는 익명화되고 엄격하게 관리되어 제공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4. 본인은 본인과 청소년이 조사에 참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본 조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데 동의하시면 해당 항목에 표시를 부탁드립니다.
조사 참여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다문화 청소년 종단조사 연구를 위한 목적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참여자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 기록
- 성명, 연령, 연락처, 가족구성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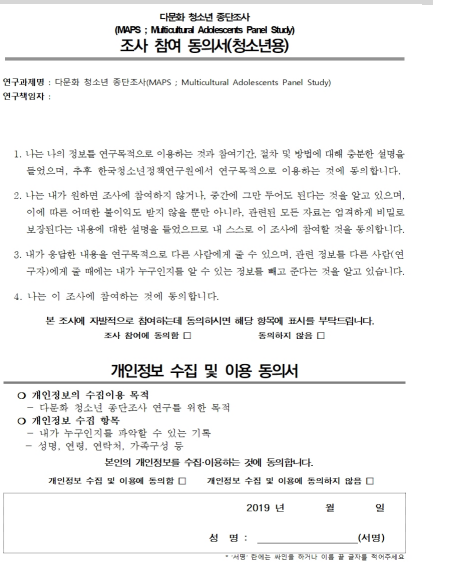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2019 년 월 일

성 명 : _____(서명)

* 서명 란에는 싸인을 하거나 이름 글 글자를 적어주세요

조사 참여 동의서(양육자용)



다문화 청소년 종단조사
(MAPS ; Multicultural Adolescents Panel Study)
조사 참여 동의서(청소년용)

연구과제명 : 다문화 청소년 종단조사(MAPS ; Multicultural Adolescents Panel Study)
연구책임자 :

1. 나는 나의 정보를 연구목적으로 이용하는 것과 참여기간, 절차 및 방법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며, 추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연구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나는 내가 원하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거나, 중간에 그만 두어도 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이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관련된 모든 자료는 엄격하게 비밀로 보장된다는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내 스스로 이 조사에 참여할 것을 동의합니다.
3. 내가 응답한 내용을 연구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으며, 관련 정보를 다른 사람(연구자)에게 줄 때에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정보를 빼고 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4. 나는 이 조사에 참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본 조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데 동의하시면 해당 항목에 표시를 부탁드립니다.
조사 참여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다문화 청소년 종단조사 연구를 위한 목적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내가 누구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기록
- 성명, 연령, 연락처, 가족구성 등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2019 년 월 일

성 명 : _____(서명)

* 서명 란에는 싸인을 하거나 이름 글 글자를 적어주세요

조사 참여 동의서(청소년용)

그림 Ⅳ-4. 신규패널 조사 참여 안내문 및 조사 참여 동의서

② 행정자료 우선활용 검토 및 변경승인

IRB 심의와 더불어, 2기 패널 역시 1기 패널과 마찬가지로 통계청 승인을 받기 위한 작업을 실시하였다. 기존에 1기 패널이 운영되고 있어 새롭게 승인신청을 하지 않고 변경승인 절차로 진행하였다. 변경승인을 받기 전 통계청으로부터 행정자료 우선활용 가능성 여부를 검토받았다(근거: 통계법 제18조 2항). 본 연구의 1기 및 신규패널의 조사항목과 관련하여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작성 가능여부를 통계청에 의뢰한 결과, 활용 가능한 행정자료가 없음을 통보받았다. 이와 함께, 통계청 통계조정과에 신규패널 조사관련 조사기간, 항목 등의 내용에 관한 통계변경승인을 요청하였다. 기존의 다른 연구들과 달리 기존 조사가 끝난 후 새로운 코호트가 추가되는 것이 아니지만 1기 패널 조사를 지속하면서 동시에 추가되는 2기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에 대해 변경승인을 신청하였고, 2019년 5월 1일 승인을 통보받았다(승인번호: 제402003호).

이상의 절차를 통해 최종 완성된 청소년과 어머니 대상 설문지는 9개국 언어(영어, 중국어, 몽골어, 필리핀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태국어, 일본어, 아랍어)로 번역되었으며, 조사 참여 동의서는 불어, 미얀마어, 캄보디아어가 추가된 12개국의 언어로 번역이 되어 제공되었다. 또한 신규패널의 원활한 조사 진행을 위하여 조사가 실시되는 기간 동안 조사 실시안내 배너를 다음과 같이 제작하여 본원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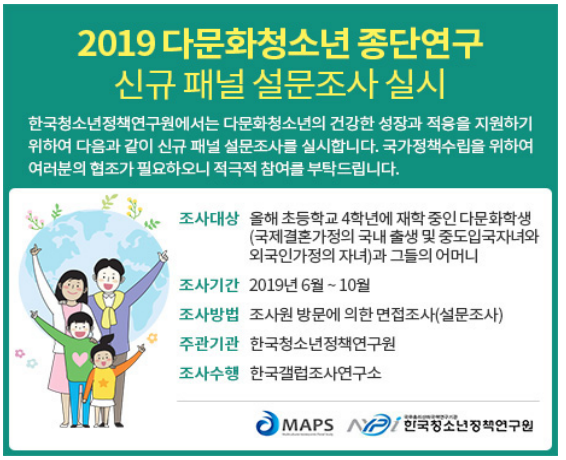


그림 Ⅳ-5. 신규패널조사 실시 안내 배너

2) TAPI 시스템 적용

앞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2011년부터 시작된 1기 패널조사는 CAPI (Computer Assistant Personal Interview) 방식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신규패널 조사에서는 자료손실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휴대성이 좋은 태블릿 PC를 사용한 TAPI(Tablet Assistant Personal Interview) 방식으로 전환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18년에 실시한 신규패널 예비조사를 TAPI 방식으로 시험조사를 해 본 결과 조사원은 개별 노트북에 비해 가볍고 조작이 간단하여 TAPI 방식을 더 선호한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고, 조사 참여 청소년들 또한 태블릿 PC를 활용한 설문조사가 흥미로웠다는 긍정적인 의견이었다. 이에 따라 신규패널 조사의 TAPI 방식 도입을 위해, 개발된 설문지를 TAPI 시스템으로 구축하고, 연구진 대상 시험운영을 거쳐 수정·보완을 완료하여 9개국 언어로 번역된 6종의 설문지를 TAPI 시스템에 탑재하여 조사하였다.

3) 전문 조사원 교육

본 연구의 1기 패널과 마찬가지로 신규패널 역시 패널유지를 최대화하기 위하여 조사원을 통한 가구방문 면접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원과 조사 참여자 사이의 유대관계는 패널을 유지하고 성실한 조사 참여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므로, 신규패널 역시 1기 패널과 동일한 방식으로 조사하였다. 2019년도 연구에서는 1기 패널과 신규패널의 조사가 동시에 실시되어 조사 가구가 두 배 이상 증가한 상황이므로, 조사원의 추가 선발이 필요하였다. 따라서 전문성을 갖춘 신규 조사원을 추가로 선발하여한 후 본 조사의 필요성과 목적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돕기 위해 지역별 조사원 교육을 실시하였다. 지역별 조사원 교육일정은 앞서 제시한 1기 패널 조사원 교육의 일정과 동일하며 다시 한 번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표 Ⅳ-21 조사원 교육 일정(신규패널)

지역	일시	장소	참석조사원 수
서울	2019년 5월 30일(목)	한국갤럽 본사	30
대전	2019년 5월 31일(금)	한국갤럽 대전지사	13
강원	2019년 5월 31일(금)	춘천시 회의실	5
대구	2019년 6월 3일(월)	한국갤럽 대구지사	14
부산	2019년 6월 4일(화)	한국갤럽 부산지사	18
광주	2019년 6월 5일(수)	한국갤럽 광주지사	18
제주	2019년 6월 7일(금)	제주시 회의실	2

제V장
다문화청소년의 8년간 발달 추이

1. 분석개요
2. 분석결과
3. 소결 및 시사점

V 다문화청소년의 8년간 발달 추이[18)]

1. 분석개요

이 장에서는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수행된 1기 패널조사의 1~8차년도 자료를 분석하여 각 조사영역별 다문화청소년의 8년간 발달추이를 살펴보았다. 8년간 발달추이를 분석하기 위해서 상급학교 진학 등의 사유로 특정 연도에 삭제되거나 추가된 변인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발달추이 분석에 사용되는 변인들은 각 측정시점 마다 동일한 개념을 측정해야 한다는 기본 가정에 따라, 매년 조사변인에 포함되었지만 2017년 조사부터 하위문항의 내용이 변경된 자아존중감 역시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일부 변인의 경우, 2011년에 수행된 1차년도 조사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그 이후 추가되어 8차년도 조사까지 매년 측정되었다. 추이분석에 사용된 변인들을 영역별로 구분해보면 〈표 V-1〉과 같다.

〈표 V-1〉에 제시된 영역별 변인들의 발달추이 파악을 위해 SPSS 24.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반복측정분산분석(Repeated measures ANOVA)을 실시하였다. 반복측정분산분석의 주요 가정인 자료의 구형성(sphericity)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Greenhous-Geisser 방법을 통해 교정된 유의확률을 사용하였다.

18) V장은 장윤선(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집필함.

표 Ⅴ-1 다문화청소년 8년간 변화추이 비교 영역(2011년~2018년)

대영역	소영역	비교변인
1) 가정요인	(1) 사회경제적 배경	① 월 평균 소득수준
	(2) 가족관계	① 부모님에 대한 자랑스러움 ② 부모의 양육태도
2) 학교생활 및 성취요인	(1) 학교생활	① 학교생활에서 어려운 점 ② 학교공부에서 어려운 점 ③ 집단괴롭힘 피해경험
	(2) 성취 및 학업적 포부	① 학교성적 수준 ② 성적에 대한 만족도 ③ 성취동기 ④ 학업적 포부
3) 심리·사회 적응요인	(1) 심리적응	① 삶의 만족도 ② 신체만족도 ③ 우울
	(2) 사회적응	① 사회적 위축 ② 비행경험 ③ 친한 친구의 수
	(3) 사회적 지지	① 가족의 지지 ② 학교내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와주는 어른이 있는지 여부 ③ 학교밖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와주는 어른이 있는지 여부
4) 정체성요인	(1) 국가정체성	① 국적에 대한 인식 ② 한국인정체성
	(2) 다문화정체성	① 다문화수용성 ② 이중문화수용태도
5) 신체발달 및 건강요인	(1) 신체발달	① 키 ② 몸무게
	(2) 건강에 대한 인식	① 건강상태에 대한 주관적 인식

* 출처: 양계민 외(2018: 114) 표 Ⅲ-1 수정

2. 분석결과[19)]

다문화청소년의 8년간 발달추이를 이해하기 위해 가정, 학교생활 및 성취, 심리·사회적응, 정체성, 신체발달 및 건강 요인의 주요 변인들을 사용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가정요인

다문화청소년의 가정요인은 크게 사회경제적 배경과 가족관계로 나누어 살펴보았으며, 사회경제적 배경은 월 평균 소득수준 변인을 사용하였고, 가족관계는 다문화청소년들이 인식하는 부모님에 대한 자랑스러움 정도를 사용하였다.

(1) 사회경제적 배경: 월 평균 소득수준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의 1~8차년도 조사에 모두 참여한 다문화청소년 가정의 월 평균 소득수준은 2011년 약 209만원에서 2018년 275만원으로 크게 높아졌으며, 매년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증가추세는 2011년과 2012년, 2015년과 2016년 사이를 제외한 모든 연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이와 같은 지속적인 가구소득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다문화청소년 가정의 월 평균 소득수준은 2018년 4사분기 기준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월 소득 전체 평균인 약 461만원(KOSIS 국가통계포털, 2019)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다. 동일 자료 기준 통계청(KOSIS 국가통계포털, 2019)이 보고한 소득 10분위별 가구당 가계수지에 따르면 다문화청소년 가정의 2018년 월 평균 소득수준인 275만원은 전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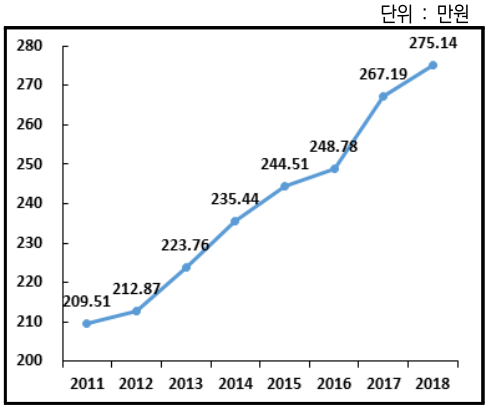
19) 본 장에서는 분석에 사용된 대부분의 조사 항목이 학교생활과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되었으므로, 연도별 조사당시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의 응답을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본 장에서 보고된 일부 표의 전체 사례 수는 3장의 〈표 Ⅲ-13〉에 보고된 '1기 패널 연도별 조사대상 학생 수'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평균 월 소득수준 3분위(평균 약 243만원)와 4분위(평균 약 311만원) 사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2 월 평균 소득수준 변화추이

단위 : 만원

년도	평균[20]	표준편차	*F*
2011	209.51[a]	113.34	
2012	212.87[b]	100.52	
2013	223.76[c]	103.33	
2014	235.44[d]	120.26	143.16
2015	244.51[e]	132.21	***
2016	248.78[f]	113.11	
2017	267.19[g]	117.30	
2018	275.14[h]	124.11	



***p 〈.001, Bonferroni: a, b 〈 c 〈 d 〈 e, f 〈 g 〈 h

(2) 가족관계: 부모님에 대한 자랑스러움

다문화청소년들이 자신의 부모님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측정 시점에 따라 부모님에 대한 인식 정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에 대한 자랑스러움은 초등학교 재학 기간 동안 증가하여, 중학교 재학 기간 동안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다시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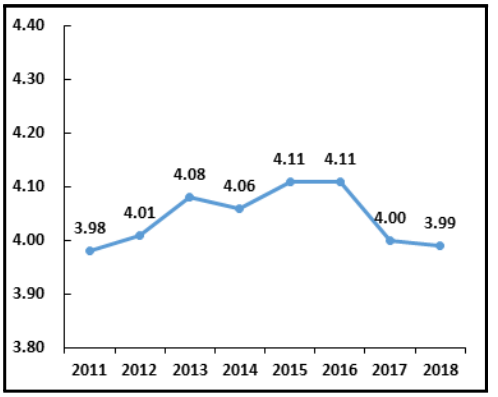
어머니에 대한 자랑스러움은 아버지에 대한 인식 정도에 비해 다소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연령이 높아짐에 따른 변화 정도 역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것으로

20) 이 절에서 보고되는 평균과 표준편차는 반복측정분산분석 시 사용된 모든 측정 시점에서 해당 변인의 자료가 존재하는 사례 수를 기준으로 산출된 값이다. 따라서 각 연도별 유효 응답 사례 수를 기준으로 산출 된 평균과 표준편차를 보고하였던 이전 연도의 연구보고서와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나타났다. 아버지에 대한 자랑스러움과 비슷하게 고등학교에 진학한 2017년도에는 어머니에 대한 자랑스러움은 다소 낮아졌다. 그러나 아버지에 대한 자랑스러움은 2018년도에도 소폭 하락한 반면, 어머니에 대한 자랑스러움은 다시 상승하였다. 학교급에 따라 다문화청소년들이 생각하는 부모님에 대한 자랑스러움 정도는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 평균 4점 이상으로 높은 수준이 유지되고 있다.

표 V-3 아버지에 대한 자랑스러움 변화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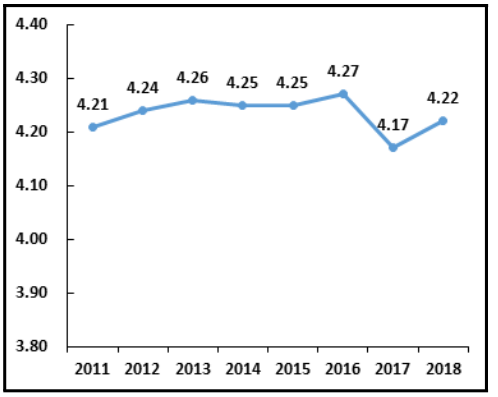
년도	평균	표준편차	*F*
2011	3.98[a]	0.91	7.59***
2012	4.01[b]	0.90	
2013	4.08[c]	0.90	
2014	4.06[d]	0.91	
2015	4.11[e]	0.88	
2016	4.11[f]	0.88	
2017	4.00[g]	0.89	
2018	3.99[h]	0.93	



***p <.001, Bonferroni: a < c, e, f. b < e, f. e, f < g, h

표 V-4 어머니에 대한 자랑스러움 변화추이

년도	평균	표준편차	*F*
2011	4.21[a]	0.79	3.67**
2012	4.24[b]	0.76	
2013	4.26[c]	0.79	
2014	4.25[d]	0.78	
2015	4.25[e]	0.76	
2016	4.27[f]	0.76	
2017	4.17[g]	0.77	
2018	4.22[h]	0.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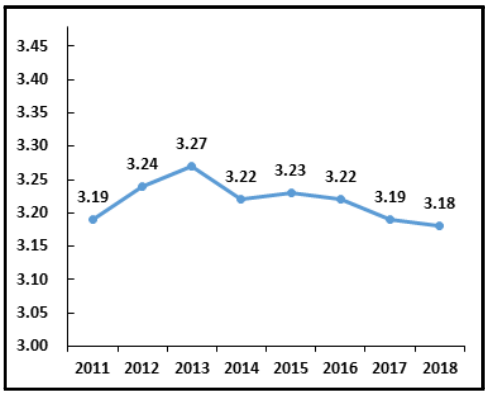
**p <.01, Bonferroni: g < c, d, e, f

(3) 가족관계: 부모의 양육태도

다문화청소년이 인식하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감독'과 '방임'으로 나누어 4점 척도로 조사하였다. 그 결과, 두 가지 양육태도는 모두 조사년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였고, '감독' 정도는 모든 시점에서 평균 3점 이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인 반면, '방임' 정도는 모든 시점의 평균은 2점을 넘지 않는 낮은 수준을 보였다. 부모의 양육 태도 유형별로 살펴보면, 부모의 '감독' 정도는 초등학교 재학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높아져 2013년에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한 뒤, 그 이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방임'정도는 초등학교 5학년에 해당하는 2012년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인 뒤 지속적으로 낮아졌으며, 2018년도에 다시 소폭 상승하였으나 이전 연도와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V-5 부모의 양육태도(감독) 변화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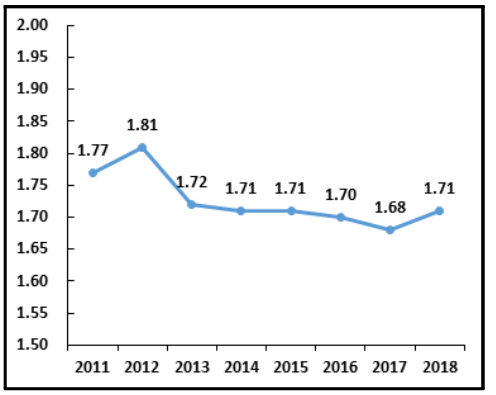
년도	평균	표준편차	*F*
2011	3.19[a]	0.63	
2012	3.24[b]	0.60	
2013	3.27[c]	0.59	
2014	3.22[d]	0.61	4.44***
2015	3.23[e]	0.57	
2016	3.22[f]	0.54	
2017	3.19[g]	0.59	
2018	3.18[h]	0.57	



***p <.001, Bonferroni: a < c. g, h < f

표 V-6 부모의 양육태도(방임) 변화추이

년도	평균	표준편차	*F*
2011	1.77[a]	0.61	9.02***
2012	1.81[b]	0.68	
2013	1.72[c]	0.60	
2014	1.71[d]	0.58	
2015	1.71[e]	0.58	
2016	1.70[f]	0.56	
2017	1.68[g]	0.57	
2018	1.71[h]	0.57	



***p <.001, Bonferroni: a < f, g. c, d, e, f, g, h < b

2) 학교생활 및 성취요인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생활 및 성취요인은 학교생활과 성취 및 학업적 포부 측면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학교생활에서 친구들과 어려운 점', '학교공부에서 어려운 점', '집단괴롭힘 피해경험'을 살펴보았고, 성취 및 학업적 포부는 '학교성적 수준', '성적에 대한 만족도', '성취 동기', '학업적 포부' 변인을 사용하여 8년간 변화추이를 분석하였다.

(1) 학교생활: 학교생활에서 친구들과 어려운 점

다문화청소년들이 학교에서 친구들과 생활하는 데 있어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를 알아본 결과, 1차년도 조사부터 8차년도 조사까지 '별 어려움이 없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이 80%이상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별 어려움이 없다' 응답 비율은 2015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약 94%에 도달하였으며, 고등학교

진학 시기인 2017년에 다소 낮아졌으나 2018년에는 다시 상승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V-7 학교생활에서 친구들과 어려운 점(중복응답) 변화추이

단위: 빈도(%)

내용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별 어려움이 없다	1,323 (80.9)	1,307 (87.1)	1,299 (90.0)	1,279 (92.7)	1,268 (94.1)	1,249 (94.0)	1,161 (92.1)	1,124 (93.9)
나의 외모를 가지고 놀리는 것	66 (4.0)	**61 (4.1)**	**42 (2.9)**	**32 (2.3)**	**25 (1.9)**	**29 (2.2)**	18 (1.4)	18 (1.5)
친구들이 나를 흉보는 것	68 (4.2)	44 (2.9)	38 (2.6)	18 (1.3)	16 (1.2)	11 (.8)	18 (1.4)	13 (1.1)
친구들이 나를 따돌리는 것	72 (4.4)	51 (3.4)	36 (2.5)	15 (1.1)	8 (.6)	7 (.5)	7 (.6)	6 (.5)
친구들이 나를 믿어주지 않는 것	56 (3.4)	35 (2.3)	29 (2.0)	24 (1.7)	15 (1.1)	13 (1.0)	14 (1.1)	9 (.8)
공부를 못한다고 놀리는 것	59 (3.6)	39 (2.6)	29 (2.0)	19 (1.4)	23 (1.7)	27 (2.0)	25 (2.0)	16 (1.3)
친구들이 나에게 욕설을 하는 것	**78 (4.8)**	40 (2.7)	27 (1.9)	17 (1.2)	15 (1.1)	10 (.8)	16 (1.3)	13 (1.1)
친구들이 나를 때리는 것	69 (4.2)	19 (1.3)	10 (.7)	10 (.7)	5 (.4)	6 (.5)	5 (.4)	3 (.3)
한국어를 잘 못한다고 놀리는 것	25 (1.5)	12 (.8)	9 (.6)	2 (.1)	4 (.3)	3 (.2)	3 (.2)	1 (.1)
친한 친구가 없는 것	34 (2.1)	15 (1.0)	22 (1.5)	17 (1.2)	14 (1.0)	16 (1.2)	**31 (2.5)**	**21 (1.8)**
다문화가족이라고 다르게 대하는 것	9 (.6)	5 (.3)	1 (.1)	23 (1.7)	14 (1.0)	9 (.7)	14 (1.1)	10 (.8)
기타	13 (.8)	10 (.7)	8 (.6)	10 (.7)	5 (.4)	8 (.6)	16 (1.3)	12 (1.0)
전체	1,635	1,500	1,443	1,380	1,347	1,329	1,260	1,197

1차년도 조사당시 다문화청소년들이 학교생활에서 친구들과 어려운 점으로 '친구들이 나에게 욕설하는 것(4.8%)'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으나, 이 값은 지속적으

로 감소하여 중학교 이후 시기에는 1% 초반의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항목 역시,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대체로 학교생활에서 친구들과 어려운 점이라고 응답하는 비율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나, '나의 외모를 가지고 놀리는 것'이 어려운 점이라고 응답한 다문화청소년의 비율은 중학교 시기까지 다른 항목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 비율을 보였다. 또한 고등학교 시기인 2017년과 2018년도 조사에서는 '친한 친구가 없는 것'을 학교생활에서 친구들과 어려운 점으로 생각하는 다문화청소년의 비율이 각각 2.5%, 1.8%로 다른 항목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학교생활: 학교공부에서 어려운 점

학교에서 공부하는 데 있어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별 어려움이 없다'고 응답한 다문화청소년의 비율은 초등학교 시기(2011~2013년)에 대체로 높았으나,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그 비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급 학교로 진학하는 시기인 2014년과 2017년에는 이전 학교급에 비해 '별 어려움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학교공부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항목을 살펴보면, '책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어렵다고 응답한 비율은 모든 학교급에서 대체로 높았으며, 특히 고등학교 진학 이후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초등학교 시기에는 '공부시간에 나의 의견을 말하는 것이 어렵다'고 응답한 다문화청소년의 비율이 다른 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고, 중학교 시기에는 '선생님께서 말하는 내용을 알아듣기 어렵다'와 '숙제나 과제를 하는 것이 어렵다'고 응답한 비율이 다소 높았다. 고등학교 시기에는 중학교 시기와 마찬가지로 '선생님께서 말하는 내용을 알아듣기 어렵다'와 '공부할 내용이 어려울 때 물어볼 사람이 없다'의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V-8 학교공부에서 어려운 점 변화추이

단위: 빈도(%)

내용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별 어려움이 없다	1,103 (67.5)	1,119 (74.6)	1,136 (78.7)	932 (67.5)	934 (69.3)	940 (70.7)	678 (53.8)	706 (59.0)
책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어렵다	125 (7.6)	109 (7.3)	104 (7.2)	77 (5.6)	78 (5.8)	78 (5.9)	148 (11.7)	122 (10.2)
공부시간에 나의 의견을 말하는 것이 어렵다	102 (6.2)	62 (4.1)	74 (5.1)	64 (4.6)	53 (3.9)	41 (3.1)	54 (4.3)	48 (4.0)
내 생각을 글로 나타내는 것이 어렵다	154 (9.4)	97 (6.5)	54 (3.7)	47 (3.4)	52 (3.9)	57 (4.3)	66 (5.2)	65 (5.2)
선생님께서 말하는 내용을 알아듣기 어렵다	94 (5.7)	50 (3.3)	33 (2.3)	82 (5.9)	83 (6.2)	68 (5.1)	90 (7.1)	61 (5.1)
공부할 내용이 어려울 때 물어볼 사람이 없다	47 (2.9)	48 (3.2)	32 (2.2)	58 (4.2)	48 (3.6)	50 (3.8)	96 (7.6)	76 (6.3)
숙제나 과제를 하는 것이 어렵다	-	-	-	97 (7.0)	82 (6.1)	72 (5.4)	72 (5.4)	74 (6.2)
기타	10 (.6)	15 (1.0)	10 (.7)	23 (1.7)	17 (1.3)	23 (1.7)	53 (4.2)	48 (4.0)
전체	1,635 (100)	1,500 (100)	1,443 (100)	1,380 (100)	1,347 (100)	1,329 (100)	1,260 (100)	1,197 (100)

(3) 학교생활: 집단괴롭힘 피해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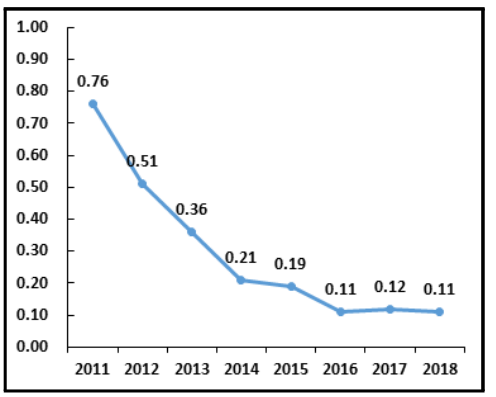
학교생활 영역의 요인으로 학교 내 집단괴롭힘 피해경험을 파악하기 위하여, 지난 한 학기 동안 신체적·언어적·비언어적 집단괴롭힘 피해경험이 한번이라도 있는 경우를 조사하였다. 각 유형별 집단괴롭힘 피해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의 변인 값을 1로 변환한 뒤, 6개 유형의 집단괴롭힘에 대한 변인 값의 총합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만약 6개 유형 모두 집단괴롭힘 피해경험이 있는 경우, 해당 학생의 변인 값은 6이 되고, 하나의 유형에 대한 집단괴롭힘 피해경험이 있는 학생은 1의 값을 가진다.

8년간 집단괴롭힘 피해경험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연도별 평균값은 0.76에서

0.11로 집단괴롭힘 피해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은 매우 낮았으며,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재학 시기에 해당하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한 뒤, 그 이후 조사부터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9 집단괴롭힘 피해경험 변화추이

년도	평균	표준편차	*F*
2011	0.76[a]	1.49	88.28***
2012	0.51[b]	1.27	
2013	0.36[c]	1.09	
2014	0.21[d]	0.81	
2015	0.19[e]	0.80	
2016	0.11[f]	0.61	
2017	0.12[g]	0.62	
2018	0.11[h]	0.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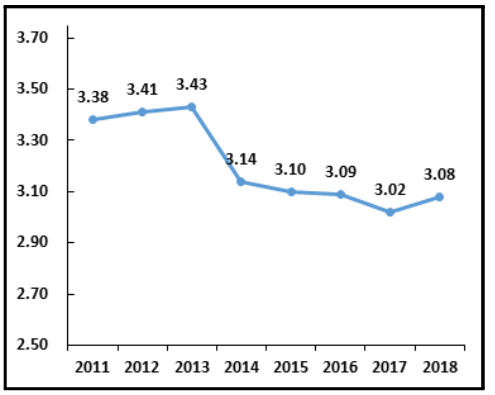
***p 〈.001, Bonferroni: f, g, h 〈 d 〈 c 〈 b 〈 a. e 〈 c 〈 b 〈 a

(4) 성취 및 학업적 포부: 학교성적 수준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성적 수준을 알아보기 위하여 5가지 과목의 성적수준에 대한 5점 척도의 자기보고식 응답의 평균을 분석하였다. 연도별 학교성적 수준의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2011년부터 2013년 조사가 실시된 초등학교 시기의 평균이 다른 학교급에 비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4년 중학교 진학 이후 학생들이 인식하는 자신의 학교성적 수준은 비교적 일관된 수준을 유지하나, 고등학교 진학 시점인 2017년의 평균값은 3.02로 8년간 평균 중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하지만 고등학교 2학년 재학 시기에 해당하는 2018년의 학교성적 수준에 대한 인식 정도는 다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상승하였다.

표 V-10 학교성적 수준 변화추이

년도	평균	표준편차	*F*
2011	3.38[a]	0.68	
2012	3.41[b]	0.69	
2013	3.43[c]	0.69	
2014	3.14[d]	0.71	127.02***
2015	3.10[e]	0.73	
2016	3.09[f]	0.74	
2017	3.02[g]	0.67	
2018	3.08[h]	0.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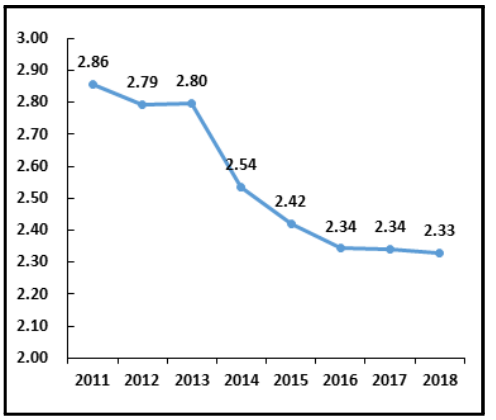
***p 〈.001, Bonferroni: g 〈 d, e, f, h 〈 a, b, c

(5) 성취 및 학업적 포부: 성적에 대한 만족도

다문화청소년이 생각하는 자신의 성적에 대한 만족도 수준은 학교성적 수준과 마찬가지로 초등학교 시기(2011~2013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학교 시기의 학교성적 수준에 대한 인식은 크게 변하지 않은 반면, 성적에 대한 만족도는 중학교 진학시점인 2014년도 조사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또한, 학교성적 수준에 대한 인식은 고등학교 진학 시기인 2017년도에 가장 낮았고 2018년도에 소폭 상승하는 경향을 보인 것과 다르게, 성적에 대한 만족도는 2018년에도 2017년도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11 성적에 대한 만족도 변화추이

년도	평균	표준편차	*F*
2011	2.86[a]	0.69	99.69***
2012	2.79[b]	0.77	
2013	2.80[c]	0.77	
2014	2.54[d]	0.76	
2015	2.42[e]	0.77	
2016	2.34[f]	0.73	
2017	2.34[g]	0.71	
2018	2.33[h]	0.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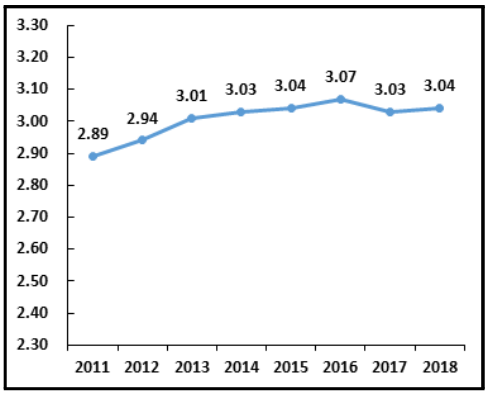
***p 〈.001, Bonferroni: f, g, h 〈 e 〈 d 〈 a, b, c

(6) 성취 및 학업적 포부: 성취동기

2011년도 조사 이후 8년간 성취동기의 변화추이를 살펴본 결과, 초등학교 재학 시기동안 꾸준히 증가한 성취동기는 중학교 진학 이후 비슷한 수준이 유지되었고, 2017년 고등학교 진학 시기에 다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고등학교 2학년에 해당하는 2018년 조사에서 평균이 소폭 상승하였으나 2017년도의 평균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학교성적 수준 및 성적에 대한 만족도와 같은 성취 및 학업적 포부 영역의 다른 변인들에 비해, 다문화청소년의 성취동기는 학년 및 학교급 변화에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변인으로 확인되었다.

표 V-12 성취동기 변화추이

년도	평균	표준편차	*F*
2011	2.89[a]	0.52	28.26***
2012	2.94[b]	0.50	
2013	3.02[c]	0.49	
2014	3.03[d]	0.48	
2015	3.04[e]	0.46	
2016	3.07[f]	0.48	
2017	3.03[g]	0.46	
2018	3.04[h]	0.47	



***p 〈.001, Bonferroni: a 〈 b 〈 c, d, e, f, g, h. g 〈 f

(7) 성취 및 학업적 포부: 학업적 포부

다문화청소년의 희망하는 학력수준을 통해 조사한 학업적 포부수준은 모든 조사 시기에서 대학교까지 다니기를 희망한다고 응답하는 학생의 비율이 74%에서 81% 사이로 가장 높았다. 그러나 이 비율은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대체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초등학교 6학년 시기인 2013년도 조사부터 응답항목에 추가된 대학원 수준까지 다니기를 희망한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 역시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고등학교 진학 시점부터 소폭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등학교까지 다니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응답한 비율은 2011년도 조사 당시 16%에서 중학교 2학년 시기인 2014년 10%까지 낮아졌으나, 그 이후 크게 증가하여 고등학교 진학 시기인 2017년부터 2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13 학업적 포부수준 변화추이

단위: 빈도(%)

내용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초등학교	16 (1.0)	10 (.7)	6 (.4)	1 (.1)	1 (.1)	-	-	-
중학교	32 (2.0)	22 (1.5)	16 (1.1)	27 (2.0)	24 (1.8)	19 (1.4)	1 (.1)	-
고등학교	262 (16.0)	252 (16.8)	145 (10.0)	144 (10.4)	170 (12.6)	234 (17.6)	291 (23.1)	262 (21.9)
대학교	1,325 (81.0)	1,216 (81.1)	1,131 (78.4)	1,113 (80.7)	1,088 (80.8)	1,037 (78.0)	928 (73.7)	888 (74.2)
대학원	-	-	145 (10.0)	95 (6.9)	64 (4.8)	39 (2.9)	40 (3.2)	47 (3.9)
합계	1,635 (100)	1,500 (100)	1,443 (100)	1,380 (100)	1,347 (100)	1,329 (100)	1,260 (100)	1,197 (100)

3) 심리·사회적응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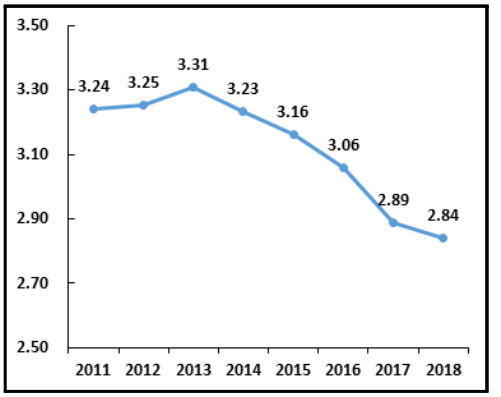
심리·사회적응 영역에는 심리적응, 사회적응, 그리고 사회적 지지로 구분되며, 심리적응 영역에는 '삶의 만족도', '신체만족도', '우울'을 중심으로 변화추이를 살펴보았다. 사회적응 영역으로는 '사회적 위축', '비행경험', '친한 친구의 수'를 사용하였고, 사회적 지지 영역은 '가족의 지지', '학교 안과 밖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움을 주는 어른 여부'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1) 심리적응: 삶의 만족도

삶의 만족도는 다문화청소년이 자신의 삶을 행복하고 즐거운 것으로 인식하는지를 4점 척도의 문항들을 통해 조사한 변인으로, 2011년부터 2018년까지의 변화추이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초등학교 6학년에 해당하는 2013년에 평균 3.31로 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나, 그 이후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7년도 조사 이후, 평균 만족도는 3점미만으로 낮아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V-14 삶의 만족도 변화추이

년도	평균	표준편차	*F*
2011	3.24[a]	0.58	
2012	3.25[b]	0.60	
2013	3.31[c]	0.56	
2014	3.23[d]	0.58	165.52***
2015	3.16[e]	0.62	
2016	3.06[f]	0.58	
2017	2.89[g]	0.54	
2018	2.84[h]	0.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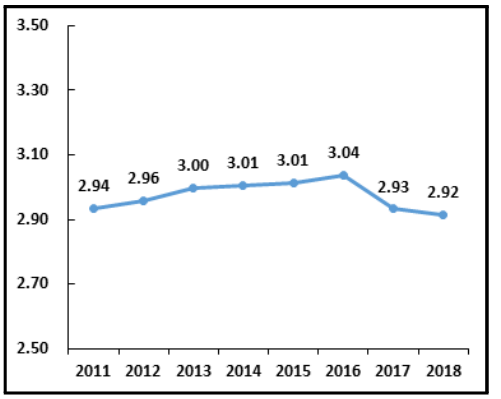
***p 〈.001, Bonferroni: g, h 〈 f 〈 e 〈 d 〈 c. a, b 〈 c

(2) 심리적응: 신체만족도

또 다른 심리적응 변인으로 자신의 외모에 대한 만족도 수준을 조사하였다. 8년간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앞서 살펴본 삶의 만족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령에 따른 큰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2011년에서 2016년도 동안 조금씩 증가하던 신체만족도는 고등학교 진학 이후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표 V-15 신체만족도 변화추이

년도	평균	표준편차	*F*
2011	2.94[a]	0.49	
2012	2.96[b]	0.49	
2013	3.00[c]	0.48	
2014	3.01[d]	0.50	15.34***
2015	3.04[e]	0.49	
2016	2.06[f]	0.50	
2017	2.93[g]	0.51	
2018	2.92[h]	0.51	



***p 〈.001, Bonferroni: a, b 〈 c, d, e, f. g, h 〈 c, d, e, 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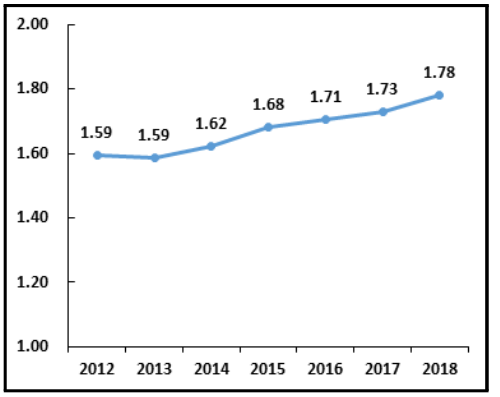
(3) 심리적응: 우울

다문화청소년의 우울 수준의 변화추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2012년에 조사항목으로 추가되었다. 다른 심리적응 영역의 변인들과 마찬가지로 4점 척도의 문항들을 통해 조사한 결과, 연도별 평균은 약 1.6에서 1.8점 사이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그러나 삶의 만족도와 신체만족도는 그 수준이 다소 높아지다 낮아지는 변화추이를 보인 반면, 다문화청소년이 인식하는 우울의 수준은 매년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것으로 타나났다. 특히, 2015년에서 2018년 동안 연도별 평균 우울의 수준은 2012년에서 2014년도 사이의 평균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대체로 초등학교 시기의 우울 수준에 비해 중·고등학교 시기의 우울 정도가 더 심화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V-16 우울 변화추이

년도	평균	표준편차	*F*
2012	1.59[a]	0.52	
2013	1.59[b]	0.51	
2014	1.62[c]	0.53	
2015	1.68[d]	0.53	36.72***
2016	1.71[e]	0.53	
2017	1.73[f]	0.55	
2018	1.78[g]	0.56	

***p <.001, Bonferroni: a, b, c < d, e, f, 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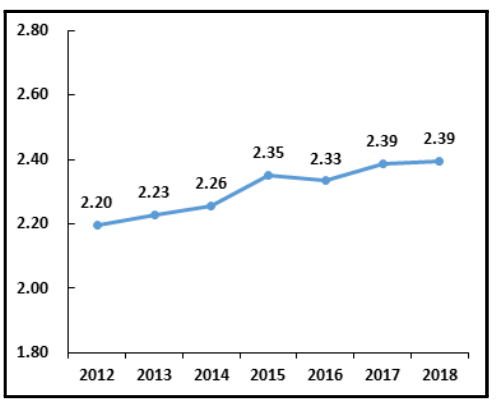


(4) 사회적응: 사회적 위축

우울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위축 역시 2012년도부터 조사하기 시작하였다. 사회적 위축이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위축되는 수준으로, 4점 척도 문항들을 통해 다문화청소년의 사회적응 정도를 알아보았다. 연도별 평균은 약 2.2에서 2.4점 사이로 앞서 살펴본 우울 정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다소 높은 수준이나, 7년간 변화추이는 우울과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즉, 전반적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사회적 위축 정도는 높아지며, 중·고등학교 재학 시기의 사회적 위축 정도가 초등학교 재학시기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V-17 사회적 위축 변화추이

년도	평균	표준편차	*F*
2012	2.20[a]	0.72	
2013	2.23[b]	0.72	
2014	2.26[c]	0.74	
2015	2.35[d]	0.74	24.58***
2016	2.33[e]	0.73	
2017	2.39[f]	0.72	
2018	2.39[g]	0.73	



***p 〈.001, Bonferroni: a, b, c 〈 d, e, f, g

(5) 사회적응: 비행경험

다문화청소년의 비행경험이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지난 1년 동안 흡연, 음주, 가출, 무단결석, 폭력, 절도 등의 10개의 항목에 대한 비행경험 유무를 조사하였다. 각 항목에서 비행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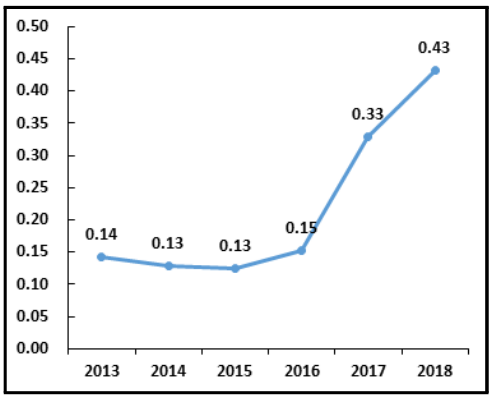
1, 경험이 없는 경우는 0으로 처리된 변인의 총 합을 사용하여 2013년부터 2018년까지의 변화추이를 살펴보았다. 따라서 제시한 10개의 비행행동의 경험이 모두 있는 학생은 10, 모든 항목에 경험이 없는 학생은 0의 값을 가지게 된다.

연도별 평균은 2014년과 2015년에 0.13으로 가장 낮았고, 2018년에는 0.43으로 가장 높았다. 그러나 변인 값의 가능 범위가 0에서 10임을 고려할 때, 다문화청소년의 비행경험 비율은 매우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비록 모든 연령의 비행경험 비율은 매우 낮은 수준이나, 고등학교에 진학한 2017년도 조사 이후 평균값이 이전 시기의 2배 이상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표 V-18 비행경험 변화추이

년도	평균	표준편차	*F*
2013	0.14[a]	0.49	56.76***
2014	0.13[b]	0.47	
2015	0.13[c]	0.48	
2016	0.15[d]	0.51	
2017	0.33[e]	0.90	
2018	0.43[f]	1.05	

***p 〈.001, Bonferroni: a, b, c, d 〈 e, 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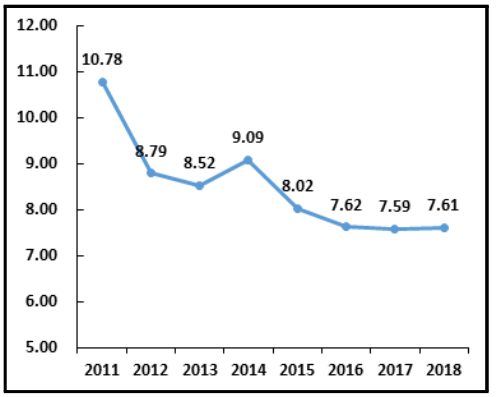
(6) 사회적응: 친한 친구의 수

비행경험이 다문화청소년의 사회적응에 있어 부정적인 측면을 수치화 한 변인이라면, 긍정적 측면에 대해 살펴보기 위하여 자신이 생각하는 어려움이나 고민이 있을 때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친한 친구의 수에 대해 조사하였다.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다문화청소년이 응답한 친한 친구의 수는 점차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초등학생 3학년에 해당하던 2011년도 조사에서는 평균 약 11명의 친한 친구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고등학교에 진학한 2017년도 이후에는 평균 약 8명으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실제로 친한 친구 수의 감소일 수도 있으나, 다문화청소년이 생각하는 친한 친구에 대한 정의와 기준이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해짐에 따른 결과로 생각될 수도 있다.

표 V-19 친한 친구의 수 변화추이

년도	평균	표준편차	*F*
2011	10.78[a]	13.00	30.99***
2012	8.79[b]	6.66	
2013	8.52[c]	6.44	
2014	9.09[d]	6.79	
2015	8.02[e]	5.12	
2016	7.62[f]	5.74	
2017	7.59[g]	6.07	
2018	7.61[h]	6.47	



***p ⟨.001, Bonferroni: e, f, g, h ⟨ b, d ⟨ a. b, c, d, e ⟨ 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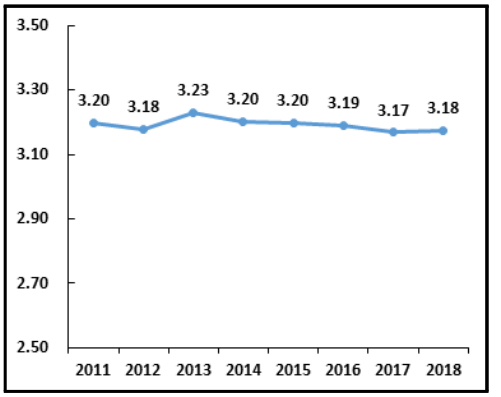
(7) 사회적 지지: 가족의 지지

다문화청소년이 생각하는 가족의 지지 정도를 4점 척도 7개 문항을 통해 조사한 결과, 모든 연도에서 평균 3점 이상으로 비교적 가족의 지지를 높게 인식하고 있으며, 연령 변화에 따른 큰 변화 없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20 가족의 지지 변화추이

년도	평균	표준편차	*F*
2011	3.20[a]	0.56	2.36*
2012	3.18[b]	0.59	
2013	3.23[c]	0.56	
2014	3.20[d]	0.56	
2015	3.20[e]	0.54	
2016	3.19[f]	0.54	
2017	3.17[g]	0.54	
2018	3.18[h]	0.57	

*p <.05, Bonferroni: g < c



(8) 사회적 지지: 학교 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와주는 어른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는 청소년의 경우, 가족의 지지뿐만 아니라 학교 체계에서의 지지정도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에 학교 내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어른이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1차년도 조사 당시 약 20%에 불과한 청소년이 학교 내 도움을 요청할 어른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그 비율은 매년 증가하여 중학교 3학년에 해당하는 시기인 2016년도 조사에서는 약 57%에 도달하였다. 이후 고등학교에 진학한 시기인 2017년도에 그 비율이 다소 감소하였으나 2018년도 조사에서 다시 증가하여 약 60%의 청소년이 학교 내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도움을 요청할 어른이 존재한다고 응답하였다.

표 V-21 학교 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와주는 어른이 있는지 여부 변화추이

단위: 빈도(%)

내용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있음	317 (19.4)	546 (36.4)	622 (43.1)	680 (49.3)	706 (52.4)	751 (56.5)	648 (51.4)	715 (59.7)
없음	1,318 (80.6)	954 (63.6)	821 (56.9)	700 (50.7)	641 (47.6)	578 (43.5)	612 (48.6)	482 (40.3)
합계	1,635 (100)	1,500 (100)	1,443 (100)	1,380 (100)	1,347 (100)	1,329 (100)	1,260 (100)	1,197 (100)

(9) 사회적 지지: 학교 밖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와주는 어른

가정과 학교 외 다문화청소년의 사회적 지지 체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학교 밖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와주는 어른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하였다. 그 결과, 2011년도 조사에서 학교 밖에서 도움을 요청할 어른이 있다고 응답한 다문화청소년의 비율은 약 20%로 학교 내에서 도움을 요청할 어른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의 비율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그러나 학교 내에서 도움을 주는 어른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의 비율은 매년 증가한 반면, 학교 밖에서 도움을 요청할 어른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 초등학교 6학년에 해당하는 2013년도 조사에서 가장 높은 비율(40.4%)을 보였으나, 이후 감소하여 2017년도 조사부터 다시 30% 미만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V-22 학교 밖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와주는 어른이 있는지 여부 변화추이

단위: 빈도(%)

내용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있음	327 (20.0)	594 (39.6)	583 (40.4)	533 (38.6)	475 (35.3)	520 (39.1)	337 (26.7)	355 (29.7)
없음	1,308 (80.0)	906 (60.4)	860 (59.6)	847 (61.4)	872 (64.7)	809 (60.9)	923 (73.3)	842 (70.3)
합계	1,635 (100)	1,500 (100)	1,443 (100)	1,380 (100)	1,347 (100)	1,329 (100)	1,260 (100)	1,197 (100)

4) 정체성 요인

다문화청소년의 정체성 요인은 국가정체성과 다문화정체성으로 구분되며, 국가정체성은 '국적에 대한 인식'과 '한국인 정체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고, 다문화정체성은 '다문화수용성'과 '이중문화수용태도'를 중심으로 변화추이를 분석하였다.

(1) 국가정체성: 국적에 대한 인식

다문화청소년이 자신을 어느 나라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자신을 한국사람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자신이 한국사람이라고 응답한 청소년의 비율은 8년에 걸친 조사 기간 동안 약 71%에서 75% 정도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이 한국사람인 동시에 외국인 부모님 나라의 사람이라고 인식하는 청소년의 비율은 1차년도 조사 당시 약 21%였으나, 지속적으로 매년 증가하여 2018년 조사에서는 27.4%에 도달하였다. 더불어 1차년도 조사 당시 전체의 3.3%를 차지하던 자신이 외국인 부모님 나라의 사람으로 인식하는 청소년의 비율은 2012년도 조사 이후 크게 감소하여 전체의 1% 미만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23 국적에 대한 인식 변화추이

단위: 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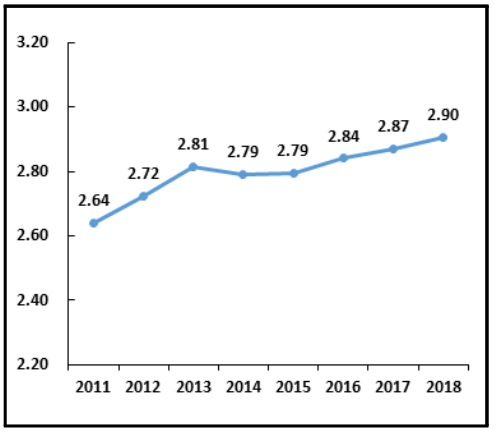
내용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한국사람	1,194 (73.0)	1,105 (73.7)	1,081 (74.9)	1,021 (74.0)	993 (73.7)	982 (73.9)	906 (71.9)	853 (71.2)
한국사람인 동시에 외국인 부모님 나라 사람	355 (21.7)	343 (22.9)	345 (23.9)	341 (24.7)	330 (24.5)	325 (24.5)	332 (26.3)	328 (27.4)
외국인 부모님 나라 사람	54 (3.3)	24 (1.6)	10 (.7)	8 (.5)	12 (.9)	13 (1.0)	11 (.9)	7 (.6)
잘 모르겠다	31 (1.9)	28 (1.9)	7 (.5)	10 (.7)	12 (.9)	8 (.6)	11 (.9)	7 (.6)
기타	1 (.1)	-	-	-	-	1 (.1)	-	3 (.3)
합계	1,635 (100)	1,500 (100)	1,443 (100)	1,380 (100)	1,347 (100)	1,329 (100)	1,260 (100)	1,197 (100)

(2) 국가정체성: 한국인정체성

한국에 대한 생각을 통해 다문화청소년이 가지고 있는 한국인정체성 수준을 조사하였다. 8년간 다문화청소년의 한국인정체성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한국인정체성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특히 다른 시기에 비해 초등학교에 재학했던 시기인 2011년부터 2014년 사이에 한국인정체성의 증가율이 컸다.

표 V-24 한국인정체성 변화추이

년도	평균	표준편차	*F*
2011	2.64[a]	0.67	29.40***
2012	2.72[b]	0.64	
2013	2.81[c]	0.64	
2014	2.79[d]	0.66	
2015	2.79[e]	0.65	
2016	2.84[f]	0.64	
2017	2.87[g]	0.62	
2018	2.90[h]	0.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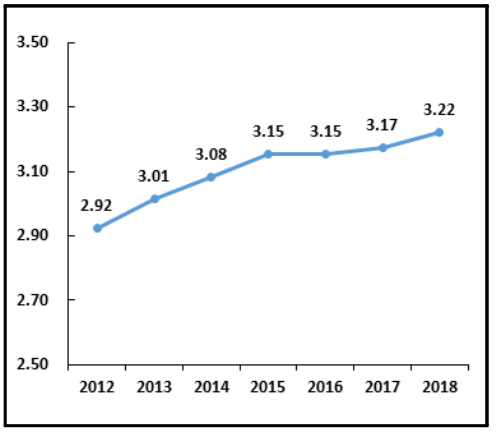
***p 〈.001, Bonferroni: a 〈 b 〈 e 〈 g, h. a 〈 c, d, f 〈 h

(3) 다문화정체성: 다문화수용성

국가정체성과 더불어 다른 문화적 배경에 대해 얼마나 수용적인 태도를 가지는지를 조사한 결과, 다문화수용성은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표 V-25 다문화수용성 변화추이

년도	평균	표준편차	*F*
2012	2.92[a]	0.57	59.80***
2013	3.01[b]	0.54	
2014	3.08[c]	0.55	
2015	3.15[d]	0.55	
2016	3.15[e]	0.55	
2017	3.17[f]	0.53	
2018	3.22[g]	0.55	



***p 〈.001, Bonferroni: a 〈 b 〈 c 〈 d, e 〈 g. c 〈 f

(4) 다문화정체성: 이중문화수용태도

다문화청소년이 한국문화와 외국인 부모님 나라문화에 대한 수용정도를 의미하는 이중문화수용태도의 변화추이는 2013년도 조사를 제외한 모든 연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중문화수용태도를 한국문화와 외국인 부모님 나라문화로 나눠서 살펴보면, 모든 조사시점에서 한국문화수용태도는 약 3.2점 이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는 반면, 외국인 부모님 나라문화수용태도는 약 2.6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또한 두 문화를 구분하지 않은 이중문화수용태도는 8년간 큰 변화가 없었던 반면, 한국문화수용태도는 초등학교 재학 시기인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다소 증가하고, 중학교 재학 시기인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2017년 고등학교 진학 이후 다소 감소하였다. 이와 반대로 외국인 부모님 나라문화수용태도는 2014년과 2015년도 조사에서 가장 낮았고, 그 이후 소폭 상승하여 2018년도 조사에서 가장 높았다.

표 V-26 이중문화수용태도(전체) 변화추이

년도	평균	표준편차	*F*
2011	2.90[a]	0.41	
2012	2.90[b]	0.40	
2013	2.96[c]	0.38	
2014	2.93[d]	0.38	4.416***
2015	2.92[e]	0.38	
2016	2.93[f]	0.38	
2017	2.92[g]	0.39	
2018	2.92[h]	0.42	

***p 〈.001, Bonferroni: a, b, e, g 〈 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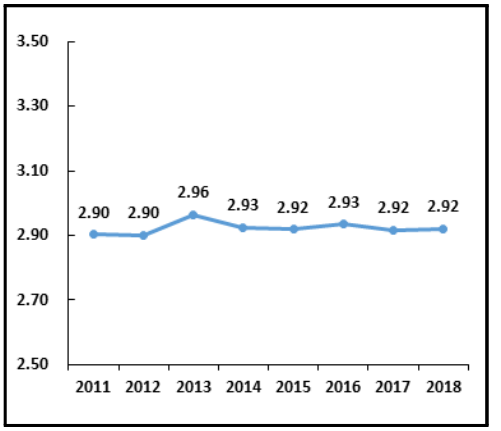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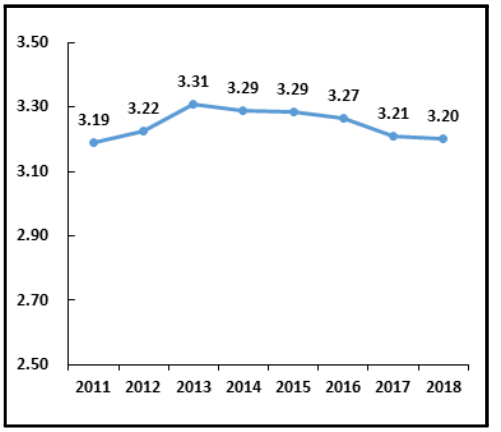


표 V-27 이중문화수용태도(한국문화) 변화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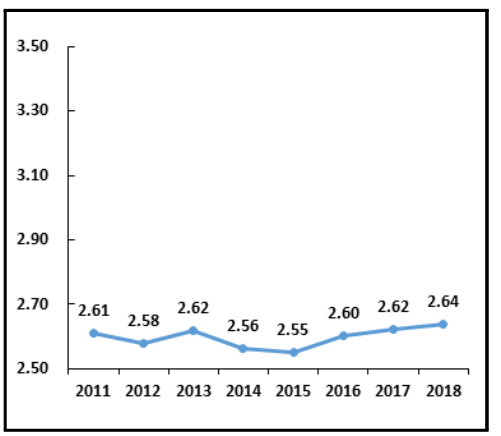
년도	평균	표준편차	*F*
2011	3.19[a]	0.51	16.15***
2012	3.22[b]	0.47	
2013	3.31[c]	0.44	
2014	3.29[d]	0.47	
2015	3.29[e]	0.45	
2016	3.27[f]	0.47	
2017	3.21[g]	0.46	
2018	3.20[h]	0.49	



** *p* 〈.001, Bonferroni: a, b, g, h 〈 c, d, e. a, g, h 〈 f

표 V-28 이중문화수용태도(외국인 부모님 나라문화) 변화추이

년도	평균	표준편차	*F*
2011	2.61[a]	0.57	5.83***
2012	2.58[b]	0.57	
2013	2.62[c]	0.55	
2014	2.56[d]	0.56	
2015	2.55[e]	0.56	
2016	2.60[f]	0.56	
2017	2.62[g]	0.58	
2018	2.64[h]	0.59	



***p 〈.001, Bonferroni: d 〈 c. e 〈 c, f, g, h

5) 신체발달 및 건강 요인

변화추이 분석의 마지막 영역인 신체발달 및 건강 요인에는 키와 몸무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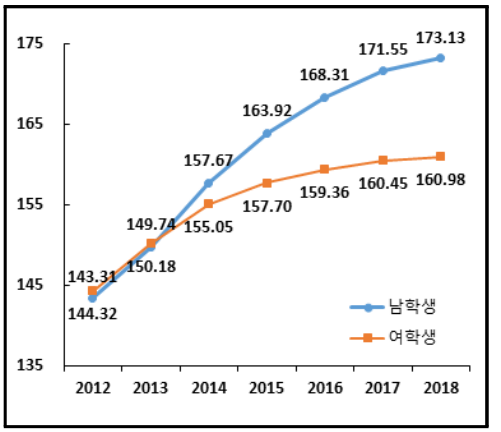
를 통한 신체발달 영역과 건강상태에 대한 주관적 인식에 대한 변인이 사용되었다.

(1) 신체발달: 키

다문화청소년의 신체발달의 8년간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먼저 키는 2012년 처음 조사된 이후 꾸준히 증가하였고, 연도별 증가 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성별에 따라 변화추이를 비교해보면, 2013년도 까지 남학생과 여학생의 평균 신장은 거의 비슷하였으나, 중학교 진학 시점인 2014년도부터 차이가 발생하기 시작하여 성별에 따른 차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더불어 2018년 고등학교 2학년에 해당하는 남학생과 여학생의 평균 키는 각각 173.13cm, 160.98cm로, 2018년도 학생 건강검사 표본 통계(교육부, 2019)에 제시된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과 여학생의 평균 신장인 173.3cm. 160.9cm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다.

표 V-29 키 변화추이

년도	평균 (전체)	표준 편차	*F*
2012	143.82[a]	7.38	시점 9436.67 ***
2013	149.97[b]	7.34	
2014	156.34[c]	7.25	성별 257.88 ***
2015	160.76[d]	7.31	
2016	163.76[e]	7.59	
2017	165.91[f]	8.08	시점×성별 899.59 ***
2018	166.96[g]	8.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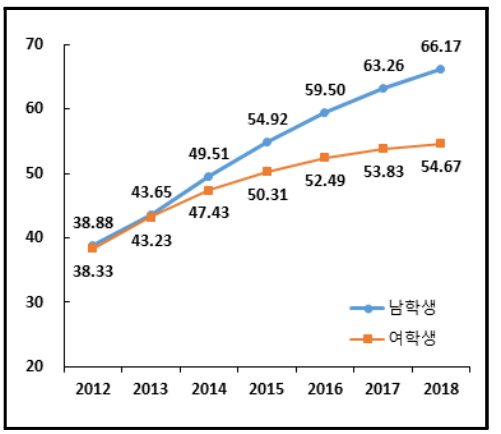
***p ⟨.001, Bonferroni: a ⟨ b ⟨ c ⟨ d ⟨ e ⟨ f ⟨ g ⟨ h

(2) 신체발달: 몸무게

다문화청소년의 몸무게는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꾸준히 증가했고,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의 증가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키와 마찬가지로 성별에 따른 몸무게 차이는 중학교 시기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여 점차 그 차이는 증가하였다. 2018년도 학생 건강검사 표본 통계(교육부, 2019)에 따르면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의 평균 몸무게는 남학생이 69.3kg, 여학생이 57.0kg으로, 본 조사에 참여한 고등학교 2학년 다문화청소년의 평균 몸무게(남학생 66.17kg, 여학생 54.67kg)에 비해 다소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Ⅴ-30 몸무게 변화추이

년도	평균	표준편차	*F*
2012	38.60[a]	9.28	시점 4620.71 ***
2013	43.44[b]	9.78	
2014	48.46[c]	10.32	성별 79.83 ***
2015	52.58[d]	10.56	
2016	55.95[e]	11.35	
2017	58.49[f]	11.84	시점×성별 341.55 ***
2018	60.35[g]	12.55	



***p 〈.001, Bonferroni: a 〈 b 〈 c 〈 d 〈 e 〈 f 〈 g 〈 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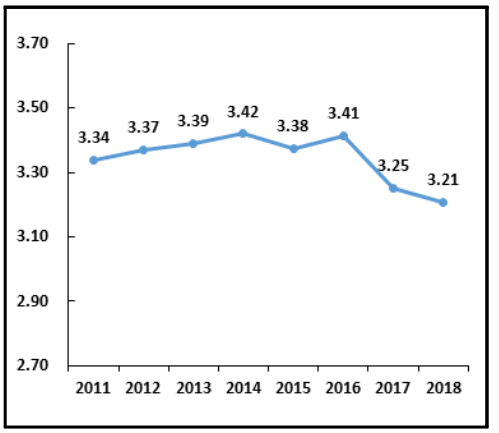
(3) 건강상태에 대한 주관적 인식

키와 몸무게를 통한 다문화청소년의 객관적 신체발달 변화추이와 함께 다문화청소년들이 인식하는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한 주관적 인식의 변화추이도 살펴보

았다. 모든 연도에서 평균 3점 이상으로 대체로 건강한 편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고등학교에 진학한 2017년도부터 건강상태에 대한 주관적 인식정도가 이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V-31 건강상태에 대한 주관적 인식 변화추이

년도	평균	표준편차	*F*
2011	3.34[a]	0.62	24.81***
2012	3.37[b]	0.61	
2013	3.39[c]	0.61	
2014	3.42[d]	0.61	
2015	3.38[e]	0.66	
2016	3.41[f]	0.59	
2017	3.25[g]	0.61	
2018	3.21l[h]	0.60	



***p 〈.001, Bonferroni: g, h 〈 b, c, d, e, f. g, h 〈 a 〈 d, f

3. 소결 및 시사점

다문화청소년의 전반적인 발달을 이해하기 위하여 가정, 학교생활, 심리·사회적응, 정체성, 신체발달과 관련된 다양한 변인들의 8년간 변화추이를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정과 관련된 변인으로 살펴본 월 평균 가구소득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나, KOSIS 국가통계포털(2019)에서 제공하는 전국 가구소득과 비교해 보면 소득분위 3~4분위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다문화청소년 가정의 경제적 수준은 여전히 다소 열악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다문화청소년의 특성을 이해함에 있어 경제적 여건으로 인한 결과와 다문화가정의 특징으로 인한 결과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문화청소년들이 자신의 아버지에 대한 자랑스러움 정도는 어머니에 대한 자랑스러움 정도에 비해 모든 시기에서 낮았고, 특히 고등학교 진학 이후 더 낮아졌다. 청소년의 발달에 있어 아버지의 역할은 어머니의 역할 못지않게 중요하다. 남진열과 김상미(2011)의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이 지각하는 아버지의 가정 내 역할수행이 높을수록 대인관계능력과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비슷하게 서고운(2019)의 연구에서는 어머니에게 자신이 중요한 존재로 인정받는다고 지각하는 정도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예측하는 변인으로 작용하지 못한 반면, 아버지에게 지각된 존재감 정도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기 아버지 역할의 중요성을 시사하였다. 청소년의 발달에 미치는 아버지 역할의 중요성은 다문화가정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며, 본 조사에 참여한 대부분의 가정이 국제결혼가정임을 고려해 볼 때, 이주배경을 가진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한국인 아버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부모교육 등을 통해 자녀양육에 있어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나아가 아버지들이 적극적으로 자녀양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식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

두 번째 영역인 학교생활 및 성취요인의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학교에서 친구들과의 어려움이 없다고 응답하는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였고, 집단괴롭힘 피해 경험의 비율 역시 지속인 감소추세가 나타나 전반적으로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생활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학업성적에 대한 주관적 평가와 만족도는 상급학교로 진학함에 따라 부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다문화청소년만의 특징은 아니며, 일반 청소년의 주관적 학업성취가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평균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은 백은경, 이응택, 이은경(2018), 김진아(2016) 등에서도 보고되었다. 그러나 다문화청소년은 고등학교 진학 이후 학교 공부에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크게 높아졌고, 특히 책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어려운데 물어볼 사람이 없다는 것이 학교 공부의 어려운

점이라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다문화가정의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청소년의 학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 영역으로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응 요인을 살펴본 결과, 삶의 만족도는 중학교 진학 시기 이후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고, 우울 및 사회적 위축 정도는 초등학생 시기에 비해 중학교에 진학하면서 다소 정도가 높아졌으나 그 이후 연령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이와 같이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응에 있어서 다소 부정적인 변화양상을 보임과 동시에 다문화청소년들이 지각하는 가정과 학교 및 사회적 지지 정도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문화청소년들이 지각하는 가족의 지지는 비교적 높은 수준의 지지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는 있으나 중학교 진학 이후 다소 감소하는 경향이 있으며, 친한 친구의 수 역시 중학교 진학 이후 감소하였다. 학교 내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어른의 존재 여부는 전반적으로 높아지는 추세이기는 하나 2018년 조사에 참여한 청소년의 약 60%만이 학교 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어른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학교 밖에서 도움을 요청할 어른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 또한 중학교 진학 이후 감소하는 추세이며, 2018년 조사 기준 약 30%에 불과하였다. 사회적 지지는 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변인으로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보고되었다(김지혜, 2012; 박미애, 김세경, 천성문, 2013; 오은진, 성경미, 2018). 따라서 보다 성공적인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응을 위해 가정과 학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

일반 청소년과 달리 다문화청소년의 발달을 이해하는데 정체성은 중요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정체성 요인의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한국인정체성과 다문화수용성은 모두 전반적으로 높아졌고, 외국인 부모님 나라 문화의 수용정도 또한 2015년부터 꾸준히 높아졌다. 이러한 정체성의 변화는

청소년들의 국적에 대한 인식에도 반영되어, 자신을 외국인 부모님 나라 사람으로 인식하거나 잘 모르겠다고 응답하는 비율은 큰 폭으로 감소하였고,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자신을 한국사람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한국사람인 동시에 외국인 부모님 나라의 사람으로 인식하는 비율 또한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다소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났다.

마지막 영역인 신체발달 및 건강요인은 키와 몸무게와 같은 객관적 변인 측면에서 보면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동일 연령대의 2018년도 학생 건강검사 표본통계(교육부, 2019)와 비교해도 성장 수준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청소년들의 건강상태에 대한 주관적 인식 정도는 고등학교 진학 시점 이후 계속 낮아졌는데, 이러한 변화추이는 부정적 변화가 나타난 삶의 만족도, 우울과 같은 심리·사회적응 요인과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상록, 김은경, 윤희선(2015)의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의 행복감은 우울, 자아존중감과 같은 심리적응뿐만 아니라 건강상태에 대한 주관적 인식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심리·사회적응에 많은 관심과 다차원적 지원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상 기술된 다문화청소년의 8년간 변화추이의 주요 분석결과를 하나의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Ⅴ-32 2011-2018 8년간 변화추이 주요 분석결과

영역	주요 분석결과
1) 가정요인	■ 2018년 기준 전국 2인 이상 가구소득과 비교할 때, 다문화가정의 월 평균 가구소득은 전국 평균을 크게 밑돌아 상대적으로 열악한 수준이나, 매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임
	■ 모든 시기에서 어머니에 대한 인식이 아버지 보다 긍정적이며, 이러한 차이는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 고등학교 진학 이후 다시 증가함
2) 학교생활 및 성취요인	■ 학교생활에서 친구들과의 어려움은 크게 없으며, 집단괴롭힘 피해 경험의 비율 또한 지속적으로 감소함
	■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학업성적에 대한 주관적 평가와 만족도는 부정적 변화추이를 보이며, 학교공부에 어려움을 느끼는 다문화청소년의 비율은 역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3) 심리·사회 적응요인	■ 중학교 진학 이후 삶의 만족도 감소현상이 뚜렷해지며, 신체만족도 역시 고등학교 진학 이후 감소추세로 전환됨
	■ 우울과 사회적 위축은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나 변화의 폭은 삶의 만족도에 비해 작은 수준임
	■ 고등학교 진학 이후 비행경험의 비율은 큰 폭으로 상승하였으나 그 비율은 절대적으로 낮은 수준이고,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진학 시점이 지난 뒤 일정 수준을 유지함
	■ 가족의 지지는 안정적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이 유지되고 있으며, 학교안에서 도움을 주는 어른이 있다고 인식하는 정도 역시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나, 학교 밖에서 도움을 주는 어른의 존재에 대한 인식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음
4) 정체성요인	■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자신을 한국사람인 동시에 외국인 부모님 나라 사람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 한국인 정체성과 다문화수용성은 전반적으로 높아지는 추세임
	■ 외국인 부모님 나라의 문화에 대한 수용태도는 한국문화 수용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나, 중학교 진학 이후 소폭 상승함
5) 신체발달 및 건강요인	■ 2018년도 학생 건강검사 표본 통계와 비교할 때, 키와 몸무게는 평균 수준의 성장을 보임
	■ 키와 몸무게와 같은 객관적 지표에서는 큰 문제가 없었으나, 건강상태에 대한 주관적 인식은 고등학교 진학 이후 다소 부정적 변화추이가 나타남

제Ⅵ장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응과 위기지원 정책방안

1.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응에 관한 선행연구
2.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응 현황
   : 패널조사 자료분석
3.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응관련 요구도
4. 국내 다문화청소년 심리·사회적응 및 위기지원 정책현황
5. 다문화청소년 심리·사회적응 및 위기지원 정책방안

Ⅵ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응과 위기지원 정책방안[21)]

1.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응에 관한 선행연구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응은 2014년도 연구(양계민, 신현옥, 박주희, 2014)에서 가정, 학교, 지역사회의 영향을 중심으로 횡단적 분석이 실시된 바 있으며, 2017년도 연구(연보라, 2017)에서는 다문화청소년들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진학하는 동안 심리·사회적응의 발달 추이를 개괄적으로 살펴본 바 있다. 이번 년도 연구에서는 앞서 수행된 연구를 바탕으로 중학교와 고등학교 재학 기간 동안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응 발달 변화 양상을 이해하고, 이러한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밝히는 것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2017년도 연구(양계민, 강경균, 2017)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한 다문화청소년에 관한 선행연구 가운데, 심리·사회적응에 초점을 둔 연구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추가로 최근에 수행된 국내 선행연구와 일부 국외의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응과 관련된 주요요인들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 앞선 선행연구들에서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응의 영향 요인으로 주목한 변인들은 크게 1) 가정 및 부모, 2) 사회적 지지, 3) 문화적응, 4) 차별 및 괴롭힘 피해 경험 영역으로 나눌 수 있었다. 따라서 이번 장의 첫 번째 절에서는 선행연구를 통해 밝혀진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응의 주요 영향요

21) 1절, 2절, 3절의 설문조사 부분은 장윤선(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집필하였고, 3절의 면접조사 및 전문가 조사부분과 4절, 5절은 양계민(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집필함.

인을 앞서 구분한 4개의 영역으로 나누어 설명하고자 하였다. 이에 앞서 기존에 수행되었던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응을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된 주요변인은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보았다.

1) 개인적 심리·사회 요인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응과 관련하여 수행된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 우울 등을 주요 변인으로 설정하였다. 인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있어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인식되어 많은 연구의 주요 변인으로 설정되는 요인은 자아존중감이다. 연구에 따라 자기존중감 또는 자존감으로 명명되어 다소 다르게 정의되나, 대체로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와 관련된 개념으로 자아존중감을 정의한다(최경숙, 2007).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응을 연구한 많은 선행연구에도 자아존중감을 주요 변인으로 설정하고 있다(김지혜, 2012; 남윤주, 이숙, 2009; 봉초운, 정윤화, 홍세희, 2018; 심우엽, 2009; 송채수, 2018; 오은진, 성경미, 2018; 이소연, 2018; 전자배, 2018; Berry, Phinney, Sam, & Vedder, 2006). 자아존중감과 더불어 삶의 만족도 또한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응을 파악하는 데 있어 여러 선행연구들에서 주요요인으로 설정되었다(김민주, 윤기봉, 2018; 백승희, 박소영, 정혜원, 2018; 천희영, 이미란, 2015; Jia & Shi, 2017).

심리·사회적 부적응으로 인해 발생하는 내재화 문제인 우울 및 스트레스와 관련된 연구도 다수 수행되었다(강화, 배은경, 2018; 김순규, 2011; 김춘경, 조민규, 2018; 백종규, 염동문, 2018; 오승환, 좌현숙, 2015; 오인수, 2014; 유지희, 황숙연, 2018; 이영주, 2007; 이지선, 김정민, 주아란, 2018; 최은희, 김경은, 2018; Berry et al., 2006; Dwairy & Dor, 2009; Kim, Chen, Juang, & Moon, 2009). 우울에 비해 상대적으로 선행연구가 많이 수행되지 않았으나 사회적 위축 역시 사회 부적응 현상의 하나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박병선, 배성우, 박경진,

서미경, 김혜지, 2017). 사회적 위축 현상은 사회적 관계 맺기를 거부하고 스스로를 격리시키는 현상으로, 일명 히키코모리(hikikomori), NEET(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등으로 알려지기도 한 개념으로(Li & Wong, 2015), 강유임과 김병석(2013), 모상현(2018), 신재현(2017), 이소연(2018), 오인수(2014) 등의 연구에서 이를 다루고 있다. 또 다른 심리·사회적 부적응의 외현적 현상으로 볼 수 있는 다문화청소년의 비행경험을 다룬 연구도 다수 수행되었다(김춘경, 조민규, 2018; 이영주, 2007; 이지선 외, 2018; Walsh, Fogel-Grinvald, & Shneider, 2015).

그 밖에 자기효능감(장용희, 2018), 협동성, 주장성, 공감성으로 구성된 사회적 적응(남영옥, 2012), 사회적 유능감(정문경, 2013)이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응 고찰을 위해 사용되었다. 아울러, 많은 연구에서 심리·사회적응의 긍정적 또는 부정적 상태를 이분적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것과 다르게 적응적 상태란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이분화 할 수 없으며, 심리적응의 긍정적인 산물과 부정적 산물이 공존 할 수 있다(Vanderbilt- Adriance & Shaw, 2008)는 관점에 따라 허청아와 그레이스 정(2018)은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응의 긍정적 산물과 부정적 산물을 대표하는 여러 변인들을 함께 고려하기도 하였다.

2) 가정 및 부모 요인

다문화청소년을 둘러싼 여러 수준의 환경 중 가정 및 부모는 가장 가까운 환경변인으로 대표적인 심리·사회적응의 주요 영향요인으로 여러 선행연구에서 사용되고 있다. 다수의 선행연구가 가정 및 부모관련 변인으로 부모와의 대화 시간, 부모와의 관계, 부모의 양육 태도 등을 사용하여 측정하는 가족의 지지 정도와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응의 관계를 밝히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오승환, 좌현숙, 2015; 이영주, 2007; 백종규, 염동문, 2018; 유지희, 황숙연, 2018; 최은

희, 김경은, 2018). 예를 들어, 유지희와 황숙연(2018)은 부모와의 대화 시간이, 오승환과 좌현숙(2015)은 어머니 또는 아버지와의 관계 만족도와 형제만족도가 다문화청소년의 우울과 부적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즉, 부모와의 대화시간이 길거나, 아버지 또는 어머니와의 관계에 대해 만족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우울 수준은 낮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비슷하게 Walsh et al.(2015)의 연구에서도 부모와의 긍정적인 관계는 이주배경 청소년의 비행 행동 경향을 낮추는 데 있어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이영주(2007)는 가족의 지지와 학교에서의 긍정적인 경험들이 다문화청소년의 비행이나 공격성 등 심리·사회 부적응으로 인한 외현화 문제가 발현되는 경향을 낮추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였다. 백종규와 염동문(2018) 역시 가족의 지지는 친구의 지지와 함께 다문화청소년의 우울 수준을 낮추는데 유의한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보고하였다.

백승희 외(2018)는 다문화청소년이 초등학생에서 중학생으로 학교급이 전환됨에 따라 삶의 만족도 변화 특성도 달라질 것이라는 연구 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검정하였다. 그 결과 연구 대상의 절반 정도는 학교급의 변화에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삶의 만족도가 감소하였으나, 약 40% 정도의 다문화청소년은 초등학생 시기에 상승하던 삶의 만족도가 중학교 입학 이후 감소하는 변화 양상을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삶의 만족도 변화 양상은 다문화청소년에게서만 나타나는 특성이 아니며, 비(非)다문화청소년에게서도 유사한 변화 양상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었다(최유선, 손은령, 2015). 이때 자녀에 대한 부모의 관심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 수준이 낮은 집단에 속할 확률에 비해 삶의 만족도 수준이 높은 집단에 속할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지선 외(2018)는 가정 내 관계에 주목하여 다문화청소년의 부모화 경험이 심리적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여기서 '부모화'란 자녀가 부모의 역할을 하는 현상을 의미하는데, 국내출생 다문화청소년의 경우 한국문화 적응

및 언어 습득에 있어 자신에 비해 느린 부모의 보호자 또는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는 경험이 많을 수 있다는 점에 초점을 두었다. 이지선 외(2018)의 연구에 따르면, 부모화의 영향은 다문화청소년과 비다문화청소년 간 다르게 작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구체적으로는 비다문화청소년의 부모화 경험이 우울 및 비행 정도를 심화시키는 반면, 다문화청소년의 부모화 경험은 오히려 우울 수준을 낮추는데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다문화청소년의 부모화 경험을 우려의 시선으로 바라보기 보다는 이들의 심리·사회적응에 도움을 주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중도입국 청소년이 새로운 사회와 가정에 적응할 때 발생하는 심리적 불안을 완화시키기 위해 어린 동생을 돌보거나 어린 시기부터 대부분의 일을 스스로 하는 전략을 세운다는 정희정과 김소연(2014)의 연구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

3) 사회적 지지 요인

다문화가정 및 부모와 관련된 다양한 변인들과 함께, 다문화청소년을 둘러싼 지역사회, 친구, 교사의 지지 또한 심리·사회적응을 돕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밝혀졌다(김지혜, 2012; 봉초운 외, 2018; 오은진, 성경미, 2018; 천희영, 이미란, 2015). 천희영과 이미란(2015)은 다문화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와 유의한 관계를 가지는 개인, 가정, 학교 수준 요인들 간의 종합적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자아존중감이 높고, 부모의 방임 및 학대 수준이 낮으며, 가구소득이 높고, 학업성적과 교우관계 수준이 높은 군집의 경우, 비슷한 수준의 자아존중감을 보이지만 가정 및 학교 수준의 요인에서 상대적으로 양호하지 않은 군집에 비해 삶의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문화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있어 가정배경과 함께 학교 환경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친구의 지지가 다문화청소년의 우울 수준을 낮추는 데 유의한

영향을 준다고 보고된 다수의 선행연구(김순규, 2011; 오승환, 좌현숙, 2015; 이영주, 2007; 백종규, 염동문, 2018; 유지희, 황숙연, 2018; 최은희, 김경은, 2018)와 맥을 같이한다.

허청아와 그레이스 정(2018)의 연구에서는 다문화청소년의 차별경험, 일상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수준에 따라 4개의 잠재프로파일을 분류하고, 각 잠재프로파일에 속할 확률에 영향을 주는 주요 예측변인을 탐색하였는데, 그 결과 교사의 다문화에 대한 수용적 태도와 학교의 수용적 다문화 분위기가 주요 영향변인으로 나타났다. 김춘경과 조민규(2018)가 수행한 다문화청소년의 우울과 비행의 종단적 관계를 분석한 연구에서도 이전 시점의 우울은 비행을 야기하는 데 유의한 영향을 주는 반면, 비행경험이 많다고 해서 다음 시점의 우울 수준이 높아지지는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즉, 우울은 비행의 예측변인인 반면, 비행은 우울의 예측변인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사회적 지지는 우울을 매개로 하여 비행을 줄이는 데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영옥(2012)의 연구에서도 협동성, 주장성, 공감성으로 구성된 다문화청소년의 사회적 적응에 초점을 두었으며, 자아존중감, 부모와의 관계와 함께 지역사회 성인의 지지가 사회적 적응을 돕는 주요변인으로 보고하였다.

4) 문화적응 요인

다문화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있어 부모 또는 자신의 문화적응 태도는 중요한 영향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자녀가 외국인 부모 나라의 문화를 수용하는 정도인 이중문화 수용태도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은 높아지며, 자녀의 문화적응 변인뿐만 아니라, 외국인 부모가 자기나라의 문화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일수록 자녀의 이중문화 수용태도를 높여 자아존중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동시에 사회적 위축 정도를 낮추는데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이소연, 2018).

전자배(2018)의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에서 부모의 통합적 문화적응 태도가 자녀의 자아존중감을 높이는 데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송채수(2018)는 다문화가정에서 외국인 어머니가 자신의 모국어를 자녀에게 습득시키는 '이중언어 사회화'는 언어교육을 통해 자녀에게 어머니 나라의 문화 정체성과 가족 응집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매개체로 간주하고, 이중언어 사회화가 자녀의 자아존중감 뿐만 아니라 부모자녀관계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문화적응 태도와 함께 문화적응과 관련된 변인으로 문화적응 스트레스 또한 주요 변인으로 사용된다. 강유임과 김병석(2013)은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아짐에 따라 다문화청소년의 우울, 위축, 비행 및 공격성으로 정의되는 심리·사회적 적응 정도는 낮아진다고 보고하였고, 김민주와 윤기봉(2018)의 연구에서 역시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다문화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더불어 자녀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이중문화 수용태도를 매개로 자아존중감에 간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밝혀졌다(이소연, 2018).

같은 맥락으로 모상현(2018)의 연구에 따르면, 다문화청소년의 사회적 위축 정도는 문화적응 스트레스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함께 증가하였다. 또한, 사회적 위축에 미치는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영향은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통해 약화되는데,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는 성별에 따라 다르게 작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교사 지지의 조절효과는 남학생에게서만 유의하게 작용한 반면, 친구 지지의 조절효과는 여학생의 경우에만 유의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비다문화청소년과 다르게, 가정 특성으로 인하여 경험하게 되는 이중문화가 다문화청소년의 사회적 위축에 영향을 주는 주요요인인 것을 알 수 있다.

장용희(2018)는 자기 능력에 대한 확신과 자기효능감 증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수정하는 반복적 절차(Cattaneo & Chapman, 2010) 또

는 자신의 환경에 대한 비판적 인식과 이를 통제할 수 있다는 확신을 의미하는 내적 심리적 요인(Zimmerman, 2000)인 임파워먼트(empowerment)를 통해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적응을 고찰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사회적 지지와 함께 긍정적 다문화 수용태도는 임파워먼트를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응과 문화적응 간의 관련성은 국외에서 수행된 연구들의 주요 주제 중 하나이다. Curtis, Thompson과 Fairbrother(2018)는 난민과 이주배경 청소년의 신체 및 정신건강을 다룬 46개의 선행연구를 분석하였는데, 대부분의 연구에서 밝혀진 바로는 이주배경청소년의 정신건강은 비이주청소년에 비해 취약한 수준이며, 이는 이주배경청소년이 태어난 국가와 새로 이주한 국가 간의 문화차이와 새로 이주한 국가에서 경험한 모국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주, 캐나다,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이스라엘,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웨덴, 영국, 미국 이상 13개 국가의 이민가정 청소년과 일반가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제비교 연구결과에 따르면, 이민가정 청소년의 모국 또는 부모님의 나라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이주 국가의 문화에 모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통합적응 집단의 심리·사회적응 수준은 다른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졌다(Berry et al., 2006). 이와 비슷하게 Kim et al.(2009)의 연구에서도 미국에 거주하는 중국인 이민가정의 청소년과 그들의 부모님 간의 문화적응 차이가 클수록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태도는 부정적이었으며, 이러한 이민가정 청소년이 부정적으로 인지하는 부모의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우울 정도를 심화시키는 것으로 밝혀졌다.

5) 차별 및 괴롭힘 피해경험 요인

여러 선행연구에서는 다문화청소년의 차별경험은 심리·사회적응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주요변인으로 보고하고 있다(김순규, 2011; 오승환, 좌현숙, 2015; 오인수, 2014; 유지희, 황숙연, 2018; 최은희, 김경은, 2018).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2015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한 유지희와 황숙연(2018)의 연구에 따르면, 9~24세 다문화청소년 6,079명 가운데 차별경험을 묻는 설문 문항에 '전혀 차별을 받지 않았다'라고 응답한 사례는 단 568명에 불과하며, 다문화청소년이 지각하는 차별경험은 우울 수준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구소련 연방국과 에티오피아에서 이주한 이민 1 세대 및 2 세대 청소년들에게서도 관찰되었는데, 청소년의 지각된 차별경험은 비행 행동의 경향성을 높이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Walsh et al., 2015).

이와 유사한 결과는 오승환과 좌현숙(2015), 오인수(2014), 최은희와 김경은(2018), Jia와 Shi(2017)의 연구에서도 일관되게 보고되었으며, 비록 다문화청소년이 직접적으로 차별을 경험하지 않더라도 차별을 우려하거나 의식하는 차별스트레스 또한 우울 수준을 높이는 데 유의한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도 보고되었다(강화, 배은경, 2018). 허청아와 그레이스 정(2018)이 수행한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응 잠재프로파일 분류연구에 따르면, 차별경험은 많으나 스트레스 수준이 낮고 자아존중감이 높은 프로파일을 보이는 다문화청소년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는 차별경험과 심리·사회적응 간의 강한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오인수(2014)는 학교에서의 괴롭힘 피해 경험과 심리·사회적 적응의 관계에 주목하였다. 오인수(2014)의 연구에 따르면 다문화청소년의 신체적 및 언어적 학교 괴롭힘 피해 경험은 비다문화청소년과 유의한 차이가 없으나, '친구들이 같

이 놀 때 일부러 끼워주지 않았다'와 같은 관계적 괴롭힘 피해 경험은 다문화청소년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학교 괴롭힘 피해 경험이 다문화청소년의 우울 및 불안과 같은 심리적 부적응뿐만 아니라 사회적 위축 현상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금까지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살펴보았다. 이상 살펴본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가정의 특성으로 인해 이중문화에 많이 노출될 수 있는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응에 가장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이중문화 적응 태도의 유형은 외국인 부모 나라의 문화와 한국 문화를 모두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통합형 유형으로 밝혀졌다. 둘째, 다문화청소년이 지각하는 차별경험은 높은 수준이며, 이러한 차별경험과 차별에 대한 걱정과 스트레스는 심리·사회적응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비다문화청소년과 마찬가지로 가족 및 부모의 지지뿐만 아니라, 교사 또는 친구로부터 받는 사회적 지지는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응에 도움을 주는 주요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아울러 자아존중감, 우울, 비행 등 다양한 심리·사회적응 변인들은 각각 독립적인 것이 아니며, 서로 유의한 관계를 형성하여 상호작용을 통해 다문화청소년의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도 연구에서는 이상의 선행연구 분석결과를 토대로 다문화청소년들의 심리·사회적응 현황과 주요 영향요인을 파악한 뒤, 이를 바탕으로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응을 위한 지원방안 도출에 중점을 두고 패널조사 및 심층면접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였다. 이후 2절과 3절에서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응 현황에 대해 패널조사 자료분석과 면접조사 심층분석 나누어 기술하였다.

2.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응 현황: 패널조사 자료분석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응 현황파악을 위해 먼저 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한 양적분석을 수행하였다. 앞서 기술된 바와 같이, 이번 년도 연구의 주요목적은 중학교와 고등학교 재학 기간 동안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응의 변화 양상을 파악하는 것에 있다. 본 연구의 패널조사를 통해 수집된 심리·사회적응 영역에 해당하는 조사항목은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삶의 만족도, 우울, 사회적 위축, 신체만족도, 현재 고민 및 걱정거리 등이 있는데, 이들 조사항목 중에서 중학교와 고등학교 조사시점에서 동일하게 수집되어 종단적 비교가 가능한 항목들, 즉, 1) 삶의 만족도, 2) 신체만족도, 3) 우울, 4) 사회적 위축을 중심으로 기초 및 심층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더불어 본 연구의 패널조사는 2011년부터 1년을 주기로 매년 실시하고 있으나, 심리·사회적응과 같은 정의적 특성의 변화는 단기간에 나타나기보다는 장기간에 걸쳐 변화되는 점과 분석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하여 모든 시점의 패널조사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는 대신, 중학교와 고등학교 시기를 대표하기에 적합한 연도의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8년간 발달추이 분석결과에 따르면 심리·사회적응요인의 경우, 중학교 이후부터 변화 양상이 뚜렷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상급학교 진학에 따른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덜한 중학교 2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 재학 시기에 해당하는 2015, 2018년도 자료가 기초 및 심층모형분석에 사용되었다.

1) 기초분석

(1) 분석개요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응 현황에 대한 기초분석으로 다문화청소년의 개

인 및 가정배경 변인, 그리고 사회적 배경과 관련된 변인에 따른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사회·경제적 지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변인인 '월평균 가구소득'과 '부모의 학력수준'을 가정배경 변인으로 사용하였고, 기본적인 개인 변인인 성별에 따른 심리·사회적응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더불어 선행연구에서 심리·사회적응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진 '집단괴롭힘 피해경험 여부'와 사회적 지지의 대리변인으로 사용 가능한 '학교 안과 밖에서 어려울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어른의 존재 여부'에 따른 차이도 함께 분석하였다.

기초분석에 사용된 변인들 가운데 월평균 가구소득의 경우, 자료의 분포를 고려하여 4개의 범주(① 200만 원 미만, ② 200만 원 이상~300만 원 미만, ③ 300만 원 이상~400만 원 미만, ④ 400만 원 이상)로 변인을 변환하여 사용하였다. 부모의 학력수준 변인은 어머니와 아버지의 학력 수준 중에서 더 높은 수준을 선택하였으며, 마찬가지로 자료의 분포를 고려하여 3개의 범주(① 중졸 이하, ② 고졸 이하, ③ 대졸 이상)를 가지는 변인으로 변환하여 사용하였다.

기초분석에서는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응의 각 시기별 현황을 분석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따라서 앞서 기술한 개인, 가정 및 사회적 변인에 의한 심리·사회적응의 차이를 2015년(중2 시기)과 2018년(고2 시기) 연도별로 나누어 각각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사용한 분석방법은 변인의 집단 수에 따라 독립표본 t검정과 일원배치분산분석(ANOVA)을 적용하였고, 모두 SPSS 24.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아울러 2015년도와 2018년도 패널조사 자료를 연도별로 나누어 별도로 분석하였으나, 기초분석은 다문화청소년 심리·사회적응의 종단적 변화양상을 파악하는 심층모형의 도출을 위한 사전분석의 개념으로 실시되었으므로, 2015년과 2018년도 조사에 모두 참여하여 심리·사회적응 영역의 응답 값이 있는 1,188[22] 명을 분석대상으로 설정하였다.

22) 기초분석결과에 제시된 표에서 '부모 학력'의 경우, 일부 무응답 사례가 있어 전체 사례 수와 차이가 있다. 2015년과 2018년도 '부모 학력'의 전체 사례 수는 각각 1,173명, 1,158명이다.

(2) 기초분석결과

먼저 중학교 2학년 재학 시기인 2015년의 삶의 만족도를 살펴보면, 성별, 집단괴롭힘 피해경험, 학교 안과 밖에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어른의 존재 여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남학생의 평균은 3.22로 여학생 평균인 3,10에 비해 다소 높았고, 집단괴롭힘 피해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비율은 전체 사례 수의 약 8%에 불과하였으나 이들의 삶의 만족도는 평균 2.76으로 집단괴롭힘 피해경험이 없는 청소년의 평균인 3.19에 비해 낮았다. 또한 학교 안과 밖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어른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평균은 도움을 요청할 어른이 없다고 응답한 청소년의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고등학교 2학년 재학 시기인 2018년의 삶의 만족도 전체 평균은 2.84로 2015년 평균 3.16보다 낮은 수준이었으며, 이는 앞서 보고한 8년간 추이분석결과와도 일치한다. 각 집단 간 2018년도(고2 시기) 삶의 만족도 차이는 2015년도(중2 시기)와 동일한 경향을 보였다.

신체만족도의 경우, 2015년도(증2 시기)에는 부모의 학력수준을 제외한 모든 변인에서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의 평균 신체만족도는 3.04로 여학생 평균인 2.98 보다 높았으며, 집단괴롭힘 피해경험이 있는 경우의 신체만족도 평균은 2.75로 모든 집단 중에서 가장 낮은 평균을 보였다. 학교 안과 밖에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어른이 존재하는 경우의 평균 신체만족도는 각각 3.10과 3.11로 도움을 요청할 어른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의 평균 신체만족도 2.92와 2.96에 비해 높았다. 더불어 월평균 가구소득 수준이 400만 원 이상인 경우의 평균 신체만족도는 3.12로, 300만 원 이하~400만 원 미만 수준의 평균 신체만족도 2.94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도(고2 시기)의 신체만족도 전체평균은 2.92로 2015년(증2 시기)에 전체평균 3.01에 비해 낮았으며, 이 역시 8년간 변화추이 분석에서

나타난 경향과 동일하였다. 집단별 신체만족도 차이의 경우, 2015년(중2 시기)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던 월평균 가구소득에 따른 차이는 2018년도(고2 시기)에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Ⅵ-1 삶의 만족도

구분	2015년 (중2 시기)				2018년 (고2 시기)			
	사례수 (명)	평균	표준 편차	*F/t*	사례수 (명)	평균	표준 편차	*F/t*
전체	1,188	3.16	0.62	-	1,188	2.84	0.59	-
성별								
남자	584	3.22	0.61	3.24 **	584	2.92	0.59	4.69 ***
여자	604	3.10	0.61		604	2.76	0.57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350	3.18	0.63	1.47	277	2.81	0.56	0.96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403	3.12	0.58		344	2.83	0.62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288	3.15	0.62		306	2.82	0.60	
400만원 이상	147	3.24	0.63		261	2.89	0.55	
부모 학력								
중졸 이하	69	3.06	0.68	0.86	67	2.82	0.59	0.08
고졸이하	555	3.16	0.59		545	2.83	0.58	
대졸이상	549	3.17	0.63		546	2.84	0.59	
집단괴롭힘 피해경험								
없다	1,092	3.19	0.59	5.27 ***	1,125	2.86	0.58	6.14 ***
있다	96	2.76	0.76		63	2.40	0.59	
학교 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어른								
없다	561	3.04	0.61	-6.38 ***	477	2.73	0.59	-5.14 ***
있다	627	3.26	0.60		711	2.91	0.58	
학교 밖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어른								
없다	767	3.10	0.62	-4.51 ***	836	2.81	0.59	-2.44 *
있다	421	3.27	0.60		352	2.90	0.58	

*p<.05, **p<.01, ***p<.001

표 Ⅵ-2 신체만족도

구분	2015년 (중2 시기)				2018년 (고2 시기)			
	사례수 (명)	평균	표준 편차	*F/t*	사례수 (명)	평균	표준 편차	*F/t*
전체	1,188	3.01	0.50	-	1,188	2.92	0.51	-
성별								
남자	584	3.04	0.47	2.21 *	584	2.97	0.52	3.14 **
여자	604	2.98	0.52		604	2.87	0.52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350	3.03[a]	0.52	4.51 **	277	2.93	0.50	0.33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403	3.00[b]	0.48		344	2.90	0.53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288	2.94[c]	0.49		306	2.92	0.50	
400만원 이상	147	3.12[d]	0.46		261	2.93	0.53	
부모 학력								
중졸 이하	69	2.9	0.52	1.67	67	2.86	0.57	1.39
고졸이하	555	3.00	0.49		545	2.90	0.50	
대졸이상	549	3.03	0.50		546	2.64	0.52	
집단괴롭힘 피해경험 경험								
없다	1,092	3.03	0.49	5.40 ***	1,125	2.94	0.51	5.56 ***
있다	96	2.75	0.53		63	2.57	0.50	
학교 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어른								
없다	561	2.92	0.47	-6.40 ***	477	2.81	0.48	-5.88 ***
있다	627	3.10	0.50		711	2.99	0.52	
학교 밖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어른								
없다	767	2.96	0.48	-4.93 ***	836	2.89	0.51	-2.66 **
있다	421	3.11	0.51		352	2.98	0.53	

*p<.05, **p<.01, ***p<.001. Bonferroni: c < d

심리·사회적 부적응의 대표적인 변인 중 하나인 우울의 집단 간 차이를 비교한 결과, 2018년(고2 시기)의 전체평균은 1.78로 2015년의 평균 1.68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고, 2015년(중2 시기)과 2018년(고2 시기) 모두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우울 정도가 높았다. 부모의 학력수준에 의한 집단 간 우울 정도의 차이는 2015년(중2 시기)에는 유의하였으나 2018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집단괴롭힘 피해경험이 있는 집단의 집단괴롭힘 피해경험이 없는 집단에 비해 우울 정도가 두 시점에서 모두 높았으며, 사회에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어른이 존재하는 집단의 우울 정도는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았다.

사회적 위축 역시, 우울과 비슷하게 2018년(고2 시기)의 전체평균이 2.40으로 2015년(중2 시기) 2.35에 비해 다소 높았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삶의 만족도, 신체만족도, 우울정도가 2015년(중2 시기)과 2018년 모두 성별에 따른 차이가 유의미하였던 것과 달리, 2018(고2 시기)년 성별에 따른 사회적 위축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집단괴롭힘 피해경험 유무에 따른 집단 간 차이는 심리·사회적응 영역의 다른 변인들과 마찬가지로 2015년(중2 시기)과 2018년(고2 시기)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집단괴롭힘 피해경험이 있는 집단의 사회적 위축 평균이 집단괴롭힘을 경험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집단의 사회적 위축 평균보다 높았다. 학교 안과 밖에서 도움을 요청할 어른이 있는 집단의 2015년(중2 시기) 사회적 위축 평균은 2.27과 2.23으로 도움을 요청할 어른이 없는 집단의 평균인 2.43과 2.41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았으나, 2018년 사회적 위축은 학교 밖에서 도움을 요청할 어른의 존재여부에 의해서만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마지막으로 부모의 학력수준에 의한 집단 간 사회적 위축의 차이는 2018년(고2 시기)에만 유의하게 나타났다.

표 Ⅵ-3 우울

구분	2015년 (중2 시기)				2018년 (고2 시기)			
	사례수 (명)	평균	표준 편차	F/t	사례수 (명)	평균	표준 편차	F/t
전체	1,188	1.68	0.53	-	1,188	1.78	0.57	-
성별								
남자	584	1.62	0.51	-4.01***	584	1.69	0.55	-5.59***
여자	604	1.74	0.54		604	1.87	0.57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350	1.70	0.54	0.75	277	1.83	0.55	0.77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403	1.69	0.52		344	1.77	0.57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288	1.79	0.52		306	1.77	0.59	
400만원 이상	147	1.62	0.55		261	1.76	0.54	
부모 학력								
중졸 이하	69	1.80[a]	0.52	4.48*	67	1.86	0.63	0.70
고졸이하	555	1.72[b]	0.53		545	1.78	0.57	
대졸이상	549	1.64[c]	0.52		546	1.77	0.55	
집단괴롭힘 피해경험								
없다	1,092	1.65	0.51	-7.75***	1,125	1.76	0.51	-4.68***
있다	96	2.08	0.57		63	2.10	0.50	
학교 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어른								
없다	561	1.76	0.54	4.98***	477	1.85	0.48	3.34**
있다	627	1.61	0.51		711	1.74	0.52	
학교 밖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어른								
없다	767	1.73	0.53	4.33***	836	1.81	0.57	2.56*
있다	421	1.60	0.53		352	1.72	0.55	

*p<.05, **p<.01, ***p<.001. Tukey : c < a

표 Ⅵ-4 사회적 위축

구분	2015년 (중2 시기)				2018년 (고2 시기)			
	사례수 (명)	평균	표준 편차	F/t	사례수 (명)	평균	표준 편차	F/t
전체	1,188	2.35	0.74	-	1,188	2.40	0.73	-
성별								
남자	584	2.29	0.75	-2.80**	584	2.36	0.75	-1.75
여자	604	2.41	0.72		604	2.43	0.72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350	2.38	0.75	1.42	277	2.49	0.70	2.61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403	2.38	0.72		344	2.40	0.75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288	2.31	0.75		306	2.37	0.71	
400만원 이상	147	2.27	0.72		261	2.34	0.76	
부모 학력								
중졸 이하	69	2.36	0.71	1.74	67	2.48[a]	0.73	4.41*
고졸이하	555	2.38	0.73		545	2.46[b]	0.71	
대졸이상	549	2.30	0.75		546	2.33[c]	0.75	
집단괴롭힘 피해경험								
없다	1,092	2.33	0.74	-2.89**	1,125	2.38	0.73	-3.05**
있다	96	2.56	0.72		63	2.67	0.70	
학교 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어른								
없다	561	2.43	0.73	3.79***	477	2.42	0.72	0.92
있다	627	2.27	0.73		711	2.38	0.74	
학교 밖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어른								
없다	767	2.41	0.73	3.96***	836	2.43	0.75	2.31*
있다	421	2.23	0.75		352	2.32	0.69	

*p<.05, **p<.01, ***p<.001. Bonferroni: c < a

2) 심층모형분석

(1) 분석개요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응 현황에 대한 기초분석을 바탕으로 중학교와 고등학교 재학 시기 동안의 변화 양상은 어떠하고, 그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심층모형분석을 통해 확인하고자 하였다. 심층모형분석은 크게 세 단계에 걸쳐 수행되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잠재프로파일분석(latent profile analysis: LPA)을 적용하여 2015년(중2 시기)과 2018년(고2 시기) 각 연도별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응의 유형에 따른 잠재프로파일을 분류하였다. 잠재프로파일분석은 모집단이 두 개 이상의 이질적(heterogeneous) 잠재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모집단을 구성하고 있는 잠재집단 또는 잠재프로파일을 분류하는 분석방법이다. 잠재프로파일분석은 잠재계층분석(latent class analysis: LCA)과 혼용되어 사용되기도 하는데, 두 분석방법은 이론적으로는 동일하나 잠재특성의 측정변인 유형에 따라 다르게 명명된다. 일반적으로 연속변인을 사용하여 잠재특성을 측정하는 경우를 잠재프로파일분석이라 부르고, 범주형 변인을 사용하여 잠재특성을 측정할 경우 잠재계층분석이라 부른다(Collins & Lanza, 2010).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응이라는 잠재특성을 4개의 연속변인인 삶의 만족도, 신체만족도, 우울, 사회적 위축을 통해 측정하므로 잠재프로파일분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2015년(중2 시기)과 2018년(고2 시기) 자료를 사용하여 각 시점의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응 잠재프로파일의 수를 결정하고, 잠재프로파일의 특성이 어떠한지를 파악하는 것이 심층모형분석 첫 번째 단계의 주요 목적이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잠재전이분석(latent transition analysis: LTA)을 적용하

여 2015년(중2 시기)과 2018년(고2 시기) 두 시점에서 분류된 잠재프로파일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잠재전이분석이란 종단적 잠재프로파일분석(또는 잠재계층분석)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두 시점 이상의 종단자료에서 각 시점별로 잠재프로파일을 분류하는 동시에 시점 간 잠재프로파일의 전이확률을 추정하여 시점에 따른 잠재프로파일의 변화 양상을 파악하는데 사용되는 분석방법이다(Collins & Lanza, 2010). 잠재전이분석에서는 이전 시점에서 분류된 잠재프로파일이 다음 시점에서의 잠재프로파일 분류에 영향을 주는 것을 막기 위하여 3단계 접근법(3-step approach, Asparouhov & Muthén, 2014)을 적용하였다. 3단계 접근법은 잠재계층을 분류할 때 투입되는 공변인에 따라 잠재계층 분류결과가 달라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된 방법으로, 보다 정확한 잠재집단 분류를 위해 추천되고 있다(Kamata, Kara, Patarapichayatham, & Lan, 2018; Nylund-Gibsosn, Grimm, Quirk, & Furlong, 2014).

3단계 접근법을 간단하게 기술하면, 우선적으로 공변인이 투입되지 않은 무조건 모형을 통해 적합한 잠재계층의 수를 결정하고, 이때 추정된 개인별 각 잠재계층에 할당될 확률을 바탕으로 최대 확률 계층변인(the most likely class variable)을 생성한다. 그런 뒤, 각 잠재계층의 크기와 확률을 사용하여 참조집단에 속할 확률 대비 각 잠재계층에 속할 확률의 로짓(logit)값을 계산하여 공변인이 투입된 연구모형을 분석할 때 고정한다. 이와 같이 각 잠재계층으로 할당될 조건부 확률을 고정함으로써 잠재계층 분류에 미치는 공변인의 영향이 제거된다. 이 단계에서는 첫 번째 단계에서 파악된 중학교와 고등학교 시기의 심리·사회적응 잠재프로파일 간 전이확률을 추정하여 각 잠재프로파일로 나타난 심리·사회적응 특성의 안정성과 변화양상을 심층적으로 탐색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설정하였다.

심층모형분석의 마지막 단계는 두 번째 단계에서 밝혀진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응 잠재프로파일 전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선행연구 분석과 기초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도출된 변인을 무조건 잠재프로파일 전이모형에 추가하여 최종 연구모형을 분석하였다. 기초분석결과에서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주요요인으로 밝혀진 '성별', '집단괴롭힘 피해경험', '학교 안과 밖에서 도움을 주는 어른의 존재 여부'가 각 연도별 잠재프로파일 분류 및 전이 양상을 탐색하기 위한 공변인으로 사용되었다.

또한 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응에 영향을 주는 주요요인으로 여러 선행연구(김민주, 윤기봉, 2018; 김지혜, 2012; 남영옥, 2012; 봉초운 외, 2018; 오은진, 성경미, 2018; 이소연, 2018; 이영주, 2007; 정문경, 2013; 천희영, 이미란, 2015; Walsh et al., 2015)에서 밝혀진 가정 및 친구의 지지의 대리변인인 '가족의 지지'와 '친한 친구의 수'도 함께 심층모형에 추가되었다. 이와 함께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응에 관한 연구(김민주, 윤기봉, 2018; 모상현, 2018; 이소연, 2018; 허청아, 그레이스 정, 2018; Berry et al., 2006; Curtis et al., 2018; Walsh et al., 2015)에서 주요 영향요인으로 사용되는 문화적응 요인에 해당하는 이중문화 수용태도를 '한국문화 수용태도'와 '어머니 나라문화 수용태도'로 구분하여 심층모형에 투입하였다. 이상 기술된 심층모형분석의 세 단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영향요인으로 사용된 변인들 가운데 '친한 친구의 수', '가족의 지지', '한국문화 수용태도', '어머니 나라문화 수용태도'는 연속 변인으로, 변인 값이 커질수록 해당 변인의 긍정적인 정도가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성별', ' 집단괴롭힘 피해경험', '학교 안과 밖에서 도움을 주는 어른의 존재 여부'는 범주형 변인으로, 각 변인 값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성별'의 경우, 변인 값 '0'은 여학생을 의미하고, '1'은 남학생을 의미한다. '집단괴롭힘 피해경험', '학교 안과 밖에서 도움을 주는 어른의 존재 여부'의 경우, '0'은 없음을 의미하고, '1'은 있음을 의미하도록 변인 값을 설정하였다. 이상 기술한 다문화청소년 심리·사회적응 현황 파악을 위한 심층모형분석의 3단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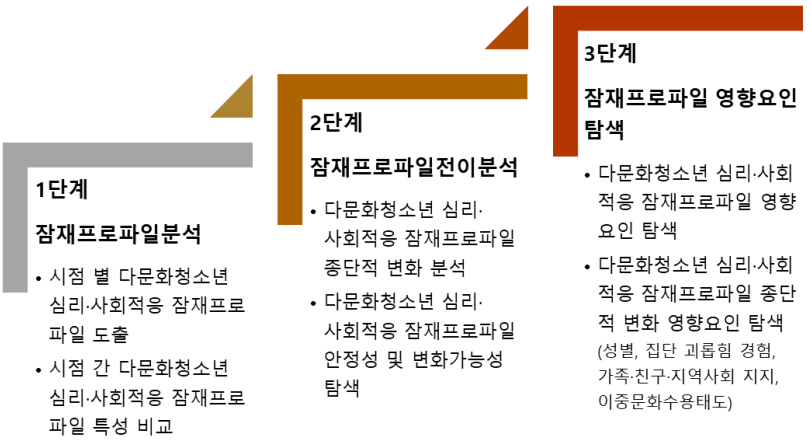


그림 Ⅵ-1. 심층모형분석 3단계

(2) 심층모형 분석결과

① 심리·사회적응 잠재프로파일 특성

먼저 2015년(중2 시기)과 2018년(고2 시기)의 심리·사회적응 잠재프로파일 유형을 분류하기 위해서 잠재프로파일의 수를 2개부터 5개까지 늘려가며 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하였다. 잠재프로파일의 수를 결정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우도기반 정보지수(likelihood-based information indices)인 AIC (Akaike Information Criterion), BIC(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 SABIC(Sample size-Adjusted BIC)가 사용되었으며, 이와 함께 분류의 정확도를 보여주는 엔트로피(entropy)도 함께 사용하였다. 정보지수는 상대적 모형 적합도 지수로 값이 작아질수록 더 좋은 모형 적합도를 의미하는데, 일반적으로 정보지수는 모형이 복잡해질수록 더 작아지는 경향이 있다. 엔트로피는 1에 가까울수록 잠재프로파일의 분류 정확도는 높아지는 것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0.8

이상이면 분류의 질이 확보된 것으로 간주된다(Lubke & Muthén, 2007).

아래 제시된 2015년(중2 시기)과 2018년도(고2 시기) 잠재프로파일분석의 모형 적합도에 따르면, 잠재프로파일의 수가 증가할수록 AIC, BIC, SABIC는 모두 감소하였고, 잠재프로파일의 수가 3개 이상일 때 엔트로피 값은 0.8보다 컸다. 잠재프로파일의 수를 결정할 때 모형 적합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지만, 복잡한 모형을 더 선호하는 정보지수의 특성을 감안하여 정보지수의 감소 기울기도 함께 고려할 수 있다(노언경, 홍세희, 2012). 또한, 분류된 잠재프로파일의 해석 가능성과 그 의미도 잠재프로파일의 수를 결정하는 데 고려해야하는 주요요인이다.

표 Ⅵ-5 모형 적합도

구분		잠재프로파일 수			
		2개	3개	4개	5개
2015	AIC	7,457.28	**7,034.25**	6,887.20	6,759.70
	BIC	7,523.32	**7,125.69**	7,004.04	6,901.95
	SABIC	7,482.02	**7,068.51**	6,930.99	6,813.01
	엔트로피	.76	**.94**	.95	.82
	진단크기 (%)	641(54.0%)	**681(57.3%)**	117(9.8%)	209(17.6%)
		547(46.0%)	**398(33.5%)**	398(32.7%)	164(13.8%)
		-	**109(9.2%)**	13(1.1%)	228(19.2%)
		-	-	670(56.4%)	96(8.1%)
		-	-	-	491(41.3%)
2018	AIC	7635.19	7335.27	**7127.96**	7013.04
	BIC	7701.23	7426.71	**7244.80**	7155.28
	SABIC	7659.93	7369.53	**7171.75**	7066.34
	엔트로피	.75	.85	**.82**	.84
	진단크기 (%)	754(63.5%)	120(10.1%)	**613(51.6%)**	18(1.5%)
		434(36.5%)	414(34.8%)	**167(14.1%)**	164(13.7%)
		-	654(55.1%)	**289(24.3%)**	574(48.0%)
		-	-	**119(10.0%)**	282(23.6%)
		-	-	-	159(1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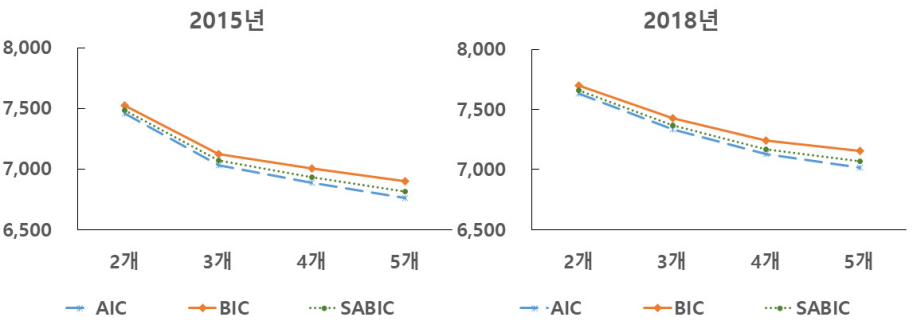


그림 Ⅵ-2. 모형 적합도 비교

이와 같이 다양한 측면을 종합해보면, 2015년(중2 시기)의 경우, 잠재프로파일의 수가 3개 이상일 때 정보지수 감소의 폭이 작아졌으며, 잠재프로파일의 수를 4개로 분류할 경우 세 번째 잠재프로파일로 분류되는 사례 수는 전체의 1.1%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여 3개 잠재프로파일 모형을 최적모형으로 선택하였다. 이와 비슷하게 2018년(고2 시기)에는 4개 잠재프로파일 모형에서 정보지수 감소 기울기가 상대적으로 완만해지며, 5개 잠재프로파일 모형에서 분류된 첫 번째 프로파일에 할당되는 청소년의 수는 18명(1.5%)으로 매우 낮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따라서 2018년(고2 시기) 잠재프로파일분석결과, 4개 잠재프로파일 모형이 최적모형으로 결정되었다.

최적모형을 통해 분류된 2015년(중2 시기)과 2018년(고2 시기)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응 잠재프로파일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3개의 잠재프로파일모형이 최적모형으로 선택된 2015년(중2 시기)의 경우, 첫 번째 프로파일은 긍정적 심리·사회적응 정도를 보여주는 삶의 만족도와 신체만족도와 부정적 심리·사회적응 정도를 보여주는 우울과 사회적 위축 모두 전체적으로 중간 수준을 보이며, 절반 이상의 청소년들이 해당 잠재프로파일에 할당되었다.

두 번째 프로파일은 높은 삶의 만족도와 신체만족도를 보이며 동시에 낮은 수준

의 우울과 사회적 위축을 보이는 집단으로, 약 34%의 청소년이 해당 잠재프로파일로 분류되었다. 마지막 잠재프로파일에는 세 잠재프로파일 가운데 가장 낮은 비율의 청소년들이 할당되었으며, 다른 잠재프로파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만족도와 높은 수준의 우울 및 사회적 위축을 보였다. 각 잠재프로파일의 형태의 특성을 바탕으로 첫 번째 잠재프로파일은 '평균 적응', 두 번째 잠재프로파일은 '우수 적응', 세 번째 잠재프로파일은 '부적응'으로 명명하였다.

추출된 3개 잠재프로파일의 심리·사회적응 변인들을 비교해보면, 삶의 만족도의 프로파일 간 차이가 가장 큰 것(1.85 = 3.87-2.02)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프로파일 간 차이가 큰 것은 우울(1.14=2.42-1.28) 이었으며, 신체 만족도와 사회적 위축의 프로파일 간 평균차이는 각각 0.82, 0.74로 크지 않았다. 따라서 2015년 잠재프로파일을 결정하는 데 있어 삶의 만족도와 우울의 영향력이 신체만족도와 사회적 위축에 비해 클 것으로 예측된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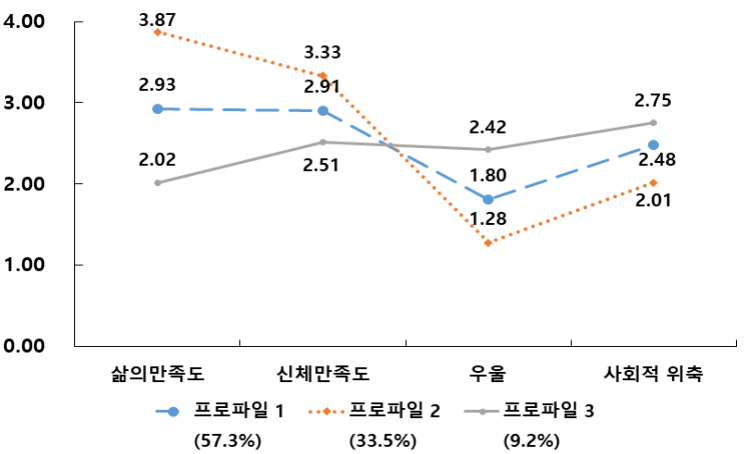


그림 Ⅵ-3. 2015년(중2 시기) 잠재프로파일 유형

2018년(고2 시기)에는 4개의 잠재프로파일이 분류되었는데, 그 중에서 3개의 잠재프로파일은 2015년(중2 시기)에 분류된 잠재프로파일과 거의 동일한 형태를 보였다. 즉, 첫 번째 잠재프로파일은 2015년(중2 시기) '평균 적응' 프로파일에 상응하는 형태를 보였고, 두 번째 잠재프로파일은 '우수 적응'에 대응되는 집단이며, 마지막 잠재프로파일은 '부적응'에 해당하는 형태를 보였다. 하지만 세 번째 잠재프로파일은 2015년(중2 시기)에는 도출되지 않았던 새로운 형태로, 삶의 만족도와 신체만족도는 중간 수준인 반면 우울과 사회적 위축 수준은 매우 낮은 수준을 보였다. 2018년(고2 시기) 분석에서 새롭게 도출된 세 번째 잠재프로파일은 '평균-우수 적응'으로 명명하였다.

2015년(중2 시기)과 유사하게, 2018년(고2 시기)에도 가장 높은 비율의 청소년이 할당된 잠재프로파일은 '평균 적응'으로 약 52%가 포함되었고, '부적응' 프로파일에 할당된 청소년의 비율은 약 10%로 가장 낮았다. 이는 심리·사회적응에 문제를 보이는 다문화청소년의 비율은 그리 높지 않은 수준이며,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학교급이 높아짐에 따른 부적응 현상 역시 두드러지지 않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우수 적응' 프로파일을 보이는 다문화청소년의 비율이 2015년(중2 시기) 약 34%에서 2018년에는 약 14%로 상당히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대신 2018년(고2 시기)에 새롭게 도출된 '평균-우수 적응' 프로파일을 보이는 다문화청소년의 비율은 약 24%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각 잠재프로파일의 비율을 비교해 볼 때, 2015년(중2 시기)에 '우수 적응' 프로파일을 보이던 상당수의 다문화청소년들이 2018년(고2 시기) '평균-우수 적응' 프로파일로 전이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하지만 2015년(중2 시기)과 2018년(고2 시기) 심리·사회적응 잠재프로파일의 변화에 대한 보다 정확하고 타당한 해석은 두 번째 단계에 해당하는 잠재전이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도출할 수 있다.

2018년(고2 시기)에 추출된 잠재프로파일 간 각 변인이 평균 차이는 전반적으로 2015년(중2 시기) 프로파일 간 평균 차이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다. 특히, 2015

년(중2 시기)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던 신체만족도와 사회적 위축의 프로파일 간 평균 차는 각각 1.15, 1.19로 증가하여, 프로파일 추출에 있어 두 변인의 영향은 2015년(중2 시기)에 비해 커졌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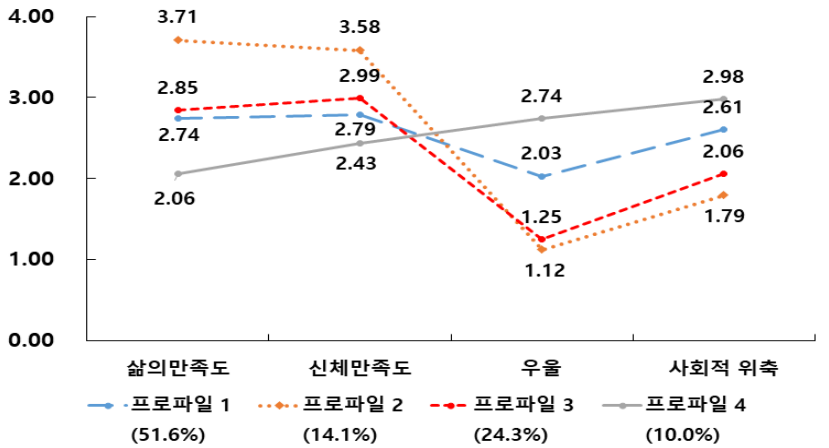


그림 Ⅵ-4. 2018년(고2 시기) 잠재프로파일 유형

② 심리·사회적응 잠재프로파일 종단적 변화

2015년(중2 시기)과 2018년(고2 시기) 잠재프로파일분석을 통해 도출된 개인별 최대 확률 계층변인을 사용하여 잠재전이분석을 실시하였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잠재전이분석을 위해 3단계 접근법을 사용하였으므로 2015년(중2 시기)과 2018년(고2 시기) 잠재프로파일의 비율은 잠재프로파일분석을 통해 산출된 비율과 동일하다. 2015년(중2 시기)에 분류된 잠재프로파일의 수는 3개이고, 2018년(고2 시기)에 분류된 잠재프로파일은 4개이므로, 가능한 잠재프로파일 전이형태는 총 12개가 된다. 2015년(중2 시기)에 도출된 잠재프로파일을 예측변인으로 할 때, 2018년(고2 시기)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응 잠재프로파일의 전이형

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5년(중2 시기)에 '평균 적응'으로 분류되었던 다문화청소년의 59%가 2018년(고2 시기)에도 동일하게 '평균 적응'으로 분류되었고, 23%의 다문화청소년은 '평균-우수 적응'으로 전이되었다. '평균 적응'에서 '부적응'으로 전이된 비율도 10% 정도 나타났으며,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인 전이형태는 '평균 적응'에서 '우수 적응'으로 전이된 것으로 그 비율은 8%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전이형태를 바탕으로 '평균 적응' 프로파일은 비교적 안정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평균 적응'과 달리, 2015년(중2 시기)에 '우수 적응'의 잠재프로파일을 보였던 다문화청소년들 가운데 2018년(고2 시기)에도 '우수 적응'으로 유지된 비율은 28%에 불과하였다. 반면, '우수 적응'에서 '보통 적응'으로 전이된 비율은 40%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평균-우수'로 전이된 비율은 '우수 적응'을 유지한 비율과 동일한 28%였다. '우수 적응'과 가장 반대되는 특성을 보이는 '부적응'으로 전이된 비율은 4%로 매우 낮았다. 결과적으로 '우수 적응' 프로파일의 경우, '평균 적응'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낮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2015년(중2 시기) '부적응'을 보였던 다문화청소년들이 2018년(고2 시기)에도 '부적응' 특성을 유지한 비율은 31%였고, '부적응'에서 '평균 적응'과 '평균-우수 적응'으로 전이된 비율은 각각 48%, 18%로 나타났다. 또한 '부적응'에서 '우수 적응'으로 특성이 가장 크게 변화된 경우는 3%에 그쳤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부적응' 프로파일의 변화가능성이 다른 잠재프로파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이다. 즉, 2015년(중2 시기)에 '부적응' 특성을 보인 다문화청소년의 절반 이상이 2018년(고2 시기)에는 상대적으로 성공적인 심리·사회적응 상태로 볼 수 있는 '평균 적응'과 '평균-우수 적응'으로 전이된 것이다. 따라서 심층모형분석의 세 번째 단계에서는 이와 같은 전이형태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탐색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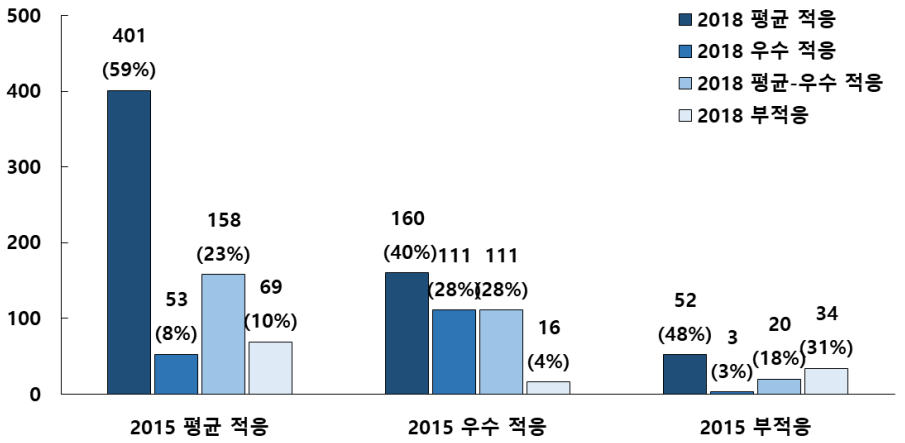


그림 Ⅵ-5. 2015-2018년 잠재프로파일 전이형태

③ 잠재프로파일과 영향요인 간 관계

심층모형분석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앞선 두 단계에서 도출된 2015년(중2 시기)과 2018년(고2 시기)의 심리·사회적응 잠재프로파일의 특성과 종단적 변화양상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탐색하였다. 2015년(중2 시기)의 잠재프로파일 특성의 영향요인으로는 성별, 집단괴롭힘 피해경험 유무, 친구의 지지정도를 보여주는 친한 친구의 수, 가족의 지지 변인, 지역사회의 지지정도를 나타내는 학교 안과 밖에서 도움을 주는 어른의 존재 여부, 이중문화수용태도로 한국문화 수용태도와 어머니 나라문화 수용태도가 사용되었다. 동시에 이들 변인이 잠재프로파일의 종단적 변화에 주는 영향도 함께 분석하였다.

2018년(고2 시기) 역시 성별을 제외한 동일한 변인이 영향요인으로 사용되었다. 성별 변인이 제외된 이유는 성별 변인은 시간에 의해 변하지 않는 시간독립적 변수로 2015년(중2 시기) 잠재프로파일 예측과 2015년(중2 시기)년에서 2018년(고2 시기) 전이확률 예측을 위해 이미 투입되었으므로, 2018년(고2 시기) 잠재프

로파일 예측을 위한 중복투입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최종 연구모형에 투입된 변인들은 모두 시간에 따라 값이 변화하는 시간의존적 변인이므로 2018년(고2 시기) 패널조사 자료가 사용되었다. 이상의 분석을 위해 사용한 최종 연구모형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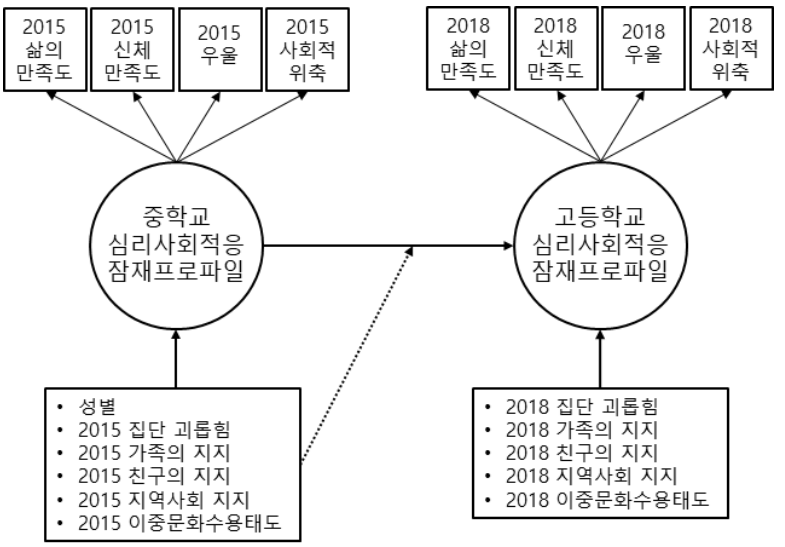


그림 VI-6. 최종 연구모형

먼저 2015년(중2 시기)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응 잠재프로파일 분류의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았다. '부적응'을 참조집단으로 설정하고 '평균적응'과 비교할 때, 유의한 영향을 주는 변인은 집단괴롭힘 피해경험과 가족의 지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괴롭힘 피해경험의 계수는 -1.84, 승산비는 0.16으로 추정되었다. 해당 분석에서 추정된 계수는 로짓값으로 0보다 큰 값은 참조집단에 속할 확률보다 관심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반대로 0보다 작은 계수는 참조집단에 속할 확률이 관심집단에 속할 확률보다 높음을 뜻한다.

승산비는 참조집단에 속할 확률과 관심집단에 속할 확률의 비로 승산비가 1일 경우는 참조집단과 관심집단에 속할 확률이 동일한 것을 의미하고, 승산비가 1보다 작은 것은 참조집단에 속할 확률이 더 높음을 의미한다. 반대로 승산비가 1보다 큰 것은 관심집단에 속할 확률이 더 큰 것을 뜻한다. 따라서 집단괴롭힘 피해경험이 있었던 다문화청소년이 심리·사회적응에서 '부적응'의 특성을 보일 확률이 '평균 적응'의 특성을 보일 확률보다 유의미하게 더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가족지지의 경우, 추정된 계수는 2.37, 승산비는 10.73으로 가족의 지지가 높을수록 '부적응' 특성을 가질 가능성 보다는 '평균 적응'의 특성을 보일 가능성이 유의미하게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부적응' 프로파일 대비 '우수 적응' 프로파일로 분류될 확률을 비교해 보면, 친한 친구의 수와 학교 밖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른의 존재여부 변인을 제외한 연구모형에 투입된 모든 변인들이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남학생)의 계수는 0.98, 승산비는 2.67로 여학생에 비하여 남학생이 상대적으로 '부적응' 프로파일보다 '우수 적응' 프로파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았고, 집단괴롭힘 피해경험의 계수와 승산비는 각각 -2.11, 0.12로 '평균 적응'에서와 마찬가지로 '부적응'과 비교할 때, '우수 적응' 프로파일로 분류될 확률에 부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가족의 지지, 학교 안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른의 존재, 한국문화 수용태도, 어머니 나라문화 수용태도는 '부적응' 대비 '우수 적응' 프로파일로 분류될 가능성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들 변인 중에서 가족의 지지 계수값은 4.05, 승산비는 57.39로 다른 변인들에 비해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응에 있어 '우수 적응' 특성을 가지는 데 강한 영향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표 Ⅵ-6 2015년(중2 시기) 심리·사회적응 잠재프로파일 분류 영향 요인

잠재 프로파일	영향요인	계수 추정 값		
		계수	표준오차	승산비
평균 적응	성별(남학생)	0.51	0.29	1.66
	집단괴롭힘 피해경험	-1.84***	0.35	0.16
	친한 친구 수	0.02	0.03	1.02
	가족의 지지	2.37***	0.36	10.73
	사회적 지지(학교 내)	0.34	0.28	1.40
	사회적 지지(학교 밖)	-0.07	0.32	0.94
	한국문화 수용태도	0.34	0.37	1.44
	어머니나라문화 수용태도	0.45	0.29	1.57
우수 적응	성별(남학생)	0.98**	0.32	2.67
	집단괴롭힘 피해경험	-2.11***	0.53	0.12
	친한 친구 수	0.05	0.03	1.05
	가족의 지지	4.05***	0.46	57.39
	사회적 지지(학교 내)	0.65*	0.31	1.92
	사회적 지지(학교 밖)	-0.04	0.35	0.96
	한국문화 수용태도	1.91***	0.43	6.76
	어머니나라문화 수용태도	0.82*	0.33	2.27

※ 참조집단은 '부적응'임. *p<.05, **p<.01, ***p<.001

다음으로 2018년(고2 시기)의 4개 잠재프로파일과 유의한 영향을 주는 변인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부적응'을 참조집단으로 설정할 때, '평균 적응'으로 분류될 확률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변인은 집단괴롭힘 피해경험과 가족의 지지로 확인되었다. 집단괴롭힘 피해경험의 추정 계수와 승산비는 -1.31, 0.32로, 집단괴롭힘 피해경험이 '부적응'의 특성을 가질 가능성을 더 높이는데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가족지지의 계수와 승산비는 각각

2.59, 13.28로 높은 가족지지가 '부적응' 보다 '평균 적응' 특성을 가질 확률이 더 높은 것이 확인되었다.

심리·사회적응에 있어 '부적응' 대비 '우수 적응'의 특성을 나타낼 확률 역시 집단괴롭힘 피해경험이 없고, 가족의 지지가 높을수록 유의하게 높았다. 더불어 한국문화 수용태도의 정적인 영향이 발견되었다. 한국문화 수용태도의 추정 계수는 2.32, 승산비는 10.20으로, 이는 한국문화를 수용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부적응'보다는 '우수 적응'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2018년(고2 시기)에 새롭게 도출된 '평균-우수 적응'의 경우, 집단괴롭힘 피해경험, 가족지지, 한국문화 수용태도가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집단괴롭힘 피해경험의 추정 계수는 -1.66, 승산비는 0.19로 다른 잠재프로파일과 마찬가지로 집단괴롭힘 경험이 없는 경우 '부적응' 대비 '평균-우수 적응'의 특성을 보일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 확인되었다. 가족의 지지의 계수는 3.54, 승산비는 34.47이었으며, 한국문화 수용태도의 계수는 1.10, 승산비는 2.75였다. 따라서 가족의 지지가 높고 한국문화를 수용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부적응'보다 '평균-우수 적응'으로 분류될 확률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Ⅵ-7 2018년(고2 시기) 심리·사회적응 잠재프로파일 분류 영향 요인

잠재 프로파일	영향요인	계수 추정 값		
		계수	표준오차	승산비
평균 적응	집단괴롭힘 피해경험	-1.31*	0.52	0.32
	친한 친구 수	-0.02	0.03	0.98
	가족의 지지	2.59***	0.43	13.28
	사회적 지지(학교내)	0.57	0.36	1.76
	사회적 지지(학교밖)	-0.61	0.43	0.54
	한국문화 수용태도	0.20	0.39	1.23
	어머니나라문화 수용태도	0.41	0.41	1.50
우수 적응	집단괴롭힘 피해경험	-12.45***	2.90	0.00
	친한 친구 수	0.00	0.04	1.00
	가족의 지지	5.49***	0.72	242.14
	사회적 지지(학교 내)	0.47	0.51	1.61
	사회적 지지(학교 밖)	-0.59	0.53	0.56
	한국문화 수용태도	2.32***	0.61	10.20
	어머니나라문화 수용태도	0.44	0.51	1.55
평균-우수 적응	집단괴롭힘 피해경험	-1.66*	0.64	0.19
	친한 친구 수	-0.01	0.03	0.99
	가족의 지지	3.54***	0.58	34.47
	사회적 지지(학교 내)	0.11	0.38	1.11
	사회적 지지(학교 밖)	-0.04	0.44	0.96
	한국문화 수용태도	1.10*	0.44	2.75
	어머니나라문화 수용태도	-0.69	0.43	0.50

※ 참조집단은 '부적응'임. *p<.05, **p<.01, ***p<.001

이상 기술된 2015년(중2 시기)과 2018년(고2 시기) 잠재프로파일 분류의 영향요인 탐색과 더불어 앞서 살펴본 12개 잠재프로파일 전이양상의 영향요인은 무엇인지도 함께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2015년(중2 시기) 잠재프로파일 분류의 영향요인으로 사용되었던 2015년(중2 시기) 기준 집단괴롭힘 피해경험, 친한 친구 수, 가족의 지지, 학교 안과 밖에서 도움을 주는 어른의 존재 여부, 한국문화 수용태도, 어머니나라문화 수용태도가 전이확률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았다. 각 전이양상별 7개 영향요인의 계수 추정 값 중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 경우만 정리하여 제시하면 아래와 같고, 잠재프로파일 전이양상 간 비교를 위해 2018년(고2 시기) '부적응'이 참조집단으로 설정되었다.

표 Ⅵ-8 2015-2018년 심리·사회적응 잠재프로파일전이 영향 요인

잠재프로파일		영향요인	계수 추정 값		
2015	2018		계수	표준 오차	승산비
평균 적응	우수 적응	친한 친구 수	0.12*	0.06	1.13
		어머니나라문화수용태도	-1.92**	0.70	0.15
우수 적응	우수 적응	사회적 지지(학교 내)	3.06*	1.33	21.31
	평균-우수 적응	사회적 지지(학교 내)	3.61**	1.28	36.92
부적응	우수 적응	친한 친구 수	25.66***	0.19	0.00
	평균-우수 적응	성별(남학생)	1.91*	0.85	6.77

※ 참조집단은 2018년 '부적응'임. *p<.05, **p<.01, ***p<.001

'평균 적응'에서 '부적응'으로의 전이와 비교할 때, '평균 적응'에서 '평균 적응'으로의 전이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변인은 없었고, '평균 적응'에서 '우수 적응'으로의 전이에 영향을 주는 변인은 친한 친구의 수와 어머니나라문화 수용태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친한 친구 수의 계수 추정값은 0.12, 승산비는 1.13으로, 다문화청소년이 지각하는 친한 친구의 수가 많을수록 2015년(중2 시기)에 '평균 적응'

특성을 보이던 청소년이 2018년(고2 시기)에 '부적응' 특성을 보일 경우와 비교할 때 '우수 적응'의 특성을 보일 확률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어머니나라문화 수용태도의 계수와 승산비는 각각 -1.92, 0.15로 어머니나라의 문화를 수용하는 경향이 높을수록 '평균 적응'에서 '부적응' 보다 '우수 적응'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중2 시기)에 '우수 적응'의 특성을 가졌던 다문화청소년들이 '부적응'으로 전이할 확률에 비해 '우수 적응'과 '평균-우수 적응'으로 전이될 확률에는 학교 내 도움을 주는 어른의 존재가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추정 계수는 각각 3.06, 3.61이었다. 따라서 '우수 적응'의 특성을 유지하거나, '우수 적응'에서 '부적응'으로 전이하지 않고 '평균-우수 적응'으로 전이할 확률을 높이는 데에는 학교 내 도움을 주는 어른의 존재 여부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부적응'의 특성을 유지할 확률 대비, '평균 적응'으로 전이할 확률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변인은 없었으며, '우수 적응'으로 전이될 확률은 친한 친구의 수가 많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부적응'에서 '우수 적응'으로 전이된 사례 수는 3으로 매우 적어, 나머지 영향요인의 계수 값은 극단적으로 크게 추정되어 통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값이 아닌 것으로 간주하였다. 성별(남학생)의 경우, '부적응'을 유지하는 확률보다 '부적응'에서 '평균-우수'로 전이될 확률을 높이는 데 유의한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확인되었다. 성별(남학생)의 계수와 승산비는 1.91, 2.77로, 이는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부적응'을 유지하는 확률보다 '부적응'에서 '평균-우수'로 전이될 확률이 높음을 의미한다.

3) 요약 및 소결

본 절에서 실시한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응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패널조

사 자료분석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응을 보여주는 삶의 만족도, 신체만족도, 우울, 사회적 위축의 집단별 차이를 비교한 기초분석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정의 사회경제적 변인에 해당하는 월평균 가구소득 수준과 부모의 학력수준은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응 차이를 설명하는 주요 변인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월평균 가구소득 수준에 따른 차이는 오직 2015년(중2 시기) 신체만족도에서만 나타났으며, 부모의 학력 수준에 따른 차이 또한 2015년(중2 시기) 우울과 2018년(고2 시기) 사회적 위축에서만 발견되었다.

반면, 집단괴롭힘 피해경험의 경우, 모든 연도의 4개 심리·사회적응 변인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괴롭힘 피해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피해경험이 없는 청소년에 비해 높은 우울 및 사회적 위축과 낮은 수준의 삶의 만족도와 신체만족도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기존의 여러 선행연구(김혜원, 2011; 오승환, 좌현숙, 2015; 오인수, 2014; 유지희, 황숙연, 2018; 이경아, 이정윤, 양현정, 2005 등)에서 보고된 집단괴롭힘 또는 다문화청소년의 차별경험이 심리·사회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과 맥을 같이한다.

아울러 집단괴롭힘 피해경험과 더불어 사회적 지지 정도를 보여주는 학교 안 또는 밖에서 어려울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어른의 존재 여부에 따라서도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응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교 밖에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어른이 있는 청소년들이 삶의 만족도와 신체만족도는 높은 수준으로 지각하고 있으며, 우울과 사회적 위축수준은 낮은 수준으로 지각하고 있었다. 학교 안에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어른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의 경우 또한, 2018년(고2 시기) 사회적 위축을 제외한 모든 심리·사회적응 변인에서 보다 긍정적인 심리·사회적응 수준을 보여주었다.

이상 기초분석의 주요결과를 종합해보면,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응은 개인 또는 가정의 배경변인에 의해 영향 받기보다는, 집단괴롭힘 피해경험과 같은

부정적인 경험과 이와 같은 어려움을 겪을 때 자신을 도와줄 사람의 존재를 인식하는 것에 더 민감하게 영향 받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다문화청소년들이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체계적 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다문화청소년들이 사회적 지원체계에 대해 인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 홍보 및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어서 기초분석 결과와 선행연구 분석을 바탕으로 실시한 심층모형분석에서는 네 가지 심리·사회적응 변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학교 2학년 재학 시기인 2015년과 고등학교 2학년 재학 시기에 해당하는 2018년의 심리·사회적응 특성을 나타내는 잠재프로파일을 도출하였다. 그런 뒤, 2015년(중2 시기)과 2018년(고2 시기)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응 잠재프로파일의 특성을 비교하고, 종단적 변화양상을 잠재전이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잠재프로파일 분류와 종단적 변화를 설명해주는 영향요인을 탐색하였다. 심층모형분석의 각 단계별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15년(중2 시기)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응은 3개의 잠재프로파일로 분류될 수 있으며, 각 잠재프로파일의 특성에 따라 1) 높은 수준의 삶의 만족도와 신체만족도를 보이며 낮은 수준의 우울 및 사회적 위축이 특징인 '우수 적응', 2) 이와 반대로 높은 수준의 우울과 사회적 위축을 보이고 낮은 수준의 삶의 만족도와 신체만족도를 보이는 '부적응', 3) 이 두 잠재프로파일의 평균 수준의 심리·사회적응을 보이는 '평균 적응'으로 정의되었다.

2018년(고2 시기)의 경우, 2015년(중2 시기)에 정의된 3개의 잠재프로파일과 함께, 평균 수준의 삶의 만족도와 신체만족도를 보이는 반면 '우수 적응'의 수준과 비슷하게 매우 낮은 우울과 사회적 위축이 특징인 '평균-우수 적응'이라는 새로운 잠재프로파일이 추가로 도출되어 총 4개의 잠재프로파일을 통해 2018년(고2 시기)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응을 파악할 수 있었다.

2015년(중2 시기)과 2018년(고2 시기) 모두 가장 높은 비율의 다문화청소년이

분류된 잠재프로파일은 '평균 적응'으로 모두 절반이 조금 넘는 수준이었다. 또한 '부적응'으로 분류된 비율 역시 두 시점 모두 가장 낮았으며, 그 비율은 약 10% 수준으로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응 현황은 심각한 수준은 아님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둘째, 2015년(중2 시기)과 2018년(고2 시기) 심리·사회적응 잠재프로파일 도출을 바탕으로 3년간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잠재프로파일의 전이형태를 살펴본 결과, 약 절반수준의 청소년들이 2015년(중2 시기)과 2018년(고2 시기)에서 '평균 적응'을 유지하며 비교적 안정적인 특성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평균 적응'에서 '우수 적응'으로 전이된 비율보다 '부적응'으로 전이된 비율이 다소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우수 적응'의 경우, '평균 적응'에 비해 2015년(중2 시기)과 2018년(고2 시기) 모두 '우수 적응'을 유지한 비율은 낮았고, 절반 이상이 '평균 적응' 또는 '평균-우수 적응'으로 전이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우수 적응'에서 '부적응'으로의 전이 비율은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비교적 낮은 집단비율을 보여주었던 '부적응'의 경우, 절반 이상이 '부적응'에서 '평균 적응' 또는 '평균-우수 적응'으로 전이되는 비교적 긍정적인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비록 '부적응'을 유지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고 '평균 적응'을 유지하거나 '평균-우수 적응'으로 전이되는 비율이 높았으나, '평균 적응'에서 '부적응'으로의 전이와 '우수 적응'의 유지율 또한 낮은 수준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현재 심리·사회적응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에게만 지원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청소년이 안정적으로 심리·사회적응 상태를 유지하고, 외현적으로 문제가 발현되지 않았으나 잠재적으로 부적응 위기에 있는 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응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응 잠재프로파일 분류의 영향요인을 탐색한 결과, 2015년(중2 시기)과 2018년(고2 시기) 모두 가족의 지지와 집단괴

롭힘 피해경험은 잠재프로파일을 분류하는 유의한 영향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가족의 지지 정도가 높을수록 '부적응'의 특성을 보일 확률에 비해 '평균 적응', '우수 적응', 2018년(고2 시기)의 '평균-우수 적응'의 특성을 보일 확률이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반대로 집단괴롭힘 피해경험은 다른 잠재프로파일에 비해 '부적응'의 특성을 보일 확률을 높이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기초분석을 통해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밝혀졌던 학교 밖에서 도움을 주는 어른의 존재 여부는 2015년(중2 시기) 3개의 잠재프로파일의 특성을 구분하는 데 유의미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기초분석에서는 영향요인 각각의 영향력을 분석한 반면, 심층모형분석에서는 다양한 영향요인들을 한 번에 고려하였기 때문에 다르게 도출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응에 집단괴롭힘 피해경험이나 가족의 지지와 같이 강한 설명력을 가진 변인에 의해 잠재프로파일의 특성 간 차이가 모두 설명되었음을 의미한다.

이와 함께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응 잠재프로파일 전이의 영향요인을 탐색한 결과, 친구의 지지를 보여주는 친한 친구의 수가 '평균 적응' 또는 '부적응'에서 '우수 적응'으로의 전이에 주요한 요인으로 밝혀졌으며, '우수 적응'을 유지하는 것에는 학교 안에서 도움을 요청할 어른의 존재가 주요 영향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15년(중2 시기)과 2018년(고2 시기) 잠재프로파일 분류의 주요 영향요인으로 작용하던 가족지지 변인은 잠재프로파일전이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즉, 가족의 지지는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응 잠재프로파일을 분류함에 있어서는 결정적인 요인이었으나, 심리·사회적응의 종단적 변화에는 친구 또는 학교 안과 밖에서의 도움을 주는 어른의 존재가 더 영향력 있는 요인으로 작용함이 밝혀졌다. 이와 같은 심층모형 분석결과와 함께 기초분석결과에서도 밝혀진 바와 같이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응에는 사회적 지지가 중요한 역할

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학교 안 또는 밖에서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응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에 대한 충분한 고민과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정책마련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이상으로 기술한 주요 분석결과를 기초분석과 심층모형분석으로 구분하고 압축하여 하나의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Ⅵ-9 패널조사 자료분석 주요결과

<table>
<tr><th>구분</th><th>주요 분석결과</th></tr>
<tr><td rowspan="6">1) 기초분석</td><td>■ 중학교 2학년 재학 시기(2015년)와 고등학교 2학년 재학 시기(2018년)를 비교할 때, 긍정적 심리·사회적응 변인인 삶의 만족도와 신체만족도는 낮아졌고, 부정적 심리·사회적응 변인인 우울과 사회적 위축은 높아짐</td></tr>
<tr><td>■ 중학교와 고등학교 재학 시기 모두.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삶의 만족도와 신체만족도는 높고, 우울과 사회적 위축은 낮음</td></tr>
<tr><td>■ 집단괴롭힘 피해 경험이 있는 집단이 상대적으로 낮은 삶의 만족도 및 신체만족도와 높은 수준의 우울 및 사회적 위축을 보임</td></tr>
<tr><td>■ 학교 안에서 어려울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어른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는 집단의 삶의 만족도와 신체만족도는 높으며, 우울과 사회적 위축은 상대적으로 낮음. 단, 고등학교 2학년 재학시기의 사회적 위축은 학교 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어른의 존재여부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음</td></tr>
<tr><td>■ 학교 밖에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어른이 존재하는 집단의 삶의 만족도와 신체만족도가 도움을 요청할 어른이 부재한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으며, 우울과 사회적 위축 수준은 상대적으로 덜함</td></tr>
<tr><td>■ 가정배경변인에 해당하는 월 평균 가구소득 수준에 따른 집단 간 차이는 2015년 신체만족도에만 유의하게 나타났고, 부모의 학력 수준 역시 2015년 우울과 2018년 사회적 위축에서만 유의함</td></tr>
<tr><td>2) 심층모형 분석</td><td>■ 2015년(중2 시기)에 분류된 3개의 심리·사회적응 잠재프로파일 특성
<table>
<tr><th>잠재프로파일</th><th>삶의 만족도</th><th>신체만족도</th><th>우울</th><th>사회적 위축</th></tr>
<tr><td>평균 적응</td><td>보통</td><td>보통</td><td>보통</td><td>보통</td></tr>
<tr><td>우수 적응</td><td>높음</td><td>높음</td><td>낮음</td><td>낮음</td></tr>
<tr><td>부적응</td><td>낮음</td><td>낮음</td><td>높음</td><td>높음</td></tr>
</table></td></tr>
</table>

구분	주요 분석결과

■ 2015(중2 시기)년 심리·사회적응 잠재프로파일 분류의 주요 영향요인

잠재프로파일	긍정요인	부정요인
'부적응' 대비 '평균 적응'	가족의 지지	집단괴롭힘 피해경험
'부적응' 대비 '우수 적응'	성별(남학생), 가족지지, 사회적 지지(학교 내), 한국문화 수용태도, 어머니나라문화 수용태도	집단괴롭힘 피해경험

■ 2018년(고2 시기)에 분류된 4개의 심리·사회적응 잠재프로파일 특성

잠재프로파일	삶의 만족도	신체만족도	우울	사회적 위축
평균 적응	보통	보통	보통	보통
우수 적응	높음	높음	낮음	낮음
평균-우수 적응	보통	보통	낮음	낮음
부적응	낮음	낮음	높음	높음

■ 2018년(고2 시기) 심리·사회적응 잠재프로파일 분류의 주요 영향요인

잠재프로파일	긍정요인	부정요인
'부적응' 대비 '평균 적응'	가족의 지지	집단괴롭힘 피해경험
'부적응' 대비 '우수 적응'	가족지지, 한국문화 수용태도	집단괴롭힘 피해경험
'부적응' 대비 '평균-우수 적응'	가족지지, 한국문화 수용태도	집단괴롭힘 피해경험

■ 2015-2018년 심리·사회적응 잠재프로파일 전이의 주요 영향요인

전이유형	영향요인
'평균 적응'→'부적응' 대비 '평균 적응'→'우수 적응'	긍정요인: 친한 친구의 수 부정요인: 어머니나라문화수용태도
'우수 적응'→'부적응' 대비 '우수 적응'→'우수 적응'	긍정요인: 사회적 지지(학교 내) 부정요인: 없음
'우수 적응'→'부적응' 대비 '우수 적응'→'평균-우수 적응'	긍정요인: 사회적 지지(학교 내) 부정요인: 없음

구분	주요 분석결과	
	‘부적응’→‘부적응’ 대비 ‘부적응’→‘우수 적응’	긍정요인: 친한 친구 수 부정요인: 없음
	‘부적응’→‘부적응’ 대비 ‘부적응’→‘평균-우수 적응’	긍정요인: 성별(남학생) 부정요인: 없음

3.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응 관련 요구도

다음으로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응 및 위기지원을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 마련의 근거를 도출하고자 크게 세 가지를 추진하였다. 첫째, 그간 구축한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응 지원경험 및 요구에 대한 패널조사 자료를 분석하였다. 둘째, 당사자들의 요구를 직접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다문화청소년과 그들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면접조사(FGI)를 실시하였다. 셋째, 다문화청소년을 둘러싼 학교교사, 현장전문가 등 전문가 자문회의를 추진함으로 당사자들이 파악하지 못하는 보다 객관적 시각을 반영하고자 하였다.

1) 설문조사 분석

(1) 분석자료

앞서 살펴본 다문화청소년의 8년간 변화추이 분석결과에 따르면 심리·사회적응 관련 변인들은 대체로 중학교 진학 이후부터 변화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분석에서도 이 시기 동안(2014년부터 2018년)의 패널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심리·사회적응 관련 지원 경험을 먼저 살펴본 뒤, 다문화청소년과 그들의 어머니가 생각하는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지원의 필요성, 희망하는 지원 방식

및 지원의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이번 년도 연구에서는 중학교 재학 시기인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다문화청소년을 위한 지원에 대한 요구도를 분석한 2016년(양계민 외, 2016) 연구결과를 기초로, 고등학교 재학 시기에 해당하는 2017년과 2018년의 패널조사 자료분석결과를 추가하였다.

(2) 분석내용

분석의 내용으로는 학교나 다른 기관에서 다문화가정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을 받은 경험의 유무와 경험한 지원의 종류, 그리고 지원 받은 프로그램의 도움정도에 대한 응답을 분석하여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응을 위한 지원 현황과 지원에 대한 도움정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다문화청소년과 그들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방식 및 희망 지원종류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문항의 응답 분석을 통해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응과 관련된 요구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3) 분석결과

①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특별지원 경험

우선 학교 또는 기타 기관에서 제공하는 다문화가정을 위한 특별 지원의 경험에 대해 질문한 결과 특별지원을 경험한 다문화청소년의 비율은 높은 편이 아니었으며, 학년이 올라갈수록 그 비율은 점점 더 감소하였다. 2014년 조사가 실시된 중학교 1학년 시기의 경우, 지원을 경험한 청소년은 전체의 약 32% 수준이었으나,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2018년 조사에서는 그 비율이 16.4%로 중학교 1학년 재학시기의 절반 수준으로 낮아졌다.

표 Ⅵ-10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지원 경험 여부(2014~2018년)

단위: 빈도(%)

년도	다문화가정 자녀대상 지원 경험 여부		
	있다	없다	전체
2014	437(31.7)	943(68.3)	1,380(100)
2015	418(31.0)	929(69.0)	1,347(100)
2016	327(24.6)	1,002(75.4)	1,329(100)
2017	233(18.5)	1,027(81.5)	1,260(100)
2018	196(16.4)	1,001(83.6)	1,197(100)

이어서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특별지원을 경험하였다고 응답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지원 유형별 경험률을 살펴보았다. 특별지원의 유형에 따른 경험 여부를 조사한 문항은 다문화청소년이 고등학교에 진학한 시점인 2017년도에 학교급 수준을 고려하여 일부 수정되었다. 중학교 재학 시기에 해당하는 2014년에서 2016년 조사에서는 14개 유형으로 특별지원 분류하여 경험여부를 조사하였으나, 2017년 조사부터는 6개 유형으로 재범주화하여 조사하였다. 〈표 Ⅵ-11〉에 제시된 2014년에서 2016년의 지원 유형별 경험률은 2016년 연구(양계민 외, 2016: 196)에서 보고된 값을 사용하였으며, 경험한 지원 유형을 모두 고르는 방식의 중복응답 문항이었다. 따라서 제시된 비율은 각 연도별 전체 응답자 수를 기준으로 산출된 비율로 총합은 100%를 초과할 수 있다.

먼저 중학교 재학 시기의 지원 유형별 경험률을 살펴보면, 방과 후 수업료 지원과 대학생 멘토링이 3년간 지속적으로 높았다. 급식비 지원을 받은 청소년의 비율은 2014, 2015년에 비해 2016년도에는 크게 낮아졌으며, 대부분 유형의 지원에 대한 경험률은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감소하였다. 이는 특별지원을 경험한 청소년의 수의 감소 현상과 더불어 동시에 여러 유형의 특별지원을 경험한 청소년의 수도 함께 감소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고등학교 진학 이후에는 현금지원이 가장 높은 비율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Ⅵ-11 지원 유형별 경험률(2014~2016년)

단위: 빈도(%), 중복응답 문항

유형	2014년	2015년	2016년
방과 후 수업료 지원	152(34.8)	134(34.2)	106(32.4)
문화공연관람	84(19.2)	72(17.2)	54(16.5)
놀이공원 방문	43(9.8)	23(5.5)	25(7.6)
문화체험 활동	105(24.0)	84(20.1)	63(19.3)
특기적성 프로그램	46(10.5)	34(8.1)	17(5.2)
심리적응 프로그램	2(7.1)	20(4.8)	12(3.7)
물적지원	36(8.2)	36(8.6)	29(8.9)
대학생 멘토링	140(32.0)	131(31.3)	81(24.8)
학습보조 선생님 지원	9(2.1)	9(2.2)	5(1.5)
이중언어교실	19(4.3)	13(3.1)	5(1.5)
한국어 교육 지원	4(0.9)	3(0.7)	2(0.6)
학습지 지원	22(5.0)	18(4.3)	17(5.2)
급식비 지원	103(23.6)	101(24.2)	83(5.1)
진로지원	18(4.1)	21(5.0)	22(6.7)

* 출처: 양계민 외(2016: 196) 표 Ⅴ-60 수정

표 Ⅵ-12 지원 유형별 경험률(2017~2018년)

단위: 빈도(%), 중복응답 문항

유형	2017년	2018년
현금지원(장학금 등)	131(56.2)	115(58.7)
물적지원(책, 학용품 등)	49(21.0)	29(14.8)
학습지원(교과목 지원 등)	40(17.2)	34(17.3)
문화공연지원(뮤지컬 등)	33(14.2)	18(9.2)
진로관련지원(진로상담 등)	30(12.9)	17(8.7)
심리적응지원(심리치료 등)	10(4.3)	4(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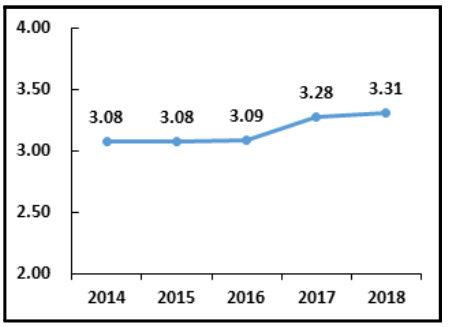
상담, 심리치료, 집단 상담과 같은 심리적응 프로그램의 지원을 경험한 비율은

비교적 낮았으며, 심지어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경험율은 더욱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다문화청소년의 8년간 발달 추이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심리적응 측면에서 부정적인 변화가 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같이 낮은 수준의 심리적응 프로그램의 지원경험을 보인 패널조사 자료분석결과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이해를 위해 면접조사를 통한 심층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비록 다문화가정의 자녀를 위한 특별지원의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의 비율은 낮은 수준이나, 자신이 경험한 지원이 필요한 것이었는지에 대한 평가는 4점 척도의 문항에 대한 응답은 평균 3점 이상으로 비교적 긍정적인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원받았던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는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표 Ⅵ-13 지원받은 프로그램의 도움 정도(2014~2018년)

년도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2014	437	3.08	.66
2015	418	3.08	.70
2016	327	3.09	.71
2017	233	3.28	.63
2018	196	3.31	.61



②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특별지원 요구도

다문화가정의 자녀를 위한 별도의 특별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다문화청소년은 2014년 조사에서는 전체의 39% 정도였으나, 학년이 올라갈수록 점차 높아져 2018년 조사에서는 약 52% 까지 높아졌다. 다문화청소년의 어머니들의 특별지원에 대한 요구도는 5년 동안 상대적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자녀의 연령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중학교 재학 시기의 특별지원 요구 정도는 다문화청소년에 비해 다소 높았으나, 고등학교 진학 이후에는 청소년들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Ⅵ-14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특별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

단위: 빈도(%)

년도	다문화청소년			다문화청소년의 어머니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전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전체
2014	540(39.1)	840(60.9)	1,380(100)	747(54.9)	613(45.1)	1,360(100)
2015	590(43.8)	757(56.2)	1,347(100)	710(53.4)	619(46.6)	1,329(100)
2016	568(42.7)	761(57.3)	1,329(100)	605(46.5)	696(53.5)	1,301(100)
2017	622(49.4)	638(50.6)	1,260(100)	599(48.8)	628(51.2)	1,227(100)
2018	623(52.0)	574(48.0)	1,197(100)	606(52.0)	560(48.0)	1,166(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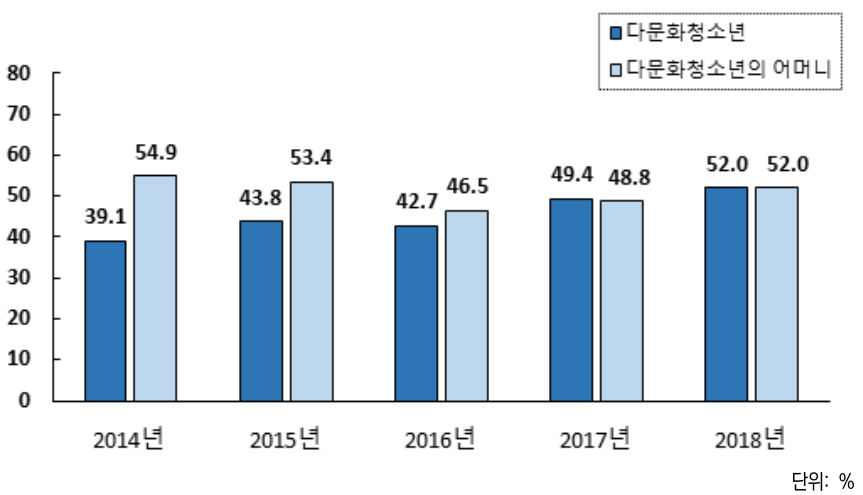


그림 Ⅵ-7. 다문화가정의 자녀를 위한 특별지원의 요구 정도

보다 구체적으로 다문화가정의 자녀를 위한 특별지원에 대한 요구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지원 유형별 요구도를 비교해 보았다. 특별지원의 요구도는 다문화청소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어머니와 교사의 요구도를 함께 비교하였으며, 지원 경험률과 마찬가지로 지원에 대한 요구를 묻는 문항에서 사용한 유형 구분이 2017년도 패널조사부터 변경되어, 두 시기를 나누어 보고하였다. 아울러 요구도 역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유형을 모두 고르는 중복응답 문항을 통해 조사되었으므로, 이하 표에서 제시된 비율은 각 연도의 전체 응답자 수를 기준으로 해당 빈도의 비율을 의미하며, 연도별 응답비율의 총합은 100%를 초과한다.

다문화청소년들이 응답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에 가장 높은 요구도를 보인 유형은 놀이공원 방문이었고, 문화공연 관람의 요구 정도 또한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학원비 및 급식비 지원과 같은 현실적이고 경제적인 지원에 대한 요구도가 높아졌고, 진로지원에 대한 요구도 역시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것이 확인되었다. 2017, 2018년 조사 결과, 현금지원에 대한 요구정도는 전체 응답자의 80%이상이 필요한 지원으로 응답하는 매우 높은 수준을 보였다. 더불어 중학교 시기와 비슷하게 다른 유형에 비해 진로 지원 및 문화공연 지원에 대한 요구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심리적응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 수준은 다른 유형에 비해 그다지 높지 않았다.

어머니들의 지원 유형별 요구도를 살펴보면, 2014~2016년에는 학원비 지원이, 2017, 2018년 사이에는 현금 지원이 가장 높은 요구정도를 보여, 자녀 양육에 있어 경제적 지원에 대한 요구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지원을 제외한 특별지원의 유형 중에서는 진로와 관련된 지원의 요구도가 지속적으로 높았으며, 다문화청소년과 마찬가지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그 정도는 점차 높아지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어머니들 역시 심리적응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정도는 상대적으로 높지 않았으나, 자녀의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표 Ⅵ-15 지원 유형별 요구도(2014~2016년): 다문화청소년

단위: 빈도(%), 중복응답 문항

유형	2014년	2015년	2016년
방과 후 수업료 지원	349(29.5)	320(28.7)	338(28.9)
문화공연관람	477(40.3)	437(39.2)	415(35.5)
놀이공원 방문	**543(45.9)**	408(36.6)	319(27.3)
문화체험 활동	371(31.4)	316(28.3)	279(23.9)
특기적성 프로그램	391(33.1)	351(31.5)	390(33.4)
심리적응 프로그램	182(15.4)	160(14.3)	169(14.5)
물적지원	242(20.5)	229(20.5)	269(23.0)
대학생 멘토링	270(22.8)	230(20.6)	256(21.9)
학습보조 선생님 지원	109(9.2)	122(10.9)	111(9.5)
이중언어교실	148(9.1)	143(12.8)	184(15.7)
한국어 교육 지원	41(3.5)	39(2.4)	52(4.4)
학습지 지원	204(17.2)	213(19.1)	212(18.1)
급식비 지원	321(27.1)	319(28.6)	347(29.7)
학원비 지원	457(38.6)	**474(42.5)**	**540(46.2)**
진로지원	448(37.9)	468(41.9)	532(45.5)

* 출처: 양계민 외(2016: 197) 표 Ⅴ-61 수정

표 Ⅵ-16 지원 유형별 요구도(2017~2018년): 다문화청소년

단위: 빈도(%), 중복응답 문항

유형	2017년	2018년
현금지원(장학금 등)	**999(84.9)**	**975(85.3)**
학습지원(교과목 지원 등)	416(35.4)	394(34.5)
진로관련지원(진로상담 등)	471(40.1)	456(39.9)
물적지원(책, 학용품 등)	366(31.1)	320(28.0)
심리적응지원(심리치료 등)	256(21.8)	270(23.6)
문화공연지원(뮤지컬 등)	450(38.3)	449(39.3)

표 Ⅵ-17 지원 유형별 요구도(2014~2016년): 다문화청소년의 어머니

단위: 빈도(%), 중복응답 문항

유형	2014년	2015년	2016년
방과 후 수업료 지원	682(50.1)	606(45.6)	557(42.8)
문화공연관람	479(35.2)	443(33.3)	404(31.1)
놀이공원 방문	236(17.4)	169(12.7)	160(12.3)
문화체험 활동	508(37.4)	434(32.7)	421(32.4)
특기적성 프로그램	447(32.9)	403(30.3)	417(32.1)
심리적응 프로그램	328(24.1)	285(21.4)	338(26.0)
물적지원	233(17.1)	224(16.9)	207(15.9)
대학생 멘토링	480(35.3)	379(28.5)	367(28.2)
학습보조 선생님 지원	312(22.9)	300(22.6)	259(19.9)
이중언어교실	229(16.8)	204(15.3)	219(16.8)
한국어 교육 지원	106(7.8)	86(6.5)	92(7.1)
학습지 지원	320(23.5)	260(19.6)	214(16.4)
급식비 지원	389(28.6)	315(23.7)	316(24.3)
학원비 지원	**775(57.0)**	**669(50.3)**	**673(51.7)**
진로지원	420(30.9)	415(31.2)	515(39.6)

* 출처: 양계민 외(2016: 199) 표 Ⅴ-63 수정

표 Ⅵ-18 지원 유형별 요구도(2017~2018년): 다문화청소년의 어머니

단위: 빈도(%), 중복응답 문항

유형	2017년	2018년
현금지원(장학금 등)	**879(71.6)**	**842(72.2)**
학습지원(교과목 지원 등)	591(48.2)	527(45.2)
진로관련지원(진로상담 등)	681(55.5)	633(54.3)
물적지원(책, 학용품 등)	269(21.9)	241(20.7)
심리적응지원(심리치료 등)	371(30.2)	376(32.2)
문화공연지원(뮤지컬 등)	423(34.5)	388(33.3)

다문화청소년을 위해 필요한 지원과 관련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의견 수렴을 위하여 다문화청소년의 교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하는 다문화청소년의 담임교사와 재학 중인 중학교의 다문화담당교사 310명이 조사에 참여하였다. 다만, 교사 대상의 조사는 청소년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함에 따라 재학 중인 학교의 수가 크게 증가하는 문제로 인해 중학교 재학 시기인 2016년도 조사까지만 실시되었다.

표 Ⅵ-19 지원 유형별 요구도(2014~2016년): 교사

단위: 빈도(%), 중복응답 문항

유형	2014년	2015년	2016년
방과 후 수업료 지원	145(46.8)	37(11.9)	28(9.0)
문화공연관람	104(33.5)	40(12.9)	59(19.0)
문화체험 활동	166(53.5)	75(24.2)	59(19.0)
특기적성 프로그램	93(30.0)	25(8.1)	24(7.7)
심리적응 프로그램	199(64.2)	**131(42.3)**	**150(48.4)**
물적지원	47(15.2)	26(8.4)	22(7.1)
학습 지원	**239(77.1)**	115(37.1)	109(35.2)
이중언어교실	119(38.4)	24(7.7)	37(11.9)
한국어 교육 지원	110(35.5)	29(9.4)	21(6.8)
학습지 지원	0(0.0)	0(0.0)	0(0.0)
급식비 지원	60(19.4)	20(6.5)	5(1.6)
학원비 지원	34(11.0)	0(0.0)	0(0.0)
진로지원	113(35.6)	65(21.0)	69(22.3)

* 출처: 양계민 외(2016: 207) 표 Ⅴ-77 수정

교사가 생각하는 다문화청소년을 위한 지원의 유형은 다문화청소년과 어머니의 요구도가 높은 지원 유형과 큰 차이를 보였다. 상당수의 교사들은 학습 지원과 심리적응 프로그램이 다문화청소년에게 필요한 지원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에

반해, 다문화청소년과 어머니들의 요구가 가장 높았던 학원비 지원을 필요한 유형으로 선택한 교사는 2015년 이후 한 명도 없었다. 더불어 2016년 조사결과에 따르면, 교사들은 다문화청소년을 대상으로 제공되었던 지원 프로그램에 중에서 심리적응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모든 유형의 지원 프로그램 효과성 평균은 5점 만점에서 3.5점 이상으로 대체로 '보통이상'의 효과성이 있다고 인식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심리적응 프로그램의 효과성은 평균 4.05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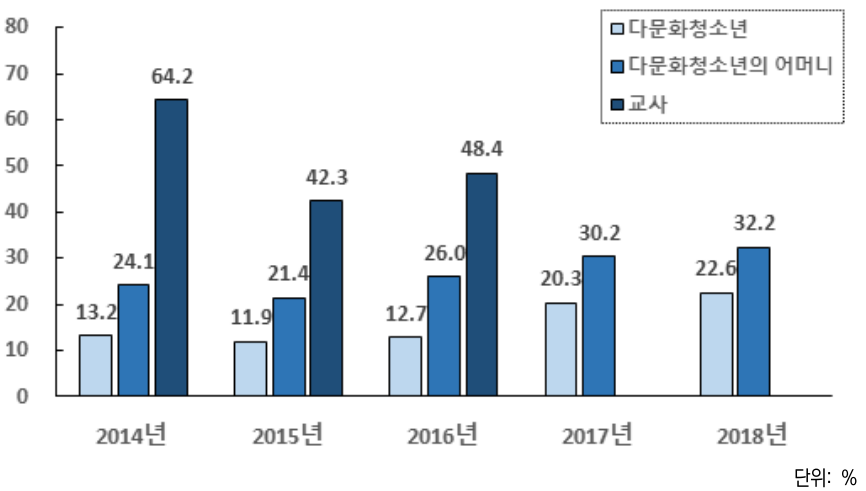


그림 Ⅵ-8.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심리적응 지원프로그램의 요구 정도

표 Ⅵ-20 교사가 인식하는 지원 프로그램의 효과성(2016)

지원 프로그램	평균(표준편차)	지원 프로그램	평균(표준편차)
심리적응	4.05(0.78)	이중언어교실	3.78(0.86)
진로지원	3.98(0.77)	문화공연관람	3.71(0.82)
학습지원	3.95(0.81)	특기적성	3.65(0.83)
한국어교육지원	3.95(0.90)	급식비지원	3.64(0.87)
문화체험	3.90(0.81)	물적지원	3.64(0.87)
방과 후 수업료 지원	3.83(0.84)		

* 출처: 양계민 외(2016: 208) 표 Ⅴ-78 수정

③ 다문화가정의 자녀를 위한 특별지원 방식에 대한 의견

다문화가정의 자녀를 위한 별도의 특별지원에 대한 요구도와 함께, 지원 방식에 대한 의견도 함께 살펴보았다. 특별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다문화청소년들 가운데 절반을 조금 넘는 비율의 청소년들은 다문화가정임이 드러나지 않게 지원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응답하였고, 그 비율은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다문화청소년의 어머니의 경우, 약 70% 정도가 다문화가정임이 드러나지 않게 지원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이를 통해 어머니들이 다문화청소년들에 비해 다문화가정에 대한 노출에 대해 더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Ⅵ-21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특별지원의 방식에 대한 의견

단위: 빈도(%)

년도	다문화청소년			다문화청소년의 어머니		
	다문화가정이 드러나지 않게 지원	다문화가정이 드러나도 상관없음	전체	다문화가정이 드러나지 않게 지원	다문화가정이 드러나도 상관없음	전체
2014	285(52.8)	255(47.2)	540(100)	518(69.3)	229(30.7)	747(100)
2015	346(58.6)	244(41.4)	590(100)	515(72.5)	195(27.5)	710(100)
2016	314(55.3)	254(44.7)	568(100)	454(75.0)	151(25.0)	605(100)
2017	367(58.4)	259(41.6)	622(100)	416(69.4)	183(30.6)	599(100)
2018	367(58.9)	256(41.1)	623(100)	414(68.3)	192(31.7)	606(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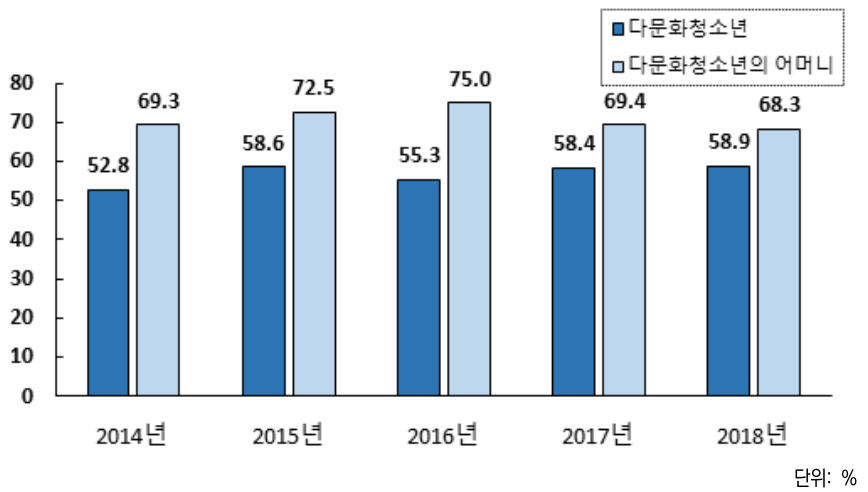


그림 Ⅵ-9. 다문화가정임이 드러나지 않게 지원하는 방식의 요구 정도

한편, 국가에서 다문화가정의 자녀에게 지원을 제공할 때 가정형편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문항의 응답을 살펴보면, 과반수의 다문화청소년들은 가정형편에 상관없이 모든 다문화가정의 자녀를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가정형편이 어려운 경우만 지원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청소년의 어머니들의 경우, 가정형편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지원하는 방식과 가정형편을 고려하는 방식에 대한 선호도는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자녀의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가정형편이 어려운 다문화가정의 자녀만 지원하는 것이 더 좋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표 Ⅵ-22 국가의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지원의 방식에 대한 의견

단위: 빈도(%)

년도	다문화청소년			다문화청소년의 어머니		
	가정형편에 무관하게 모두지원	가정형편을 고려하여 일부만 지원	기타	가정형편에 무관하게 모두지원	가정형편을 고려하여 일부만 지원	기타
2014	885(64.1)	477(34.6)	18(1.3)	678(49.9)	674(49.6)	8(0.5)
2015	785(58.3)	542(40.2)	20(1.5)	677(50.9)	632(47.6)	20(1.5)
2016	716(53.9)	593(44.6)	20(1.5)	638(49.0)	652(50.1)	11(.8)
2017	674(53.5)	570(45.2)	16(1.3)	599(46.4)	643(52.4)	15(1.2)
2018	640(53.5)	537(44.9)	20(1.7)	538(46.1)	615(52.7)	13(1.1)

※ 연도별 다문화청소년 및 어머니의 전체 빈도는 표 Ⅵ-14에 제시된 수와 동일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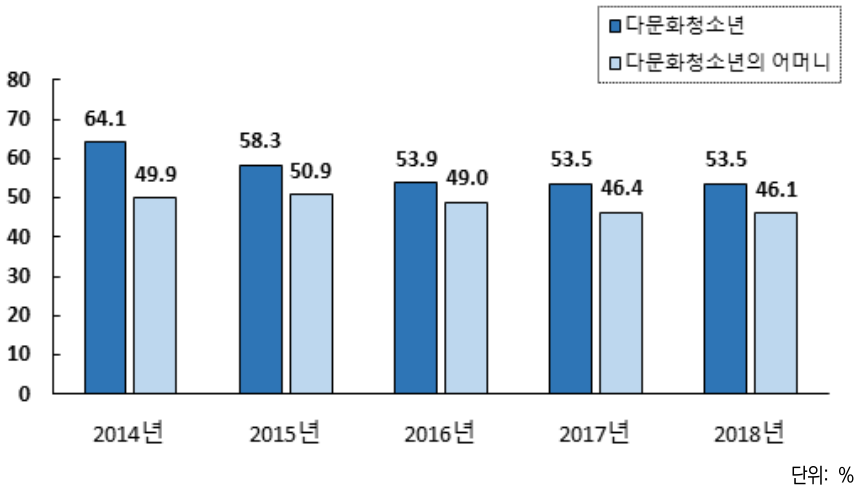


그림 Ⅵ-10. 가정형편에 상관없이 모든 다문화가정을 지원하는 방식의 요구 정도

(4) 요약 및 소결

본 절에서는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응의 요구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패널 조사 자료를 활용한 전반적인 요구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주요 분석결과는 〈표 Ⅵ-23〉에 압축적으로 제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도출된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응을 위한 요구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정부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의 여러 기관에서 다문화청소년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다양한 특별 지원을 경험한 비율은 비교적 낮은 수준이었으며,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그 비율은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다양한 유형의 특별 지원 가운데 심리적응 프로그램의 참여율은 지원 프로그램 경험이 있는 다문화청소년의 10%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이러한 낮은 수준의 특별 지원 참여율과 연령이 높아짐에 따른 참여율 감소 현상은 상급학교 진학으로 인해 청소년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학업을 위해 사용하

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 될 수도 있으나, 정부 또는 관련 기관에서 제공하는 특별 지원 프로그램의 질에 대한 측면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물론, 특별 지원 경험이 있는 다문화청소년들은 지원받은 프로그램의 도움 정도에 대해 비교적 높은 수준의 만족도를 보였다. 하지만 이는 특별 지원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만 조사대상에 해당되었으므로, 프로그램 참여율이 감소하는 현상을 이해하기 위한 정보로 사용하기에는 부족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 지원 프로그램의 낮은 참여율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위하여 조사에 참여하는 전체 다문화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를 추가로 조사하여 다양한 정보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

다문화청소년과 이들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특별 지원의 필요성 및 지원 방식에 대해 조사한 결과, 다문화가정의 자녀를 위한 별도의 지원은 필요하다는 응답비율과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비율은 비슷한 수준이나, 필요하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다소 높았다. 특히 다문화청소년들의 경우,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특별 지원에 대한 필요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여러 유형의 지원 프로그램 중에서 심리적응을 위한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 정도는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다문화청소년에 비해 어머니들의 요구 정도가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원비 지원 및 현금 지원과 같은 경제적 지원요구와 진로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었다.

이와 같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심리적응 프로그램의 요구도는 다문화청소년이 심리·사회적응에 있어 큰 문제가 없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다문화가정의 경제수준이 다소 낮은 것으로 확인된 8년간 발달추이 분석결과를 참고해 볼 때, 심리적응 프로그램에 비해 더 현실적이고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지원을 선호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심리·사회적응은 청소년의 발달과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므로, 이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시사점은 다문화청소

년을 위해 필요한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교사의 인식조사 결과에서도 확인되었다. 다문화청소년과 어머니와 달리, 교사들은 여러 유형의 지원 프로그램 가운데 심리적응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가 거의 모든 시기에서 가장 높았다. 아울러 교사들은 다문화청소년에게 제공된 지원 프로그램 가운데 심리적응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가장 높게 평가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지원 방식에 대한 의견을 살펴보면, 다문화가정임이 드러나지 않게 지원하기를 원하는 비율이 다문화청소년에 비해 어머니들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또한 특별 지원을 할 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다문화가정만 지원하는 것을 선호하는 비율은 어머니들이 다문화청소년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주변의 인식을 다문화청소년에 비해 어머니들이 더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정이라는 이유만으로 특별하게 대우받는 것에 대해 다소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Ⅵ-23 다문화청소년을 위한 지원 요구도 관련 주요 패널자료 분석결과

구분	주요 분석결과
1) 특별지원 경험률	■ 다문화가정의 자녀를 위한 특별지원을 경험한 청소년은 본 조사에 참여한 청소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임
	■ 2014년부터 2018년 동안 특별지원 경험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함 (2014년 31.7% → 2018년 16.4%)
	■ 여러 지원 프로그램 가운데 가장 높은 경험률을 보인 유형은 방과 후 수업료 지원(2014~2016년)과 현금지원(2017-2018년) 임
	■ 심리적응 프로그램의 경험률은 2014년 이후 5% 미만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며, 매년 감소함(2014년 7.1% → 2018년 2.0%)
2) 특별지원 프로그램 요구정도	■ 다문화청소년의 요구도가 높았던 지원의 유형은 문화관련 지원과 학원비 지원 등의 경제적 지원이며,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진로지원에 대한 요구도는 점차 높아짐
	■ 다문화청소년의 어머니는 학원비 지원과 현금지원과 같은 경제적 지원에 대한 요구가 가장 크며, 자녀의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심리적응 지원에 대한 요구정도가 높아짐
	■ 교사는 학습지원과 심리적응 프로그램의 지원에 대한 요구도가 다른

구분	주요 분석결과
	유형의 지원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며, 다문화청소년과 어머니들의 요구도의 최소 2배 이상으로 크게 차이 남
3) 특별지원 프로그램 지원 방식	■ 다문화청소년들보다 어머니들이 특별지원을 제공할 때 다문화가정임이 드러나는 것에 대해 더 부정적임
	■ 가정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다문화가정을 지원하는 방식과 가정형편이 어려운 가정만 지원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비슷한 수준의 선호도를 보임

2) 면접조사 분석

(1) 조사대상자

본 조사의 면접조사에 참여한 조사대상자는 본 패널에 참여하고 있는 다문화청소년과 그들의 어머니로 크게 1기 패널에 참여하고 있는 기존 참여자와 신규패널 참여자로 나누어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1기 패널 참여자인 청소년의 경우 현재 고 3의 연령으로 면접이 가능하나 신규패널 참여자인 초등학교 4학년의 경우 심리·사회적응과 관련한 면접조사에 참여하기에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여 어머니 대상 면접조사만 실시하였다. 1기 패널의 경우 서울·경기,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 크게 세 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하였고, 신규패널 역시 크게 세 지역을 중심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추가로 대전·충청지역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면접조사대상자의 수는 다문화청소년이 14명, 1기 패널 참여자의 어머니 14명, 신규패널 참여자의 어머니 20명 등 총 48명이었다.

표 Ⅵ-24 면접조사대상자 개요

대상	세부 사항	인원수
다문화청소년	■ 1기 패널 참여자	14명
다문화청소년 학부모	■ 1기 패널 참여자의 어머니 ■ 신규패널 참여자의 어머니	34명
계		48명

① 1기 패널 면접조사대상자

면접조사에 참여한 다문화청소년은 서울·경기지역의 5명, 대구·경북지역의 4명, 광주·전남지역의 5명 등 총 14명이었다. 성별로는 여자가 9명, 남자가 6명으로 여자가 좀 더 많았다. 이들의 어머니 출신국은 일본, 중국, 필리핀, 태국, 멕시코, 키르키스스탄 등이었고 모두 한국말이 능통한 수준이어서 연구자가 통역 없이 직접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표 Ⅵ-25 1기 패널 다문화청소년 및 어머니

No	청소년 ID	성별	어머니 ID	어머니 출신국	지역 및 일시
1	S1	남	M1	키르키스스탄	서울·경기 (8.14)
2	S2	여	M2	일본	
3	S3	남	M3	일본	
4	S4	남	M4	필리핀	
5	S5	여	M5	일본	
6	S6	남	M6	중국(조선족)	대구·경북 (8.25)
7	S7	여	M7	필리핀	
8	S8	남	M8	일본	
9	S9	여	M9	태국	
10	S10	여	M10	일본	광주·전남 (8.31)
11	S11	여	M11	중국(조선족)	
12	S12	남	M12	멕시코	
13	S13	여	M13	필리핀	
14	S14	여	M14	일본	

② 신규패널 면접조사대상자

신규패널 참가 청소년의 어머니는 서울·경기지역에서 5명, 충청·대전지역에서 6명, 대구·경북지역에서 4명, 광주·전라지역에서 5명 등 총 20명이었다. 어머니들의 출신국은 중국(한족 등), 중국(조선족), 베트남,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일본, 캄보디아, 러시아 등 다양하였고, 자녀의 성별은 여자가 11명, 남자가 9명이었다. 신규패널 면접조사대상 어머니들 역시 한국어는 대부분 능통한 수준이어서 연구자가 직접 면접을 실시하였고, 의사소통에는 문제가 없었다.

표 VI-26 신규패널 학부모

No	어머니 ID	어머니 출신국	자녀 성별	지역 및 일시
1	M15	중국(조선족)	여	서울·경기 (8.22)
2	M16	우즈베키스탄	여	
3	M17	베트남	남	
4	M18	베트남	여	
5	M19	필리핀	남	
6	M20	일본	남	충청·대전 (8.23)
7	M21	캄보디아	여	
8	M22	중국	여	
9	M23	캄보디아	남	
10	M24	중국	남	
11	M25	베트남	남	
12	M26	캄보디아	남	대구·경북 (8.25)
13	M27	중국	여	
14	M28	베트남	남	
15	M29	우즈베키스탄	여	
16	M30	중국	여	광주·전라 (8.31)
17	M31	러시아	여	
18	M32	베트남	남	
19	M33	캄보디아	여	
20	M34	베트남	여	

(2) 조사절차 및 내용

① 조사절차

본 연구의 면접조사의 경우 설문조사와 마찬가지로 IRB승인을 받았다. 면접조사 역시 인간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는 것으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국내법)과 헬싱키 선언(국제 지침) 등의 생명윤리를 준수하기 위함이었다. IRB승인을 위하여 면접조사대상자와 조사시기, 조사내용 및 인터뷰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연구계획서, 질문지, 조사설명문, 조사동의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생명윤리준수서약서, 생명윤리교육 이수증 등의 서류를 8월 8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 제출하였고, 8월 13일 최종 승인되었다(승인번호: 201904-HR-고유-002-11).

최종 승인된 면접조사지를 기초로 면접을 시작하기 전 조사의 목적과 절차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였는지 확인한 후, 참여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에 서명을 받은 후 FGI(Focus Group Interview)를 실시하였다.

② 조사내용

조사내용은 대상별로 다음과 같다. 크게 현재의 심리상태, 다문화라는 이유로 차별이나 불쾌감을 느낀 적이 있는지 경험, 상담에 대한 경험, 학교 상담실이나 상담센터 이용에 대한 인지도와 태도, 심리적으로 힘들 때 필요한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하였고, 어머니의 경우는 자녀의 심리적 어려움, 자녀의 성장과정에서 다문화라는 이유로 차별받았거나 불쾌한 경험을 한 적이 있는지, 부모와 심리적 어려움을 나누는 정도, 학교상담실이나 지역의 청소년상담센터에 대한 인지도, 태도, 자녀의 심리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등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이는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청소년 당사자와 어머니들의 시각을 비교 분석하기 위함이었다.

표 Ⅵ-27 면접조사의 주요 내용

조사대상자	조사내용
다문화청소년	■ 현재 심리적으로 가장 힘든 점 ■ 살아오면서 다문화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았거나 불쾌한 경험을 한 적이 있는지 여부와 있다면 불편감을 해결한 방법 ■ 심리적으로 힘들 때 상담을 할 사람이 있는지 여부, 없다면 어떻게 해결했는지, 주변에 도움을 청하지 않은 이유 ■ 마음이 힘들 때 학교나 지역사회 청소년상담센터를 이용한 적이 있는지, 도움이 되었는지, 이용 시 불편했거나 이용에 어려웠던 점 ■ 학교 외 지역사회 청소년상담센터를 알고 있는지, 이용해본 적이 있는지,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도움이 되었는지 등 ■ 심리적으로 힘들 때 학교와 지역의 청소년상담센터 중 어떤 기관이 더 이용하기에 편안한지 ■ 심리적으로 힘들 때 필요한 지원
어머니	■ 자녀가 현재 심리적으로 가장 힘들어 하는 점 ■ 자녀가 성장하면서 다문화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았거나 불쾌한 경험을 한 적이 있는지 여부 ■ 부모에게 본인의 심리적 어려움을 얼마나 잘 이야기하는지 ■ 부모 이외에 자녀가 심리적 어려움을 나눌 수 있는 대상이 있는지 ■ 학교에서 상담을 받아본 적이 있는지, 도움이 되었는지, 이용시 불편했거나 어려웠던 점 ■ 학교 외 지역사회 청소년상담센터를 알고 있는지, 이용해본 적이 있는지,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도움이 되었는지 등 ■ 자녀가 심리적으로 어려움이 있거나 문제가 있을 때 학교와 지역사회 중 어떤 기관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지와 그 이유 ■ 자녀의 심리적 지원을 위해 필요한 지원

(3) 조사결과

① 다문화청소년

①-1. 전반적으로 큰 문제없이 잘 지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고민이 되거나 힘든 것에 대해서 질문한 결과 처음에는 특별히 힘들거나 어려운 점은 없었다는 응답이었다. 이는 처음에 도입으로 질문한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힘든 이야기를 하기는 어렵기 때문일 수도 있고, 실제로 큰 어려움 없이 성장한 청소년들일 수도 있다. 이러한 응답의 경향성은 뒤에 제시되는 어머니들의 응답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어머니들의 경우도 자녀들이 큰 문제없이 잘 적응하고 있고 학교생활도 잘 하며 성격이 아주 밝고 건강하다고 반응하였다. 그러나 면접이 진행되면서 점차 성장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들을 하나 둘씩 털어놓으면서 각자 겪었던 심리적 어려움들을 드러냈다. 즉, 전반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될 정도의 힘든 경험은 없지만 누구나 겪는 한 두 가지의 심리적 어려움이 있고, 그 문제가 다문화적 배경과 관련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연구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힘들었다거나 아니면 우울하거나 등 경험들 혹시 있었을까요?
S4: 저는 없었어요.
연구자: 잘 자랐구나. ○○친구도 별로?
S3: 네, 없었어요.
연구자: 딱히 내가 살면서 힘들다 이런 경험은 별로 그 동안은 크게 없었던?
S3: 네.
연구자: 다행이네요. ○○친구도?
S2: 그냥 잘 지내고 있어요.
연구자: ○○친구도?
S1: 그런 거 없었어요.

①-2. 다문화배경으로 인한 심리적 상처

다문화청소년들이 성장과정에서 느끼는 여러 가지 심리·사회적응과 관련하여 다문화가정 출신이 아니면 경험하지 않아도 되는 상처가 있을 수 있는데, 실제로 다문화적인 배경 때문에 주변의 반응으로 상처를 받거나 또는 상처를 받지 않아도 자신의 가정배경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놀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기도 하였다. 한 청소년은 부모님이 외국출신이라는 사실을 친구들이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졸업식에 부모님이 오셔서 알게 되었고, 그 때 친구들이 놀라는 반응을 보였다는 응답을 하였는데, 그것 때문에 크게 상처를 받은 것은 아니고 그 이후에도 여전히 친하게 지내고 있다고 응답은 하였지만, 질문 자체가 '부모님이 외국에서 오셨다는 사실 때문에 친구들이 힘들게 했거나 상처를 받은 적이 있어요?'라는 질문이었고, 그에 대해 '저는 있었어요.'라고 응답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주변에서 놀란 반응을 보인 것이 당사자에게는 많이 불편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였다.

연구자: 지금까지 부모님이 외국에서 오셨다는 사실 때문에 친구들이 힘들게 했거나 그런 걸로 상처를 받았거나 한 적이 있어요?
S4: 저는 있었어요. 중학교 때 졸업식을 하면 부모님이 오시잖아요. 그때 애들이 깜짝 놀라서.
연구자: 그래서요?
S4: 그 이후로는 거의 없었어요. 같이 고등학교 올라가고 지금도 같이 놀고 그래가지고(괜찮아요).

그보다 더 심한 경우는 초등학교 시절에 엄마가 외국인인데 장애인이라고 놀려서 심하게 상처를 받고 울었던 사건을 얘기하였는데, 그 경우에는 선생님에게 그 사실을 말해서 선생님이 못된 말을 한 아이를 그 자리에서 바로 혼내는 것을 보고 마음이 풀렸다고 하였다. 그렇지만 그 이후로 자신이 다문화적 배경을 지니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웬만하면 공개하지 않고 있다가 정말 믿을만한 친구라고 생각이 되었을 때 말을 한다고 하였다. 일반적으로 아이들이 다문화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지 않고, 전반적으로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겪어보았기

때문에 자신의 다문화적 배경을 드러내어도 괜찮은지를 충분히 확인한 후에 말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반응들은 다문화청소년들이 성장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자신의 다문화배경을 늘 인식하게 되고 다른 아이들이 자신의 가정상황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지에 대해 불안한 마음을 지닌 채 살아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S2: 초등학교 때 딱 한번 있는데요. 그때 초등학교 때 5교시 수업 시간에 제 옆 짝꿍이 남자 아이인데요. 그 애가 그때는 솔직히 말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제 얼굴이 다문화 안 같이 생겨가지고 말을 안 하면 애들이 전혀 모르더라고요. 근데 초등학교 때는 다문화인거 반에서 반 정도...
연구자: 반에서 절반 정도만 애들이 아는데?
S2: 네, 그때 그래서 그 아이가 저를 보고 무엇 때문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저희 엄마를 욕 하더라고요. 저희 엄마가 장애인이라고 장애인 아닌데.
연구자: 초등학교 때?
S2: 그때 좀....
연구자: 그때 상처를 받았구나.
S2: 네.
연구자: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S2: 울었죠.
연구자: 그냥 울었어요? 선생님한테 이야기한다거나 하지 않고?
S2: 당근 이야기했죠.
연구자: 근데 선생님이 뭐라고 하세요, 어떻게 하셨어요? 혹시 기억해요?
S2: 그 자리에서 바로 혼내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중략)
S2: 애들을 좀 깊게 사귀면 애가 좀 괜찮다 싶으면 저는 말하거든요. 아이들도 다문화라는 그런 식으로 있으니까 겪어봐서 어느 정도 리스크는 있어야 되니까 충분히 어떤 애인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말을 저는 말하거든요.

이들에게 역사수업 시간은 불편하고 힘든 시간이 된다. 특히 어머니가 일본이나 중국, 몽골 등 과거 한국과 전쟁의 역사가 있는 국가 출신인 경우에는 스스로 불편하고, 다른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불안해진다.

실제 아이들이 어머니의 출신국을 알고 공격적인 말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학교교사가 교실의 다문화적 상황을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본인의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어 다문화청소년이 상처를 받기도 한다. 이러한 일은 이번 면접조사에서 뿐만 아니라 여러 사례에서 아이들이 불편감을 호소하는 일로 이런 문제는 다문화청소년들의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생각된다.

S10: 친구들 간에 사이는 좋았는데 이제 제가 다른 나라는 괜찮은데 일본 분 엄마잖아요. 나라적으로 사이가 안 좋으니까 매스컴에서 나오는 얘기를 애들이 하잖아요. 제 눈치를 볼 때가 있어요. 엄마가 일본 분이니까 혹시라도 나쁘게 얘기 했다가 상처 받을까봐.
연구자: 친구들이 착하네요.
S10: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서는 지금은 아닌데 고등학교 들어왔을 때에는 애들끼리 엄청 끈끈한 관계가 아니잖아요. 남자 애들은 또 언행이 거칠다 보니까 매국노다 뭣이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지는 않았는데 일본 사람들에 대해서 그 얘기를 했었어요. 여자 애들은 저를 아니까 옆에서 괜찮냐 이러면서. 뭐 어때. 우리 엄마랑 관계없는 얘기 같은데. 그런 거 말고는 없었어요. 중학교 때에는 역사 시간이 싫었어요.

S10: 친구가 아니라 선생님이. 일본은 나쁜 놈들이야... 제가 다문화인 걸 모르거든요. 얘기를 하면 이제 저는 여중이었거든요. 여자 애들이 다 선생님 ○○이 있잖아요. 이런 느낌으로. 왜 그런 얘기 하냐고. 애들이 쉴드 쳐 주고 했어요. 그래도 나쁜 놈인 건 맞다. 그럴 때 살짝 눈치 보이는 거 빼고는. 나라가 사이가 안 좋으니까. 사람이 좋아도 나라가 여기다 하면 안 좋게 보는 게 있어요.

①-3. 학교 상담실에 대한 무관심

다문화청소년들이 심리적으로 어려울 때 상담실을 이용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학교에 상담실이 있는지를 질문하였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상담선생님이 있긴 하지만 거의 상담실을 이용해 본 적은 없고, 다른 친구들이 가는 것을 본 적은 있으나 정작 당사자는 이용을 해본 적이 없다는 반응이었다. 또는 학교에 상담을 하는 선생님이 따로 없는 학교도 여러 경우였다. 학교 상담실에 대한 질문에서 느껴지는 것은 청소년들이 크게 관심이 없고 그런 것이 있기는 하나 자신과는 크게 상관이 없는 곳이라는 반응이었다.

연구자: 혹시 친구들 학교에 다 상담선생님 계세요, 상담교사 계세요?
S4: 있긴 해요.
연구자: 있긴 있지만 본인이 만난 적은 없고요?
S4: 애들은 가는 거 같아요.
연구자: 애들은 가는데 ○○친구는 선생님, 상담선생님을 만난 적은 없어요?
S4: 네.
연구자: ○○친구 학교는 혹시 상담선생님 따로 계세요?
S3: 진로선생님이라고 계세요.
연구자: 상담만 선생님은 따로?
S3: 그런 분은 안 계세요.
연구자: ○○친구 학교도?
S2: 계세요.
연구자: 상담선생님 혹시 만난 적도 있어요? 의무로 다 가는 이런 거 말고 혹시 ○○친구가 좀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어서 찾아갔거나 그런 경험은?
S2: 없어요.
S2: 일단 제가 아는 애들은 안 가고.
연구자: 주위 친구들도 잘 안 가요?
S2: 네. 그냥 상담실에 그 보드 게임 같은 거 있으니까 그거 하러 가요. 놀러가고 솔직히 상담실이 거기는 상담을 하러 가는 것도 있지만 가서 게임하고 쉬는 것도 있고.
연구자: 실질적으로 상담이 많이 이루어지기보다는 이제 친구들이 좀 쉬고 그런 용도의?
S2: 네 그런 거지 선생님은 못 봤어요.
연구자: 상담실에 선생님이 안 계셨어요?
S2: 딱히 선생님을 못 봤어요.
S5: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학교에서. 선생님들은 잘 모르시고, 일단 바쁘시죠. 되게 바쁘세요.
연구자: 학교 업무가 많으니까?
S5: 그렇죠.
연구자: 전문상담가가 학교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학교에 상주하고 계신 선생님은 아닌데,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전문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오신다고 들었는데
S5: 아 진짜요?

연구자: 학교 다닐 때는 상담교사 선생님이 계셨어요? 학교에 다닐 때 상담을 받아본 경험은 없었어요?
S5: 학교를 다닐 때는 없었어요. 학교 안에서도 딱히 상담 샘이라는 게 없었어요.
연구자: 학교에 상담선생님이 따로 안 계셨어요?
S5: 네. 있다 해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연구자: 주위에서 가는 친구도 못보고?
S5: 그렇죠.

①-4 상담은 진로상담 또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 이용하는 것

청소년들은 학교 상담실에 대해서는 자신이 심리적으로 어려울 때 도움을 받는 것이라기보다는 주로 진로상담을 떠올리거나 또는 선생님에게 혼나는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현재 면접의 대상자들이 고3이기 때문에 최근 경험한 상담이 진로상담이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의무적으로 정해진 진로상담 이외에 선생님과 고민을 이야기하는 등의 일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연구자: '상담' 이라고 하면 어떤 것이 떠올라요?
S1: 저는 그냥 진로에 대해서 상담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연구자: 진로만? 다른 거는 상담?
S1: 그냥 딱 상담만. 구체적으로 생각하면 친구들끼리 고민도 털어놓고 그런 건 줄 알았는데 그냥 상담만 떠올리면 진로도 같이 떠올라요.
연구자: 다른 친구들은?
S3: 저는 고2 때까지만 혼난 느낌이 강해가지고 고3 올라오니까 애들도 다 상담하고 있고, 진로 관련된.
연구자: 친구는 어때요?
S3: 요즘은 대학 때문에 바빠 가지고 혼날 시간도 없고, 선생님도 그거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연구자: 선생님이랑 상담을 하거나 이런 적은 없어요?
S2: 고3이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거는 하죠.
연구자: 의무적으로 정해진 시간이 있고 그런 걸로 한다는 거죠?
S2: 네.
연구자: 그 이외에 시간에 선생님한테 따로 고민을 이야기를 해보거나 이러진 않아요?
S2: 안 해요.

또는 상담이라는 것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경우 찾아가는 것이라는 개념이 있어서 일단은 스스로 해결을 하려고 하고 그게 해결이 안 되면 찾아가는 것이고 아무 때나 자신이 원할 때 받는 것은 아닌, 다소 거리감이 있는 개념으로 청소년들의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S2: 저도 아무래도 상담이라는 말 자체가 좀 고급지다 보니까 약간 상담은 약간 큰 일, 좀 심각한 문제 그런 걸 먼저 생각하게 돼서(중략) 찾아가는데 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상담이라는 말 자체가. 그런 게 좀 있는 거 같아요.
연구자: 진짜 힘든 엄청 큰 일, 이런 일이 있을 때만 찾아가는?
S2: 네, 약간 그런 느낌.
연구자: 만약에 지금 당연히 아닌데 만약에 진짜 친구들이 생각하는 정말 큰일이다, 그런 게 나왔다 그러면 상담을 받으러 가는 건 그때는 상담이 딱 떠올라요. 그 해법 중에 하나로?
S4: 일단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게 해결이 안 되면 그때.
연구자: 아직 상담이 거리가 느껴지는 거네요. 좀 나한테 내가 원할 때 아무 때나 받거나 이런 거라고 잘 생각이 거죠?
S4: 네.

①-5. 학교교사의 도움에 대한 불신

학교에서 심리적으로 다소 심각한 문제가 있거나 학교에서 상담실이 없는 경우 교사가 적합한 기관을 소개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럴 수 없을 거라는 판단이었다. 청소년 자신이 스스로 찾아야 하는 것이지 교사는 그런 걸 추천해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교사가 바쁘기도 하지만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 위로받으러 갔다가 오히려 상처가 되는 말을 듣고 오기도 한다. 자기 뿐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그런 비슷한 경험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 경우 교사가 직접 상담을 해주지 못하면 전문기관에 대한 정보라도 주면 좋지만 교사들은 그런 정보를 알지 못한다. 이에 대해 한 청소년은 최소한 그런 기관을 알아서 찾아갈 수 있게 팸플릿이라도 주고 소개라도 해주면 고마운 일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이런 반응에서 상담을 받으러 가서 교사에게 받았던 상처를 느낄 수 있었다. 한 사례에서는 자기가 초등학교 때 왕따를 당해서 선생님에게 어려움을 표현했는데, 선생님이 '네가 예민한 거 아니냐.'고 화를 낸 것에 대해 상처를 입었다. 그런데 이 학생이 나중에 고등학교를 자퇴할 때 교사에게 심리적으로 힘든 상황을 설명하게 되었는데, 그 아이에게 교사가 '너만 그런 거 아니다'라고 전혀 공감을 해주지 않아서 다시 한 번 상처를 입기도 하였다. 결국 이 학생은 자퇴를 하고 현재는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중이다. 이는 모든 교사들이 상담의 전문가가 될 수는 없으나 적어도 상담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 등에 대한 교육과 함께 지역에 연계 가능한 전문기관에 대한 교사대상 홍보작업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연구자: 비슷한 상황의 어떤 친구가 담임 선생님을 찾아와서 힘들어 하는 걸 도움을 요청을 했을 때, 선생님이 추천해주실 수 있는 정보가 있을까요?

S5: 없으신 거 같아요. 저랑 비슷한 상황인 애들도 많았는데, 그런 거에 대한 해결방안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알아서 찾아오지 않으면 알 수가 없었어요. (중략) 일단 선생님들도 자기가 도와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 그런 정보를 일단 알고 있어서 알려주는 것만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히려 저는 위로를 받고 싶어서 갔다가 나쁜 말을 들어버렸어요. 선생님도 잘 모르시니까 하는 말인 건 아는데, 일단 자기가 뭔가 제대로 된 조언을 해줄 수 없는 어른이라면, 정보는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적어도 팸플릿 같은 거라도 건네주면서 이런 데가 있으니까 한 번 가보는 게 어떠냐? 그것만으로도 고맙죠.

연구자: 학교 다닐 땐 특별히 좀 힘들었다거나 불편함을 느낀 적 있었어요?
S5: 제가 알게 모르게 왕따를 당해가지고. 선생님이 보기엔 괜찮은 거죠. 근데, 체육시간이나 이런 게 싫어지는... 점점 내가 짝을 할 친구가 없는 거. 딱히 있다 해도 다른 친구들 얘기를 듣고 '아, 쟤 이상하대'하고, 그렇게 소외가 되는.
연구자: 그럼 혹시 선생님한테 그런 얘기 해봤어요?
S5: 한 번. 한 번 해봤나? 아, 두 번 해봤는데 처음 선생님께서는 (제가) 너무 힘 들 때니까 상담실까지 불러주셔서 상담까지 했었는데, 근데, 그 선생님은 저를 소외시키는 애들이랑 친해가지고, 네가 예민한 게 아니니? 하고 저한테 화내가지고....
(중략)
S5: 고등학교 자퇴하기 전에 전학 갈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처음엔 제가 위로를 받을 생각을 하고 간 건 아니었었는데, 은연중에 제가 그런 기대를 하고 있었나 봐요. 위로의 말을 건네주실 줄 알고... 그런데, 너만 힘든 게 아니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연구자: 담임 선생님이? 너만 힘든 거 아니라고?
S5: 네. 알긴 아는데요.... 그 뭐랄까?
연구자: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어떤 느낌이었어요?
S5: 되게 실망했었어요.

①-6. 지역사회 청소년상담기관에 대한 정보 부재

학교상담실과는 별도로 청소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역사회 지원체계 중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존재에 대해 청소년들은 잘 알지 못하거나 이름만 들어본 적이 있는 정도였다. 이는 면접조사에 참여했던 청소년들이 심리상담의 필요성이 크지 않은 청소년들이었기 때문일 수도 있고, 일반적으로 청소년들에게 지역의 청소년상담전문기관의 홍보가 잘 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이는 학교상담실에 대해서도 크게 무관심한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면 심리적 어려움을 겪었을 때 아무데서도 도움을 받을 수 없음을 의미한다.

연구자: 혹시 지역에 심리상담 센터, 청소년상담센터 이런 거 들어본 적은 있어요? 그런 곳에 가도 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S4: 전혀.
S3: 들어본 적은 있는데 가본 적은 없어요.
S2: 저는 이름만 정말 이름만.
연구자: 주변에서 거기에 간 친구들도 들어본 적은 없고?
일 동: 네.
연구자: 아예 ○○친구는 그런 지역 센터에 상담을 해주거나 이런 게 있는지도 잘 몰랐던 거고?
S1: 네.

실제 본인이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경우는 확실히 지역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대해 알고 있었다. 한 청소년의 경우 심리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학교를 자퇴하였는데, 학교를 다니던 당시에는 몰랐는데 자퇴 후에 인터넷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 청소년은 청소년상담센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많이 얻은 것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자퇴 후 막막한 상황에서 검정고시 준비나 각종 청소년활동을 소개해주어서 참가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뭔가를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얻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청소년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받은 것이 심리적 어려움의 측면에서는 크게 도움이 되었다는 느낌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냥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곳일 뿐이지 그 이상 전문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는 경우 가서 이야기를 할 수는 있지만 뭔가 나아지고 싶다면 도움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결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경우 청소년이 오면 심각하지 않은 수준에서 상담하고, 아이의 욕구에 따라 다양한 활동이나 진로를 안내해주고 이끌어주는 데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만 심리적으로 심각한 수준의 문제가 있거나 본인의 어려움이 매우 커서 심리적 지원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들이 느끼기에 다소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였다. 이는 청소년들의 심리·사회

적응 및 위기지원을 위해서는 학교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뿐 아니라 그 이외의 전문적 기관들이 함께 연계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연구자: 지역에 그런 청소년상담센터, 청소년 쉼터 이런 거 있는 건 알아요?
S5: 자퇴하고 나서 알게 됐어요.
연구자: 학교 다닐 땐 몰랐어요?
S5: 몰랐어요. 학교 다닐 때 친구도 비슷하게 힘들어해서 동시에 자퇴를 했었는데, 그때 인터넷에서 알아보다가 뭐지? 청소년상담센터. 이런 게 있어서 소개를 시켜서 링크를 주고 걔가 먼저 다니게 됐었는데 저도 나중에 그걸 조금 이용을 하다가 괜찮아져서
연구자: 청소년상담센터 지원센터에서 뭐 어떤 걸 받았어요?
S5: 상담이랑 심리검사.
연구자: 지금 받는 병원이랑 거기랑 청소년상담센터랑 어떤 차이가 있어요?
S5: 일단 청소년상담센터는 그냥 제 얘기를 하는 곳일 뿐이지. 그니깐 막 해결책을 주진 않거든요. 근데, 병원에서는 일단 환자가 줘요. 줘요. 하니까 어드바이스도 해주는데, (청소년상담센터는) 딱히 그런 걸 기대 할 수 없다는 거.
연구자: 거기는 약간 들어주는 거까지 밖에는 안 되는 거 같은 느낌이라는?
S5: 네.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지 못하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런 상황인 애들이 가기도 하고.

S5: 원래 다녔던 데는 보통 같이 해서 가끔 연락이 오면 시간을 맞출 수 있으면 같이 가거든요. 뮤지컬이나 그런 거 보고. 그런 거는 좋고. 저도 나중에 가을날에 취업프로그램이 있어서 아니면, 자격증이나 배울 수 있으면 이용해보고 싶다고.
연구자: 그런 거 많이 잘 아는 거 같아요. 무슨 프로그램 어디서 뭘 하는지. 이런 거 어떻게 알았어요?
S5: 처음에 상담 시작하고 나서, 꿈드림 소개를 받고 검정고시 진행이나 이런 거 여러 가지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그때 아 뭘 할 수 있겠다. 싶었죠.
연구자: 청소년상담센터?
S5: 네. 센터에서
연구자: 청소년센터에서 상담받기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다 이제 알려줘서 그렇게 해서 알게 된 것들이에요?
S5: 네네.

①-7. 상담전문가 보다는 친구 또는 부모님

학교나 지역사회의 전문적 상담에 대한 인식이 크게 없다보니 문제가 생겨도

상담을 해야겠다는 생각보다는 친구와 이야기하거나 부모님과 의논하면 된다는 생각을 지니고 있었다. 굳이 상담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게 좋은 이유는 서로 이야기하면서 자신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면서 공감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단지 공감만을 할 뿐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상태라는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느끼고 있었다. 이는 실제로는 전문가의 상담을 통한 문제해결이 필요한 상황인 경우에는 친구나 부모에게 단순히 마음을 털어놓는다고 해결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볼 수 있다.

연구자: 요즘 학생들은 예를 들어서 엄마, 아빠한테 짜증이 나거나 친구 간에 문제가 생겼거나 그럴 때 상담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마음속에서 들어요?
S4: 전혀 안 들어요. 그냥 친구끼리 말 하거나 그러면 되니까.
연구자: 친구가 제일 편해요?
S4: 그냥 편하게 말할 수 있고.
연구자: 다른 친구들은?
S1: 저는 그냥 직업에 관련돼서 고민이 있으면 선생님도 아니고 부모님이 딱 떠올라요. 딱 상담할 대상이라고 떠오르고, 왜냐하면 부모님께서 갈 곳도 정해주시고, 대학도 과도 정해주시고 하셔서 부모님만큼 상담이 잘 되는 곳은 없는 거 같아요.
연구자: 부모님이 제일 좋은 상담사이군요?
S1: 네.
연구자: ○○는?
S3: 저도 그냥 부모님이랑 막 싸우고 풀면 그게 제일 가장 좋은 방법인 거 같아요. 아니면 너무 크게 싸워가지고 풀기 힘들 때는 제일 편한 게 친구에요. 친구한테 쉽게 말을 하다 보면 좀 기분 나아지고 시간 지나면 부모님은 자연스럽게 풀리고.
연구자: 친구랑 먼저 풀고 조금 가라앉으면 그때 나 이랬다 부모님한테 이야기를 하고 그런 편이에요?
S3: 네.

(중략)

연구자: ○○도 스트레스 받고 이럴 때 친구들하고 풀어요?
S1: 저는 스트레스를 받는 게 학교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부모님한테서 받기 때문에 진로 때문에 서로 엇갈리니까.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친구들이랑 서로 대화하면서 풀어요, 제 고민 다 털어놓고. 근데 서로 똑같은 상황이다 보니까 풀어지진 않아요.

①-8. 일단은 학교에서, 그러나 비밀보장을 위해서는 지역의 전문기관을 선호

만일 상담을 해야 한다면 학교와 지역의 청소년상담센터 중에서 어디를 갈 것 같은지에 대해 청소년들은 개별적으로 의견이 달랐지만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었다. 그것은 아마도 주변에 무엇이 있는지 잘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전문기관을 찾아가는 과정이 번거롭고 힘들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 청소년들은 외부의 상담센터는 선뜻 찾아가기에 쉽지 않다는 태도였다. 따라서 익숙한 학교 내 상담실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었다. 그러나 학교에서 하는 경우 단서는 상담하는 사람의 입이 무거워야 한다는 것이었다. 즉, 학교에서 상담을 할 때 비밀보장이 될 것인가에 대해 불안감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그래서 학교교사보다는 지역의 전문기관을 이용하고 싶다고 말한 청소년의 경우는 학교가 아닌, 개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외부 시설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응답을 하였는데, 그것은 결국 학교에서 자신을 아는 사람들이 없는 상태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더 진솔한 대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비밀이 보장되는 것이 중요함을 의미하며, 결국 학교상담의 경우 비밀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는 불안감을 지니고 있음을 드러내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연구자: 친구랑 얘기를 해도 친구는 나랑 비슷하니까 뭔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전문적인 조언을 해 주길 바라면. 학교에서 전문 선생님이 오셔서 전문 상담가랑 얘기하는 게 편할 거 같은 지. 외부 학교가 아닌 학교 밖에서 센터. 전문 상담 센터 찾아가서 얘기하는 게 편한 지. 어디가 편할 거 같아요?

S8: 학교가 편할 거 같아요.

연구자: 왜요?

S8: 학교가 익숙하니까.

연구자: 다른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S6: 학교

연구자: 이유가 비슷해요?

S6: 눈에 보이면 찾아갈 거 같아요.

연구자: 다른 두 친구는 어때요?

S7: 학교

연구자: 왜 학교가 외부보다 더 좋아요?

S7: 센터는 뭔가 가기 힘들 거 같아요.

연구자: 선뜻 가기가.

S7: 그냥 뭔가 귀찮을 거 같아요.

연구자: 찾아 가야 되니까.

S7: 네.

연구자: S9 친구는 어떻게 생각해요?

S9: 저는 둘 다 괜찮을 거 같은데... 센터 쪽이 찾아 가기 힘들 지 모르는데 저는 자주 보는 사람들한테 정말 얘기하기 그런 건 잘 안 볼 사람한테 얘기하면 더 편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S5: 일단 학교에 있으면 제일 좋을 거 같긴 해요. 그 분이 일단 입이 무거워야겠지만, 일단 내가 힘들 때 뭔가 그런 홍보도 필요할 것 같긴 한데. 힘들 때 찾아오라는 그런 메시지. 많이 몰라서, 못가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학교? 일단 학교가. 그리고 센터.

S13: 저는 학교에 있었으면 좋은 거 같아요.

연구자: 어떤 면에서요?

S13: 찾아 가기도 쉽고 바로바로 학생들은 하루에 반을 학교에서 보내잖아요. 그래서 바로 가면 좋기도 하고. 그게 제일 좋은 거 같아요.

연구자: 혹시라도 나중에 내가 좀 힘든 일이 있다. 그럴 때 학교에 있는 선생님한테 가는 게 좀 더 마음이 편할지, 아니면 아예 그냥 처음 보는 분이긴 하지만 전문적인 상담가를 찾아가는 게 좀 더 마음이 편할지, 어떻게 생각해요?
S3: 저는 외부에서.
연구자: 계속 얼굴을 보던 사람보다는 낯설긴 하지만 전문적인 그 분들한테?
S3: 왜냐하면 학교에서는 친구들끼리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혼자만의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아예 차라리 혼자 외부로 가서 하는 게 좀 더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연구자: 독립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 그게 좀 더 마음이 열릴 거 같아요, 얘기하고?
S3: 네.

①-9. 상담 및 정신보건 관련 기관 이용의 어려움

실제 심리적 어려움이 있어서 전문 상담기관을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이용 경험을 물어보았는데, 일반 개인이 운영하는 의원을 이용하는 것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국립의 종합병원을 이용하려고 했지만, 대기가 너무 길어서 한참을 기다렸다. 예약 후 병원을 방문하기까지 한 달 정도를 기다렸다는 것이다. 결국 비용의 문제로 일반 병원을 가는 것은 대부분의 청소년들에게 힘든 일이고 비용이 싼 병원을 가거나 상담센터를 가야 하는데 그런 곳은 상담을 받기까지 한참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당장 심리적으로 괴로운 위기상황에서는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연구자: 그 혹시 방금 치료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아팠던 치료를 받은 거예요? 아니면
S5: 우울증치료
연구자: 우울증?
S5: 네.
연구자: 어디서 치료를 받았어요?
S5: ○○에 무슨 의원이 있는데,
연구자: 아, 그냥 일반 개인이 운영하는 심리상담센터? 거기를 간 거예요?
S5: 네. 원래 국가 그런데도 있는데, 대기번호가 엄청 많고. 그리고 제가 미성년자이다 보니까 소아청소년과를 가는데 그 조금 뭐랄까? 선생님이랑 안 맞는 거 같아서.
(중략)
연구자: 병원 부설 주관 이런 건 거예요?
S5: 부설기관이 아니고 거기 그냥 종합병원이에요. 국가에서 만든 병원이에요.
연구자: 청소년 지원센터 이런 게 아니고? 의료기관에 있는?
S5: 네.
연구자: 아. 거기도 대기가 그렇게 길었어요?
S5: 좀 병원비가 싸다보니까. 좀 길었어요. 예약을 한참 전에 잡아두고 갔었어요.
연구자: 얼마나 기다렸어요?
S5: 오래되긴 했는데, 한 달? 2주 인가? 한 달인가? 꽤 기다렸던 거 같아요.

② 학부모

②-1. 전반적으로 잘 지내고 큰 문제없이 학교생활 잘 하고 있다는 시각

청소년과 마찬가지로 어머니들도 자녀들의 학교생활이나 일상생활에 대해 문제없이 잘 지낸다는 응답이 일반적이었다. 부모들이 자녀가 잘 지내냐는 도입 질문에 대해 '친구가 많다', '성격이 활달하다', '성격이 밝다' 또는 '깊이 생각을 하지 않는 성격이다'라는 등의 응답을 하였다. 다문화청소년들이 전반적으로 큰 문제없이 잘 지내는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이나 청소년의 면담에서도 나타났던 바와 같이 면담이 진행되면서 청소년들이 성정과정에서 다문화청소년이기 때문에 경험하게 된 부정적 사건들이 한 두 가지씩 있었고 대부분은 잘 극복하고 성장하였으나

그 때의 사건들은 여전히 마음속에 남아있기도 하고, 심각한 경우는 학교를 그만두고 심리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이러한 경험들은 다문화청소년들의 성장에서 그들을 힘들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수 있으며, 이런 문제가 다문화라는 특성에서 온 것이라고 한다면 이에 대한 지원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연구자: 00이는 성격이 어때요? 학교생활은 잘 하나요?
M32: 활발해요. 그리고 집에 있으면 가만히 있는 거 좋아해요. 나가면 친구들하고 잘 놀고 친구들 사귀는 거 너무 잘 사귀어요.
M4: 친구 많아요.
M2: 아무 생각이 없어요. 깊이 생각을 안 해요.
연구자: 성격 밝아요? 얘는?
M30: 네
연구자: ○○이는요?
M31: 네. 말하는데 전혀 문제없고. 잘 지내요.
연구자: ○○이는 어때요?
M29: 친구 많아요.
연구자: 성격은 활달해요?
M29: 엄청 활달해요.
연구자: ○○이는 학교 잘 다녀요?
M26: 네
연구자: 친구도 많이 있어요?
M26: 네
연구자: 성격은 어때요?
M26: 활달해요.

②-2. 다문화라는 이유로 자녀가 경험한 부정적 사건과 심리적 상처

전반적으로는 큰 문제없이 잘 지내고 있고 친구들이랑 잘 사귀고, 때로는 아이가 민감하지 않아서 외부의 자극에 대해 크게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서 괜찮다는 응답을 하였지만, 면담이 진행되는 동안 자녀가 경험한 한 두건의 사건들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청소년이 언급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다문화가정 출신이라는 것이 자녀의 성장과정에서 부당한 차별의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나타내었다.

어머니들이 느끼기에 차별적 행동은 주로 엄마의 출신국에 대한 비하로, 한국보다 경제적 수준이 낮은 국가 출신의 어머니인 경우가 주로 놀림과 차별의 대상이 되고 미국 등 선진국 출신의 어머니에 대해서는 그런 차별이 없는 이중적 잣대에 대해 한층 더 상처를 받고 있었다.

한 아이의 경우 어릴 때는 방학 때 중국에 자주 가는 것에 대해 주변의 아이들이 잘 모르고 부러워하다가 반복적으로 중국을 가는 이유를 궁금해 하는 과정에서 어머니가 중국 출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주변 아이들의 태도가 미묘하게 변하면서 이제 더 이상 어머니가 중국 출신이어서 중국을 가는 것이 자랑거리가 아닌 숨기고 싶은 일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그 아이는 중국에 가는 것을 싫어하게 되고, 더 이상 중국을 가지 않겠노라고 선언을 하게 되었다.

연구자: 누가 뭐라고 했어요? ○○한테?
M11: 다문화 중국애 어쩌고 그러니까. 비하하면서. 미국에서 왔다고 하면 다르더라고요. 그것이 우리 한국의 편견이더라고요. 중국에서 사람들이 더럽다 이런 거 저런 거 말해요. 우리 애는 진짜 그러냐고. 그거 아니다. 진짜 1년에 2-3번 가거든요. 여기저기 데리고 다녀요. 그런데 그 후부터 안 가요. 너 방학에 어디 갔어? 중국 갔어. 왜 자꾸 중국 가는데. 그래서 알게 된 건데 그래서 이제 안 간다고 해서 5학년부터 안 가요. 지금까지 안 가려고 해요. 작년에 억지로 끌고 한 번 갔는데도 가기 싫어해요. 재작년인가. 이제 고3이니까 데리고 가지 마(그랬어요). 나는 이해를 못 하겠어. (중략) 이해를 못하는 거죠.

연구자: ○○이는 어때요?
M31: 있었어요.
연구자: 다문화라고 차별 받은 적 있었어요?
M31: 차별 아니고 한 번 두 번 있었어요. 1학년 때.
연구자: 어떤 일 있었어요?
M31: 그 때 친구들 아니고 오빠. 어떤 오빠. 그런데 (그 애가) 다문화 가족이에요. 러시아 엄마잖아. 러시아 안 좋다고(얘기했어요). 애기 때. 지금은 괜찮아요.
연구자: 그래서 엄마가 어떻게 해 주셨어요?
M31: 저는 러시아 좋아요. 러시아 최고. 러시아 영화 보여주고 그런 식으로. 러시아에 일본 사람 많아요. 보여주고. 그냥 너도 똑같이 예뻐질 수 있어 라고 했어요.

다문화에 대한 차별은 본인이 직접 경험하지 않아도 간접 경험만으로도 충분히 청소년에게 위협적인 사건으로 다가오는 것으로 보인다. 겉으로 다문화배경을 지닌 가정 출신인지를 구분할 수 없는 경우는 학교에서 자신의 배경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애를 쓴다. 외모에서 다문화배경을 숨길 수 없는 다른 아이들이 어떻게 놀림을 받고 왕따를 당하면서 상처받는지를 지켜보았기 때문이다. 다문화청소년의 정체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곳이 학교가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학교에 가기 전에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굳이 생각하지 않고 지내다가 학교에 입학하여 다문화학생을 위한 조사과정에서 자신이 다문화가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때 다른 아이들의 시선을 느끼게 되면, 다문화라는 '사회적 소외계층'에 자신이 속한 것이 부끄럽게 느껴진다. 따라서 지원을 받지 못하더라도 다문화가정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는다. 자신의 어머니가 외국출신인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자녀의 모습을 보면서 어머니는 그 사실에 다시 상처받는다.

연구자: 다문화인 거 왜 싫어하는 거 같아요?

M11: 그러게요. 우리 ○○초등학교 다녔거든요. 거기 애들도 베트남도 있고 필리핀도 있었고 ○○대 교수들 있잖아요. 그래서 외국 애들도 있었어요. 걔들이 거기에서 좀...뭐가 다르잖아요. 약간 애들이 놀리거나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자기도 본인은 어릴 때 모르잖아요. 제가 그럴 까봐 3년 동안 한국어 배웠거든요. 사전 놓고 배우면서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말 배우면서 애한테 하니까 엄마가 중국인인 거 모르는데 학교 가니까 그런 거 써야 되잖아요. 그 때 다문화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엄마 안 쓰면 안 되냐고.

연구자: 학교에서 뭘 썼어요?

M11: 뭐 조사해요. 그런데 사실 지원 이런 거 없잖아요. 그냥 다문화 학교 급식비랑 이런 거라도 물어본다고 조사 한다고. 3학년 인가 그 즈음이었을 거예요. 엄마 쓰지 마세요. 나 그냥 그 돈 내 주세요. 쓰지 마세요. 이런 거 그래서 계속 그러더라고요. 중국어 싫어 안 배워. 아예 안 배우고.

(중략)

M11: 자기 학교 애들이 조금 왕따라기보다는 놀림 좀 받잖아요. 그래서 나도 다문화이니까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 거 같아요. 왜 그래? (그랬더니) 그냥 싫어.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애가(싫은 이유에 대해서는) 말을 잘 안 하려고 해요.

연구자: 방학 때 필리핀 가세요?
M19: 비싸요. 비행기표 사서 갈 수 있는데요. 문제는 우리 문화 수업을 들어야 되고. 쉽지 않아요. 그리고 첫째는 엄마 나라 싫어해요.
연구자: 왜요?
M19: 자기가 한국 사람이래요. 자기가 엄마 나라하고 음식 그런 것들이 사춘기 들어가서부터 엄마 그건 안 맞아. 나는 한국 사람이고 이렇게 지내고 싶어 해요. (중략) 학교 가면 싫어해요. 엄마가 필리핀 사람이라고 하면 창피해 해요.

자녀들이 차별적 시선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은 사회적 분위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잘 모르다가 주변에서 '다문화'는 '소외계층'이라고 지속적으로 말하는 것을 들으면 기분이 좋지 않다. 사실은 스스로가 소외계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고,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남들만큼 잘 살고 있는데 다문화집단 전체에 대해 '소외계층'이라는 낙인을 붙이는 것에 대해 불편감을 느끼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고 기가 죽는 것은 아니나 주변에서 지속적으로 자신이 속한 집단을 깎아내리면서 사회취약계층으로 몰아버리는 것은 결코 유쾌한 기분이 아니다. 실제로 그 누구든 처음에는 기가 죽지 않았어도 자신이 속한 집단을 비하하는 용어가 사회적으로 통용되고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여진다면, 결국에는 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혼자 당당히 전혀 기죽지 않고 사는 것은 매우 강한 정신력을 지니지 않고서는 극복하기 힘든 일이기 때문이다. 어머니들이 표현한 이러한 심리적 불편감은 자녀들 역시 그대로 느낄 수 있는 문제로, 이는 다문화청소년들의 심리적·정신적 건강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서 건강한 성장에 영향을 줄 수 있으리라 쉽게 예측할 수 있다.

M14: 전에는 그렇게 못 느꼈는데 지금은 애들이 스스로가 다문화에 대해서 약간 특별한 것이 있다는 것을 보고 느끼는 거 같아요. 저는 어디에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가 다문화라면 소외된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저는 그게 마음에 안 들어요. 소외되지 않았는데. 그래서 그런다고 해서 뭐 기 죽고 그런 건 없는데.
연구자: 기죽고 그러는 건 없는데 자꾸 사회적으로 말이 그렇게 되니까 마음에 안 든다는 말씀
M14: 네

②-3. 교사로부터 겪는 다문화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어머니들은 자녀의 또래들로부터 받았던 편견과 차별에 대해서보다 학교교사로부터 받는 편견과 차별에 대해 훨씬 더 분노하고 심각한 문제로 생각하고 있었다.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바로잡아야 할 주체가 교사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머니들과의 면접에 등장한 교사들의 사례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매우 이례적이고 비상식적인 경우가 다수이다. 예를 들면 교실의 다문화적 상황에 대한 민감성이 여전히 발달되지 않아서 한국과 역사적 문제가 있는 국가에 대한 감정을 날것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다. 사실상 일본이나 중국의 경우 역사시간에 과거사 문제가 나오면 매우 안절부절 할 수밖에 없다.

심지어 한 사례는 교사가 학생의 어머니가 일본 출신이라는 것을 알고 역사시간에 일본을 욕하면서 '너희 엄마가 일본사람이니까 (수업시간 동안) 일어나 있어라'라고 하여 그 학생이 수업시간 내내 일어서 있었던 경우도 있었다. 그런 경우 다문화청소년은 매우 심각한 상처를 받게 되는데, 그 때 상처를 받는 것은 그 청소년뿐이 아니다. 자신도 어머니가 일본인인데 친구들이 그 사실을 모르는 경우는 자신도 똑같이 일어서 있는 것과 같이 느끼고, 또한 자신의 정체성이 드러날까 두려워지기도 한다.

자녀에게 불이익이 올까봐 두려워서 교사에게 항의를 할 수도 없다. 그 사례에서는 같은 반에 있던 아이들은 교사의 그러한 행동에 대해 매우 수준 낮은 행동이라고 판단하고 속으로는 교사를 무시하고 있었고, 대신 친구를 위로해주었는데, 그런 경우는 친구들이 어느 정도 성숙하여 판단력이 있는 상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나이가 너무 어려서 그러한 판단을 하지 못하는 연령의 아이들이 있는 교실에서 그러한 일이 발생했다면, 아이들도 아무런 판단 없이 교사를 따라서 그 다문화청소년에게 편견을 갖고 차별적 행동을 할 수도 있던 문제이다. 이런 심각한 상황에 대해 엄마들이 분노를 느끼는 이유는 자신들이

외국에서 왔기 때문에 한국 엄마들처럼 적극적으로 항의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M11: 제가 들은 이야기는 옛날이야기인데 학교에서 애매한 역사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선생님들이 그랬다고. 그런 얘기 들었어요. 일본 욕하고 애를 서라고 해서 계셨다고. 그런 적이 있어요.
연구자: 에? 너희 엄마가 일본 사람이니까 일어서라. 그래서 일본 얘기를 했다고요?
M11: 네
연구자: 그래서 어떻게 했대요?
M14: 아무 말 못 했죠.
M5: ○○이 동생 중학교 다니는데 그런 얘기 한대요. 좌파 사상인가 봐요. 그런데 선생님이 그래도 옆(친구)에서 다 자기 편 들어주니까. 선생님을 왕따 시키는 거죠. 애들이.
연구자: 애들이 인식이 낫네요.
M10: 네
연구자: 일본하고 역사 문제 얘기하면서 나쁘게 얘기하는 거예요?
M10: 네
연구자: 선생님이 문제네요.
M10: 애가 상처 봤죠. 친구들은 모르니까. 엄마가 말해봤자 선생님이 그렇게 하시면 그런 거 같다고.

M8: 어떤 선생님이 역사 시간에 일본 쪽바리 라고 한 거예요. 완전 차별이죠. 우리 애가 엄마가 일본 사람이라는 걸 알고 얘기했나 봐요. 선생님 평가하는 거에 썼어요. 선생님 개인적인 생각이야 뭐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공적인 자리에서 그런 말을 하시는 건 아닌 거 같다.
M6: 참 그래요.
M8: 자기가 개인적인 건 자유지만. 공적인 학생들 자리에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무심코 무시하는 거죠.
M6: 입이 그냥 흘러나가는 것.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M8: 생각하는 게 없어.(생각이 없어)

연구자: 그런 경우에 애가 집에 와서 얘기하면 선생님한테 가서 그런 게 문제 있다고 얘기하기는 어렵죠?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M10: 못 하죠. 애들한테 다시 불이익 올까봐 거의 못 하죠.
연구자: 아직도 선생님들이 그럴까요? 그게 요새 그런 거예요?
M14: 네 요새.
연구자: 엄마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엄마가 한국 사람이라고 해도 그 얘기 안 할 거 같아요? 아니면 내가 외국에서 왔기 때문에?
M10: (한국 엄마들은)할 것 같아요.

또 하나의 경우는 교사의 부주의와 낮은 다문화적 민감성이 문제가 되는 경우로, 교육부에서 지속적으로 교사교육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문화적 민감성이 전혀 없는 교사의 말과 행동으로 청소년과 학부모가 상처를 받고 있었다. 본 면접에 참여한 한 어머니는 초기에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사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그 어머니는 자녀의 담임교사가 한 전화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뜻도 정확히 전달하지 못해서 외국인이라는 것이 표시가 났던 모양이었다. 그 때, 그 교사가 반 학생들 앞에서 '○○엄마랑 전화를 했는데 한국말을 제대로 못하더라.' 라는 말을 했다는 것이다. 그 말을 전해 듣고 너무 불쾌해서 학교에 가서 항의를 하려고 했더니 자녀가 그 선생님 성격이 원래 그러니까 그냥 참고 지나가라고, 시간이 지나가면 그냥 잊어버리자고 해서 모욕감을 느끼고도 아무런 항의도 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갔다는 말을 하면서 불쾌한 감정을 드러내었다.

M9: 어느 날은 담당선생님에게 전화 걸었어요. 제가 먼저 전화 걸었어요. 저도 낯선 사람 말하면 못 알아듣는 게 있었어요. 왜? 문법 옳게 못하니까. 담당 선생님이 새로 왔어요. 통화 후에는 이해가 가는데 알았다고 해서 무슨 문제 생겼는지. 왜 학교 못 가는 지. 늦게 가는 거 알아들으라고 선생님이. 그런데 학생들 앞에서 얘기해서 ○○엄마가 전화해서 한국말 제대로 못 했고. 이렇게 해서. (중략)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저도 듣고 나니까 진짜 불쾌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담당선생님 가서 만날까 하니까 엄마 이런 행동 진짜 싫다. 가면 그 선생님 그 분의 성격이 (원래)그렇다. 처음 왔을 때부터...이런 행동할 때 눈치 보는 거 안하고... 말 옳게 안 하고... 엄마 가면 뭐 하는데. 또 그 사람은 2년 더 있어야 하는데 눈치 보면 좋을 거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상처받는 거예요. 선생님 그런 성격 때문에 듣고도 참고 나도 이 시간이 흘러가면 나도 잊어버리니까.. 엄마 가서 일이 터지면 나한테 안 좋다. 애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더 큰일 만들지 말고 우리가 시간이 흘러가면 참고 지나가고 해서.
연구자: 그러니까요 학교 선생님들 때문에 상처받는 게 많아요.

또는 직접적으로 자신의 자녀나 자신에게 뭐라고 한 건 아니지만 다문화집단에 대한 편견을 자신의 앞에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드러내는 상황에 황당해 하기도 한다. 한 어머니는 다문화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방의 한 지역에 있는 유치

원 원장이 '다문화는 지역에서 못산다'라고 다문화가정 전체를 깔보고 무시하는 발언에 불쾌했던 경험을 이야기하였다. 유치원 원장은 그 지역이 우리나라에서 교육으로 유명하여 돈이 많은 사람들이 주로 거주하기 때문에 대부분 저소득층인 다문화가정은 그 지역에서 살 수 없다는 인식을 가진 것이다. 다문화가정에 대한 고정관념화된 인식은 당사자들에게는 너무 기분 나쁘고 불쾌하고 억울하기까지 하다.

M8: 다문화가정은 못 산다 이런 것. 저는 유치원에 가서 다문화수업 이런 거 했는데, 그 때도 ○○구에 유치원에 갔는데 사실은 원장선생님이 우리는 다문화 교육 할 필요 없다. 우리 유치원에 다문화가정이 없다. 다문화는 ○○구에 못 산다고 그런 얘기 제 앞에서 하시는 거예요.
M6: 사실 ○○구에 별로 없긴 해요
M8: 그건 아는데 다문화는 못 산다 이 말이 다문화가정도 미국 사람하고 결혼해도 다문화잖아요. 다문화는 동남아. 이렇게 생각 하는 거예요. 제가 다문화 수업하는 강사인데 그 소리를 저한테 한다는 건 정말... 유치원의 원장님이...

②-4. 단순한 차별적 시각이 아닌 차별적 행동의 경험

어머니들의 경우 단지 차별적인 시각이 아니라 학교현장에서 교사로부터 다문화라는 이유로 차별받는다는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이 실제인지 어머니들의 생각인지 모르지만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자신이 한국어머니였다면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자신의 자녀가 학교에서 잘못하면 전화를 하지만, 자신의 자녀가 당했을 때는 연락하지 않고 그냥 넘어간다는 것이다. 아이들이 크면서 얼마든지 싸울 수 있고 자신의 자녀가 맞을 수도 있지만, 다문화가정 자녀가 때린 경우는 전화를 해서 뭐라고 하고 다문화가정 자녀가 피해자가 되었을 때는 괜찮다고 하고 그냥 넘어간 것에 대해서 너무 억울하다고 느끼는 것이다. 그 당시 선생님이 넘어가지 않고 자녀를 때린 아이를 야단치거나 했다면 자녀가 그렇게 상처받지는 않았을 텐데 선생님에게 자기의 폭력 피해에 대해 말했

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괜찮다고 넘어간 사실에 대해서 자녀는 상처를 받았고, 어머니는 그 당시를 설명하면서 목소리를 높였다.

M24: 한국 선생님들 이렇게 얘기 했어요. 무슨 일 있을 때 우리 애기들 잘못하면 엄마한테 전화 와. 우리 애기들 뭔가 당했을 때 전화 안 와요. 연락이 안 와요. 우리 애기가 사고 치면 어머니 뭐뭐 이랬는데 수업에서 이랬다고 전화 오는데. 저는 미안하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나 누구누구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 스트레스 받아. 선생님들까지 전화 왔어요. 근데 학교에서 누가 우리 애기 때려서 입이 부었는데 선생님 몰랐다고 괜찮아 그러는 거야. 우리 아들 방학하기 전에 누가 우리 아들 가방으로 때렸는데 선생님한테 누가 때렸어요. 라고 말했는데 괜찮아요, 하고 그냥 끝났어요. 며칠 뒤에 병원 가서 부어서 열도 나는데

연구자: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M24: 상처 많이 받았죠. 그런데 사실 집에 와서 나한테 얘기 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애기들끼리는 싸우면서 크는데 그런데 우리가 안 봤어요. 쌍방 몰라요. 그런데 애기들 싸웠을 때 따지지 말고 이 일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해서 잘 풀면 좋겠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너무 바쁘신가 봐요. 그냥 넘어갔어요. 정신없었어요. 선생님도 너무 바쁘신데 우리 한명 두 명 케어도 힘든데 선생님들 20명 어떻게 해요. 사실 이해해요. 하지만 아이가 상처 받은 거예요.

연구자: 얘기해요?

M24: 네. 나는 친구 때문에 여기 아팠어요. 너무 아파서 병원 가서. 병원 가서도 나 맞았어요 이런 거야. 그런데 선생님이 네가 잘 참았다. 잘 했어요. 그런데 자기 속에서 아픈 게 있어요. 그 당시에 해결해 주면 애기들 잘 풀 수 있어요.

교사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다문화어머니들은 학교가 자신들의 특성과 상황을 이용한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한 청소년의 경우 현재 고등학교 3학년인데 1학년 때 담임이 실수로 학생기록부를 잘못 기재한 것을 2학년 때 발견하여 담임 선생님에게 수정해달라고 했더니 3학년 때 공부 열심히 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결국은 수정해주지 않고 넘어간 사건을 이야기하였다. 대입시 특성상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일관된 내용이 있어야 하는데, 다른 아이의 것을 적어놓는 바람에 학생기록부가 일관성 없이 기재되어 대입에서 불리한 상황이 된 것이다. 물론 공부를 잘 하는 아이라면 이것이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지만 성적이 매우 높지 않다면 학생기록부를 바로잡아 문제가 없도록 하고 싶은 것이 당연할 것이다.

그러나 당시 교사는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았고, 사과하지도 않았고, 교장선생님 찾아가는 것도 막았으며, 아무것도 아니라는 식으로 말을 하고 그냥 덮었는데, 결국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 대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가 다시 또 걸림돌이 되다보니 청소년과 학부모는 참을 수 없이 화가 나는 것이다. 그러나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가 학교에 찾아가는 것이 편치 않은 일이다보니 학교에 찾아가겠다는 엄마를 말라고 말리게 된다. 이 과정에서 어머니는 학교가 겉으로는 '일본 엄마들은 애들을 잘 키운다'고 칭찬하면서 속으로는 '일본 엄마들은 한국 엄마들에 비해서 조용한 특성이 있으니 이렇게 그냥 덮고 넘어가도 아무 말 없겠지'라고 생각한다고 하였다.

M14: 다문화라서가 아니라 다른 일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가려고. 교장선생님 만나러 간다. 선생님 실수가 있어서. 근데 오히려 애가 가지 말라고 해요.
연구자: 어떤 일이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M14: 학생기록부에 잘못된 게 나와 있었어요.(중략) 다른 애 게 우리 애한테. 그것은 뭐냐 하면 이미 1학년 때 그랬는데 2학년 돼서 그걸 봤대요. 전혀 다른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그걸 제가 가서 1학년 담임선생님, 2학년 담임선생님 만나서 이야기 하는데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못 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있을지 모르겠다고. 하겠다고는 하셨는데 좋게 말씀을 안 하셨나 봐요.
연구자: 아...뭘 이걸 갖고 그러니 그런 식으로요?
M14: 네. 앞으로 3학년 남았으니까 열심히 하면 그런 거 아무 것도 아니라고.
연구자: 아... 그게 있음으로써 애한테 불리한 내용이었어요?
M14: 대학 가려면 학생기록부가 거기에 맞게 쭉 맞게 돼 있어야 돼요. 그런데 중간에 바뀌거나 다른 학과로 가려면 이건 쓸모가 없어요. (중략) 자기가 공부를 잘 했으면 아무 것도 아니니까. 약간 지금 고등학교는 그렇잖아요. 공부는 잘 하는 애한테 신경 많이 쓰고 못하는 애는 안 쓰고. 그러니까 선생님도 어렵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정신적으로 애가 힘들었어요. 그 내용이 어떻다는 것보다는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나 선생님이 그렇게 잘못 썼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사과가 없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 제가 교장선생님 찾아 가려고 하니까 막았어요. 못 만나게. 선생님이. '일단 저를 만나고 가세요.' 라고. 교장선생님 안 계시고 교감선생님이라고 만나러 가실래요. 하시는 말씀이 나이가 드시니까 실수가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본인한테는 사과 안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그랬었는데 엄마 그러지 말라고. 말하지 마. 말 하지 마.
연구자: ○○이가 왜 가지 말라고 했다고 생각 하세요?
M14: 그렇게 해 봤자 엄마가 나대서 그런다 라고 할까봐. 사실은 잘 하면 될 건데. 그래서 약간 그런. 엄마가 학교를 찾아가는 건 싫어하는 거예요

M14: 잘못한 선생님 반에 일본 엄마가 둘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본 엄마들은 어떻다고 하셨는데 약간 변명인 거 같아요.
연구자: 일본 엄마가 어떻다고요?
M14: 잘 한다. 잘 키우신다. 그렇게 말하고 좀 조용히 있다고. 말 안하고 가만히 있다고. 한국 엄마들 열심히 하잖아요. 그래서 아무 말 없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던 거 같아요.

심지어는 상담이나 대회 출전 등에서 자신의 자녀가 '다문화'이기 때문에 밀렸다고 느끼는 경우도 있었다. 한 어머니가 다문화 아이가 순위에서 밀렸다고 하자 다른 어머니가 그에 동조하였고, 자기들 뿐 아니라 주변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고 들었다고 하였다. 이것이 사실인지 느낌일 뿐인지 모르지만 면접에 참여한

다문화어머니들은 자신의 자녀가 다문화라는 이유로 학교의 여러 영역에서 차별을 받는다고 느끼고 있었다. 어머니들이 이런 느낌을 받는다는 것은 자녀도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을 짐작하게 한다. 아마도 다문화청소년들이 학교 내에서 차별감을 느낄 때면 위축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분노를 느낄 수도 있을 것인데, 이러한 부당한 대우에 대한 부정적 감정은 이들의 심리적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로 보인다.

M3: 고학년 되다 보니까 이제 진학이라든지 선생님들 그쪽에다가 좀 예민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다문화라고 하면 이제 역시 뒤에 좀.
연구자: 누가요?
M3: 담임 선생님이.
연구자: 담임 선생님이요?
연구자: 다문화라고 하면 어떻다는 거예요?
M3: 차별까지는 모르겠는데 자기도 모르게 너는 다문화니까.
M1: 조금 기다려라 이런 식으로 빼놓는 거죠.
M3: 우선순위에서.
연구자: 상담할 때요?
M1: 그러니까 뭐를 해도 다른 애들은 먼저 해주고 얘는 잘해도 다문화니까 조금...
연구자: 정말요?
M3: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M1: 많이 들었어요.
연구자: 예를 들면 어떤 경우에요?
M1: 예를 들면, 무슨 대회가 있다, 아니면 뭐가 있다 그러면, 다른 애들 먼저 해주고 너는 안 해도 될 거 같다 그런 식으로.
연구자: 근데 그게 다문화 때문인 거 같아요?
M1: 저는 (주변에서) 많이 들었어요.

②-5. 학교에서 부당한 일을 당해도 엄마에게 말 못하는 아이들

학교에서 부당한 일을 당해도 엄마에게 말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엄마에게 말해봤자 엄마가 해결해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아빠에게 말할 수도 없다. 아빠는 엄마들에게 알아서 해결하라고 하고 역시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아이들은 학교에서 부당한 일을 당해도

웬만하면 자기가 알아서 해결하고 참으면서 지내는 경우가 많았다. 마음이 아프지만 엄마도 막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고 자신도 없다.

M1: 학교에서는 대부분 보면 애들이 자기 엄마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 그거는 잘 이야기를 안 해요. 잘 안 해요.
연구자: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M1: 피부색이 조금 달라도 그거는 알 수 있지만, 대부분 베트남이나 캄보디아나 그 쪽은 엄마들이 한국어를 잘 못하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잘 이야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있으면 본인들이 해결하려고 그러지, 부모까지는 저거를 안 하더라고요.
연구자: 그러니까 더 좀 가슴 아픈 거 같아요. 엄마한테 이야기를 안 하고 자기가.
M1: 문제는 엄마한테 이야기해도 엄마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야.
연구자: 그러면 아빠는요?
M1: 아빠한테 이야기해도 너는 학교 다니는데 네가 해결 못하냐, 그런 식으로 나가니까, 나도 일하느라 바빠 죽겠는데, 왜 조그만 일 때문에 큰일을 만드냐.
연구자: 애한테 (아빠가)그렇게 이야기한다고요?
M1: 그렇죠. 근데 엄마는 말도 못하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연구자: 애들이 웬만하면 자기가 알아서 하려고.
M1: 그렇죠. 참는 거죠.
연구자: 참거나 이런 거지 그걸 엄마한테 이야기하거나 할 수 없는 거죠.
M1: 어쩔 수 엄마한테 이야기해봤자 엄마는 해결해주지 못해요. 해결을 못 하니까 엄마가 언어를 잘하면 전화해서 따지는데 그러지를 못하면 그냥 덮어버리는 거죠.

M24: 학교가 문제에요. 학교 자체가 엄마가 다문화라는 거 아는 건 상관없는데 아이한테는 심리적으로... 다른 애들이 엄마가 외국인인데 때리고 왕따 해도 집에 얘기 안 한다고 그런 생각이 있어요.

엄마가 대처를 강하게 해주는 것도 아이의 입장에서는 부담스럽다. 한 아이는 학교에서 같은 반 아이가 돈을 가져오라고 해서 몇 번 갖다 주다가 엄마에게 들켜서 그 일로 엄마가 선생님에게 전화하고 상대방 엄마에게 전화하고 매우 강하게 대처를 해서 미안하다는 사과를 받았다. 하지만 엄마가 너무 강하다 보니 오히려 엄마에게 쉽게 말을 하지 못한다. 엄마가 '문제를 일으키면' 다른 아이들이 자신과 놀지 않을까봐 두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른 아이가 밀어서 발목을 삐는 바람에 병원에 가야 하는 상황인데도 엄마에게 말을 하지 않는다. 아이가 마음이 힘들

것 같다는 연구자의 말에 엄마는 다문화학생이 반에 자기 자녀 혼자라는 말을 하였다. 예전에는 한 명 있었는데 전학을 가서 이제 없다는 것이다. 그것은 다른 다문화가 아닌 아이들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친해져야 하는 상황임을 뜻하고 친구 중에 같은 다문화친구가 있다는 것이 서로에게 힘이 되는 부분임을 시사하는 언급으로 보인다.

M21: 애가 저한테 무슨 일 있으면 자기가 다쳤나 뭐나 말 안 해요.
연구자: 왜요?
M21: 저 무서워서. 지금까지.
연구자: 학교에서 무슨 일 있는 지 얘기 안 해요?
M21: 얘기 안 해요. 낮에는 얘기해서 주말에는 무슨 선생님은 친구들이 뭐 싸웠는데 나중에는 또 친구들이 나쁜 생각. 나중에는 친구들이 어디 몰래 같이 놀다가 때려서 어떻게 했냐고 그랬더니 말 안 해요.
연구자: 그런데 느낌으로 그런 일이 있는 거 같아요?
M21: 친구들하고 놀다가 밀어서 여기 발목에 걸려서 엄청 많이 부었어요. 저 앞에 있으면 똑바로 걸어요. 그런데 제가 없으면 삐딱하게 걸어요. 어제 보니까 너무 많이 부었어요. 이렇게 멍들어서. 발목에. 제가 병원에 데리고 가서 고정했어요.
연구자: 그런데 친구가 그랬다는 얘기는 안 해요?
M21: 그 전에는 오빠 나 친구가 밀었어. 그래서 학교에서는 걸려서 그냥 삐딱 하는 거예요. 애가 말 안 해요. 친구들이 그랬다는 말. 저는 너무 강해. 엄마한테 말 안 해요. 너무 화가 나서 자기는 다문화학생이잖아요. 다 친구들이 한국의 엄마잖아요. 그래서는 친구 없을 까봐 얘기 안 해요.
연구자: 혹시라도 내가 당하고 이래도 엄마가 문제 일으키면 친구들이 안 놀 까봐.
M21: 네
연구자: 걔 마음 힘들겠다...
M21: 네. 힘든 거 같아요. 친구 없을 까봐. 혼자만 다문화학생이에요. 한 반에. 반에서 자기 혼자에요.
연구자: 지금 4학년인데 옛날에는 다문화 친구 있었어요?
M21: 1학년 때는 3명 있었어요. 지금은 다 이사 갔어요. 인천에 이사 갔어요.

②-6. 엄마가 외국출신이라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면 위험, 숨겨도 문제

어머니들은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외국출신이 한국사회에서 그렇게 환영받는 존재가 아님을 알게 된다. 친하게 지내던 사람이 자신이 중국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된 후 갑자기 말도 안 거는 상황을 경험한 한 어머니는 한국 사람과는 사귀지 않으려고 노력한다고 하였다. 친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말도 걸지 않는 사이가 되는 것은 심리적으로 매우 큰 충격일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그 어머니는 한국 사람을 되도록 만나지 않으려 하게 되었고,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에도 출신국을 숨기려고 하였다. 따라서 자녀들에게도 자신의 다문화정체성을 밝히는 것에 대해 신중하라고 가르친다. 먼저 상대가 어떤 아이인지 사귀어보고 받아들일 수 있는 아이라고 판단될 경우에 밝히라는 것이다. 특히 한국과 역사적 문제가 얽혀져 있는 일본의 경우는 더욱 더 정체성을 밝히는 것이 부담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다문화정체성은 밝혀도 문제, 숨겨도 문제이다. 밝히면 차별의 대상이 되고 숨기면 또 숨긴 것이 문제가 된다. 물론 자녀에게 당당하게 행동하라고 가르치기는 부모도 있다. 그러나 자신의 배경에 대해 일부러 말을 해야 하는지 아닌지를 고민하는 것은 매우 심리적 불안감을 유발하는 스트레스 상황이다. 발달과정에서 이러한 심리적 상태를 지속적으로 경험한다는 것은 매우 불리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지속적으로 남의 눈치를 보고 자신의 정체성을 신경 쓰는 것은 결코 건강한 상태가 아니며 이러한 심리적 상태가 지속되는 것은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M15: 지금 사는 곳이 ○○이다 보니까 외국 아이들이 되게 많아요. 외국 사람들한테 차별받고 그런 거는 없는데, 아이들이 가끔씩 보면 어떤 엄마들이 외국 사람이라고 표 안 나게 하려고 하는 엄마들도 있더라고요. 처음에 숨기려고 하는 게 있어요. 초창기에는. 지금은 얘기해요. 얘기하면 편해요. 저는 처음에 한국 분하고 같이 이렇게 두 달 정도 같이 앉았는데 저한테 간식도 잘 챙겨줘요. 주니까 그냥 받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전화를 중국말로 하니까 자기 중국 사람이야? 그래요. 그 다음부터 저한테 말도 안 걸더라고요. 처음부터 외국 사람이라는 걸 알고 접하면 괜찮았을 텐데 저를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 했나 봐요. 언어 비슷하게 하니까. 저는 숨기려고 한 것도 아니고. 일부러 내가 중국 사람이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서 그랬는데 그 때 충격이 컸어요. 그 다음에는 최대한 한국사람 안접하려고 했어요.

M2: 제가 일본인이니까 (자녀에게) 신중하게 밝혀라. 엄마가 그렇다는 말 하지 말고 좀 사귀어 보고 할 수 있으면, 알아서 당당하게 해라 그랬더니 그냥 말 안하고, 중학교나 고등학교 되면 자기가 말 하니까, '어머 너 일본 사람이었어? 전혀 몰랐어.' 그 소리를 들었대요.

M3 : ○○이는 그랬어요. 근데 동생들은 일본 사람이라고 굳이 말하지는 않지만, 굳이 말을 안 할 수, 없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숨길 필요도 없는 거 같고.
연구자: 굳이 먼저 이야기할 필요도 없지만, 숨길 필요도 없고.
M3: ○○이만 그랬고 나머지 동생들은 자연스럽게, 일본 사람이라고 만약에 역사 공부해서 하면, 그 때는 말 안하는 거 같아요, 자기 일본 사람이라고. 말 하게 될 때는 갑자기 그렇게, 엄마 일본 사람이라서 뭐 만들기만 해도 일본 거라고 자랑하고, 필요할 때는 말하고 자연스럽게.

M1: 근데 그거는 오히려 숨기면 나중에 또 숨기게 돼요. 차라리 있는 대로 밝혀 놓으면 편해요. 엄마 일본 사람 어때.

②-7. 자녀가 차별받을까 개명으로 정체성 숨기기

이주여성들 중 국적을 취득한 경우는 한국식으로 이름을 개명한 경우가 많았다. 개명의 이유를 물어보니 처음의 반응은 한 결 같이 병원에서 이름을 부를 때 외국 이름이 불편하고 다른 사람의 주목을 끌어서라고 하였다. 그러나 좀 더 깊은 이야기를 하게 되면 사실상 어머니 자신이 외국출신이라는 것을 서류상으로라도 숨기고 싶은 이유가 크다. 다문화가족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자녀가 학교에서 차별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자녀가 현재는 외모상으로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잘 '숨기고' 있어도 언젠가 자녀의 정체성이 드러났을 경우 얼마든지 차별의 상황은 벌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연구자: 자녀 때문에 바꾸시거나 그런 이유가 있어요?
M25: 그런 것도 있죠. 왜냐하면 아이들이 학교 들어가면 사인 같은 것. 우리 아이들 학교에서 우리 엄마 베트남 사람이다. 우리 아이 그런 건 차별 받지 않고 잘 적응하고 잘 해요.
연구자: 엄마가 생각하시기에 걱정이시라는 거죠?
M25: 피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연구자: 어머니는 왜 이름을 바꾸셨어요?
M31: 병원에서 이름이 나올 때 ○○○도 안 나와요. 김○○ 이렇게 나오고...쪽팔려서. 김○○, 김○○. 안 되겠어, 바꿔야겠어. 남편도 한국 이름 바꾸면 좋겠다고 해서.
연구자: 어머니는요?
M32: 저는 원래 개명할 생각이 없었어요. 국적 따고 6년 그냥 살았어요. 그런데 병원 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한 번 이름 말하면 간호사 선생님이 몰라요. 어디 가도 다. 그래서 조금 힘들고요. 그리고 애기. 애기 학교에 들어가면 엄마 이름이 한국 이름으로 나오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개명했어요.
연구자: 그건 어머니 생각이에요?
M32: 네 제 생각이에요.
연구자: 애기 때문에 이름 바꾸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던데 구체적인 이유가 뭘까요.
M32: 가족관계증명서 보면 다 엄마가 외국인이라고 나오잖아요. 엄마가 외국 이름으로 되면 애기가 조금 부끄러워할 것 같아서.
연구자: ○○씨는요?
M32: 우리 애기는 그냥 보면 외국인 애기인지 몰라요. 완전 한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차별 받기 싫어서.

그러다보니 외모가 한국인과 크게 구별되는 국가 출신자는 국적을 취득했어도 이름을 바꾸지 않는다. 바꿀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이름을 바꾸어도 얼굴이 누가 봐도 외국인의 얼굴이기 때문에 이름을 바꿔도 정체성을 숨기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름을 개명하는 어머니는 주로 중국,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등 외모 상에서 한국인과 크게 차이나지 않는 국가의 출신들이 많다. 일본인의 경우, 외모 상으로는 거의 구분이 어려우나 개명을 하는 경우가 드물다. 한국사회에서 자신과 자녀가 차별을 받을 수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일본인이라는 것은 사실상 자부심의 원천이 될 수 있는 정체성이기 때문이다.

결국 어머니들이 이름을 한국이름으로 바꾸어서 적어도 서류상 이름으로라도 다문화가정인지 확인할 수 없게 하고 싶은 마음인 든 것은 한국사회가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해 가지는 차별적 시선과 실제적 행동 등을 직·간접적으로 많이 접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연구자: 국적 취득을 했는데 이름을 바꾸지 않은 이유가 있으세요?
M33: 제 이름으로도 똑같이 ○○라고 부르니까. 우리 캄보디아 사람이 불러도 똑같이 ○○에요.
연구자: 병원 가서 불편하신 건 없으세요?
M33: 그런 생각 없어요. 어차피 얼굴이 외국인이잖아요. 이름 바꿔도 얼굴 보면 알 수 있어요. 외국인인지 한국인 인지.

②-8.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선별적 지원으로 인한 상처

면접조사의 마지막에 다문화청소년들의 심리·사회적응을 위하여 정부에서 어떤 지원을 해 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하였다. 그런데, 어머니들은 의외로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지원에 대해 상당한 불편감을 지니고 있었다. 이러한 불편감을 보다 강하게 제기한 집단은 신규패널 조사대상자의 젊은 어머니들이었다. 이들은 현재 자녀가 초등학교 4학년으로 1기 패널의 조사대상자들이 초등학교 때와는 다소 달라진 당당함과 적극성을 보여주었다. 물론 1기 패널조사에서도 선별적 지원에 대한 불편감은 있었다. 그러나 새로이 구축한 신규패널에 참여한 어머니들의 경우 다문화에 대한 별도지원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매우 강하였는데, 다문화정책은 학교의 주류집단에게 다문화에 대한 이해교육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불쌍한 사람 돕듯이 물건 나누어주고,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하는 것, 행사에 동원되는 것 등은 더 이상 아니라는 주장이었다. 학교에서 민감성 없이 가해지는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차별은 어머니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가해진다. 학교에서 부모교육을 갔는데 '다문화가족 엄마들은 이쪽으로 줄을 서주세요' 라고 구분을 하는 데서 어머니들은 당혹감과 불쾌감을 느끼고 있었다.

M12: 학교에서 자꾸 자꾸 다문화가족 애들 이렇게 말 안 하면 좋겠어요. 그냥 특별한 프로그램은 없으면 좋겠어요. 다문화 애들만 하는 특별한 프로그램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애들 선생님 따로 못 하면 집에서 멘토링 학원에 못 보내면 멘토링 하면 좋겠어요. 아무리 엄마 한국사람 아니지만 애들 100% 한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똑 같이 한국 학생하고 하면 좋아요. 내 생각이에요. 선생님이 다문화학생 여기 와 이렇게 그래서 애들이 너 다문화학생. 그래서 이렇게 말 안 하면 좋겠어요.

M11: 다문화 애들만 아니라 학교에서 하거나 밖에서 하거나 같이. 한국 애들은 다 같이 다문화에 대해서. 그 말이지 그래야 특별한 차별이 없다는 거죠. 우리 다문화 애들은 다문화센터 있잖아요. 그거만 하면 애들이 싫어해요. 나는 다문화네 그런 것보다 다 같이 교육하고 편견 안 가지게 하라는 거죠. 그거 중요하다는 거죠.

M14: 학교에서 수업할 때 여기에 있는 다문화 아닌 친구들도 외국에 가면 다 다문화가 된다고 해요. 입장 바꿔서 생각하도록. 오히려 애들이 이중국적 하면 국적 두 개 있어서 좋겠다는 애들도 있어요.

M10: 한국 어른들부터 그 편견을 깨야 되는 거 같아요. 선생님이나 학부모님.

M32: 저는 따로 다문화라고 해서 지원하는 건 싫어해요. 저는 지금 대부분 초등학교지만 차별 문제 안 나오지만 중고등학교 가면 많이 나오거든요. 애기가 다문화라서. 그래서 저는 어떤 학교든지 다문화 애기가 자녀가 있는 지 없는 지 떠나서 다문화 얘기 많이 해 주면 좋겠어요. 다문화 관련하는 거 많이 알려주면 좋겠어요. 그래야 다음에 애기가 점점 커지면 그거 받아 들여요. '우리나라에 다문화 가족 많이 있구나.' 라고 자연스럽게 받을 수 있어요. 어떤 지역은 다문화 없어서 다문화 얘기 전혀 안 해요. 안 해도 된다고 생각 하지만 다음에 그 애기들이 다른데 가서 공부하잖아요. 여기에서 다문화가족이구나 받아들이지 않는 애기들도 있잖아요. 많이 해 주면 좋겠어요.

M24: 학교에서 절대로 다문화가정 학생 뭐 한다 뭐 한다. 애기 심리 적으로 아주 따로 따로 우리도 마찬가지에요. 다문화가족 엄마들 이 쪽에 줄 서 주세요. 그런 게 있어요.

공급자 중심의 지원 사례로 한 어머니는 다문화멘토링을 들고 있었다. 이 어머니의 경우는 본인이 신청하지 않았는데 학교에서 하라고 해서 하게 된 경우인데, 아이가 좋아해서 뭐라 말은 하지 못하지만 어머니의 입장에서는 시간을 모두 대학생 멘토에게 맞추어야 하는 것도 불편하고 그것을 큰 혜택이라고도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다보니 혜택 없이 아이들에게 괜히 다문화라는 '주홍글씨'만 새기는 결과를 낳는다고 표현하고 있었다. 이는 '다문화'라는 것이 다문화가정의 부모와 자녀에게 사회적으로 얼마나 큰 심리적 상처가 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M27: 솔직히 혜택을 못 받아서. 오히려 다문화라는 이름만 주고 애들한테 그것만 되고 혜택은 없고. 솔직히 요즘에 다문화 가족 처음으로 저는 뭔지도 모르고 학교에서 신청하라고 해서 그냥 사인해서 냈는데 누가 전화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른 거 생각해서 했는데 그거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다문화가정. 저는 신청한 적 없는데요. 어디에서 하는데 다문화가족으로 해서 멘토링이라고 와서 시간을 정해서 몇 시간 하는 거 있어요. 공부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 애하고 놀아도 주고 네 뭐 이런 거 하더라고요. 그것만 있고 그런데 저는 조금 불편하죠. 애를 위해서는 시키는데 선생님이 졸업반이다 보니까 대학교 졸업반이다 보니까 자기 시간에 맞추니까 집에 있어야 돼요. 주말에. 4-5시간씩 있으니까. 처음으로 해 봤는데 애는 선생님 좋아서 쌤 언제 오냐고. 저는 티를 못 내고. 애가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저는 잘 모르겠는데 혜택은 없이 애들한테 주홍글씨라고 할까. 특별히 혜택이 있으면서 다문화라고 하면 항상 우리애도 크면 이런 걸 주면 왜 얘만 주냐 할 거잖아요. 맞죠?

또 다른 사례에서는 구청장님이 새로 와서 다문화가족을 위한 행사를 했는데, 어떤 지역으로 일종의 여행을 보내주는 행사였고 아침에 출발하기 전에 구청장님이 나와서 사진을 찍었다는 것이었다. 그 어머니는 그런 자리인줄을 모르고 다른 사람을 따라서 간 것인데 갑자기 사진을 찍어서 너무 창피했고, 자신은 모자를 내려서 얼굴을 가렸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진을 찍었는데 어머니의 마음으로는 아이의 얼굴을 가리고 싶었다는 것이었다. 그 어머니가 염려하는 것은 그 사진이 구청 어딘가에 전시되어서 다른 사람이 자신과 자녀가 다문화가족이라는 것, 지원을 받아서 그런 행사에 갔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었다. 자신이 여행 갈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자기 돈 내고 가는 것이 차라리 마음이 편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다시는 이런 행사에 참여하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다. 지원을 해주니 고맙기는 하지만 그런 지원을 받는 자신의 모습이 그렇게 당당하지는 않은 것이다.

M27: 한 번은 구청에서 동사무소에서 전화가 와서 ○○에 다문화 간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으로. 제가 가려고 생각 안 했는데 아는 필리핀 언니가 있어서 그 언니는 좀 다녔었나 봐요. 가끔씩. 저는 잘 몰랐고. 저한테 오는 사람도 없고. 그런 거 받은 것도 없고. 처음으로 갔어요. 갔는데 구청 앞에다 세워놓고, 그 때 ○○구청장님이 새로 금방. 2-3년 전인가 그 분이 금방 되어서 쫙 앞에다 세워 놓고 사진을 찍고 그러시더라고요. 구청장님은 아침에 나오셔서. 그 때 저는 너무 창피한 거예요. 처음 갔는데 이런 자리인지도 모르고 그냥 모자를 썼는데 모자 내리고. 애도 얼굴 가릴 수도 없고. 그게 아마 구청에 가면 어디 붙어 있지 않겠어요. 제 생각에는. (중략) 저는 한 번 가고 끝이거든요. 그걸로 끝이고. 제가 가끔 구청 갈 일이 있으면 2층에 올라갔을 때 혹시 사진 안 붙었나 두리번거려요. 구석구석 살필 수도 없고. 어디 자료로 쓰려고 했을 거잖아요.

연구자: 그런데 동원되는 것이 싫다는 말씀이시죠.

M27: 오히려 진짜 돈 내고 속 편히 갔다 오는 게 낫죠. 그 분들 고생하시고 밥도 먹고 왔는데 그렇게 가는 자체가 약간은 그런데 안 하면 여러 가지 모순되는데. 다시는 이런데 안 가겠다고. 오라고 하는 데도 없었고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갔었어요. 2년 된 거 같아요.

학교에서 무료로 나누어주는 물품지원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한 어머니는 학교에서 수영과 관련된 물품을 지원 받았는데, 많은 아이들이 있는 상황에서 자기 자녀에게만 수영가방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다른 아이들이 왜 그 아이만 받는지에 대해 의문을 품게 되었는데, 그러한 상황 자체가 너무 불쾌하다는 것이었다. 부족하면 부족한대로 그냥 두면 자신들이 알아서 사든 말든 할 텐데 이런 생각 없는 지원이 자녀에게는 상처가 되고 학교 내 차별의 시작이 된다는 것이다.

M24: 우리 애기들 수영장 갔을 때 사실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우리 그 돈 있어요. 그거 안 하고 수영 가방. 그냥 반에 몇 명만 줘요. 친구들이 왜. 왜. 왜 줘요?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지 말아요. 똑같이 생각해요. 우리가 부족하면 알아서 하게하고 선생님은 그냥 똑같이 해요. 그렇게 하면 되요. 애기들 상처 받아요. 학교에서 솔직히 선생님 때문에 많이 받았어요. 솔직히. 왜냐하면 애기들 몰라요. 애기들은 다 천사야. 다 예뻐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학교에서 다 선생님이 차별 시작하는 거 있잖아요. 저는 이 학교에서 문제가 잘 해결하면 좋겠어요.

연구자: 지원이라고 주는 게 결코 엄마들이 원하는 것도 아닌 거네요. 만약에 주려고 하면 티가 안 나게 하면 좋겠다.

M23: 아이들이 많은 데에서 챙겨 주니까 보는 거예요.

이러한 어머니들의 목소리는 다문화청소년들의 심리적 상처 중 많은 부분이

학교나 지역사회의 지원과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받는 사람에 대한 민감성 없는 공급자 중심의 지원은 다문화가족 전체에 부정적인 심리적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특히 다문화청소년들을 특별한 존재, 그런데 부정적이고 지원을 받아야 하는 부정적인 존재로 이미지화 하는 데 영향을 미침으로써 차별의 원인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고 다문화청소년의 자아 형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②-9. 학교의 상담에 대한 선호

자녀들이 심리상담을 받을 필요가 있을 때 어디에서 받았으면 좋겠는지에 대해 어머니들의 경우는 학교에 대한 선호도가 확실히 높았다.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학교라는 공적기관이 가지고 있는 신뢰와 자녀에 대한 정보가 많이 있다는 것, 자녀가 익숙한 환경이라는 점 등이었다. 자녀가 늘 가는 곳이고 문제가 생기면 학교 선생님이 그 상황에 대해 잘 알고 있어서 별도로 상황을 설명할 필요도 없고, 낯선 사람에게 상담을 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거부감도 보였다. 따라서 일단 학교에서 해결을 하는 게 좋고, 학교에서 해결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 지역에 있는 전문 기관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었다.

M3: 저는 자녀가 중학교 때는 학교가 좀 좋을 거 같아요. 지역이랑 상담 시작하면 학교는 별개가 되잖아요. 아마. 연락이 잘 되는지...연락이 가도 자녀한테 상담하고 있는 거 아니니까, 그렇게 우리 자녀한테 학교가 얼마만큼 이해해주나 그런 것도 걱정되고 하니까, 학교에서 해줄 수 있으면 학교.

연구자: 일단은 학교에서 해주면 좋겠다는 이야기이신 거죠?

M3: 네. 만약에 지역이었으면,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잘 ○○이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렇게까지 다가가거나 그런 거 잘 안 될 거 같았어요. 지역에서 다가와도 학교, 하루에 학교에서 지내는 시간이 길다 보니까, 지역보다 학교에서 신경 조금이라도 많이 써주면 좀 ○○이에 대해서 좀 더 좋을 거 같고, 고등학교 때는 글쎄.

M10: 학교 선생님이 낫지 않을까요. 저도 학교 선생님하고 자주 뵙는 편이거든요. 하다 보니까 학생에 대해서 잘 아시더라고요. ○○이도 신뢰하고 있고.
연구자: 지역에 다른 전문센터에 가는 것은요?
M10: 모르는 사람한테 하는 것보다 학교 선생님하고 지내는 시간이 더 길어서.

M4: 학교에서 해결할 수 있으면 좋죠.
연구자: 일단은 학교에서 해결할 수 있으면 학교에서 그냥 해주는 게 좋겠다.
M4: 네. 만약에 안 되면 지역 그런 상담 있으면 또.
연구자: 일단 담임을 잘 만나서 학교랑 관련된 일은 해결을 하고, 만약에 안 되면 지역으로 가도 학교에서 해결을 잘 해주면 좋겠다.
M1: 아무래도 학교는 맨날 가는 곳이니까 거기서 해결하려고 하는 게 낫고, 안되면 그 때 지역의 상담센터 등으로 가고

M23: 거기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아무래도 우리보다 거기에서 더 잘 알잖아요. 만약에 다문화센터 가서 설명하기도 그렇고...

M31: 지역에 상담센터 하나 있어도 좋지만 학교에서도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애기에 대해 다 알고 있으니까 연결해 주면 좋겠어요.

지역의 청소년센터 등 학교 외 기관을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어머니는 학교교사가 상담을 해주는 것이 더 낫다는 의견을 강력히 피력하였는데, 아이들은 주로 학교에서 생활을 하고 있고,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학교교사가 그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해결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지역의 센터로 가면 그 상황에 대해 처음부터 다시 설명해야 하고 일단 심리검사부터 들이댄다는 것이다. 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을 풀어주면 될 것을 무조건 심리검사를 하라고 시키고, 괜찮다고 '예쁜 말'만 해주고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매우 중요한 언급으로 아이가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상담을 받으러 갔는데, 그 아이의 마음 상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기 보다는 검사부터 들이대고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형식적인 말만 제공하는 것은 아이에게 공감받고 있다는 느낌을 전혀 주지 못하고, 오히려 상담이라는 것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라는 생각을 갖게 했다는 것이다.

M24: 애기들 사실 지금 엄마 가족. 그리고 학교. 이렇게 두 가지인데 학교는 문제 있으면 학교 선생님한테 받으면 더 나아요. 왜냐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면 설명도 다 하고 알 수 있어서 학교는 빨리 갈 수 있는데 집에 와서 엄마가 얘기해서 나서면 해결도 못 해요. 센터는 심리상담 해도 무슨 문제 있는지 몰라요. (중략) 다문화가정이 오면 또 나서는 사람한테 받아 보면 이 문제 풀어야 된대 심리 받는 거 줘야지만. 그런데 이 읽는 거 자체가 간단히 풀어 쓰면 아이들이 풀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심리상담 받아서 괜찮아, 괜찮아 예쁜 말 많이 하고. 그런데 풀지 못했어요. 해결하지 못한 거야. 우리 어른들 무슨 일 생겨서 마음이 답답했는데 이 일 잘 해결하면 자연스럽게 풀 수 있는데 애기들도 똑같잖아요.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그런데 심리상담선생님들 항상 맨날 문제를 풀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거 어떻게 풀 수 있어요. 이거 완전히 강제로 하는 거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실 학교에서 무슨 문제 있으면 학교에서 해결하면 좋겠어요. 이 문제 크지 않아서 잘 풀 수 있으면 다문화든 한국 애기들 다 잘 될 수 있을 거 같아요.

②-10. 학교상담실에 대해서는 잘 몰라

그러나 어머니들이 말하는 상담은 담임교사의 상담을 의미하는 것으로 학교에 상담을 전담하는 인력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있었다. 한 어머니는 Wee클래스라는 이름까지 알고 있었는데, 그 아들이 학교에서 싸우는 일이 많아서 학교 선생님이 연결을 해주려고 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었다고 하였고, 나머지 어머니들은 거의 들어본 적이 없거나, 있는 건 알지만 담임선생님과 상담을 하였지 상담선생님과 한 적은 없다는 것이었다. 한편, Wee클래스에 대한 정보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는 한 어머니에게 다른 어머니가 가정통신문에 써있다고 했더니 가정통신문을 보내도 막상 꼼꼼히 읽지 않는다는 반응이었다. 이것은 실제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에게 각종 교육 및 홍보 자료를 가정통신문으로 보내도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는다는 일선 교사들의 호소가 사실임을 보여주고 있는 결과이며 부모교육의 방안을 다각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었다.

연구자: 학교에 상담전문선생님이 계신 거 알고 계세요?
M5: 몰라요.
M24: 몰라요.
M22: 우리는 그냥 담임 선생님하고 상담해요.
M10: 있는 건 아는데 상담 한 적은 없고 귀국반 선생님이 해 주시니까. 그 선생님께 많이 상담을 받아요.

연구자: 그럴 때 학교에서 무슨 담임 선생님 말고 상담선생님이나 이런 사람한테 찾아갈 순 없어요?
M1: 거기서는 무슨 위...
연구자: Wee클래스요.
M1: 그런 상담선생님이 있긴 하다고 했는데, 원하면 그 쪽으로 연결해주겠다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해요.
연구자: 이용해본 적은 없어요?
M1: 네.
M4: 없어요.
M2: 그런 게 있는 것도 몰랐어요.

연구자: 엄마들한테 이야기 못 하고 어딘가에는 얘 네가 좀 이야기를 할 데가 있으면 좋지 않겠어요?
M3: 그렇죠.
M1: 근데 이야기를 하는데 담임 선생님한테는 이야기해요. 이야기하는데 담임 선생님이 들어주냐 안 들어주냐.
연구자: 그 차이라는 거죠. 그럼 담임 선생님 말고 학교에는 상담, Wee클래스 같은 그런 데는, 특별히 거기까지는 가지 않아요?
M1: 애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연구자: 애들은 잘 몰라요?
M1: 잘 모르는 거죠. 이런 이런 데가 있었다는 건 잘 모르고, 저는 학교에서 다니다 보니까 알게 되는 거고, 문제가 있으면 Wee클래스로 연결을 해주는 건 알고 있어요.
연구자: 어머니는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M1: 뭘요?
연구자: Wee클래스를요.
M1: 우리 아들이 싸울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학교에 갔는데 선생님이 혹시 어머님 Wee클래스로 연결해줄까요? (했어요)
M4: 저는 이런 거 있는 거도 몰랐어요.
M1: 가정통신문으로 와요. Wee클래스 무슨 운영하고 무슨 문제 있으면 상담하라고 부모들한테 보내줘요.
M2: 머리 아파서 안 봐요. 많이 있으니까.

M1: 봐야 돼요.
연구자: 가정통신문을 보내도 꼼꼼히 보게 되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M2: 네.

②-11. 지역 상담센터를 선호하는 이유는 비밀보장과 학교에 대한 불신

기본적으로 학교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지만 지역의 상담센터가 더 좋다는 어머니들도 있었는데 그 이유는 학교에서는 상담에서 나온 이야기들이 소문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한 어머니는 현재 중국어를 가르치고 있는데 아이들이 자신에게 와서 이런 저런 상담을 하길래 학교에 상담선생님이 없냐고 했더니 학교에서 하면 안된다, 선생님에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면 다 퍼진다고 말했다는 것이었다. 즉, 학교 선생님들은 공부를 잘하지 못하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차별이 너무 심하고 상담교사가 상담을 한 내용을 담임에게 말할 수도 있다는 의심까지도 하고 있었다. 여기서 다문화 어머니들 중 한 명은 한국아이들에게도 그렇지만 다문화아이들에게는 더 그럴 것 같다는 말을 함으로써 다문화학부모들이 학교 교사에 대해 지니는 어떤 측면에서의 불신 또는 피해의식을 다시 한 번 드러내었다.

M1: 학교에서는 학생들도 많고, 그런 상담에 들어가면 또 어차피 선생님들도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알 수도 있고 말이 나오니까 그거보다는 지역에 있는 그런 센터에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지역에 있는 선생님한테 더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연구자: ○○어머니는 상담 받을 때 학교, 지역 사회 어디가 좋으세요?
M34: 지역의 센터 쪽이요. 학교 빼면 더 편해요. 선생님한테 숨기는 거 많은 거 같아요. 그리고 엄마도 모르는 사람. 비밀 보장 되는 사람.

M11: 요즘은 학교에서 선생님하고 솔직하게 안 할 수도 있어요. 차라리 지역 상담 센터는 모르잖아요. 전문상담센터에서 자기 생각 할 수 있어요. 심리상담 이런 거 있잖아요. 솔직히 말할 수 있을 거 같아요. 학교에서는 애들이 다 그래요. 숨기는 거 같아요. 어떤 건 선생님한테 말하면 저는 선생님 비하 하는 거 아니라 학교 선생님들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저도 선생님이지만. 그런데 진짜 학교 그래서. 말하면 이 선생님이 애는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아예 학생들 말 안 해요. 제가 여러 명 그런 애들 봤으니까.

연구자: 아 그래요? 어떤 경우에요?

M11: 제가 ○○동 살잖아요. ○○고하고 ○○고 다 종교 학교라고 들었어요. 거기 진짜 애들한테 엄격하게 한대요. 차별이 너무 심하대요. 아까 말한 것처럼 공부 잘 하는 애들 신경 쓰고 안 하는 애는 너무 심하게 말하면 인간 취급도 안한대요. 다문화면 더 그렇죠. 그래서 말을 잘 안 해요. 제가 중국어 가르치지만 애들이 저한테 와서 상담도 하거든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거든요. 우리 선생님 어쩌고. 더 많이 하는 편인 거 같아요. 학교 상담선생님 없냐고 했더니 그러면 말하면 안 되죠 그래요. 그래서 제 생각은 달라요.

연구자: 말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건 왜 그래요?

M11: 내 생각에 더 편견일 수도 있지만 안 좋게 갈 수 있을 까봐. 그냥 하기 싫대요. 그래서 그냥 오히려.

M10: 선생님 신뢰가 없는 거예요. 상담선생님이 담임한테 말할 수 있고.

M11: 그렇지! 오히려 그러다 학교는 학생회도 있고 학생도 알게 될 수 있어요. 퍼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고려해서 안 하는 거 아닌가 그러더라구요. 엄마는 더. 특별히 남자애들이 더 말을 안 하더라고. 엄마한테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수업한 게 아니고 상담하는 시간이네 그럴 때도 있어요. 한국 애들도 그렇지만 다문화 애들도 더 그렇지 않을까 싶어서 차라리 전문상담이 더 좋을 거 같아요.

그러나 실제로 지역의 청소년센터를 이용한 경험이 있었던 어머니는 지역의 청소년상담센터에 대해 크게 긍정적인 태도는 아니었다. 자녀가 결국 학교를 그만둔 사례인데, 자녀가 왕따 등으로 우울증이 심해지고 하는 과정에서 학교에 대한 기대가 없어서 학교 상담실은 이용조차 하지 않았고 지역의 청소년상담센터를 이용한 경험이 있었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반응이었다. 이 사례는 앞의 자녀 면접에서도 나왔던 내용으로 자녀와 어머니 모두 청소년상담센터는 실제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었다.

연구자: 학교에 있을 때는 학교 상담실 같은 데는 찾아가지 않았던 거네요?
M5: 네.
연구자: 왜 그랬을까요? 왜 학교는,
M5: 별로 기대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연구자: 아, 별로 거기서는 해줄 게 없을 거고 효과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신 거구나?
M5: 네.
연구자: 그러고 나서 병원을 갔고 나중에 청소년 상담센터 같은 게 있다니까 가셨고요.
M5: 두세 번 받고 거기서도 검사도 받았네요.
연구자: 그런데 효과가....
M5: 크게는 없는 거 같다는 거죠.
연구자: 그렇구나. 거기 그래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M5: 전문가이지만 그래도 뭐. 본인이 해결하는 거니까 상담은.

②-12. 지역의 상담센터는 거의 몰라

지역의 청소년상담센터가 있어서 이용하면 좋다고 응답을 하지만 실제 지역의 상담센터에 대한 정보는 거의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일부 알고 있는 어머니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는 잘 모른다는 반응이었는데, 알고 있다고 응답한 어머니들은 한국에서는 정보를 아는 사람만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본인이 찾아야 한다고 하였다. 그 어머니는 학교가 연결해줄 것이라고 믿지 말고 어머니 본인이 적극적으로 정보를 찾아야 하고 동사무소 등에서도 정보가 있다는 등 다양한 정보획득의 경로를 알고 있었다.

연구자: 어머니 알고계세요? 지역에 청소년상담센터. 모르세요?
M14: 네.
M12: 몰라요.
M14: 갈 기회가 없으면 찾아 가서 하기는 어려워요.
M1: 모르는 엄마들이 많아요.

M2: 가서 물어봐야 돼요. 여기는 한국이 그렇더라고요. 정보가 아는 사람만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알고 싶으면 찾아가서.
M3: 학교에서 연결을 해주시면.
M1: 학교만 믿지 마세요.
M2: 자기가 가지 않으면 정보를 얻을 수가 없어요.
M1: 정보를 잘 보시면 동사무소나 면사무소 가서 계속 문의하세요.
연구자: ○○구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에도 있을 텐데.
M1: 센터에도 가서 한 번씩 가서 물어보고.
M3: 근로자 센터 말고요?
연구자: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요.
M3: 그 쪽 같던데.
M1: 다문화는 아니에요. 아니면 그 지역에서 청소년 센터를 찾아보세요.
연구자: 청소년 상담.
M1: 청소년 센터라고 있을 거예요. 그 지역에서. 거기서 가서 물어보시고 상담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청소년 센터에서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 등록해서 다녀보라고 하시면 아무래도 마음이 조금 열릴 거예요. 관심이 다른 데 가 있으면.

②-13.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한 신뢰

청소년상담센터 등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는 어머니는 그런 정보를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부모들 중 한국사회에 대한 정보를 잘 알고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등 적응의 수준이 높은 경우는 대부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어머니들이었다. 그 활동이라는 것이 주로 이중언어강사 또는 통번역 등인데, 그들이 이중언어강사나 통번역 등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학력과 역량을 갖추고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결국은 어머니의 역량이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어머니의 배경을 차치하고 일단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하는 어머니들은 확실히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정보를 얻는 것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자녀의 상담지원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해 주면 본인이 접근하기에 편안하고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었다.

M2: 제가 먼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찾아가서 '혜택 같은 거 있거나 정보가 있으면, 가르쳐주세요.' 해가지고 자기가 찾아가서 관계를 맺어가지고 그렇게 했으니까, 그게 더 편해요.
연구자: 그럼 지역에 있는 청소년 센터가 있으면 애도 거기로 가서 상담을 받는 게 낫겠네요.
M2: 네.
연구자: 이유가 뭐에요?
M2: 학교는 잘 모르겠고, 제가 먼저 다가간 게 그 쪽이다 보니까.
연구자: 그게 더 편하고.
M2: 놀러 가든 상담을 가든 담당자가 계시면, 그 사람한테 가서 이러이러했다 그러면 알아서 연결해주시거나 하니까.
연구자: 학교보다는 더 접근성이 좋고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다.
M2: 네, 아무래도 다문화라는 단어만 들어도 저도 편하고, 다가가기 쉬우니까 그렇게 했어요.

연구자: 학교 말고 다른데. 지역에 있는 청소년 상담센터 알고 계세요?
M34: 네
연구자: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M34: 제가 일 하는 데가…
연구자: 다문화센터에서 일 하세요?
M34: 네
연구자: 통번역 하세요?
M34: 네
연구자: 그럼 그거 통해서 아신 거예요?
M34: 네. 거기에서 일할 때부터.

②-14. 청소년기 자녀에게는 적합하지 않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어머니들이 이용하기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편안하고 접근에 용이하고 스스로도 위축되지 않고 이용하기에 좋은 기관이지만 자녀들이 직접적으로 이용하기에는 적절치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자녀의 연령이 어린 경우는 여러 가지 지원이 가능했으나 아이들이 점점 성장함에 따라 혜택도 없어지고 자녀 진로 등 청소년기 자녀에게 필요한 정보가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물어보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어머니들이 느끼기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해 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상황에서는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이 거의 없어서 아쉬움을 표현하고 있었다. 그러나 청소년기 자녀의 입장에서는 다문화가족이라는 정체성이 그렇게 달갑지 않은 상황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청소년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은 결코 내키지 않는 일이다. 그러다 보니 중학생 쯤 되면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가지 않으려고 한다. 이런 상황이라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청소년 대상 직접사업을 하는 것은 크게 효과적이지 못하지만 어머니들에게 자녀의 심리적 건강을 위한 지원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매우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M1: 제가 결혼이민자들 대상으로 강의하다 보니까 조금씩 알고 있는데, 무슨 문제가 있으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대부분 다문화 센터로 가요. 대부분 다문화 센터로 가서 어떻게 큰 문제 있으면, 언어 관련해서는 해결할 수 있는데, 심리 쪽으로는 아무래도 상담선생님 있지만, 그렇게 크게 도움을 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 센터 같은 거는 봐줄 수도 있기는 한데,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프로그램 같은 거는 청소년 대상으로 프로그램 운영해서 그렇게 하는데 우리 쪽은 지원이 잘 안되어 있는지 문제가 좀 있고요.

연구자: 엄마들이 청소년 상담 센터에 직접적으로 알아서 찾아가는 거는 좀 어려울 수가 있고,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로 가셔서 또 연결하거나 이런 거는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M1: 그렇죠. 그런 거는 가능하지만, 근데 다문화 센터에서는 또 어떻게 보면, 청소년이잖아요. 얘는 어차피 사춘기 와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공무원들이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해요. 그래서 얘는 어차피 지금 문제가 있으니까 센터로 안 갈 거예요

연구자: 애는 안 가죠. 근데 연결을 해주면 어때요?

M1: 애를 억지로 시켜서 보내야 되는데, 가지 않으니까 그건 문제가 되는 거죠.

연구자: 애기들이 가기 싫어하는 거예요?

M1: 중학교 되면 아예 안 가려 그래요.

연구자: 그렇긴 하죠.

M1: 초등학생 때는 억지로라도 잔소리 하면서 보냈는데, 중학교 되면 잔소리 그만 하세요 그런 소리를 많이 하는데, 알았어요. 들었어. 그러면서 문을 닫아버리는데 어떡해. (중략) 다문화 애들은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외국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상처받는 것도 많아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그 상처를 안에서 꾹 참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폭발이 되면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 문제를 학교에서 해결할 수 있으면 좋기는 하지만, 학교에서도 전문적으로 못하면, 차라리 지역으로 가는 게 낫겠죠.

연구자: 그러면 다문화가정 센터는 다 이용해 보셨어요?
M19: 네
연구자: 거기에서는 애들 대상으로 하는 건 별로 없죠?
M19: 조그만 애들한테 혜택을 주는 거고 갈수록 없어져요. 그거 문제에요. 진로 상담도 필요한데 지금은 딸래미는 진짜 많이 불안해요. 진로 상담은 필요해요. 무슨 과를 할 건지. 에세이도 써야 되고 이 나이 대에. 그리고 수능 잘 안 되면 내신도 잘 안 되면 힘들어요. 물어볼 데도 없고.

(4) 요약 및 소결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응 및 위기지원을 위한 정책방안 도출을 위하여 다문화청소년과 어머니를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함으로써 당사자들의 요구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청소년들의 경우는 전반적으로 잘 적응하고 있으나 성장과정에서 다문화 배경으로 인하여 한 두 번씩은 주변 동료나 교사로부터 상처를 받은 적이 있고, 그런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그냥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학교의 상담실에 대해서는 크게 중요하게 인식하지 않고 있었고, 진로상담이나 뭔가 잘못한 아이들이 가는 곳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서 상담에 대한 인식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었다. 특히 학교의 상담실에 대해서는 자신이 한 이야기에 대한 비밀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불신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면에서 지역의 청소년상담센터가 비밀보장 측면에서는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실제 이용을 해 본 경우에는 청소년상담센터에서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도움이 되었지만 자신의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다소 부족하고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지역의 청소년상담센터나 정신건강 관련 기관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한 점은 신청 후 대기시간이 길다는 것, 병원 등의 경우는 비용이 너무 비싸서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등의 의견이었다.

둘째, 어머니들의 경우도 자녀들과 거의 유사한 의견이었으나 자녀에 비해 훨씬 더 생생하고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하는 경향이 있었다. 우선 아이들이 전반적으로 잘 적응한다고 생각하는 점은 다문화청소년 당사자와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어머니들 역시 자녀가 성장과정에서 다문화라는 이유로 받는 이런 저런 차별로 인하여 심리적 상처를 입었다고 느끼고 있었다. 특히 어머니들은 자녀가 학교에서 다문화라는 이유로 다양한 영역에서 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따라서 크게 혜택도 되지 않는 다문화가정이라는 배경은 가능한 숨기고 싶은 요인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보였다. 차별은 주로 또래의 반 아이들로부터 받지만 교사들의 차별도 결코 적지 않으며 교사의 차별은 또래의 차별보다 훨씬 더 큰 영향력을 지니는 것으로 보였다. 또한 학교에서 어머니가 외국출신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자녀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크게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쉽게 생각하는 것 같다고 느끼고도 있었다. 그러나 막상 자녀가 어떤 피해를 입어도 한국의 어머니들만큼 대처를 하지 못한다는 생각에 효능감은 낮아지고 자녀도 어머니의 이러한 상황을 잘 알고 있기에 문제가 생겨도 스스로 해결하고 참고 넘어갈 뿐 어머니에게 이야기하지 않는 경우도 다수이다.

어머니가 외국출신이라는 것은 실제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 때문에 국적을 취득한 어머니들은 이름을 한국식으로 개명하는 경우도 다수이다. 이름을 개명하면서까지 다문화인 것을 드러내고 싶지 않은 마음인데 학교에서 자녀에게 아무런 개념없이 주어지는 선별적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과 그로 인한 자녀의 상처는 어머니들로 하여금 불쾌감을 유발하기도 한다. 다문화를 지원하려면 자신의 자녀에 대한 공급자 중심의 지원보다는 일반 청소년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이해교육으로 하는 것을 바란다는 것이다. 이러한 피해의식과 차별의식은 어머니만 느끼는 것이 아닐 것으로 생각되며 성장과정에서 지속적 피해의식과 정체성 드러내기의 문제 등은 청소년들의 심리발달에 분명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어머니들의 경우는 학교시스템에 대해서는 매우 신뢰하는

편이었다. 일단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에서 일차로 상담을 하고 안되는 경우 지역의 전문 상담센터로 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지역의 상담센터를 선호하는 어머니도 있었는데, 그 경우는 학교에서는 아이의 상담내용에 대한 비밀 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불신이 있는 경우였다. 이러한 언급은 청소년 상담에서도 나타난 결과로 학교에서 상담을 하는 교사 및 상담교사 등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릴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학교에서 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분들이 학생의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 왜 이런 인식들이 있는지에 대해 밝히고 신뢰를 회복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지역의 전문상담센터에 대해서도 실제 이용을 해 본 학부모의 신뢰도는 그렇게 크지 않았다. 자녀의 반응과 마찬가지로 상담을 받아도 심리적 어려움을 감소시키는 데 크게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것인데, 아이의 마음을 들어주고 상처를 보듬어주면 될 것을 가자마자 심리검사부터 하게하고 현실성 없는 좋은 말만 늘어놓아서 공감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의견도 역시 청소년상담센터에 알림으로써 매뉴얼대로 일을 처리하기 보다는 청소년의 마음을 보다 잘 이해해주는 과정이 필요함을 알릴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였다.

표 Ⅵ-28 면접조사의 도출 결과

조사대상자	조사내용
다문화청소년	■ 전반적으로는 잘 적응하고 있음. ■ 다문화배경으로 인하여 심리적 상처를 경험한 사례가 있으며, 이로 인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는 것에 대해 조심하는 등 불안감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한국과 역사적 문제가 있는 국가출신의 어머니를 둔 경우 학교 교사의 생각없는 표현으로 상처를 받는 일이 있음. ■ 학교 상담실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고, 상담은 담임교사와 하는 진로상담 또는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 가는 곳이라는 인식이 있을 뿐 심리적으로 어려울 때 실제 도움 받는 곳은 아니라는 생각이 있음. ■ 학교교사에 대한 불신으로 학교 상담실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 ■ 지역의 심리상담센터에 대한 정보 부재

조사대상자	조사내용
	■ 지역의 심리상담센터는 여러 가지 정보 등에서는 도움이 되나 심리적 문제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 ■ 상담전문가보다는 친구나 부모님에게 고민 상담을 함. 따라서 단순히 마음을 털어놓고 공감은 받지만 해결책은 없다는 답답함을 느낌. ■ 상담은 일단 학교에서 하면 좋으나 비밀보장이 안된다고 생각 ■ 지역의 상담 및 정신보건 관련 기관을 이용하기에는 비용도 많이 들고 대기시간도 길고 등등 어려움이 있음.
어머니	■ 자녀가 전반적으로 잘 적응한다고 생각 ■ 자녀들 대부분 다문화라는 이유로 학교에서 차별 등 부정적 사건을 경험하였고 그 결과 심리적 상처를 남기는데 주로 한국보다 경제적 수준이 낮은 국가출신 어머니를 둔 가정을 대상으로 차별이 가해진다고 생각함. ■ 주변의 차별적 시선과 행동으로 자녀들은 점차 성장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부모도 믿을만한 경우가 아니면 쉽게 드러낼 필요가 없다고 지도함. ■ 차별의 주체가 교사인 경우가 다수이며 교사로부터 차별적 행동과 언어를 경험한 경우 상처가 더 심함 ■ 한국사회의 차별은 단순한 시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성장과정에서 나타난다고 생각함. 학교에서 다문화라는 이유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소외되고 차별받는다고 생각함. ■ 학교에서 어머니가 외국출신일 때 항의를 쉽게 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여 한국의 어머니들과는 다른 대우를 하며 아이들도 마찬가지임. 그런 과정에서 자녀가 심리적 상처를 입는 것에 대해 매우 마음 아파함. ■ 자녀들도 학교에서 부당한 일을 당해도 엄마에게 말하지 않고 혼자서 해결하고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다수임. ■ 국적을 취득한 어머니들의 경우 한국이름으로 개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중 중요한 하나의 이유는 자녀가 다문화가정이라는 것이 학교에 알려져서 차별받을까 걱정되기 때문임. ■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선별적 지원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태도로, 특별히 혜택도 없으면서 차별만을 유발하는 정책으로 보며,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직접적 지원보다는 다문화이해교육 등 사회 전체의 다문화수용성 및 민감성을 키우는 교육으로 지원해주기를 바람. ■ 상담의 주체에 대해서는 학교에 대한 신뢰와 선호를 보임 ■ 지역의 상담센터를 선호하는 경우는 비밀보장이 가능하다는 것과 학교에 대한 불신에서 기인함. ■ 학교든 지역의 상담센터든 자녀가 심리상담을 할 수 있는 기관에 대해서는 정보가 별로 없음.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한 신뢰와 선호

3) 전문가 의견 분석

(1) 조사대상자

앞의 면접조사에서는 다문화청소년과 어머니 등 당사자들이 성장하면서 경험한 심리·사회적응의 문제를 파악하고자 추진되었다. 그 결과 주로 학교에서 또래나 교사 또는 지역사회의 주변 인물로부터 받은 차별적 경험을 중심으로 주제가 전개되었고 주요요인들이 파악되었다. 그러나 청소년들의 심리·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인은 부모 등 가족 요인일 수 있다. 그러한 요인들은 FGI를 통해서는 도출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다문화청소년들을 위한 일을 하고 있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자 전문가 자문회의를 추진함으로써 보다 객관적 시각에서 관련 요인들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전문가 면담에 참가한 전문가들은 다문화청소년사업을 담당한지 10년 이상 된 현장전문가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청소년사업 담당 실무자, 학교 상담전문교사, Wee센터 담당교사, 다문화교육지원센터 상담전문가, 지역사회 민간다문화전문기관의 상담전문가, 상담복지센터 실무자 등 총 19명이었다.

표 Ⅵ-29 전문가 자문회의 참석자 개요

대상	세부 사항	인원수
다문화청소년 관련 현장전문가	■ 다문화청소년지원단체 전문가	6명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실무자	■ 다재다능사업관련 실무자	4명
상담관련 전문가 및 실무자	■ Wee 센터 담당교사 ■ 학교상담교사 ■ 지역사회 다문화청소년 상담전문가 ■ 청소년상담복지센터전문가	10명
계		20명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다재다능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 4명, 다문화청소년사업을 수년간 담당해 온 민간 다문화청소년지원 및 교육기관 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전문가 6명, 다문화청소년 대상 상담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교육청, 학교, 지역사회의 상담교사 및 상담전문가 7명,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3명 등이었다.

표 Ⅵ-30 전문가 자문회의 참석자 특성

분류	No	성명	소속	일시
다문화가족센터 청소년 사업 담당자	1	강○○	○○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7. 12
	2	이○○	○○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7. 23
	3	최○○	○○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7. 25
	4	최○○	○○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7. 26
다문화청소년 관련 현장전문가	5	조○○	○○시 글로벌청소년센터	1.24
	6	강○○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9.10
	7	허○○	○○아동청소년센터	
	8	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9	김○○	○○이주청소년센터	
	10	김○○	○○청소년교육센터	9. 24
상담교사 및 상담사	11	최○○	○○아동청소년센터	10.4
	12	이○○	○○청소년교육센터	
	13	박○○	○○이주청소년센터	
	14	김○○	○○청소년센터	
	15	김○○	○○중학교	10.8
	16	고○○	○○다문화교육지원센터	
	17	문○○	○○교육지원청 Wee센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전문가	18	서○○	○○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0.8
	19	이○○	○○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0	배○○	○○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 조사절차 및 내용

자문회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모든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응상태와 관련하여 현황에 대하여 질문하였고, 다문화청소년들이 청소년 일반집단과 달리 더 취약한 특성이 있는지, 그렇다면 별도의 심리·사회적응을 위한 지원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는지, 현재의 시스템이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응 및 위기지원에 한계를 지니는지 등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질문하였고, 전문가별로는 각자 특성화된 영역을 중심으로 질문 하였다. 다문화청소년 전문가 집단의 경우는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응 및 위기지원을 위한 구체적 정책방안,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방안 등에 대하여 보다 심층적인 자문을 구하였고, 상담교사나 상담전문가들의 경우는 다문화청소년 상담에 있어서 어려운 점, 다문화청소년들 대상 특별지원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 다문화청소년들의 심리·사회적응 현황 등을 중심으로 자문을 구하였으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전문가들을 대상으로는 청소년안전망(CYS-net: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현황과 다문화청소년에의 함의, 지역사회 연계방안 등에 대하여 심층 질문을 하는 등 다양한 다문화청소년 전문가들의 입장을 다각적으로 파악하고 정책적 지원방안의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표 Ⅵ-31 자문회의 주요 내용

자문회의 참석자	자문회의 내용
다문화청소년전문가	■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응 및 위기지원 관련 현황 ■ 다문화청소년 대상 심리·사회적응 및 위기지원시 다문화청소년에게 특화된 별도지원이 필요한지, 기존시스템의 한계 ■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응 및 위기지원을 위한 정책방안 ■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응 및 위기지원을 위한 학교 및 지역사회 연계방안 등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다문화청소년 심리·사회적응 프로그램 현황

자문회의 참석자	자문회의 내용
청소년사업 담당 실무자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다문화청소년사업을 하는 것의 어려움 ■ 다문화청소년 심리·사회적응 지원을 위한 효과적 방안
상담교사 및 상담사	■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응관련 특성 ■ 다문화청소년 대상 심리·사회적응 지원시 다문화청소년에게 특화된 별도지원이 필요한지, 기존시스템의 한계 ■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응 및 위기지원을 위한 정책방안 ■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응 및 위기지원을 위한 학교 및 지역사회 연계방안 등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전문가	■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응관련 특성 ■ 다문화청소년 대상 위기지원시 다문화청소년에게 특화된 별도지원이 필요한지, 기존시스템의 한계 ■ 청소년안전망(CYS-net: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현황 및 다문화청소년에의 함의 ■ 청소년안전망(CYS-net: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에서 다문화청소년의 특성을 적용할 수 있는 정책방안 및 효율적 연계방안

(3) 조사결과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도출된 결과를 살펴보면 크게 8가지 주제의 내용들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각 주제별 내용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①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응의 특수성

첫 번째로 본 연구진들이 자문회의에서 도출하고자 했던 것은 다문화청소년들의 심리·사회적응 양상이 일반적인 청소년집단과 다른 점이 있는가의 문제였다. 다문화청소년들도 '다문화'이기 이전에 '청소년'이기 때문에 이들의 심리·사회적응의 현황이 일반적인 청소년과 다르지 않을 것이나, 그들이 처한 특수한 환경을 고려하면 그들만의 특수성이 존재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다문화청소년들만의 특수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일반적인 청소년 심리·사회적응 및 위기지원

시스템에 포함시키면 되는 문제이고, 그렇지 않고, 그들만의 특수성이 발견된다면 그에 맞는 별도의 지원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의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한 것은 기본적으로 다문화청소년들이 청소년의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다문화적 특성으로 인하여 심리·사회적응상의 특수한 측면을 지니는 것도 사실이라는 것이다. 즉, 새로운 환경에 처하게 되면서 언어장벽, 사회적 편견, 차별 등을 경험하게 되고, 학교생활 적응의 어려움이 스트레스나 좌절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서 일반적인 상황과는 다소 다른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중도입국청소년 등은 해체가정이 많고, 부모와 오랜 기간 떨어져서 지내는 동안 부모와의 애착형성이 잘 되지 않았고, 방임의 문제도 심각한 등 가정의 문제가 보다 심각한 것으로 관찰되고 있다. 또한 단순한 적응의 문제가 아닌 자살이나 자해 등 보다 심각한 위기사례가 많이 발견되고 있다는 의견도 많았다. 이런 여러 특성 때문인지 모르나 중도입국청소년들을 상담해온 전문가들은 중도입국청소년들이 불안감과 경계심이 많아서 상담과정에서 라포를 형성하는 데 일반적인 청소년에 비해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에 다수가 동의하였다. 따라서 현재의 지원시스템에서는 제한된 상담회기 내에서 종결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상담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끝나버리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다문화청소년들의 심리·사회적응의 현황에 대한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은 이들만의 특수한 상황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이들에게 적합한 방식의 심리·사회적응 및 위기지원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특히 한국어가 원활하지 않은 경우 단순히 언어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리·사회적응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지니기 때문에 한국어 교육의 문제를 적응의 문제와 함께 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표 Ⅵ-32 자문회의 도출결과: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응의 특수성

자문회의 도출결과
■ 기본적으로 청소년이지만 사실상 다문화적 특성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며 특성화된 지원시스템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새로운 환경에서 언어장벽, 사회적 편견, 차별 등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우울이나 무기력감을 느끼는 특성이 있음. ■ 중학교 정도만 되어도 학교적응에서 많은 어려움을 경험함. 특히 한국어 문제는 심리·사회적 응의 어려움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함. 따라서 국내출생이 아닌 경우는 한국어의 빠른 적응이 심리·사회적응에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생각됨. ■ 이주청소년들이 느끼는 심리적 좌절감과 스트레스가 폭력적인 행동으로 분출됨. ■ 가정환경으로부터 오는 문제가 특히 많은 것으로 보임. ■ 해체가정이 많은 것으로 보임. ■ 이주아동이나 무국적 아동까지 아동학대가 심각하고 빈번한 것으로 보임. ■ 다문화청소년들의 심리적 문제들이 일반적인 청소년들에 비하여 심각하다고 느끼며, 중도입국이나 국내출생자 모두 마찬가지임. ■ 다문화청소년들은 기본적으로 주눅이 들어있는 경우가 있음. ■ 자살과 자해의 문제가 매우 심각하고 빈번함. ■ 중도입국청소년의 경우 병리적 문제가 많음. 자살충동, 환청, 환시 등 심각한 증상들을 보이는 경우도 많음. ■ 중도입국의 경우 부모와 떨어져서 지낸 경험이 심리적으로 큰 영향을 미침. 불안정한 환경에서 양육된 것이 아이들의 성격형성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임. ■ 다문화청소년이 가해자가 되었을 때 그들의 입장을 대변해줄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서 이에 대해 부모들이나 청소년들이 좌절감과 억울함을 느끼고 있는 경우가 있음. ■ 다문화가정의 특성상 자신이 학교폭력과 연루되거나 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자기방어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그로 인하여 피해의식이 많아짐. ■ 부모와의 분리경험을 지닌 아이들이 많고, 부모님의 상황이 열악함. 한국의 일반적인 청소년에 비하여 더욱 상황이 어려운 것은 사실임. ■ 국내출생의 경우는 처음에는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으나 학교에 들어가면서 이방인처럼 인식되는 시선을 느끼고 그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끼기도 함. ■ 다른 아이들이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는 말을 하면서 갑자기 정체감 혼란이 생기는 문제가 있어 보임. ■ 중도입국의 경우 일반적인 청소년들보다 경계심이 많아서 상담을 처음 시작할 때 라포형성에 시간이 오래 걸림 ■ 라포를 형성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10회기 중 7-8회기를 라포형성에 소요함. 따라서 일반적인 청소년 상담과는 다른 특성이 있음. ■ 기본적으로 불안과 경계심이 많은 것이 중도입국청소년의 특성으로 보임. ■ 문화적 충돌의 문제가 큰 것으로 보임. ■ 학교적응 과정에서 부모의 출신국에 따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임(학교생활에서 느리고 다소 게으른 특성).

② 가정환경의 중요성

전문가들이 다문화청소년들의 심리·사회적응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꼽은 것은 가정환경이었다. 본 자문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 대부분이 자녀의 심리·사회적응에서 부모가 가장 중요하기에 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응을 위한 방안으로 청소년 당사자에 대한 개입만 하는 것은 효과가 거의 없다고 하였다. 아이들을 대상으로 아무리 좋은 상담과 지원을 해도 부모가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 상담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며, 자녀들이 문제가 있는 경우 가정을 보면 부모에게 문제가 있는 경우가 다수라는 것이다. 부모의 문제는 다문화청소년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지만 다문화청소년들의 경우 부모 간 갈등이 큰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부모가 서로 사이가 좋지 않다보니 아이들이 부모가 이혼할까 불안해하고, 위축되는 등의 심리적 불안을 많이 느끼게 되는 현상이 더 많이 나타난다는 데 전문가들은 일관되게 문제를 제기하였다. 또한 다문화청소년 집단 중 외국인가정의 경우 아동학대에 대하여 한국보다 느슨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서 덜 민감한 측면이 있고, 실제 아동학대로 문제가 신고 되어도 부모가 처벌을 받았을 경우 가정경제나 비자 연장에 문제가 생기는 등 곤란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학대사실을 숨기는 등 원활한 처리에 어려움이 있는 측면도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부모교육이 매우 필요하며 현실적으로 학교나 지역사회나 모두 부모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매우 절실하다는 의견이었다.

표 Ⅵ-33 자문회의 도출결과: 가정환경의 중요성

자문회의 도출결과
■ 심리·사회적응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부모임
■ 중도입국청소년들의 경우 부모의 무관심
■ 부모에 대한 개입 없이 청소년만을 상담하는 것은 효과가 거의 없음. 거의 대부분 가정에서 문제가 나타나기 때문에 부모코칭 등 부모개입이 필수적임.

자문회의 도출결과
■ 아이를 대상으로 상담 및 지원을 해도 부모가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 오히려 아이의 상태가 나빠지는 것을 봄 ■ 다문화청소년들의 문제는 가정에서 온다고 보이며, 학습도 마찬가지로 생각됨. ■ 외국인가정의 경우는 아동학대 등에서 한국인보다 더 느슨함. 또한 아동학대로 문제가 있어도 처벌을 받으면 가정 경제에 문제가 있고 비자연장에 문제가 생기는 등 곤란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가족끼리 감추는 경향도 더 있음. ■ 다문화청소년의 경우 부모간 사이의 갈등이 큰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임. 부모갈등 간에서 아이들이 위축되거나 타인의 시선을 지나치게 느끼거나, 부모가 이혼할까봐 불안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음. ■ 아이의 방치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보임. ■ 부모가 자녀교육에 대한 지식과 인식 등이 매우 부족함. ■ 부모교육을 의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③ 초기 단계의 예방적 지원시스템 구축의 중요성

세 번째로 다문화청소년들의 경우 위에서 언급한 여러 환경적 요인으로 심리·사회적응에서 취약한 측면이 있는 만큼 다문화청소년들이 지니고 있는 문제가 더 큰 문제로 발현하기 이전에 초기 상담이나 검사를 통해 예방적 접근을 할 수 있는 지원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처음 입국할 당시 청소년들은 진학이나 한국어 수준을 파악하는 수준의 초기상담을 받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심리적 상태에 대한 진단을 함께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부의 출입국외국인청 등에 전담인력을 배치하는 등 적극적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표 Ⅵ-34 자문회의 도출결과: 초기 단계의 예방적 지원시스템 구축의 중요성

자문회의 도출결과
■ 아이의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상담을 통해서 심리적응상태를 알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함. ■ 초기 입국한 청소년들의 경우 진학이나 한국어 수준을 파악하는 초기상담에서 심리적 상태에 대한 진단을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④ 다문화청소년 상담의 특성 및 요구

네 번째로 다문화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이나 치료의 특성과 관련된 의견들이 제시되었는데, 다문화청소년들을 수년간 담당하고 한 학교교사는 현재 학교에서는 주로 다문화아이들의 학습지원 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고 있으나 사실상 더욱 절실히 필요한 것은 심리적 지원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는 지난해 본 연구에서 면접했던 다른 학교 교사의 의견과도 일치하는 내용으로 당시 연구에서는 다문화청소년들의 진로에 대하여 논하는 자리였는데, 진로를 논하기 전에 기본적인 생활과 생존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마찬가지로 학교교사나 상담전문가들은 다문화청소년들의 심리적 지원 특히 상담이 필요한 경우가 다수 있다는 데 의견이 일치하였다. 그러나 한국어가 되지 않는 중도입국청소년이나 외국인가정 자녀의 경우는 일반적인 상담도 어렵고, 심리검사를 하는 것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 일반적인 청소년들을 상담하는 상황하고는 매우 다르고 어려운 상황이라는 의견이었다. 다문화청소년들이 많은 지역의 다문화청소년 전담기관에서는 통역을 사용하고 있는데, 상담의 과정에서 통역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어서 이에 대한 면밀한 방안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었다. 효과적인 방안은 한국어와 외국어가 되는 사람을 상담전문 통역인력으로 양성하여 다문화청소년 또는 결혼이주여성, 외국인노동자 등의 상담에 투입하는 것인데, 이미 이런 방식을 적용해 본 기관들도 있었다. 그 과정에서 일반적인 통역과 달리 상담통역의 특수한 역량과 자세가 필요함을 느끼게 되었고, 그와 관련하여 매뉴얼 등을 개발하여 보급할 필요도 있다는 의견이었다.

또한 다문화청소년상담의 특성은 한 기관에 상담사가 상주하여 청소년이 상담을 원할 때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안정적인 환경조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담인력을 기관에 채용하여 상시적으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해야 하므로 결국은 인건비의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나 전담인력이 없어서

지역사회의 여러 정신보건이나 상담관련 기관으로 보낼 경우에 검사비나 치료비가 더 많이 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한 기관에 상주하는 전문상담가를 고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표 VI-35 자문회의 도출결과: 다문화청소년 상담의 특성 및 요구

자문회의 도출결과
■ 언어로 인하여 상담하는 것이 어려움.
■ 현재 학교에서 학습지원 프로그램이 주로 있지만 정작 필요한 것은 심리정서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임.
■ 심리검사지를 활용하는 것이 어려움. 타당화 작업이 필요함.
■ 통역사가 필요함.
■ 전문적 심리검사가 어렵기도 하지만, 할 수 있다 해도 비용이 너무 많이 듦.
■ 심리검사에서의 문화적 특성 등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함.
■ 일반적인 통역사는 상담장면에서 통역을 하는 데 한계가 있음. 상담전문 통역인력이 양성될 필요가 있음.
■ 상담통역이 처음에는 어색하거나 어려울 수 있으나 일단 통역자가 잘 역할을 하면 오히려 촉진자 역할을 하는 등 효과가 있음.
■ 상담사, 통역사, 내담자 사이의 구조화만 잘 되면 상담이 매우 잘 이루어짐.
■ 상담통역 전문인력을 위한 매뉴얼 등이 개발되면 좋을 것으로 생각됨.
■ 청소년의 특성상 전문 상담사가 한 기관에 상주하여 안정적으로 상담을 해주는 것이 필요함.
■ 전문적 상담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기존의 전문기관을 이용할 경우 비용문제로 다문화청소년들이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한 아이가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보다 장기적인 상담과 사례관리가 필요한데, 현재의 상황은 한 아이에게 집중적 지원을 하기 보다는 여러 아이들에게 혜택을 주는 방향이기에 안타까운 부분이 있음.
■ 학교에서도 학생과 말이 통하지 않아서 다문화교육지원센터의 통역지원단의 도움을 요청함.
■ 다문화청소년이 문제가 있을 경우 상담교사 보다는 다문화 담당교사가 담당하는 경우가 많음.
■ 최근 들어 러시아 출신자들이 많이 입국을 하여 러시아어 통역지원이 많이 요구되고 있는 추세임.
■ 다문청소년의 경우 단순 내방상담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방문도 해야 하고 사례관리가 매우 필요한 상황인데 일반적인 상담사들은 내방언어상담 이외에는 하지 않으려고 해서 어려움.
■ 협업이 되는 상담사의 경우도 언어가 안 되면 본인의 영역이 아니라고 하고, 다문화담당교사는 심리상담 분야를 모르는 경우가 반복됨.
■ 학교에서 다문화청소년 상담을 담당하는 경우도 많으나, 밀집지역의 경우는 상담 및 위기지원의

자문회의 도출결과

사례가 너무 많다보니 한 명의 교사가 담당하기에 역부족임.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에서도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이해와 이들을 위한 지원의 내용에 대해 알고자 하는 욕구가 있음.
-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상담사들은 자신들의 기본업무를 상담에 국한시키려는 마인드가 강함.

⑤ 청소년관련 전문가 역량강화의 필요성

다섯 번째로는 청소년관련 상담전문가, 청소년지도자, 사례관리사 등 청소년업무 관련자들에 대한 다문화 역량강화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시되었는데, 다문화청소년 전문 상담기관을 개발하고 역량을 강화 하는 것과 동시에 일반적인 청소년상담 및 지원기관의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이해와 다문화상담에 대한 이해 등의 역량강화가 함께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도출되었다. 현장에서 다문화청소년 대상의 상담사례가 발생할 경우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상담에 대한 두려움과 거부감이 생겨 상담을 거부하는 경우도 다수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한 예로 학교에서 다문화청소년의 상담사례가 발생하면 상담교사보다는 다문화담당교사에게 의뢰가 되는데, 다문화담당교사는 상담에 대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의뢰된 다문화청소년을 다룰 수 있는 역량이 되지 않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연계할 때도 다문화청소년에 대하여 준비되지 않은 상황으로 인하여 상담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나 거부감을 가지고 있어서 연계가 되기 어려운 경우도 많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다문화상담의 경우 사례관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상담전문가들은 상담을 하는 것만이 본인들의 기본 업무라는 인식이 강하여 다문화청소년상담에서 한계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그러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전문가들도 다문화청소년들에 대한 이해의 욕구가 존재하며, 직무연수 등의 기회를 통하여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고 있었다.

또한 다문화상담에 대한 전문가가 부족하여 수퍼비젼을 받는 데도 한계가 있어서 전문성을 기를 수 있는 장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따라서 일반적인 상담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이해, 다문화상담의 특성 등에 대한 전문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추진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였다.

표 Ⅵ-36 자문회의 도출결과: 청소년관련 전문가 역량강화의 필요성

자문회의 도출결과
■ 기존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일반 청소년 대상 기관들이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다문화청소년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받기 어려움
■ 학교나 각종 센터에서 다문화청소년들을 받는 것을 힘들어함.
■ 다문화청소년 전문 상담기관도 필요하지만 일반적인 청소년 상담 및 지원기관의 다문화역량강화도 매우 필요한 부분임.
■ 다문화청소년들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정신보건센터 등으로 연계되는 경우 다시 다문화청소년전문센터로 되돌려지는 경우가 많음.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지원에 거부감이나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으로 보임.
■ 학교에서는 다문화청소년을 직접 상담하기보다 그들의 특성이 있다고 생각하여 다문화청소년전문기관으로 보내는 경향이 많음.
■ 학교에서 상담을 하는 집단이 다문화에 대한 연수를 받는 것에 대해서도 부담감을 느낌.
■ 다문화상담에 대한 교육의 내용은 우리 실정에 전혀 맞지 않음. 미국의 이론을 비판 없이 우리 상황에 적용하기 때문에 현장의 상황을 설명하지 못함.
■ 학교상담인력 중 전문상담사의 인력이 상담교사의 두 배임에도 불구하고 교사연수에서는 소외되는 경향이 있음.
■ 학교에서 상담을 하는 인력들은 전반적으로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이해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그 다음이 상담기법이라고 생각되는데, 마인드 자체가 아직 부족함.
■ 다문화전문상담사를 양성하면 좋겠음.
■ 다문화전문상담사를 별도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회의적이고 기존의 상담사들에게 다문화적 전문성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함.
■ 현재 다문화상담에 대한 수퍼비전을 할 교수도 거의 없음.
■ 상담학회에서도 다문화상담에 대한 영역 자체가 설정되지 않고 있음.
■ 다문화관련 각종 자료들을 하나의 사이트에 올려주는 것이 필요함.
■ 일반적인 교사 대상 다문화학생에 대한 이해교육도 필요함.

⑥ 지역연계의 필요성과 한계

여섯 번째로 지역사회 내에서 여러 전문기관들이 연계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는 것이 대부분 전문가들의 의견이었다. 실제로 한 명의 다문화청소년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교육청, Wee센터, 학교사회복지사,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이 공동으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자주 발생한다는 것이다. 특히 학교의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누구에게 어떤 절차로 의뢰를 할 수 있는지, 어떤 기관들이 연계기관인지 등에 대하여 알 필요가 있다고 한다. 그러나 많은 경우 교사들은 그런 정보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그 때서야 알아보는 등의 방식으로 관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역연계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현장의 교사나 현장전문가들은 실제로는 지역연계를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어려움이 크고 잘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이에 대해 한 현장전문가는 지역연계가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지만 잘 되지 않는 이유는 연계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연계를 통해 얻은 것이 없다고 느끼기 때문이라는 의견이었다. 지역사회 차원에서 처음에는 연계를 하고자 모이나 점차 연계를 통해 자신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게 되면서 하나 둘 떨어져나간다는 것이다. 또한, 연계를 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연계를 할 만한 기관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다는 의견도 있었다. 특히 부처가 다른 전달체계 사이의 협력은 매우 어려운 것으로 보였는데, 예를 들면, 학교상담교사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상담전문가들과도 서로 사례회의가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같은 교사들 내에서도 상호 협력적 연계는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다. 연계를 하려면 상호 가지고 있는 전문적 정보를 공유해야 하는데, 특별한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서로 나눌 것도 별로 없고, 나누어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느끼기 때문이었다.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한계가 있으나 지역 내 학교와 전문기관들 간의 협력

적 관계는 매우 중요한 것으로 모두들 인식하고 있기에, 지역연계를 위하여 어떤 부분을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안 모색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한 예로 사례협력을 위해서 내담자의 정보를 어디까지 상호 공유할 것인지에 대한 사전 협의 등이 필요하고, 상호간의 역할분담을 정하는 일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Ⅵ-37 자문회의 도출결과: 지역연계의 필요성 및 한계

자문회의 도출결과
■ 다문화청소년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교육청, Wee센터, 학교사회복지사,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이 공동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사안들이 현장에서 많이 발생함.
■ 지역연계가 매우 필요하나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연계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임.
■ Wee센터에서도 다문화학생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음. 이런 경우 다문화교육지원센터 등과 연계가 필요함.
■ 학교교사에게 심리·사회적응 문제 및 위기의 사례가 발생했을 때 어디의 누구에게 의뢰하면 되는지 홍보하고 지역 내에서 상호 원활히 연계되는 것이 매우 중요함.
■ 학교교사들도 아동학대, 방치 방임의 문제에 접했을 때 어디에 연계해야 하는지 모름.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역할에 대해서도 모를 것으로 생각됨.
■ 학교의 경우 외부인이 들어오는 것을 매우 꺼려하기 때문에 연계가 쉽지 않음.
■ 다문화청소년을 위한 특별반을 만드는 경우에도 관련 정보를 얻는 것도 어려움. 다른 학교도 잘 모르고, 지역의 다른 기관에 물어보기도 어려움.
■ 학교가 지역과 연계하는 것도 매우 어렵지만 한다고 해도 실제로는 연계할 기관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음.
■ 다문화학생을 Wee센터로 연계하면 그 언어로 상담할 수 있는 인력이 없다는 답변이 와서 실제로 연계에 어려움이 있음.
■ 학교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Wee센터로 주로 연락함. 지역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는 함께 사례회의가 되지 않음. 처음에는 함께 하려고 했으나 이제는 연을 끊었고 Wee센터나 Wee클래스는 같은 교육부 사업으로 원활한 협력이 이루어짐.
■ 학교는 오히려 복지센터나 복지재단과 연계가 잘 됨.
■ 학교가 외부와 연계할 때 힘든 것은 각 기관에서 요구하는 준비서류가 각자 다르고 등록시스템도 천차만별임. 따라서 연계를 할 때 교사가 매우 힘들다고 느낌.
■ 교육복지사들은 정기적으로 사례협의를 하고 지역 내 여러 집단들과 협의가 가능한데 비하여 상담쪽은 협의회나 소통이 잘 안되고 있다고 느낌.
■ 지역 내 교사들끼리의 협의회도 잘 안됨.

자문회의 도출결과

- 학교에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사례를 의뢰하면 다시 다문화청소년전문기관으로 의뢰를 하게 됨.
- 상담사끼리의 수퍼바이징 등 연구모임이 필요함.
- 지역아동센터 등 돌봄 기관도 필요함.
- 지역사회 중심의 긴급지원 시스템에 대한 지역 내 전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다문화청소년의 경우 심리·사회적응 및 위기지원을 위한 시스템 구축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교육부 Wee 클래스, Wee 센터 등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전반적으로 협조가 안됨.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역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는 따로 놀고 있음.
-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는 고위기 청소년을 주로 넘기고 웬만한 아이들은 학교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보임
- 사례협력회의를 위해서는 어디까지 상호 공유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전 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⑦ 청소년안전망(CYS-net: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작동의 어려움

지역연계 중 청소년안전망(CYS-net: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을 중심으로 현황을 살펴본 결과 청소년안전망(CYS-net: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경우도 역시 잘 되지 않는데 그것은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기관이 없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즉, 여러 기관이 각자의 역할은 하고 있지만 한 기관에서 개입이 끝나면 다음에 어떤 기관으로 연계를 할 것인지, 또는 어떤 절차로 아이를 지원할 것인지 등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책임지는 기관이 없다는 것이었다. 청소년안전망(CYS-net: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에서 중요한 것은 사례를 발굴한 후 그것을 이관하는 기관, 계속적으로 관리하는 기관, 전문기관 등이 모두 있어야 통합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현재는 그런 것이 어렵다는 것이다. 형식적으로 MOU만 체결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협력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연계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이번에 새로 개발 및 제시된 청소년안전망(CYS-net: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경우도 여성가족부의

파워를 가지고 경찰, 법무무 산하기관의 정보를 취합하는 것이 얼마나 가능할지에 대해서 회의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었다.

청소년안전망(CYS-net: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과 관련하여 다문화청소년의 분야를 포함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안전망(CYS-net: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내에 다문화청소년 전문 민간기관이 필수적으로 포함될 필요가 있고, 연계시 기관별로 각자의 역할에 대하여 논의하고 각자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역할을 나누어서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표 Ⅵ-38 자문회의 도출결과: 청소년안전망(CYS-net: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작동의 어려움

자문회의 도출결과
■ 청소년안전망(CYS-net: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경우 결국 컨트롤타워 역할은 아무도 하지 않음. 공무원을 중심에 둔다고 하지만 관할 공무원은 계속 바뀌고 지방자치단체 안에서 부서끼리의 소통도 안되고 있음.
■ 청소년안전망(CYS-net: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에서 사례를 발굴하더라도 그것을 이관하는 기관, 계속적으로 관리하는 기관 등이 모두 필요함.
■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경우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의 사례에서 민단단체이기 때문에 컨트롤 할 수 있는 힘을 발휘하기 어려움.
■ 여성가족부의 파워를 가지고 경찰, 법무부 산하기관의 정보를 취합하는 것이 얼마나 가능할지 회의적임.
■ 경찰청과 여성가족부가 MOU를 체결하였으나 실제 어떻게 연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름.
■ 한번 청소년안전망(CYS-net: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에 잡힌 아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방안도 고민이 필요함.
■ 청소년상담복지센의 경우 상담이 종결되면 추수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되어 있어서 종결이 되어버림. 끝까지 모니터링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형편임
■ 상황에 따라서 상담이 끝난 후 학교 전학의 문제와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연계하는 등의 사례관리를 하고 있음.
■ 청소년안전망(CYS-net: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내의 모든 기관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여야 하는데 사실상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음.
■ 청소년을 보고 일을 해야 하는데 기관을 중심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실적을 채우고 나면 과외적인 일로 생각하는 것이 문제의 핵심인 것으로 보임.
■ 다문화의 경우 청소년안전망(CYS-net: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네트워크에 다문화

자문회의 도출결과

가족지원센터를 포함시키는 것도 필요함.

- 청소년안전망(CYS-net: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내에서 다문화청소년의 문제를 처리하고자 한다면 다문화청소년 전문 민간기관이 들어와야 할 것으로 보임.
- 연계 시 기관별로 각자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각자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역할을 나누고 이에 대한 합의가 필요함.

⑧ 다문화청소년 지원의 제한

마지막으로 다문화청소년들에 대한 심리·사회적응 및 위기지원과 관련하여 현장에서 법적 제도적 제한이 있는지에 대하여 전문가들은 국내출생자가 아닌 경우 실질적으로 지원의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국적인 체류자격 등의 기준이 모든 시설에서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것은 아니어서 국적이 없는 다문화청소년이 어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현장전문가가 사례별로 연락하여 지원의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법적으로 제한이 없다 할지라도 일단은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였다. 다문화청소년의 지원에서 어려움을 겪는 부분은 역시 언어로, 언어만 되면 받지만 언어가 되지 않아서 지원이 어렵다는 반응이 일반적인 청소년지원기관의 태도라는 것이다. 다양한 청소년들을 지원하지만 언어가 되지 않는 경우 몇 배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무자로서는 심리적으로 더 많은 부담감을 느끼는 것도 이해하지 못할 일은 아니라는 의견도 있었다. 따라서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아동 및 청소년의 심리·사회지원 및 위기지원을 담당하는 기관의 실무자들에게는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이해교육이 필수적이며, 일단 이해가 되면 거부감이나 두려움이 덜 할 것이고, 이들의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효능감이 제고될 것임을 시사하였다.

표 Ⅵ-39 자문회의 도출결과: 다문화청소년 지원의 제한

자문회의 도출결과
■ 국내출생자가 아닌 경우 지원의 한계가 있음. ■ 국적이나 체류자격 등의 기준이 모든 시설에서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님. ■ 각종 심리적응 및 위기지원에서 지원을 받는 경우도 있으나 우선순위에서는 밀리는 경우가 많고, 기본 방침은 지원이 안 되는 것이나 도의적으로 해주는 것으로 생각됨. ■ 지역에서는 언어만 되면 받겠다고 하나 언어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실제로는 지원이 어려운 경우가 다수임. 그 기관들은 다수의 특수한 아이들을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언어가 안되는 한 명의 아이를 별도관리하기 어렵기 때문임. ■ 다문화청소년의 지원은 모두 상황마다 다 다른 경우로, 지원이 되는지의 여부는 기관별로 다 알아봐야 함. 일관된 규정이 없는 상황임. ■ 국적취득자만 우선 지원되는 심리지원프로그램이 있으나 이나마도 아는 사람들이 제한적임.

(4) 요약 및 소결

본 연구에서 전문가 자문회의는 다문화청소년 대상 심리·사회적응 및 위기지원을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추진되었다. 목적을 위하여 현장전문가, 교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전문가, 상담전문가 등 다양한 다문화청소년 관련 전문가 19명을 대상으로 자문회의를 개최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는 다문화청소년들의 경우 일반적인 청소년들과 마찬가지로 청소년기의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만의 특수한 상황으로 인한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고 이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둘째는 다문화청소년들의 문제가 크게 발현하여 자살이나 자해 등 심각한 문제로 전이되기 이전에 예방적 자원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셋째는 부모교육의 중요성으로 청소년들의 문제가 대부분 가정에서 나타나는 만큼 부모교육을 의무화할 수 있는 방안 등 보다 적극적인 부모교육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넷째는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이해교육이 보다 강화되어 일반적인 청소년상담전문가 대상 다문화청소년 이해교

육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다섯째는 다문화청소년 상담을 위하여 상담전문 통역사 양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만 단순한 통역이 아닌 상담통역인 만큼 보다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하고 관련 매뉴얼 등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여섯째는 일반 학교교사 대상으로 다문화이해교육이 여전히 필요한 상황이며, 지역의 청소년 심리·사회적응 및 위기지원을 위한 전문기관에 대한 홍보를 통해 보다 원활히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일곱째는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응 및 위기지원을 위한 효과적인 지역연계모델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물론 현재에도 지역연계가 없는 것은 아니나 현재 연계가 잘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어떻게 상호 협력할 것인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연계 전 과정을 총괄할 수 있는 강력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표 Ⅵ-40 자문회의 도출결과: 전체 요약

자문회의 도출결과 전체 요약
첫째, 다문화청소년들 만의 심리발달에서 특성이 존재함. 따라서 이들에 대한 맞춤형 심리상담 및 위기지원방안의 마련은 필요함
둘째, 문제가 크게 발현하기 전 예방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함.
셋째, 부모교육이 매우 중요함. 따라서 부모교육의 의무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넷째, 일반적인 청소년상담전문가 대상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이해교육은 시급하게 이루어질 문제임
다섯째, 다문화청소년 상담을 위하여 상담전문 통역사를 양성하는 것이 필요함.
여섯째, 일반 학교교사 대상 다문화이해교육과 지역의 전문기관 등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필요함.
일곱째,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응 및 위기지원을 위한 효과적인 지역연계모델이 필요함.

4) 결론

본 장은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응 및 위기지원을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근거자료를 도출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연구를 위하여 패널설문조사 분석, 다문화청소년과 어머니 대상 면접조사,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추진하였다. 세 가지 과정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첫째, 다문화청소년을 위한 심리·사회적응 및 위기지원 강화가 필요하다. 본 분석에 따르면 전반적으로는 다문화청소년들이 일반 청소년들과 마찬가지로 잘 지내고 있으나 다문화배경이라는 것이 심리적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중도입국 등 본인이 이주의 배경을 경험한 경우는 심리적으로 매우 취약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다문화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는 심리적응프로그램이 매우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지원율은 매우 낮고도 매년 감소하는 추세이다. 특히 교사들의 경우 다문화청소년을 위한 심리적응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다. 당사자들도 심리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대부분 그냥 참거나 부모님께 이야기하는 수준일 뿐 전문적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사례는 많지 않고 상담에 대한 인식의 수준도 낮다. 만일 이러한 상황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다문화청소년들이 전반적으로 위축이나 사회적 소외, 차별감 등으로 심리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 대거 놓일 수도 있다. 따라서 이들을 위한 심리·사회적응 및 위기지원 시스템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둘째, 다문화청소년을 위한 심리·사회적응 및 위기지원 프로그램은 선별적 프로그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다문화청소년 역시 청소년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청소년들의 발달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별도의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문화배경을 지니고 있는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특성은 긍정적으로 작용하기보다 어려움 요인으로 작용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상황에 대한 이해에 근거한 맞춤형 지원방안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즉, 다문화청소년을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 아닌 일

반 청소년관련 전문인력들에 대한 다문화 역량강화 등 보다 넓은 의미의 개입이 필요하고 동시에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필요하다.

셋째, 학교환경의 다문화민감성 제고를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난 결과를 살펴보면 다문화청소년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머무르는 학교에서 모든 종류의 차별이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교교사로 인한 차별이 다문화청소년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현재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다문화이해교육이 교사 대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며, 교육의 내용이 단순히 다문화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의 수준에서 벗어나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들이 다문화청소년들에게 상처를 주는 행동이 될 수 있는지 등 실질적 내용을 다루어줄 필요가 있다. 또한 학교 또래들도 마찬가지로 크게 인권교육의 측면에서 자신의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인지, 그러한 말과 행동이 얼마나 스스로의 격을 낮추는 일인지 등의 시각에서 전달될 필요가 있다.

넷째, 다문화청소년들의 심리적 문제가 발현하기 전 예방적 접근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수년간 다문화청소년을 전문적으로 만나온 전문가들에 따르면 문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발현하기 이전에 예방적 차원의 개입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매우 타당한 지적으로 다문화청소년들이 평소 겪는 어려움을 초기에 개입함으로써 심각한 수준으로 심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청소년 개인이나 사회적으로도 도움이 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위한 보다 구체적인 지원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부모교육의 구체적 내용과 추진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청소년과 부모의 경우는 학교의 또래집단 및 교사의 문제를 이야기 했으나 현장전문가와 학교교사의 시각에서 보면 부모의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다문화청소년 뿐 아니라 청소년 문제의 대다수는 가정의 문제에서 기인한다. 아무리 학교에서 차별의 문제가 있어도 가정에서 부모가 든든한 지원을 해준다면 청소년은 극복

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 현장전문가들의 회의에서 나타난 심각한 사례들은 주로 가정의 문제로부터 기인한 경우가 다수였다. 따라서 부모에 대한 교육을 어떤 내용으로 어디에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응 및 위기지원을 위한 지역연계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응 및 위기지원은 학교, 청소년상담센터, 정신보건기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각각의 기관이 단독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많다. 그보다는 지역사회 내에서 효과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에도 이미 청소년안전망(CYS-net: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과 같은 연계시스템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지역 내에서 잘 돌아가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다문화청소년의 이슈가 이 시스템에 들어가고 유기적으로 잘 움직이기 위해서는 현재 시스템이 잘 돌아가지 않는 이유에 대해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4. 국내 다문화청소년 심리·사회적응 및 위기지원 정책현황

이 절의 목적은 첫째, 청소년관련 법률에 근거해 볼 때 다문화청소년의 지원에 한계가 있는지를 파악하고 동시에 국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일반적인 청소년 대상 심리·사회적응 및 위기지원을 위한 각종 정책에서 국내 다양한 유형의 다문화청소년들이 접근을 하는 데 있어 제한이 있는지 등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둘째는 국내의 일반적인 청소년들을 위한 심리·사회적응 및 위기지원 정책현황을 분석함으로써 다문화청소년들의 심리·사회적응 및 위기지원정책을 구성하는 데 활용하기 위함이었다.

1) 청소년관련 법률 상 다문화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

(1)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 기본법」의 목적은 청소년의 권리 및 책임과 가정·사회·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정하는 것으로(「청소년 기본법」 제1조(목적)), 기본 이념에서는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동시에 보다 나은 삶을 누리고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추진의 방향 중 세 번째가 청소년의 성장여건과 사회환경의 개선이다. 결국 모든 청소년은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사회는 청소년의 성장여건과 사회환경을 개선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 제1조(목적) 이 법은 청소년의 권리 및 책임과 가정·사회·국가·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청소년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① 이 법은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음과 아울러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며 보다 나은 삶을 누리고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
> ② 제 1항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장기적종합적 청소년정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호의 사항을 그 추진방향으로 한다.
> 1. 청소년의 참여보장
> 2. 창의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청소년의 능동적 삶의 실현
> 3. 청소년의 성장여건과 사회환경의 개선
> 4. 민주·복지·통일조국에 대비하는 청소년의 자질 향상

그렇다면 「청소년 기본법」에서 정의하는 '청소년'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인가? 이는 제3조에 명시되어 있는데, 「청소년 기본법」의 청소년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이는 「청소년 기본법」이 국적, 인종, 종교, 언어 등에 상관없이 9세 이상 24세 이하인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법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물론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있지만 이는 연령범위에 대한 것이지 청소년의 배경에 의한 단서조항은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

> 제3조(정의) 이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청소년 기본법」상 사회의 책임은 모두 4가지로 아래와 같다. 그 중 ④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경제적·사회적·문화적·정신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들이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다문화청소년들이 경제적·사회적·문화적·정신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다면 이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들이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은 사회적 책무라고 볼 수 있다.

> 제7조(사회의 책임) ①모든 국민은 청소년이 일상생활에서 즐겁게 활동하고 더불어 사는 기쁨을 누리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 ②모든 국민은 청소년의 사고와 행동양식의 특성을 인식하고 사랑과 대화를 통하여 청소년을 이해하고 지도하여야 하며, 청소년의 비행을 바로잡는 등 그 선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③모든 국민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청소년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장소에서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청소년에게 유해한 환경을 정화하고 유익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모든 국민은 경제적·사회적·문화적·정신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들이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청소년 기본법」 상에서는 다문화청소년은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지니며 청소년 일반집단과 차별받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2) 청소년복지 지원법

「청소년복지 지원법」은 「청소년 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청소년복지 향상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 이 법에서 청소년에서는 특별히 청소년의 복지와 위기청소년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다. 4항의 위기청소년의 경우 '가정에 문제가 있거나 학업수행 또는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으로 제5장의 제13조에서 18조는 위기청소년에 대한 지원의 내용을 담고 있다.

> 제1조(목적) 이 법은「청소년 기본법」제49조 제4항에 따라 청소년복지향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청소년"이란「청소년 기본법」제3조 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2. "청소년복지"란「청소년 기본법」제3조 제4호에 따른 청소년복지를 말한다.
> 3. "보호자"란 친권자, 법정대리인 또는 사실상 청소년을 양육하는 사람을 말한다.
> 4. "위기청소년"이란 가정문제가 있거나 학업수행 또는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을 말한다.

위기청소년을 위한 지원은 상담과 교육(제13조),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제14조), 가출예방 및 보호·지원(제16조)이라는 일반적인 위기지원에 더하여 특별히 제18조에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지원이라는 조항을 별도로 구성하여 제시하고 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적응 및 학습능력 향상을 위하여 상담 및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고, 특히 국내출생의 다문화청소년 뿐 아니라 외국에서 국내로 이주한 청소년들이 모두「청소년복지 지원법」의 대상임을 명시하고 있다.

> 제18조(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지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의 사회적응 및 학습능력 향상을 위하여 상담 및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1.「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청소년
> 2. 그 밖에 국내로 이주하여 사회적응 및 학업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지금까지「청소년 기본법」과「청소년복지 지원법」을 간략히 검토한 결과 한국국적자인 국내출생 다문화청소년은 물론이고 그 외 국적이 없거나 미등록인 청소

년이라 할지라도 「청소년복지 지원법」 상에서는 차별이 있지 않고, 오히려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특별히 언급한 만큼 사실상 법적으로 지원의 한계가 있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3)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아동복지법」의 정의에서 아동은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의된다. 「청소년 기본법」과는 연령범위만 다르다. 그런데 「아동복지법」은 제2조의 기본 이념에서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18세 미만의 사람은 누구든지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보다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문화청소년, 특히 한국국적이 없거나 심지어 출생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들까지도 정책적 지원의 한계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한다.
②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
③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④ 아동은 아동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3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복지"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사회적·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따라서 다문화청소년 중 한국국적이 없거나 미등록인 상태의 청소년들의 경우 법적으로는 각종 지원정책의 한계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이러한 사실에 대해 국민과 지원기관의 실무자들이 잘 알지 못하여 지원의 한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2) 다문화가족지원법 상 다문화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

다문화가족지원법은 다문화청소년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법으로,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는 부모 중 적어도 한쪽이 대한민국 국적을 지닌 가정의 24세 이하인 사람이 지원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다문화청소년과 관련하여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지닌 첫 번째 한계는 다양한 이주의 배경을 지닌 청소년들이 지원에서 배제되고 대부분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한국국적을 지닌 가정의 자녀들에게 지원이 국한되는 등 지원의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다는 문제이다.

제2조(정의)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 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 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2.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3. "아동·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그 중 제 10조에 아동·청소년 보육과 교육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지원의 내용을 살펴보면 주로 학교생활 적응을 촉진하기 위한 교육지원대책, 방과후 교육프로그램, 언어능력제고 등에 국한되어 있고, 심리·사회적응 및 위기지원에 관한 내용을 명시되어있지 않다. 이는 법 제정 당시 다문화가족 자녀인 다문화청소년들의 지원에 있어 교육성취격차나 언어발달 등 주로 인지적 영역의 문제가 중요하다

고 생각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며, 다문화청소년들의 심리·사회적응에 대한 중요성의 인식은 그에 비해 다소 덜한 수준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제10조(아동·청소년 보육·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청소년 보육·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이 학교생활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학과 외 또는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18세 미만인 사람의 초등학교 취학 전 보육 및 교육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고, 그 구성원의 언어발달을 위하여 한국어 및 결혼이민자등인 부 또는 모의 모국어 교육을 위한 교재지원 및 학습지원 등 언어능력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또한, 제12조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업무를 명시하고 있는데, 아래와 같이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 상담 등 지원사업, 결혼이민자 등의 한국어교육,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다문화가족 지원관련 기관·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일자리 정보제공 및 알선, 통번역지원 등을 명시하고 있어서 다문화청소년의 경우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대상으로 포함되기는 하나 결혼이민자가 우선되고 있고, 지원의 내용에 있어서도 역시 한국어, 교육, 정보제공, 통번역 등이 주요 내용이며, 다문화가족 내 아동 및 청소년의 지원, 그 중 심리사회적응을 위한 지원은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포함될 수는 있으나 중요한 업무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다.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④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
2.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한국어교육
3.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4.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5. 일자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일자리의 알선
6.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역·번역 지원사업
7.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따라서 다문화가족지원법은 다문화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지원할 수 있는 법이기는 하나 다문화청소년 중 부모 중 한쪽이 한국국적을 지닌 가정에게 한정되어 있고, 자녀보다는 결혼이민자에게 좀 더 지원의 비중이 있으며, 내용적으로 심리·사회적응에 대한 강조는 덜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 법이 지원의 대상으로 보는 결혼이민자 가정의 자녀들은 대부분 한국국적을 지닌 상태이므로 대한민국 일반적인 청소년에게 적용되는 법과 제도를 적용하는 데 제한이 없다. 그러나 다문화적 배경에서 오는 심리·사회 적응상의 특성은 존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3) 부처별 청소년 심리·사회적응 및 위기지원 정책 현황

다음으로 각 부처에서 추진하는 청소년 대상 심리·사회적응 및 위기지원정책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심리·사회적응 및 위기지원 시스템

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대표적인 여성가족부의 사업으로 「청소년복지 지원법」을 그 근거로 하고 있다. 사업의 목적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청소년의 상담, 긴급구조, 자립, 의료지원 등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것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목적이다(여성가족부, 2019: 395).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기능은 아래의 표에 나타난 바와 같다. 즉,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 및 복지지원, 상담 및 복지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청소년 상담 전화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운영을 하고 있으며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지원을 주요 기능으로 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9: 396). 현재 전국 시도지역에 229개가 설치되어 있고, 지역사회 내에서 청소년상담의 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법적근거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청소년복지 지원법」에서 정의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국내에 거주하는 만 9세에서 24세까지의 청소년은 모든 지원의 대상이 되며, 다문화청소년들의 경우도 당연히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지원에 대한 권리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지원의 제한은 없으나 현실적으로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특별한 고려는 없으며,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기관 종사자들의 이해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는 다문화청소년들이 특별히 많은 밀집지역을 제외하고는 다문화청소년들에 대한 관심도 적고 전문성 개발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고 있지 않을 수 있으나 향후 변화해가는 한국사회에서는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상담 및 복지지원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향후 상담복지

센터 종사자에 대한 다문화청소년 이해교육 강화나 지역별 다문화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 등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표 Ⅵ-41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개요

사업목적	■ 청소년상담, 긴급구조, 자립, 의료지원 등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증진 도모
법적근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2조의2(청소년복지지원기관 등의 위탁운영)
기능 및 역할	■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복지지원 ■ 상담·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 ■ 청소년폭력·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지원, 일시보호지원 ■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 지원 ■ 그 밖에 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설치현황	■ 전국 229개(17개 시·도 및 212개 시·군·구) 설치·운영

※ 출처: 2019년 청소년사업 안내(여성가족부, 2019: 395-436)의 내용을 표로 정리함.

②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CYS-Net

여성가족부의 또 다른 대표적인 지역사회 청소년지원시스템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는 위기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 내 통합지원시스템으로 지방자치단체 책임 하에 지역사회 내 청소년 관련 자원을 연계하여 학업중단, 가출, 인터넷 중독 등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 보호, 교육, 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다(여성가족부, 2019: 437). 이 사업 역시 「청소년복지 지원법」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청소년의 배경에 따른 차별이나 한계는 없다.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주요

사업내용은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 및 지원을 제공하는 활동을 하고 있고, 상담전화(1388)를 설치 및 운영하는 것, 청소년에게 필요한 요구에 맞게 사례관리를 하는 것 등으로, 지역사회 중심의 CYS-Net 운영위원회와 실행위원회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필수연계기관은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복지시설,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학교, 경찰청 및 경찰서, 지방고용청 및 지청, 공공보건의료기관 및 보건소, 청소년비행예방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보호관찰소 등 청소년과 관련된 지역 내 대부분의 기관들이 포함된다. 지금까지 수년간 추진되어온 CYS-Net은 지역에 따라 활성화 여부가 매우 달라서 매우 잘 되고 있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전혀 작동이 되지 않는 기관도 있어서 통합적 지원을 위한 연계의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추출하고 그에 근거한 새로운 협력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표 Ⅵ-42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CYS-Net

정의	위기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 통합지원시스템(Community Youth Safety-Net)
사업목적	■ 지방자치단체 책임 하에 지역사회 내 청소년 관련 자원을 연계하여 학업중단, 가출, 인터넷 중독 등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보호·교육·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증진
법적근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운영) 및 동법 시행령 제 4조(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성 등)
사업내용	■ 위기청소년 조기발견·보호 및 지원을 위한 활동 지원 ■ 상담전화(1388) 등의 설치·운영 ■ 청소년에 대한 상담, 긴급구조, 보호, 의료지원, 학업지원, 자립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 및 상담복지 사례 관리 ■ CYS-Net 운영위원회 운영지원, 실행위원회 운영, 필수연계기관 상호 연계 및 협력 촉진 조치
구성	■ 필수연계기관: 위기상황에 처한 청소년을 발견, 지원, 보호하기 위해 CYS-Net 연계망의 필수적인 구성기관(1차 연계망)이 되는 공공기관으로 다음과 같음. -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복지시설 및 지원시설 등,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각급학교,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 지방고용청 및 지청, 공공보건의료기관 및 보건소, 청소년비행예방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보호관찰소 등

운영체계	■ 발견 → 개입 → 통합서비스 제공(사례관리에 적합한 사업으로 연계하여 진행)
신청방법	■ 1388로 전화 ■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직접 전화 또는 방문

* 출처: 2019년 청소년사업 안내(여성가족부, 2019: 437-479)의 내용을 표로 정리함.

③ 청소년동반자 사업

청소년동반자 사업은 위기 또는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있는 청소년에게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특히 중·고위험군 청소년에 대해 1:1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사업 역시 근거법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으로 「청소년복지 지원법」의 '청소년'은 '제 2조(정의) 부분에서 「청소년 기본법」 제 3조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제시되어 있으므로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등 국내 청소년 대상의 주요 법에서는 국내에 거주하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은 모두 지원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의 대상자 역시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이용할 권리가 있고, 다문화청소년들의 경우 어떤 상황이어도, 심지어 미등록인 경우도 청소년동반자 사업의 대상이 되는 것을 제한할 수 없다.

대상자는 만 9세에서 24세 이하의 중·고위험군 청소년으로 학교부적응, 초기비행, 학업중단, 우울·자살· 자해 등 심리적 문제가 다소 큰 경우 대상이 된다. 지원의 내용은 심리상담, 정서지원, 생활지원, 프로그램 지원 등인데, 청소년동반자 사업의 장점은 찾아가는 서비스라는 것과 1:1로 프로그램이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다문화청소년들의 경우 특히 중도입국청소년들의 사례에서 보면 초기 입국 시 학교에 들어가기 전, 집에 방치되거나 가사일을 전담하거나 동생 양육을 담당하는 등 발달과정에서 성장시켜야 하는 다른 영역의 과업에 참여하지 못하고 일종의 학대를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 찾아가는 방문상담은 매우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이 청소년동반자 사업을 담당하는 상담자들에게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이해교육을 강화한 후 파견을 하는 방안 등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 Ⅵ-43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의 개요

정의	위기(가능) 청소년에게 찾아가는 상담, 찾아주는 서비스(Youth Companion)
사업목적	■ 청소년동반자가 위기청소년의 삶의 현장을 직접 찾아가 심리적·정서적 지지와 함께 지역사회 자원연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성장 지원 ■ 중·고위험군 청소년에 대한 1:1 찾아가는 상담지원 서비스 제공을 통해 문제해결 및 위기요인 개선 ■ 위기청소년을 위해 지역사회의 청소년 협력자원을 발굴·연계하며, 청소년과의 관계형성을 통한 지속적 지원 제공
법적근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 12조(상담과 전화설치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청소년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대상	■ 9세~24세의 중·고위험군 청소년(학교부적응, 초기비행 및 가능성, 학업중단, 우울, 자살, 자해 등 심리적 문제, 각종 중독, 부모방임, 가정폭력 등 위기가정의 문제 등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
지원내용	■ 심리상담 지원 : 청소년이 있는 현장으로 동반자가 직접 찾아가 청소년의 심리문제를 전문적으로 상담 ■ 정서지원 : 위기청소년과의 지속적인 만남을 통한 정서적 지지 ■ 생활지원 연계 : 청소년의 생활환경에서 필요한 숙식, 교육, 의료, 보건, 법률, 여가, 직업훈련, 취업 등의 문제해결을 위한 지역자원 연계 ■ 프로그램 지원 연계 : 청소년의 욕구와 필요에 맞는 학습체험, 체육·문화체험, 자기계발 및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으로 지원 및 연계
신청방법	■ 청소년 직접 신청 : 청소년전화 1388,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용 ■ 보호자, 교사, 지역사회기관 담당자가 추천 및 의뢰 ■ 온라인 신청 : 의뢰서양식을 다운받아 이메일로 접수

* 출처: 2019년 청소년사업 안내(여성가족부, 2019; 480-481)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함.

④ 청소년쉼터

청소년쉼터도 여성가족부의 대표적인 위기청소년 지원사업으로 가출청소년들을 조기에 발견하여 범죄나 비행으로 빠지는 것을 방지하고,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하고 정서적지지, 의료지원 등도 제공하며 학업복귀나 취업지원을 위한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신속한 가정복귀와 사회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역시 「청소년복지 지원법」을 근거로 하고 있어 모든 청소년들은 필요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닌다. 청소년쉼터의 경우 앞에서 설명한 청소년안전망(CYS-net: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필수연계기관으로 다문화청소년들의 위기상황 시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등이 필요하며, 기관종사자 대상 다문화청소년 이해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Ⅵ-44 청소년쉼터의 개요

사업목적	■ 가출청소년의 조기 발견을 통한 범죄 및 비행예방, 생활보호(의·식·주), 정서적지지 및 심리상담, 의료지원, 학업복귀, 취업지원 등 맞춤형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을 통해 신속한 가정복귀와 사회진출 지원 ■ 청소년복지시설인 청소년쉼터의 운영지원을 통해 가출(징후)청소년들이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
법적근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6조(청소년 가출 예방 및 보호·지원), 제31조(청소년복지시설의 종류), 제32조(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 ■ 「청소년 기본법」 제49조(청소년복지의 향상)
대상	1순위: 9~19세 미만, 2순위: 19~24세
주요업무	■ 가출청소년의 실시보호 및 숙식제공 ■ 가출청소년의 상담·선도·수련활동 ■ 가출청소년의 학업 및 직업훈련 지원활동 ■ 가출청소년의 사례관리 ■ 청소년의 가출예방을 위한 거리상담지원활동 ■ 그 밖에 가출청소년의 복지지원에 관한 활동 ■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와의 연계협력 • 청소년쉼터는 CYS-Net 필수연계기관임 • 청소년전화 1388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의 연계를 통한 상담 및 보호서비스 확충
종류	■ 일시쉼터: 24시간~7일 이내의 일시보호 ■ 단기쉼터: 3개월 이내 단기보호 ■ 중장기쉼터: 3년 이내 중장기 보호

* 출처: 2019년 청소년사업 안내(여성가족부, 2019: 511-605)의 내용을 표로 정리함.

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사업은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청소년에게 다양한 영역의 지원이 이루어지는 서비스로 사실상 비용중심으로 지원이 이루어진다(여성가족부, 2019: 737)는 점에서 다른 청소년지원서비스와 차별성을 지니고, 청소년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사업 역시 「청소년복지지원법」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제한은 없다고 볼 수 있다.

다문화청소년의 경우 소득수준이 낮은 가정에 속한 경우가 다수 있으므로 특별지원사업은 매우 필요한 사업이 될 수 있다. 특히 심리상담이나 검사에 필요한 비용을 직접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은 다문화청소년들에게는 매우 중요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보면 심리적응에 필요한 검사나 치료를 받기 위해 지역의 전문기관을 찾았으나 비용을 감당하기가 어려워 치료를 그만두었다는 응답도 있었는데, 이러한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았더라면 치료를 좀 더 오래 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다문화청소년들에게 국내의 다양한 지원정책에 대해 홍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이 청소년들의 적응과 건강한 삶 영위를 위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표 Ⅵ-45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사업의 개요

사업목적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청소년에게 생활비·치료비·학업지원비 등과 현금급여 또는 관련서비스 지원
법적근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	■ 만 9세 이상 만 18세 이하의 위기청소년(「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만 18세 초과 만24세 이하 청소년 포함)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학교밖청소년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학교밖 청소년 •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대상자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72%이하인 가정 • 단, 생활 및 건강지원은 중위소득 60%이하인 가정에 한함.
지원내용	■ 생활지원: 의식주 등 기초생계비와 숙식제공 등 ■ 건강지원: 건강검진 및 치료비 지원 서비스 ■ 학업지원: 수업료, 교과서대금, 학원비 등 지원 ■ 자립지원: 기술 및 기능습득, 진로상담 및 직업체험 등 비용 지원 ■ 법률지원: 폭력, 학대피해 대상 청소년 법률상담 및 소송비 지원 ■ 상담지원: 심리상담 및 검사에 필요한 비용 지원 ■ 청소년활동지원: 수련활동, 문화활동, 교류활동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 ■ 그 밖의 지원: 그 외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범위 내에서 지원 • 가장 긴급하거나 중요한 1개의 항목에 대한 지원이 기본임.
신청방법	■ 청소년 본인 또는 그 보호자, 청소년상담사·지도자, 교육공무원, 사회복지사,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이 주민등록 관할 시·군·구 주민센터에 접수

* 출처: 2019년 청소년사업 안내(여성가족부, 2019: 737-760)의 내용을 표로 정리함.

⑥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직접적으로 심리·사회적응 기관이거나 위기지원기관은 아니나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센터로 이 법률에서 정의하는 청소년은 「청소년 기본법」을 따른다.

따라서 국내 모든 9세에서 24세 까지의 사람이 이용할 수 있다.

여기에서 학교밖청소년이란 ① 초·중학교 입학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② 고등학교에서 제적·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③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학업중단숙려대상 청소년 포함)을 말하는 것으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는 학교밖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재 아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이주배경청소년 특화형 내일이룸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직업능력개발훈련과 함께 심리정서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이주배경청소년은 15세에서 24세까지로 제과제빵을 중심으로 예비학교과정(34시간), 직업훈련(500시간), 인성교육, 기초한국어, 자격증준비, 직업체험, 진로캠프 등 특화프로그램(146시간)을 이수하는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23]. 학교를 다니지 않는 것이 직접적 위기는 아니나 심리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에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이런 센터를 통해 자립지원의 가능성을 인식함에 따라 청소년들의 심리·사회적응의 수준이 제고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응 및 위기지원을 위한 정책사업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중도입국청소년들과 같이 언어가 되지 않는 경우는 이주배경청소년을 위한 특화프로그램이 필요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국내출생자들의 경우는 특화 프로그램 보다는 일반적인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를 위하여 이 사업에 대한 청소년 대상 홍보와 함께 역시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청소년 이해교육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23) 이주배경청소년 특화형 내일이룸학교에 대한 내용은 양계민 외(2018: 401-403)의 내용을 인용함.

표 Ⅵ-46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의 개요

사업목적	■ 학교밖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법적근거	■ 학교밖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 청소년의 정의는 「청소년 기본법」에 근거
대상	■ 학교밖청소년 ① 초·중학교 입학 후 3개월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② 고등학교에서 제적·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③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 학업중단숙려대상 청소년 포함
지원내용	■ 학교 밖 청소년 발굴·연계 강화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교육부(교육청), 경찰청, 법무부(검찰청 포함), 가정법원(지방법원 포함) 등 유관기관 간 연계망 구축 • 교육청의 미취학·장기결석 관리 전담기구 구성 시 지원센터 상담사 참여 의무화로 학교 부적응 초기부터 상담 등 관리 강화 • 학업중단숙려제 운영기관으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참여하여 학업중단 위기 청소년 정보 및 상담 연계 강화 ■ 학교밖청소년 개인적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 • 학습멘토링, 검정고시 이수, 대학입시 설명회 및 운영프로그램에 대한 의무교육단계 학력인정제 시행 등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의 학력 취득 및 상급학교 진학 지원 • 적성검사 실시, 직업탐색 및 직업체험 기회 제공, 직업역량제고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실효성 있는 직업교육훈련 연계 • 자유공간 마련, 스포츠·문화 예술 활동 지원, 해외봉사활동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 •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검진 실시 등 건강관리 체계 마련 ■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인식 개선

* 출처: 2019년 청소년사업 안내(여성가족부, 2019: 815-816의 내용을 표로 정리함.

⑦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무지개청소년센터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무지개청소년센터는 여성가족부에서 이주배경청소년 사업을 추진하는 대표 기관으로 이주배경청소년을 전담하는 정부산하기관이다.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중도입국, 다문화, 탈북청소년 등 다양한 청소년들에 대한 초기지원, 심리지원, 인식개선사업 및 전문가양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에서 추진하는 심리지원프로그램은 통합상담, 사례관리, 멘토링, 다톡다톡 등이 있고, 이 부분에서 이주배경청소년에 특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전국의 수많은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응 직접사업의 형태로 담당하기에는 규모가 지나치게 작다는 한계가 있다.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에서는 다문화청소년 대상의 상담전문성을 더 개발하고, 이를 다수의 일반 상담가들에게 교육 및 보급하는 업무에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이 연구의 기능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만일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이 직접적인 연구수행이 어렵다면, 여성가족부에서 연구용역을 통하여 다문화청소년상담전문가 양성프로그램, 교육매뉴얼 등을 개발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청소년상담전문가, 청소년사업담당 실무자 등 지역사회 청소년사업 담당자들에 대한 다문화청소년이해교육 전반을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에서 기획 및 추진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표 Ⅵ-47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무지개청소년센터의 개요

사업목적	■ 중도입국·다문화·북한이탈 등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적응 지원
법적근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8조(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지원)
대상	■ 만 9세 이상~24세 이하 이주배경청소년(다문화가족의 청소년과 그 밖에 국내로 이주하여 사회적응 및 학업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사업내용	■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초기지원 • 입국초기청소년적응지원(레인보우스쿨) • 중도입국청소년 진로교육(무지개 Job아라, 내일을 Job아라) • 중도입국청소년 자립지원(다톡다톡 카페 운영) ■ 이주배경청소년 심리지원 • 통합상담 및 사례관리 • 집단상담 프로그램 • 이주배경청소년 멘토링 • 이주배경청소년 상담 및 심리치유 프로그램(다톡다톡) ■ 인식개선사업 • 청소년 다문화감수성증진 프로그램(다가감) 운영 • 이주배경청소년과 일반청소년 통합 캠프 ■ 이주배경청소년 전문가 양성

* 출처: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무지개청소년센터 홈페이지의 내용을 요약 정리함(검색일: 2019.10.25.).

(2) 교육부의 청소년 심리·사회적응 및 위기지원 시스템

① Wee 프로젝트

교육부의 Wee프로젝트 사업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 제 3항 제2호 및 제 4항에 따른 지원사업으로 제54조는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및 시책으로 되어 있다. 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는 학습부진아 등에 대하여 진단·상담·치유·학습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

나 제4조(위클래스) 2항의 '위(Wee)클래스의 장은 학교 내 부적응 학생 예방, 조기발견 및 상담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고, 제5조(위센터) 3항에는 '위(Wee)센터의 장은 위기학생에 대한 진단, 상담, 치유 및 교육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며, 제6조(위스쿨)의 2항의 4에서는 위스쿨의 장이 '학생상담, 교육, 치유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학생들의 심리적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유가 핵심 사업영역임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학교의 모든 사업들은 학교에 재학 중인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상 지원시스템에 대한 차별은 가장 없다고 볼 수 있다. Wee프로젝트 사업의 대상은 아래의 표에 제시한 바와 같이 모든 학생과 학부모이다. Wee프로젝트는 학교와 교육청이 연계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일단 학교 단위에서 설치된 학교상담실은 Wee클래스라고 하고 주로 학교 내 상담전문교사나 전문상담사가 상담과 심리검사를 추진한다. 이에 비해 Wee센터는 교육청에 주로 설치되는데,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중 학교 내 Wee클래스를 이용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또는 외부의 기관과 연계가 필요한 경우 찾는 서비스이다. 따라서 Wee센터에서는 지역 내 인적·물적 자원 연계망을 활용하여 진단, 상담, 치유 등의 원스탑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주요 사업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Wee스쿨은 시도교육청 단위에서 설치된 위탁교육시설로, 일단 학교를 다닐 수 없고 중장기적인 위탁교육·치유·상담이 필요한 고위기 학생을 대상으로 별도의 대안교육형태로 이루어지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학교의 구성원들은 지역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보다는 학교에 있는 Wee클래스가 익숙하고도 접근성이 좋아 주로 학교의 상담실을 이용하고 있는데, 학교 상담실에서 상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경우 Wee센터로 연계하여 교육부 내 기관끼리의 연계를 더 편안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고 지역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의 연계는 다소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Ⅵ-48 Wee프로젝트의 개요

정의	나와 너 속에서 우리(We)를 발견할 수 있도록 교육·지도(Education)하고 감성(Emotion)과 사랑이 녹아있는 위(Wee)프로젝트 공간에서 학생의 잠재력을 찾아낸다는 의미			
사업목적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54조 제1항에 따른 학생의 종합적인 진단·상담·치유프로그램을 제공함			
법적근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54조 제1항(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및 시책)			
대상	■ 학생(초·중·고등학교 소속 학생이면 누구나) ■ 학부모, 교사(학생의 양육·교육과 관련된 경우)			
사업내용	구분	위(Wee)클래스	위(Wee)센터	위(Wee)스쿨
	정의 및 개념	■ 학교단위에서 설치한 학교상담실 ■ 학생이 재학하고 있는 소속 학교의 상담실을 통해 상담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 교육지원청 또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 단위에 설치한 학생상담지원시설 ■ 지역 내 인적·물적지원 연계망을 활용하여 진단-상담-치유 One-stop서비스 제공	■ 시도교육청단위에 설치한 위탁교육시설 ■ 상담을 비롯한 인성·직업교육 및 사회적응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대안교육기관 겸 중·장기 위탁기관
	대상	■ 초·중·고교 소속 학생	■ 초·중·고교 소속 학생으로 위(Wee)클래스 상담이 어려울 경우 및 외부기관 연계가 필요한 경우	■ 중장기적인 위탁교육·치유·상담이 필요한 고위기 학생으로 위(Wee)클래스 상담이 어려울 경우 및 외부기관 연계가 필요한 경우
	지원 내용	■ 상담, 교육, 체험활동, 심리검사	■ 상담, 심리검사, 문화체험, 교육, 기관연계	■ 대안교과교육, 공통교과교육, 상담, 인성교육, 예방교육, 문화체육 및 사회적응력 제고

* 출처: 'Wee프로젝트, 우리가 희망이다.' 홈페이지의 내용을 요약 정리함(검색일: 2019.10.24.)

(3) 보건복지부의 청소년 심리·사회적응 및 위기지원 시스템

① 드림스타트

보건복지부의 청소년 심리·사회적응 및 위기지원 시스템 중 드림스타트는 심리·사회적응이나 위기지원이 핵심 사업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취약계층 아동에게 공정한 출발의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꿈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의미에서, 그리고 그 지원 내용에 정서·행동적 영역의 지원이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 검토를 하고자 하였다. 드림스타트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사업의 목적이고(보건복지부, 2019b: 75), 그 법적근거는 「아동복지법」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아동복지법」에서는 훨씬 더 진보적으로 모든 아동들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국적이나 출생등록과 상관없이 모든 다문화청소년들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드림스타트에서 취약계층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할 수 있으나 주로 차상위계층가정, 보호대상 한부모가정(조손가정 포함), 학대 및 성폭력피해아동 등으로(보건복지부, 2019b: 75) 다문화청소년이라는 가정배경이 취약계층으로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오히려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객관적 시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다문화청소년이라 할지라도 취약한 상황이 아니면 이 사업의 대상이 아닌 것이고, 국적이 없고 출생등록이 없어도 사실상 지원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다만 현장에서 실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와 별개로 자격조건에서 제한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표 Ⅵ-49 드림스타트 사업의 개요

정의	■ 취약계층 아동에게 공정한 출발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꿈을 시작하게 한다(Dream Start)는 의미
사업목적	■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법적근거	■ 「아동복지법」 제37조(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7조(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등)
대상	■ 0세(임산부)~만 12세(초등학생 이하)의 아동 및 가족 ※ 만 12세 이상 아동 중 초등학교 재학 아동 포함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정, 보호대상 한부모가정(조손가정 포함), 학대 및 성폭력피해아동 등에 대한 우선지원 원칙 ※ 지속적 사례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대 만 15세까지 연장가능
사업내용	■ 대상자의 복합적인 욕구를 파악하여 지역자원과 연계한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 인적조사 및 사정을 통해 대상자의 욕구 및 문제를 파악하여 보건, 복지, 보호, 교육 등 필요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주기적인 모니터링 •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지역자원 발굴 및 관리
지원내용	■ 신체·건강: 아동의 건강한 신체발달 증진을 위한 건강검진, 치료, 정보제공 ■ 인지·언어: 아동의 의사소통 및 기초학습능력 강화를 위한 각종 지도 및 교육 ■ 정서·행동: 자아존중감 및 긍정적 성격형성을 위한 정서발달서비스, 사회성발달 및 권리신장교육 ■ 부모·가족: 부모역량강화, 양육기술지원, 건강한 출산 및 양육지원, 유능감 및 자존감 강화
지원과정	■ 대상자 선정(가정방문을 통한 초기상담) → 사례회의(대상자의 욕구와 상황분석 및 개입영역 구체화) → 서비스 계획 및 제공(아동발달 단계별 개입계획 수립, 필요한 서비스 제공)

* 출처: 2019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2) (보건복지부, 2019a: 75-76) 및 드림스타트 홈페이지(검색일: 2019.10.25.)의 내용을 표로 작성함.

② 아동보호전문기관

복지부의 위기청소년 지원사업 중 보다 심각한 위기인 아동학대의 문제를 다루는 기관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이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2조(기본이념)와 제15조(보호조치)에 근거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아동학대를 예방 및 강화하고 피해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를 통해 아동의 안정적인 성장환경조성 및 권리증진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다. 「아동복지법」 제15조 1항에 따르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관할 구역에서 보호대상 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대상아동은 학대피해아동으로 「아동복지법」에서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 들어 아동학대의 문제는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로 처리되고 있기에 어떤 아동이든 학대의 징후가 보이는 경우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학대에서 벗어나도록 도울 의무가 있다.

다문화청소년 중 일부 가정에서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상황들이 존재하나 면접조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이유로 외국인가정이나 중도입국가정자녀의 경우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지속적인 피해에 시달리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 현장전문가들의 증언이다. 특히 외국인 가정의 경우 한국의 가정보다 학대 등의 기준에서 더욱 느슨한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좀 더 강력한 방안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아동보호의 영역에 있어서는 국내법을 철저히 따르도록 하여 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영역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표 Ⅵ-50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개요

사업목적	■ 아동학대 예방 강화 및 피해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를 통해 아동의 안정적인 성장환경조성 및 권리증진 도모
법적근거	■ 「아동복지법」 제2조(기본이념) ■ 「아동복지법」 제15조(보호조치) 1항
대상	■ 학대 피해아동(「아동보호법」 제3조(정의))의 7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함
활동내용	■ 아동학대조사 •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출동 및 조사, 사례 판단, 피해아동 및 학대행위자 조치,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입력 및 정보관리 ■ 아동학대사례관리 • 안전평가, 서비스 계획 및 제공, 점검, 사례종결 및 사후관리
처리과정	■ 아동발견 또는 보호자 의뢰 → 아동과 보호자 상담·지도 → 보호자 가정 복귀 또는 연구자 가정에 대리양육 → 아동보호 희망가정에 위탁 → 적합한 아동복지시설 입소 → 전문치료기관·요양소 입원 ·입소

* 출처: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의 내용을 정리함 (검색일 : 2019.10.24.)

③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쉼터와 유사하게 보건복지부의 경우도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이라는 사업이 존재한다. 공동생활가정의 경우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으로(보건복지부 2019a: 113) 법적근거는 「아동복지법」 제 50조로, 주 대상은 가정해체, 방임, 학대, 빈곤, 유기 등의 이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라고 정해져 있다. 청소년쉼터의 경우는 가출청소년들을 보호하는 기관이라고 본다면 공동생활가정은 스스로 가출을 했다기 보다는 어쩔 수 없이 가정에서 살 수 없는 보다 어린 아동연령의 아이들이 이용하는 기관이라고 볼 수 있다. 공동생활가정의 경우도 역시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운영되기 때문에 다문화청소년들 중 국적이 없거나 언어가 되지 않거나 또는 출생등록 자체가 되지 않는 경우라도 이용에 법적 제한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표 Ⅵ-51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의 개요

사업목적	■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법적근거	■ 「아동복지법」 제50조(그룹홈) ※ 학대피해아동 그룹홈(쉼터)은 별도 지원기준에 의해 지원
대상	■ 가정해체, 방임, 학대, 빈곤, 유기 등의 이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지원내용	■ 아동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 아동의 연령 및 개인적 특성에 맞는 개별화된 서비스 제공 ■ 원가족과의 관계회복: 가족과의 지속적 관계 유지를 위한 노력 ■ 학교와의 관계형성: 학교교사와의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상담, 정보공유, 학교행사 참여 ■ 지역자원 활용: 지역 내 드림스타트를 통한 지역 복지자원 연계

* 출처: 2019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1) (보건복지부 2019a: 113-130)의 내용을 표로 정리함.

④ 아동·청소년정신건강복지센터

아동·청소년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법률」에 근거한 사업으로, 제 2장 정신건강증진 정책의 추진의 제7조 3항 '국가계획 또는 지역계획에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되어있고,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2에는 '영·유아, 아동, 청소년, 중·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 및 성별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이라고 되어 있다. 아동·청소년정신건강복지센터의 사업목적은 지역사회 내 아동·청소년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제공체계

를 구축함으로써 아동·청소년기 정신건강문제의 예방, 조기발견 및 상담·치료를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의 성장발달 지원하는 것이다(보건복지부, 2019c: 70). 그런데 아동·청소년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대상은 기본적으로 「아동복지법」의 연령에 속하는 대상인 지역 내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미취학 아동 포함)이라는 기준이 첫 번째이지만 두 번째로 '지역사회 내 취약계층 아동청소년[(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청소년쉼터(가출청소년일시보호소), 공동생활가정, 아동복지시설 아동청소년 등)'과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관계자(부모, 교사, 시설종사자 등)'라고 다문화가정과 북한이탈주민을 명시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9c: 70). 그렇다면 아동·청소년정신건강복지센터를 이용하는 데 있어 국적이나 등록여부는 상관이 없는 것인가? 이에 대해 현장에서는 다소 유연하게 대처를 할 수도 있으나 일단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제1조(목적)에 "이 법은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복지·권리보장과 정신건강 친화적인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 되어 있다. 즉, 이 법은 '국민'이 대상임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다문화가정을 지역사회 내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이라고 언급했을 때 그 다문화가정이 국내출생 다문화가정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한국국적이 없거나 출생등록이 없는 경우는 법적 지원의 대상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사실상 법적 제한보다는 현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가 중요한 문제이므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만일 제약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표 VI-52 아동·청소년정신건강복지센터의 개요

사업목적	■ 지역사회 내 아동·청소년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제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아동·청소년기 정신건강문제의 예방, 조기발견 및 상담·치료를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의 성장발달 지원
법적근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국가계획의 수립 등) 3항의 2
대상	■ 지역 내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미취학 아동 포함) ■ 지역사회 내 취약계층 아동청소년(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청소년쉼터(가출청소년일시보호소), 공동생활가정, 아동복지시설 아동청소년 등)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관계자(부모, 교사, 시설종사자 등)
사업내용	■ 지역사회 현황파악 및 연계체계 구축 • 지역 내 교육관련 부서(교육청, 학교 등) 유관기관 간 연계·협력을 통하여 통합적인 아동·청소년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제공체계 구축 추진(지역 내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관련기관을 중심으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협의체를 구성) • 지역 내 교사, 학부모, 유관기관 대상 연 2회 이상 간담회 개최 • 관내 및 인근 아동·청소년 정신건강관련 자원, 각급 초·중·고등·직접·특수학교 현황파악 • 청소년상담센터, 청소년수련관, 아동복지시설, 특수아동을 위한 시설(쉼터, 입소시설, 장애인시설, 의료기관 등), 사법기관(소년원 등), 직업시설, 아동·청소년 근로시설, 놀이 및 유흥시설, 기타 유해 장소 파악 • 기타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관련 전문인력 등 자원 현황 파악 • 학교,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정신건강증진 서비스 관련 협조요청이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력·지원 ■ 아동청소년 대상 건강증진 및 정실질환 예방교육 실시 ■ 교사 및 학부모 대상 아동청소년 정신건강문제의 조기발견, 예방 및 대처방법에 대한 교육 ■ 지역사회 유관기관 대상 교육 및 정보 제공
추진체계	■ 지역사회연계구축을 통한 고위험군 발굴(유관기관 의뢰, 학교 및 지역사회 취약계층) → 심층사정평가(심층면담, 심리검사)→ 정신건강서비스 제공(사례관리, 집단/개인상담, 치료(검사)비 지원, 치료 및 서비스 연계 등

* 출처: 2019년 정신건강사업 안내(보건복지부, 2019c: 70-72)의 내용을 표로 정리함.

4) 요약 및 소결

지금까지 국내의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아동복지법」 등 아동·청소년관련 법에 나타난 다문화청소년의 지원에 관한 제약 등을 살펴보았고, 여성가족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에서 추진하는 아동·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응 및 위기지원의 정책들을 검토하였다. 각 부처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정책사업들은 근거법이 위에서 언급한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아동복지법」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법적 제약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보건복지부의 아동·청소년정신건강복지센터의 경우 '다문화가정'을 취약계층으로 분류하여 주요 지원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기는 하나 그 센터의 근거가 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지원에 관한 법률」의 목적이 '국민'의 정신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기에 한국국적이 없거나 출생등록이 없는 다문화청소년들의 경우 지원에서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러나 법이나 정책이 제한을 두지 않는다고 하여 실제 현장에서 다문화청소년들이 각종 정책들을 이용하는 것이 용이하다고 볼 수는 없다. 본 연구의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나온 결과를 보면, 법이나 제도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어도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다문화청소년들을 받을 수 없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언어상의 어려움일수도 있고, 법이나 제도의 한계가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해서일 수도 있으며,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그들을 받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기 때문일 수 있다. 반대로 다문화청소년들의 경우는 국내에 존재하는 많은 지원정책들에 대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용이 제한되기도 한다. 따라서 국내의 법과 제도는 모든 청소년들이 각종 시설과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 제한을 두지 않는다 할지라도 현장에서의 이용현황은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잘 구비되어 있는 각종 서비스와 시설들이 원래의 목적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취약한 모든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양방향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즉, 기존의 서비스 제공 기관에 대한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이해와 법적 제도적 측면에서 제한이 없다는 사실에 대한 인지의 측면과 이용자들이 실제 잘 구축된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측면이다. 이렇게 양방향의 측면에서 노력을 할 때 다문화청소년들이 기존의 정책사업과 서비스를 통해 심리·사회적응을 제고하고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5. 다문화청소년 심리·사회적응 및 위기지원 정책방안

1) 다문화청소년 심리·사회적응 및 위기지원 정책 도출의 과정 및 절차

2019년도 본 연구의 심층주제는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응 및 위기지원정책의 도출이었다. 이를 위하여 그림 Ⅵ-1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총 9단계의 절차를 거쳤다. 우선 1단계로 부처별 다문화청소년 심리·사회적응 및 위기지원 관련 현황 및 요구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교육부와 정책협의회를 추진하였다.

2단계로 패널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응 현황을 파악하고 동시에 다문화청소년과 학부모의 요구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설문분석은 본 조사에 포함된 설문내용 중 심리·사회적응과 관련되는 영역에 대한 기초분석과 심층모형분석을 추진함으로써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응현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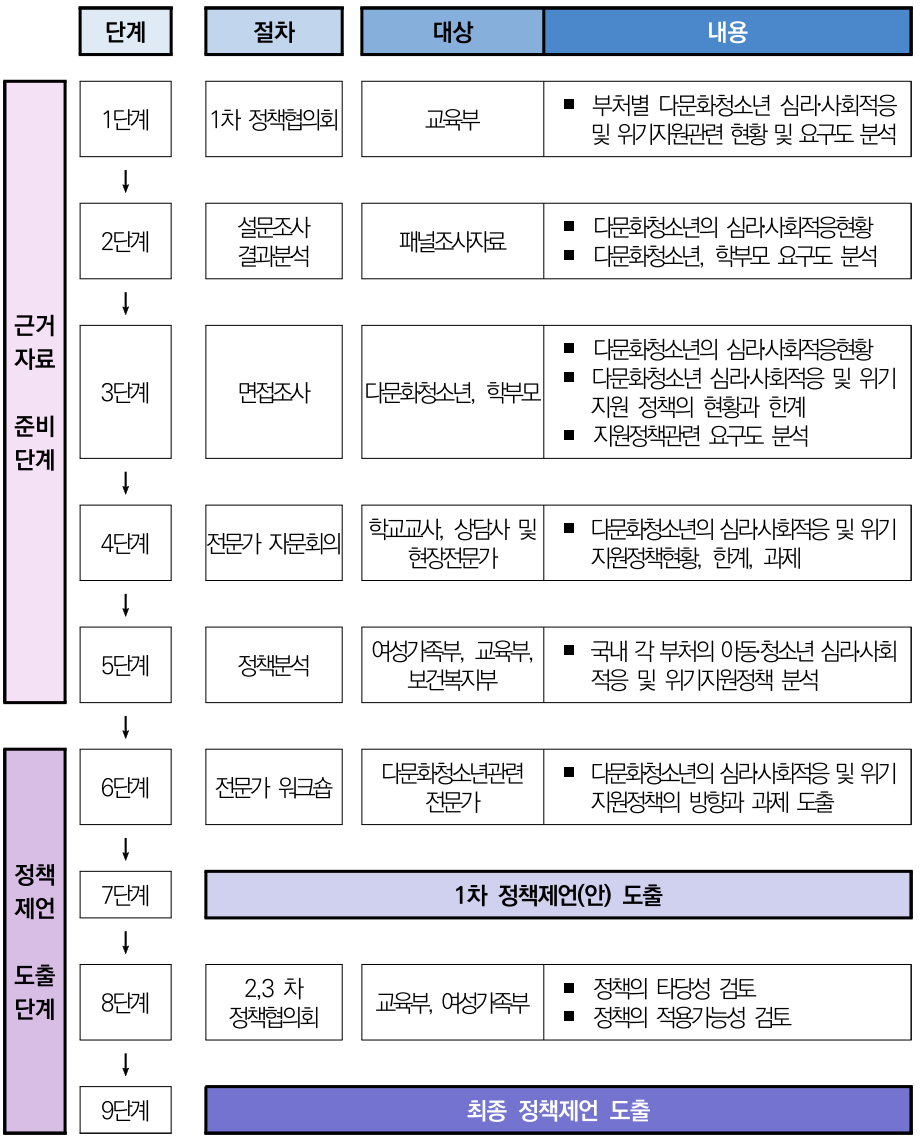
3단계로는 다문화청소년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에서는 드러나지 않는 현장의 상황들을 파악하기 위하여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면접조사에서는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응 현황 및 기존의 청소년 심리·사회적응을 위한 지원시스템에 대한 인지도, 태도 등을 파악하였으며, 향후 심리·사회적응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요구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4단계에서는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응 현황에 대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시각을 확보하고자 학교교사, 상담사, 현장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전문가 자문회의를 추진하였다. 본 조사에 참여 중인 패널 대상의 면접조사는 주로 국내출생 다문화청소년들이 학교에서 경험하는 문제들이 언급된 반면, 전문가 자문회의의 경우는 국내출생 다문화청소년 뿐 아니라 중도입국청소년이나 외국인가정자녀 등 다양한 배경을 지닌 청소년들의 심리·사회적응 및 위기현황에 대한 내용이 다루어져서 본 자료의 한계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였다. 따라서 본 정책제언의 내용은 반드시 국내출생 다문화청소년에게만 해당되지 않으며, 국내 다양한 다문화집단의 심리·사회적응을 위한 지원방안에 대한 논의가 함께 포함되어 있다.

5단계에서는 국내의 교육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 국내 각 부처의 아동·청소년 관련 지원현황을 분석함으로써 현재의 각 지원제도가 다문화청소년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용의 권한이 있는지 여부 및 이용의 어려움 등 접근의 한계 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1단계에서 5단계까지는 정책제안 도출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 및 분석하여 근거를 마련하는 단계였고, 6단계는 5단계까지 분석된 자료를 근거로 구체적 정책방안을 마련하는 단계로 전문가 워크숍을 추진하였다. 전문가 워크숍은 다문화청소년 정책과 관련하여 10년 이상 업무를 수행해 온 다문화청소년 전문가들과 함께 공동작업으로 추진하였다. 워크숍 결과 전반적인 정책의 방향과 과제가 도출되었다(7단계).

최종적으로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 다문화청소년 담당부처와 도출된 정책제언(안)의 타당성, 적용 및 실현가능성 등을 논의하고 각 부처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수정 및 보완하였다.



* 출처: 양계민 외 (2014: 388) 그림 IX-1 수정

그림 VI-11. 본 연구의 정책제언 도출 절차

2)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응 및 위기지원 현황 진단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응 현황을 파악하게 위하여 설문조사, 면접조사 및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다양한 결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난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응현황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Ⅵ-53 본 연구의 도출 결과 요약

방법		연구결과
설문조사	발달추이분석	■ 학교생활에서 친구들과의 어려움은 크게 없음 ■ 학교공부에 어려움을 느끼는 비율이 매년 증가함 ■ 중학교 진학 이후 삶의 만족도 감소현상이 뚜렷해짐 ■ 고등학교 진학 이후 신체만족도도 감소추세로 전환됨 ■ 우울과 사회적 위축이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 가족의 지지는 높은 수준을 유지함 ■ 학교 안에서 도움을 주는 어른이 있다고 인식하는 수준이 점차 증가함 ■ 학교 밖에서 도움을 주는 어른의 존재에 대한 인식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음 ■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한국인 정체성이 높아지는 경향임 ■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이중문화정체성도 높아지는 경향임
	기초분석	■ 중학교시기에 비하여 고등학교시기에 삶의 만족도와 신체만족도는 낮아졌고 우울과 사회적 위축은 높아짐 ■ 집단괴롭힘 피해경험이 있는 경우 삶의 만족도와 신체만족도는 낮고, 우울과 사회적 위축은 높음 ■ 학교 안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어른이 존재한다고 응답한 경우 삶의 만족도와 신체만족도가 높고, 우울과 사회적 위축은 낮음 ■ 학교 밖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어른이 존재한다고 응답한 경우 삶의 만족도와 신체만족도가 높고, 우울과 사회적 위축은 낮음
	심층분석	■ 잠재프로파일 분석에서 중요한 적응요인으로 나타난 변인은 가족의 지지, 학교 내 사회적 지지, 그리고 집단괴롭힘 피해경험임. ■ 잠재프로파일 분석에서 긍정적 방향으로 전이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주요요인은 친한 친구의 수와 학교 내 사회적 지지임.

방법		연구결과
	요구 분석	■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적응프로그램 경험 비율은 매우 낮은 수준이며 매년 감소추세임. ■ 자녀의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어머니들의 심리적응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가 높아짐 ■ 다문화청소년들에 대한 심리적응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한 교사들의 요구도가 매우 높음 ■ 다문화청소년들에 대한 지원 시 다문화가정임이 드러나는 문제에 대하여 어머니들의 부정적 태도가 청소년 당사자보다 2배 이상 높음.
면접 조사	**청소년**	■ 전반적으로는 잘 적응하고 있음. ■ 다문화배경으로 인하여 심리적 상처를 경험한 사례가 있으며, 이런 과정에서 다문화정체성은 심리적 불안감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함. ■ 교사의 무감한 언행으로 상처받음. ■ 학교 상담은 진로상담을 생각하거나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 가는 곳이라는 인식. ■ 학교 상담실에 대한 불신(비밀보장 측면) ■ 지역의 심리상담센터에 대한 정보 부재 ■ 지역의 심리상담센터 이용경험자는 심리적 측면에서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 ■ 상담전문가보다는 친구나 부모님에게 고민 상담 ■ 지역의 상담 및 정신보건 관련 기관은 비용과 대기시간 등으로 이용에 어려움이 있음
	어머니	■ 자녀가 전반적으로 잘 적응한다고 생각 ■ 주변의 차별적 시선과 행동으로 자녀들은 정체성을 숨기고자 하는 경향이 나타남 ■ 차별의 주체가 교사인 경우가 다수이며 교사로부터 차별적 행동과 언어를 경험한 경우 상처가 더 심함 ■ 학교에서 다문화라는 이유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소외되고 차별받는다고 생각함 ■ 자녀들이 학교에서 부당한 일을 당해도 엄마에게 말하지 않고 혼자서 해결하고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다수임 ■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선별적 지원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 ■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직접적 지원보다는 다문화이해교육 등 사회 전체의 다문화수용성 및 민감성을 키우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 ■ 상담의 주체에 대해서는 학교에 대한 신뢰와 선호를 보임 ■ 지역의 상담센터를 선호하는 경우는 비밀보장이 가능하다는 것과 학교에 대한 불신에서 기인함

방법		연구결과
		■ 학교든 지역의 상담센터든 자녀가 심리상담을 할 수 있는 기관에 대한 정보는 별로 없음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한 신뢰와 선호
전문가 자문		■ 다문화청소년들 만의 심리발달에서 특성이 존재하며, 이들을 위한 맞춤형 심리상담 및 위기지원방안의 마련이 필요함 ■ 예방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함 ■ 부모교육의 의무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일반적인 청소년상담전문가 대상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이해교육이 필요함 ■ 상담전문 통역사를 양성하는 것이 필요함 ■ 일반 학교교사 대상 다문화이해교육과 지역의 전문기관 등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필요함 ■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응 및 위기지원을 위한 효과적인 지역연계 모델이 필요함

위와 같이 다양한 방법을 통해 도출된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응 및 위기지원과 관련하여 발견된 현황을 근거로 다음과 같은 진단을 내릴 수 있다.

(1) 다문화청소년을 위한 심리·사회적응 지원 시스템 강화 필요

다문화청소년 심리·사회적응 및 위기지원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생각해보아야 하는 이슈는 다문화청소년을 위한 차별화된 심리·사회적응 지원방안이 필요한가의 문제이다. 다문화청소년은 '다문화'이기 이전에 '청소년'이다. 따라서 일반적인 청소년 대상 심리·사회적응 지원시스템을 그대로 적용하면 될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렇다면 다문화청소년을 위한 별도의 차별화된 심리·사회적응 지원시스템을 논할 필요가 없는가?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다문화청소년들이라고 해서 일반적인 청소년과 크게 다른 별개의 존재는 아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문화'라는 배경이 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도입국청소년이나 외국인가정자녀 뿐 아니라 국내출생 다문화청소년의 경우도 마찬

가지이다. 국내출생 다문화청소년의 경우 언어의 문제는 없으나 다문화배경특성이 발달과정에서 불안감을 지속적으로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설문조사에서 집단괴롭힘 피해경험은 다문화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적응을 방해하는 부정적 요소로 작용하였는데, 면접조사를 살펴보면 다문화청소년들의 경우 학교에서 부당한 일을 당해도 부모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혼자 감내하는 등 일반가정 청소년들에 비하여 부모의 적극적 개입이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다문화청소년들의 경우 집단괴롭힘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부모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고 혼자 감내하는 경향이 일반가정 청소년에 비하여 더 클 수 있다. 그것은 심리·정서적 측면에서 다문화청소년 집단의 경우 더 부정적인 결과를 야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생각하게 되는데, 이 때, 부모 이외의 도움을 청할 누군가가 학교 안팎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더욱 더 힘든 상황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만일 이러한 문제가 중도입국청소년이나 외국인가정자녀와 같이 한국어 소통이 되지 않는 경우에 발생했다면 문제는 더더욱 심각할 수 있다.

이는 다문화청소년만을 위한 특별한 별도의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일차적으로 일반적인 청소년 심리·사회적응을 위한 기존의 시스템 내에 다문화청소년들의 특성에 대한 이해에 기반한 내용을 추가로 포함함으로써 다문화청소년들의 심리·사회적응 수준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본 연구에 따르면 일반적인 청소년 지원 기관의 경우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개입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기존의 청소년 심리·사회적응 및 위기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이해 등 역량강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다문화청소년들의 심리·사회적응 및 위기지원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모든 다문화청소년이 일반적인 심리·사회적응 및 위기지원 시스템에 맞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중도입국청소년이나 외국인가정 자녀들

의 경우 일반적인 지원시스템에서 실무자의 역량을 강화하는 수준으로 지원하기 어렵다. 그런 경우는 그들을 위한 전문적 지원방안이 별도로 마련될 필요도 있다. 따라서 다문화청소년을 위한 심리·사회적응 및 위기지원을 위한 방안은 두 개의 방향으로 동시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 즉, 하나는 일반적인 청소년 심리·사회적응 및 위기지원시스템의 다문화역량강화이고, 다른 하나는 다문화청소년 맞춤형 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2) 다문화청소년을 둘러싼 환경요인 전반에 대한 개입 필요

두 번째는 다문화청소년들의 주변 환경에 대한 개입의 문제이다. 청소년들은 일반적으로 주변 환경, 즉, 부모, 교사, 또래 등 의미 있는 타인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서도 가족의 지지, 친한 친구, 학교 내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적 지지체계가 있는지가 등이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응에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면접조사에서 보면 다문화청소년들의 경우 학교에서는 또래와 교사의 차별에 상처를 입고, 가정에서는 부모의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등 주변의 의미 있는 타인이 심리적 상처를 주는 대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나타난 결과를 보면 중도입국청소년들의 경우 부모로부터 정서적 학대를 당하기도 하고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물론 이런 현상은 일반적으로 모든 청소년에게서도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지만 다문화청소년의 경우 특히 더 심하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전반적 개입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즉, 부모에 대한 교육이 매우 중요하고, 학교교사 및 또래집단에 대한 다문화이해교육 또는 인권교육 등 다문화청소년을 둘러싼 환경요인 전체에 대한 개입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지금도 이러한 정책들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다소 모호하

고 이론적인 교육에서 벗어나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지침을 제시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3) 심리·사회적응 및 위기지원 시스템에 대한 인식개선 및 홍보 필요

세 번째는 다문화청소년과 그들의 부모를 대상으로 심리·사회적응 및 위기지원 시스템에 대한 인식개선 및 홍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보면 다문화청소년이나 그들의 부모는 학교나 지역사회에 청소년상담실이 있다는 것도 잘 알지 못하고, 상담에 대한 인식도 진로상담이나 선생님에게 끌려가서 혼나는 것 등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다문화청소년들 뿐 아니라 모든 청소년들이 심리적으로 어려움에 봉착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교사나 부모에게 말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상담교사나 지역의 상담센터 전문상담사 등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심리적 문제가 발생한 초기에 전문적 개입을 통해 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진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기존의 청소년을 위한 심리·사회적응 및 위기지원 시스템에 대한 홍보는 중요한 문제로 보인다.

(4) 예방적 접근의 필요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사회적 건강을 위해서는 문제가 심화되기 전, 초기에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거나 또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적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보면 다문화청소년들이 학교에서 왕따나 교사의 차별적 언행 등으로 심리적 상처를 받고, 학교폭력을 당해도 혼자 감내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집단괴롭힘이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부정적이다. 아직은 다문화청소년들이 겪는 이러한 일들이 문제로 드러나지 않았으나 관찰된 결과를 보면 드러나지 않았을 뿐 다수의 다문화청소년들이 부당한

일들로 인하여 심리적 상처를 입는데,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지속되거나 심화될 경우 학업중단 등 극단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는데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본 연구의 면접에 참여한 한 청소년의 경우도 학교에서 일종의 심리적 폭력을 당한 후 합당한 방식으로 해결되지 않은 것을 보고 심리적 상처를 크게 입었고, 결국은 우울로 학교를 그만 두고 병원과 상담센터를 다니는 사례가 있었다. 이 경우 사전에 문제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했다면 현재의 상태까지 이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며, 최근 들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중도입국청소년이나 외국인가정자녀들의 경우 언어소통의 문제와 부모와의 격리와 방치경험 등으로 국내출생들과는 다른 더 심각한 문제들을 보이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설명에 근거할 때, 다문화청소년들이 심리적으로 심각한 수준으로 진전되기 이전에 미리 예방적 차원의 접근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5) 지역사회중심 다문화청소년 심리·사회적응 및 위기지원시스템 구축 필요

마지막으로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응을 위해서는 학교, 지역의 청소년상담센터, 정신건강증진센터 등이 각각 개별적으로 지원하기 보다는 지역사회 내에서 상호 협력적 연계를 통한 종합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문화청소년들의 경우 단순히 심리적 상담으로 끝나는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학교, 가정 등에서 복잡한 상황에 놓여있는 경우가 많다. 특히 중도입국이나 외국인가정자녀의 경우 아동학대가 발생해도 가족이 그러한 사실을 숨기는 등 내국인 대상의 시스템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는 청소년안전망(CYS-net: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을 통해 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서 등이 개입되어야 하는 문제로 단순한 개별 기관의 지원만으로는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 내에서 일반적인 청소년 심리·사회적응

및 위기지원시스템에 다문화청소년의 영역이 함께 포함되도록 하는 등 협력적 지원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3)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응 및 위기지원정책의 방향과 과제

본 연구에서 추진한 설문조사, 면접조사, 전문가조사, 정책분석, 전문가 워크숍을 통하여 도출된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응 및 위기지원정책의 추진방향과 기본원칙, 전략 및 정책과제를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1)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응 및 위기지원정책의 방향과 기본원칙

본 연구진이 생각하는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응 및 위기지원정책의 방향은 다문화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기반 조성으로, 기본 원칙은 예방적, 생태학적, 협력적 접근이다.

① 예방적 접근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응 및 위기지원 정책의 첫 번째 원칙은 예방적 접근이다. 다문화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는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에 예방적 시스템을 강화함으로써 초기에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문제가 발생한 이후 사후적으로 처리하기보다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적 성장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② 생태학적 접근

두 번째 기본 원칙은 생태학적 접근이다.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응 및 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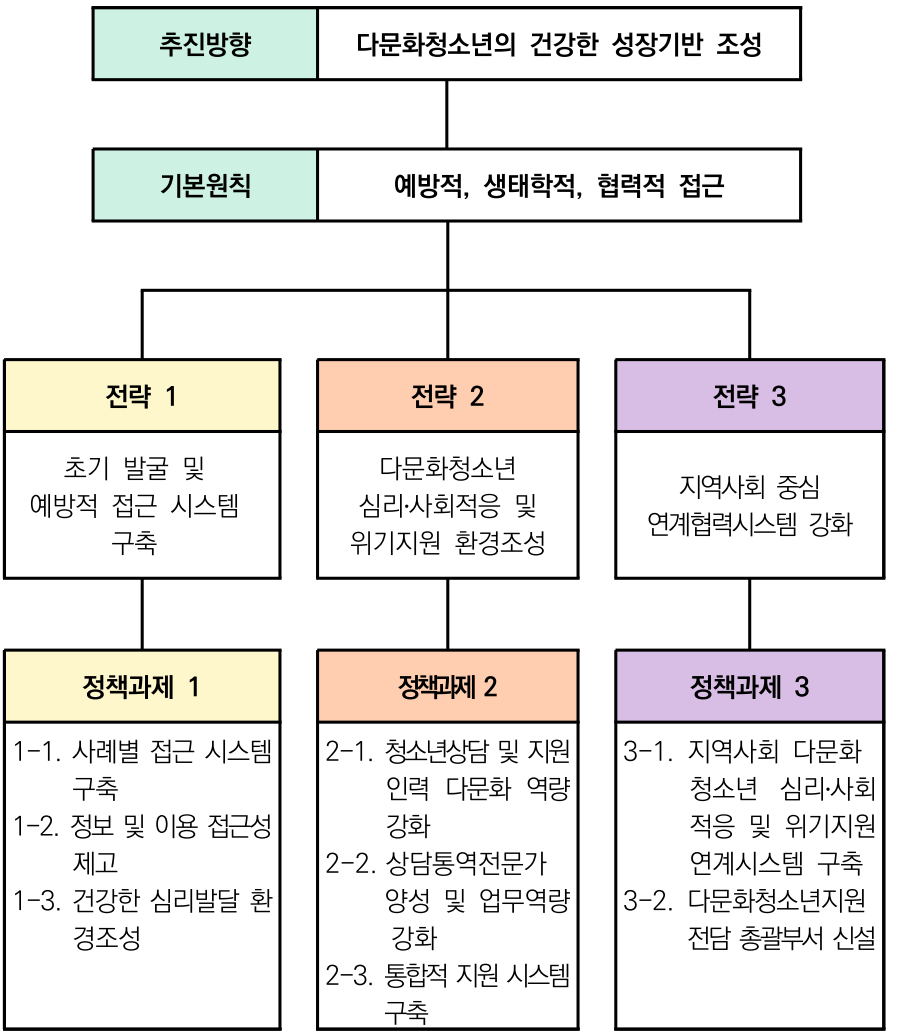
상황의 관리 및 지원을 위해서는 단순히 청소년 개인에 대한 접근으로는 무의미하다. 개인이 접하고 있는 환경요인에 대한 개입이 없이 개인의 문제로 인식하고 접근한다면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일이 될 뿐 아니라 개입의 효과성 측면에서도 의미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특히 청소년의 경우 환경의 영향에 더욱 민감하다는 점에서 생태학적 접근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그들을 둘러싼 학교환경과 가정환경, 지역사회 환경 전체에 대한 개입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③ 협력적 접근

세 번째 원칙은 협력적 접근이다.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응 및 위기지원을 위해서는 단순히 개별기관의 차원으로 접근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특히 예방시스템 구축과 위기사례관리에서 특히 지역사회 내 협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청소년안전망(CYS-net: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을 강화하고 그 안에서 다문화청소년의 영역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여 효율적 전문적 지원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2) 다문화청소년 심리·사회적응 및 위기지원정책의 과제

위의 세 가지 기본 원칙에 근거하여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응 및 위기지원 정책의 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전략은 초기 발굴 및 예방적 접근 시스템 강화이고, 두 번째 전략은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응 및 위기지원을 위한 환경조성이며 세 번째 전략은 지역사회 중심의 연계협력시스템 강화이다. 각각의 전략에 따른 정책과제를 그림으로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 출처: 양계민 외 (2016: 335) 그림 Ⅵ-2의 수정

그림 Ⅵ-12. 다문화청소년 심리·사회적응 및 위기지원정책의 방향과 과제

전략 1: 초기 발굴 및 예방적 접근 시스템 강화	
1-1. 사례별 접근시스템 구축	**관련부처**
■ 출입국외국인청 미성년 입국자 교육 및 정착지원 연계서비스 - 미성년 입국자의 교육 및 정착지원 연계 담당하는 전담인력 배치 - 다문화청소년 지원 서비스 홍보 - 지역 내 초기 상담기관 연계(학교 또는 민간기관) - 지역 내 핫라인 설치	법무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다문화청소년 심리지원단 사업 - 동반자 사업을 다문화청소년 심리·사회부적응 지원을 위한 사례 발굴 및 모니터링요원으로 양성 - 방문지도사를 다문화청소년 심리부적응 및 위기사례 관리 및 모니터링 요원으로 양성 - 심리지원 멘토링사업(상담심리전문가, 외국어전공자)	여성가족부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청소년업무 및 사례관리 업무 강화 - 청소년 업무 담당 전담인력 배치	여성가족부
■사례 발굴 및 처리과정 지침 제작 - 다문화청소년에 적용 가능한 사례 발굴 및 처리과정 지침 제작 및 보급	여성가족부

우선 첫 번째 전략인 초기 발굴 및 예방적 접근 시스템 강화의 첫 번째 정책과제는 사례별 접근시스템 구축이다. 다문화청소년의 건강한 심리·사회적응을 위해서는 문제가 발생하거나 심화되기 이전에 초기 단계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본 연구진의 기본 원칙이다. 따라서 다문화청소년을 둘러싼 전반적인 환경을 건강한 심리발달의 방향으로 구축해야 한다는 원칙하에 각 정책과제들이 도출되었다. 그 중 첫 번째 정책과제인 사례별 접근시스템 구축은 주로 중도입국청소년이나 외국인가정자녀 등 한국에 미성년인 상태로 입국하는 청소년들에게 적용되는 과제로 출입국외국인청(구, 출입국관리소)에 입국하는 다문화청소년을 위한 교육 및 정착지원을 연계하는 전담인력을 배치함으로써 안전한 중간역할(safe gate)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들의 역할은 미성년 입국자에게 지역사회 교육, 보호, 안전

서비스에 대한 정보 제공하고 각 목적에 맞는 지역사회 연계기관을 안내하며 이를 위하여 부모와 아이에게 기본교육을 하는 것이다. 이 때 연계기관은 지역 내 청소년기관, 다문화청소년지원기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교육청, 자살예방센터, 학교 등이 될 수 있다. 단 이러한 업무가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필요한 것은 아니고 외국에서 출생한 미성년자의 입국수가 많은 밀집지역, 예를 들면, 서울, 인천, 부산, 안산, 수원, 시흥, 아산 등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한 후 문제점을 파악하고 수정 보완하여 전국의 필요한 지역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때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통번역인력이 상주하고 있는 기관을 중심으로 '핫라인'을 설치하여 지역 내 지원이 필요한 사례가 발생했을 경우 간편하고 신속하게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출입국외국인청이 이 역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조직법일부개정안으로 출입국외국인청의 주요 업무에 '미성년 이주아동 청소년에 대한 인권과 보호'의 항목을 넣는 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 사업은 다문화청소년 심리지원단 사업으로, 이는 입국 후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집에 머물러 있거나, 정보의 부족으로 스스로 지원 기관을 연계하지 못하는 가정의 청소년들을 위하여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이다. 현재 동반자사업이 이러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를 다문화청소년 대상 사업으로 확대함으로써 다문화청소년들, 특히 중도입국이나 외국인가정자녀들의 심리적 건강을 모니터링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운영 중인 다문화가족방문교육서비스의 내용을 일부 개선 및 확대하여 현재 부모교육, 자녀교육, 한국어교육만 하는 데서 나아가 청소년사례관리 교육을 통하여 각 다문화가정에 있는 다문화청소년들의 심리부적응 및 위기사례를 발굴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방문지도사들의 경우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가 높고 지역 내에서 장기간 다문화가족들과의 접촉이 있다는 점에서 자연스러운 접근과 사례발굴이 용이하다는 장점을 지닌다. 따라서 이들 중 심리학 또는

상담전공자들을 중심으로 사례관리 등 요구되는 교육을 시킨 후 다문화청소년 심리지원단으로 활동하도록 하는 것도 효과적인 예방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더불어 심리지원 멘토링 사업을 상담심리 전문공자나 외국어 전공자들을 대상으로 추진함으로써 다문화청소년들의 문제를 초기에 해결하여 큰 문제로 발전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상담심리를 전공한 사람에게는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이해교육을 통해 국내출생 다문화청소년들에 대한 심리지원 멘토링을 하고, 외국어 전공자들에게는 상담에 대한 교육을 통해 본격적인 상담은 아니더라도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적응을 돕는 역할을 자신이 구사할 수 있는 언어로 제공하여 외국에서 온 청소년들의 심리적 지지체계를 제공하는 것이 예방적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세 번째 사업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청소년 업무 및 사례관리 업무 강화로,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청소년 관련업무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나 청소년이 직접적으로 찾아가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구조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청소년 업무는 초기 중도입국청소년이 지역에 발생했을 때 청소년 전문기관으로 연계해주거나 학교입학을 도와주거나 또는 방과후돌봄기관에 연계하는 등의 사례관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다문화가정의 학부모들은 정보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으므로 자녀의 교육 및 심리·사회적응을 위한 기본적인 내용을 다루어 주거나 지역의 전문기관을 연계해 주는 역할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다문화청소년 대상 사례 발굴 및 처리과정에 대한 지침, 업무매뉴얼을 제작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다. 물론 현재에도 사례 발굴 및 처리지침과 업무매뉴얼은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다문화청소년이 지니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이들의 지원을 위한 지침 및 매뉴얼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특히 초기 면접을 시작하는 기관에서는 해당 사례를 지역사회 내에서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에 대한 지침 및 매뉴얼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아래에 제시한 내용은 큰 틀일뿐이고 각 단계별 추진과정과 과정별 전문기관의 역할, 협력시스템 등의 내용과 각 문제에 따라 어떻게 처리할지 그 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

- 1단계: 문제의 핵심은 무엇인가? 다문화청소년의 문제가 언어인지, 심리적응인지, 학습인지
- 2단계: 문제의 원인은 무엇인가? 문화적 차이 때문인가 가족의 문제인가 학교의 문제인가
- 3단계: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정보를 필요로 하는가? 치료를 필요로 하는가?
- 4단계: 해당 문제에 대한 전문기관은 어디인가?(학교가 맡을 것인가? 지역사회 다문화청소년전문기관으로 의뢰를 할 것인가? 청소년전문상담센터로 의뢰할 것인가? 정신보건센터로 갈 것인가?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갈 것인가? 쉼터로 갈 것인가?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가?)
- 5단계: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

전략 1: 초기 발굴 및 예방적 접근 시스템 강화	
1-2. 정보제공 및 이용접근성 강화	**관련부처**
■ 지역 내 심리·사회적응 및 위기사례 지원 시스템에 대한 홍보 -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초기 입국시 또는 초기 상담시 적극적으로 홍보 -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청 홈페이지에 정보 제공 - 각 학교 홈페이지에 지역별 심리·사회적응 및 위기지원 기관에 대한 정보 및 링크 - 학부모 대상 모바일 알림장인 '아이엠스쿨(I am school)'에 지역별 심리·사회적응 지원 기관에 대한 정보 탑재 - 청소년수련관, 방과후아카데미. 지역아동센터 등 청소년 업무 관련자 대상 홍보 - 외국인주민생활서비스 책자에 포함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홍보물 제작 및 홈페이지에 정보 탑재 - 다누리앱에 다국어로 번경하여 탑재	법무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두 번째는 다문화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심리·사회적응 및 위기지원 시스템에 대한 홍보로, 이는 중도입국청소년이나 외국인가정자녀 뿐 아니라 국내출생 다문화청소년, 그리고 모든 부모들을 대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우선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초기 입국상담 시 지역 내 심리·사회적응 및 위기사례 지원 기관에

대한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각 학교 홈페이지에 지역별 심리·사회적응 및 위기지원 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기관별로 링크를 걸어서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 때 링크를 걸어 연계할 기관은 해당 지역의 지역연계 기관으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역별 한국어 서비스기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드림스타트, 아동보호전문기관, 쉼터, 그룹홈, 그리고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나 지역아동센터와 같은 방과후돌봄기관까지 모두 포함되어야 하며, 다문화청소년 뿐 아니라 교사 및 학부모도 다양한 청소년 지원기관에 대해 알고 필요한 욕구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보 제공 및 이용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학부모의 경우는 현재 학부모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모바일 알림장인 '아이엠스쿨(I am school)' 등에 관련 정보를 탑재하여 이용할 수 있고, 그 외 외국인주민생활서비스 책자, 다누리앱 등에도 다국어로 번역하여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과 학부모들이 쉽게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전략 1: 초기 발굴 및 예방적 접근 시스템 강화	
1-3. 건강심리발달 환경조성	**관련부처**
■ 부모 교육 강화(심리·사회적응을 위한) -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부모교육 담당 -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응을 위한 부모교육 매뉴얼 제작 및 보급 - 다문화가정 부모대상 교육실시를 평가지표에 포함	여성가족부
■ 학교 구성원 대상 다문화교육 강화 - 학생, 교사 등 학교구성원 대상 다문화이해교육(안) 제작 및 보급 - 반편견, 반차별, 인권교육을 중심으로	교육부

세 번째로 건강한 심리발달 환경조성은 다문화청소년들이 심리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한 예방의 방법으로 그들이 속한 환경이 건강한 성장이 가능한 환경이

어야 한다는 가정 하에 도출된 과제이다. 따라서 가정환경에 대한 예방적 차원의 개입으로 부모교육을, 학교환경에 대한 예방적 차원의 개입으로 교사교육 및 학생 등 학교구성원 대상 교육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다문화청소년들의 부모들의 경우 학교를 직접 방문하는 것에 대하여 부담을 갖는 경우가 많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한 친근감이 있기 때문에 건강가정다문화교육센터 중심의 다문화가정 부모교육시스템을 지역사회 내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평가에 다문화가정 부모교육 항목을 포함시키는 것을 제안한다. 이 때 부모교육의 내용은 자녀의 양육과 관련한 기본적인 교육과 함께 다문화적 특성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차별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등의 내용을 함께 포함하여 교육 매뉴얼을 제작하고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부모교육기관에 보급할 필요가 있다. 사실상 다문화가정 부모 대상 교육에서 어떤 내용을 다루어야 하는지 일반적으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다문화청소년의 건강한 심리발달 환경조성을 위하여 중요한 것은 학교 내 차별문제 근절이다. 부모의 출신국에 대한 비하나 차별적 언어 또는 차별적 행동을 하는 경우 다문화청소년들에게 심리적 상처가 되고, 그것이 초기에 제대로 치유되지 않을 경우 문제가 되는 만큼, 교사대상 다문화교육, 또래 학생들 대상 다문화교육을 철저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 현재에도 다문화교육이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교사 대상 다문화교육도 이루어지고 있으나 현재보다 훨씬 더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그 내용도 단순한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이해의 수준에서 벗어나 반편견, 반차별, 인권존중의 시각에서 교육내용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 역시 학교 학생 및 교사 대상 다문화교육의 내용과 운영에 대한 교육(안)을 제작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다. 학교현장에서는 다문화교육, 국제이해교육, 세계시민교육, 상호문화교육 등을 구분하지도 못할뿐더러 이 중 어떤 것을 선택하더라도 문화가 들어간 것을 교육하면 그것이 다문화교육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다문화교육이 집단 내 불평등과 차별의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면 그것은 매우 피상적인

교육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제공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전략 2: 심리·사회적응 및 위기지원 환경조성	
2-1. 청소년상담 및 지원인력 다문화역량강화	**관련부처**
■ 청소년상담사, 청소년동반자, 학교전문상담교사 등에 대한 다문화청소년 이해교육 - 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에서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이해교육 필수화 - 체류자격에 대한 이해 등 실질적 정보. ■ 청소년안전망(CYS-net: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연계기관 종사자 다문화청소년 이해교육 강화 - 필수연계기관(학교, 교육청, 노동관서, 국공립의료기관, 보건소, 청소년쉼터, 청소년지원시설)[24]과 그 외 주요 기관(청소년상담복지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경찰서, 청소년수련관, 학교상담사 등) 실무자 대상 다문화청소년 이해교육 실시 - 밀집거주지역내 시범사업 운영: 다문화청소년 상담지원단 시범사업운영 ■ 다문화청소년 상담매뉴얼 개발	여성가족부

다음으로 두 번째 전략은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응 및 위기지원 환경조성이다. 첫 번째 전략을 다문화청소년의 건강한 심리발달을 위한 초기 발굴과 예방을 위한 노력이었다고 하면, 그에 비해 두 번째 전략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의 문제로, 현재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역량을 강화시킴으로써 일반적인 상담 및 심리지원 상황에서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청소년상담사, 청소년동반자, 학교전문상담교사, 전문상담사 등 일반적인 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응 지원 전문가들에게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이해, 다문화청소년의 상담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시킴으로써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지원이 일반적인 청소년 심리지원기관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회 전반의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24) 2019 청소년사업 안내(여성가족부 2019: 441)

이와 함께 다문화청소년 상담매뉴얼을 개발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는데, 다문화청소년의 상담이 일반적인 청소년상담과 다른 것은 아니나 다문화상담에서 고려해야 할 점 등에 대한 차별화된 특성들을 포함한 매뉴얼을 개발하여 현장에 제공함으로써 일반적으로 청소년상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지원에 거부감을 가지지 않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전략 2: 심리·사회적응 및 위기지원 환경조성	
2-2. 상담통역전문가 양성 및 업무역량 강화	**관련부처**
■ 상담통역전문가 양성 - 결혼이주여성, 한국인 외국어전공자 대상 상담통역전문성 교육 - 다문화청소년 밀집지역에 배치 ■ 상담통역전문가의 기본 행동지침 및 업무 매뉴얼 개발 및 보급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응 및 위기지원 환경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내용으로 상담통역전문가를 양성할 필요가 있다. 언어소통의 어려움으로 상담이 진행되지 않아서 자신의 심리적 어려움을 표현하지 못하게 되면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따라서 한국어가 되지 않는 경우는 상담을 받기 어렵다. 그런 경우 상담과정에 통역사가 개입하면 효과적으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으나, 상담통역전문가는 상담가가 아니라 통역사이기 때문에 직무의 정체성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직무교육이 필요하다. 따라서 상담통역전문가 양성교육에서는 상담에 대한 기본교육, 기초소양교육, 통역사교육, 아동청소년 특성에 대한 교육, 비밀보장의 의무 등의 내용을 다룰 필요가 있고, 이에 더하여 상담통역전문가의 기본행동지침을 정하고 매뉴얼에 제시하는 등 전문적 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본인은 상담가가 아니라 통역사이므로 상담의 내용에 개입해서는 안되고, 있는 그대로 전달해야 하고, 자신이 상담의 주체가 되어서는 안되고, 상담의

내용을 외부에 발설해서는 안되는 등의 내용들을 매뉴얼로 구성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 다문화청소년이나 이들의 부모에 대한 상담은 상시적으로 있는 일이 아니고 때에 따라 발생하는 일이므로 여성가족부에서 양성을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인력풀을 관리하면서 지역 내 통역사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파견할 수 있도록 한다. 비용은 사례(case)별 회당 비용으로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경기도 시흥시의 경우 교육지원청 예산으로 통역사 교육과 통역비를 지원한 사례가 있으므로 교육청이 함께 추진할 수도 있다.

전략 2: 심리·사회적응 및 위기지원 환경조성	
2-3. 통합적 개입시스템 구축	**관련부처**
■ 자녀 상담시 부모교육 필수조항 제정(학교 및 민간 전문기관) ■ 위기사례 발생시 학교교사, 상담전문가, 사례관리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다문화청소년통합지원팀을 구성 및 운영 -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다문화청소년통합지원팀 운영예산 지원	법무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지방자치단체

세 번째 과제는 통합적 개입시스템 구축이다. 앞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사회적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이기 보다는 부모나 학교 등 환경요인으로부터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청소년 개인이 심리·사회적응에 문제가 있거나 위기상황인 경우 부모면담을 필수로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입국초기 상담시에는 부모면담과 부모교육을 일정 회기 동안 참여한다는 서약서를 받는 등 부모교육 필수조항을 제정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학교와 다문화청소년 전문 민간기관에서 자녀 초기 상담에서 자녀의 지원을 위하여 부모면담 및 부모교육을 필수로 받는다는 조항을 제정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사회 차원에서 위기사례발생 시 학교교사, 상담전문가, 사례관리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다문화청소년통합지원팀을 구성하여 문제의 원인을 통합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지역중심 통합시스템을 구성하고 이러한 팀을 구성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전략 3: 지역사회 중심 협력시스템 강화	
3-1. 지역사회 다문화청소년 심리··사회적응 및 위기지원 연계시스템 구축	**관련부처**
■ 출입국외국인청에 미성년 입국자에 대한 지역사회 정보제공을 위한 전담인력 배치 - 전담인력의 역할은 초기상담, 모니터링, 사후관리 ■ 지역 내 다문화청소년 지원협의체 운영(반드시 실무협의회를 둠) ■ 청소년안전망(CYS-net: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내 다문화청소년 지원 및 교육기관 필수 포함	법무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지방자치단체

세 번째 전략은 지역사회 중심 협력시스템 강화로,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응 및 위기지원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 다양한 기관이 연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 과제는 맨 첫 번째 전략의 첫 번째 과제인' 초기 발굴 및 예방시스템 구축'에서 '입국초기 미성년자의 경우 초기 상담을 통해 정착지원 연계시스템 구축'의 연장선상에 있는 과제라고 볼 수 있다. 출입국외국인청에 미성년 입국자에 대한 지역사회 정보제공을 위한 업무는 전담인력이 필요하다. 출입국외국인청의 기존 인력이나 과거 다문화코디네이터 등으로 감당하기에는 어려운 일로 보인다. 다문화청소년들의 입국이 빈번한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초기상담, 모니터링, 사후관리 등을 전담하는 인력을 배치함으로써 국내에 입국하는 중도입국청소년 또는 외국인가정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과 적응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이 과정에서 다문화청소년 지원협의체를 운영하고 그 아래 실무협의체를 둠으로써 위의 전담인력과 함께 지역 내 다문화청소년 중 심리·사회적응의 어려움을 겪거나 위기상황인 경우에 대하여 통합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한다. 실무협의체의 소속 기관은 학교, Wee클래스, 다문화청소년전문기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의료 및 보건기관, 정신건강증진센터, 동주민센터 등 지역 내 다양한 관련기관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네트워크 운영예산을 지원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와 더불어 다문화청소년 밀집지역의 경우는 청소년안전망(CYS-net: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내 다문화청소년 지원기관 또는 다문화청소년 교육기관 등 다문화청소년 전문기관을 필수적으로 포함하여 사례 발생시 다문화청소년의 입장에 대해 고려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전략 3: 지역사회 중심 협력시스템 강화	
3-2. 다문화청소년 지원 전담 총괄부서 신설	**관련부처**
■ 중앙단위의 다문화청소년 지원 총괄 부서를 신설 - 지방자치단체별로 이주배경청소년전담 부서 설치	행정안전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중심 협력시스템이 제대로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중앙단위의 다문화청소년 지원 총괄부서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아래의 그림과 같이 행정안전부가 총괄부처를 맡고,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교육부가 각각 입국청소년 초기 발굴 및 연계, 다문화청소년 초기발굴,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학교 입학 후 상담 및 다문화이해교육 등을 크게 맡아서 각각의 업무를 추진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법무부와 여성가족부가 동일하게 초기 발굴 및 연계의 작업을 추진하나 법무부의 경우는 외국에서 입국하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여성가족부의 경우는 국내출생자가 주요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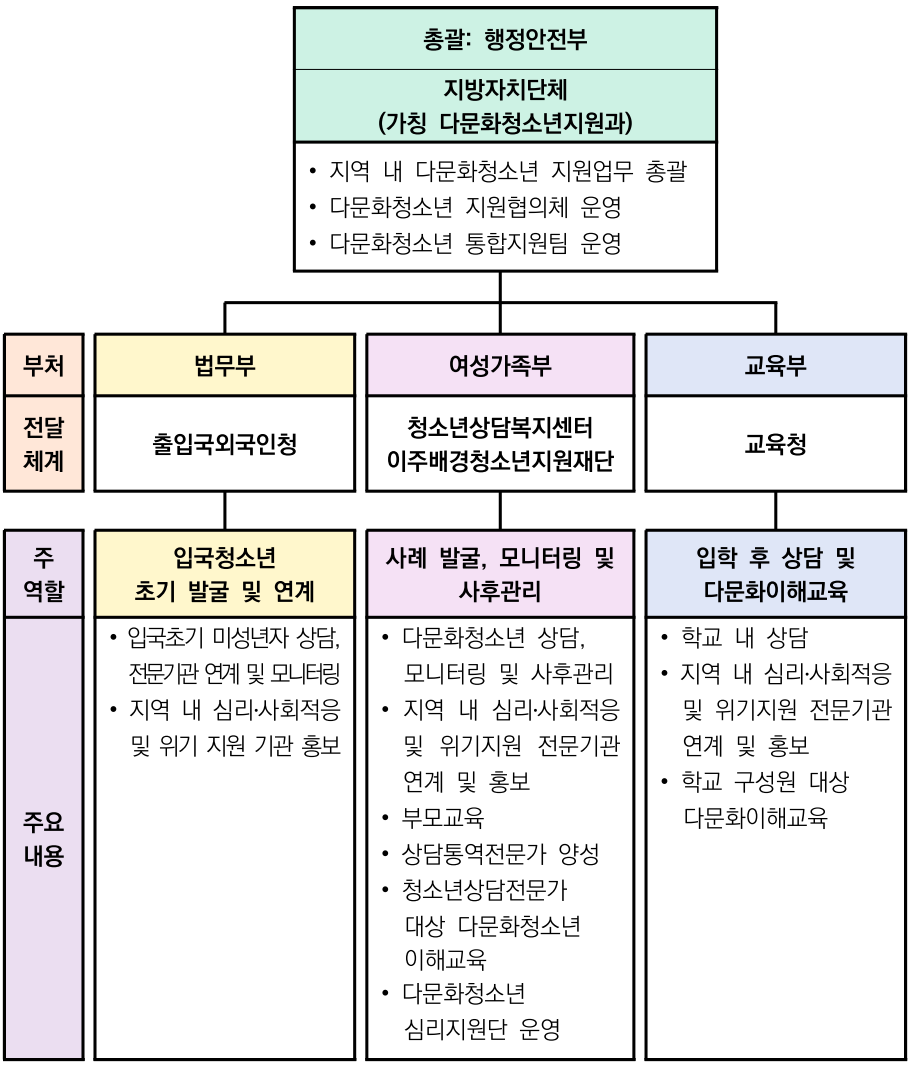


그림 Ⅵ-13. 다문화청소년 심리·사회적응 및 위기지원을 위한 지역사회연계시스템(안)

(3) 정책과제별 추진로드맵

지금까지 제시한 정책과제별 추진로드맵을 연도별로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표 Ⅵ-54 정책과제별 추진로드맵

전략	정책과제	내용	2020	2021	2022
1. 초기 발굴 및 예방적 접근 시스템 구축	1-1. 초기 발굴 및 예방시스템 강화	출입국외국인청 정착지원연계서비스	▶	▶	▶
		다문화청소년 심리지원단 양성	▶	▶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청소년업무강화	▶		
		사례발굴 및 처리과정 지침 제작 및 보급	▶	▶	▶
	1-2. 정보 및 이용 접근성 제고	지역 내 심리사회적응 및 위기사례 지원 시스템 홍보	▶	▶	▶
	1-3. 건강심리발달 환경조성	부모교육강화	▶	▶	▶
		학교구성원 대상 다문화교육 강화	▶	▶	▶
2. 다문화청소년 심리사회적응 및 위기지원 환경조성	2-1. 상담인력 문화 역량강화	청소년상담인력 다문화청소년 이해교육	▶	▶	▶
		청소년안전망 연계기관 종사자 다문화청소년 이해교육	▶	▶	▶
		다문화청소년 상담매뉴얼 개발 및 보급	▶	▶	
	2-2. 상담통역전문가 양성	상담통역 전문가 양성	▶	▶	▶
		상담통역전문가 기본 행동지침 및 업무 매뉴얼 개발 및 보급	▶	▶	▶
	2-3. 통합적 지원시스템 구축	부모교육 필수조항 제정	▶		
		지방자치단체 중심 다문화청소년통합지원팀 구성 및 운영	▶	▶	▶
3. 지역사회 연계협력 시스템 강화	3-1. 지역사회 다문화청소년 심리사회적응 및 위기지원 연계시스템 구축	출입국외국인청 정착지원 연계업무 담당 전담인력 배치	▶	▶	▶
		지역 내 다문화청소년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	▶
		청소년안전망 내 다문화청소년관련 기관 필수 포함	▶		
	3-2. 다문화청소년지원 전담 총괄부서 신설	중앙단위의 총괄부서 신설	▶		

참고문헌

참고문헌

강유임, 김병석 (2013). 다문화가정 아동의 모애착과 심리·사회적 적응의 관계: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부정적 대처기제의 중재효과. **청소년상담연구, 21**(1), 19-42.

강화, 배은경 (2018).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심리적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적응유연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62,** 131-164.

교육과학기술부, 한국교육개발원 (2012). **2012 간추린 교유통계** (통계자료 SM 2012-02-01). 서울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18a). **2018 간추린 교유통계** (통계자료 SM 2018-02). 충청북도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18b).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센터 내부자료.

권지은 (2003). **부모 및 또래애착, 문제해결방식과 자아탄력성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광일, 김재환, 원호택 (1984). **간이 정신진단검사 실시 요강**. 서울: 중앙적성연구소.

김민주, 윤기봉 (2018). 다문화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문화적응스트레스 및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한국웰니스학회지, 13**(1), 373-388.

김선희, 김경연 (1998). 아동 및 청소년의 행동문제 척도 개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4), 155-166.

김순규 (2001). **청소년의 학업중퇴 결정요인-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순규 (2011). 다문화가정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 **청소년학연구, 18**(3), 247-272.

김신영, 임지연, 김상욱, 박승호, 유성렬, 최지영, 이가영 (2006). **한국 청소년발달 지표조사 I : 결과부분 측정지표 검증** (연구보고 06-R02).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김영혜, 김다경 (2016). 경기도 다문화 자녀양육 실태 및 지원방안 (정책보고서 2016-30). 경기: (재)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김유빈, 이지은, 최승주, 신선옥, 이혜정, 정현상 (2018). **제20차(2017)년도 한국 가구와 개인의 경재활동** – 한국노동패널 기초분석보고서- 세종: 한국노동연구원.

김의철, 박영신 (1999). 한국 청소년의 심리, 행동특성의 형성. **교육심리연구, 13**(1), 99-142.

김정남 (2013). 중고등학생을 위한 학교적응척도 단축형의 개발과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5**(3), 497-517.

김정희 (1995). 스트레스 평가와 대처의 정서적 경험에 대한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7**(1), 44-69.

김지경, 백혜정, 임희진, 이계오(2010).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 2010 I** (연구보고 10-R01).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지혜 (2012). 중고등학령기의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연구. **한국글로벌문화학회지, 2**(2), 72-100.

김진아 (2016). 부모양육태도에 따른 청소년의 학교적응과 학업성취도 간의 종단적 관계. **상담학연구, 17**(2), 303-326.

김춘경, 조민규 (2018).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가 우울을 매개로 비행경험에 미치는 영향: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과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한 종단매개효과 검증. **정서·행동장애연구, 34**(3), 501-521.

김혜원 (2011). 집단따돌림과 집단괴롭힘에 따른 남녀 청소년들의 심리적 건강, 학교인식 및 학교적응에 대한 구조분석. **청소년복지연구, 13**(2), 173-1983

남영옥 (2012). 다문화가족 아동의 사회적 적응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0**(4), 37-47.

남윤주, 이숙 (2009). 다문화가족과 한국인 부모 아동의 모애착, 자아개념, 일상적 스트레스, 우울 비교.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20**(3), 357-367.

남진열, 김상미 (2011).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능력에 대한 아버지 역할 수행의 영향. **청소년복지연구, 13**(2), 315-334.

노언경, 홍세희 (2012). 청소년의 컴퓨터 사용 목적에 따른 잠재프로파일 분류 및 관련 변인들의 영향력 검증. **한국청소년연구, 23**(3), 51-76.

노충래 (2000). 로즌버그의 자긍심척도와 집단자긍심척도를 활용함 교포 청소년의 심리정신건강에 관한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10**, 107-135.

노충래, 홍진주 (2006). 이주노동자 자녀의 한국사회 적응실태연구: 서울경기지역 몽골출신 이주노동자 자녀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22**, 127-159.

모상현 (2018).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가 다문화청소년의 사회적 위축에 미치는 영향: 교사 및 또래친구 요인의 조절효과. **청소년문화포럼, 53**, 67-93.

민병수 (1991). **학교생활적응과 자아개념이 학업성적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난숙, 오경자 (1992). Methylphenidate 치료가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아의 인지행동 및 사회, 학습, 정서적 적응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1**(1), 235-248.

박미애, 김세경, 천성문 (2013).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 요인에 관한 메타분석. **재활심리연구, 20**(3), 627-652.

박병선, 배성우, 박경진, 서미경, 김혜지 (2017). 청소년의 또래애착, 사회적 위축, 우울, 학교생활적응 간의 구조적 관계분석. **보건사회연구, 37**(2), 72-101.

백승희, 박소영, 정혜원 (2018). 분할함수 성장혼합모형을 적용한 다문화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종단적 변화추정. **교육학연구, 56**(1), 187-217.

백은경, 이응택, 이은경 (2018).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한 청소년기의 부모진로지도가 주관적 학업성취와 진로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 **청소년문화포럼, 53**, 6-31.

백종규, 염동문 (2018). 이중문화특성의 잠재프로파일에 따른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심리정서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연구. **다문화사회연구, 11**(1), 295-319.

백혜정, 임희진, 김현철, 유성렬 (2017). **2017년 청소년종합실내조사** (연구보고 2017-10). 서울: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2019a). **2019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1)** [11-1352000-000165-10]. 세종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2019b). **2019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2)** [11-1352000-000165-10]. 세종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2019c). **2019년 정신건강사업 안내** (11-1352000-000954-10). 세종 : 보건복지부.

봉초운, 정윤화, 홍세희 (2018). 다문화가정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의 종단적 관계: 잠재성장모형을 이용한 행위자-상대자 상호의존 모형의 적용. **한국청소년연구, 29**(3), 41-69.

서고운 (2019). 부모의 행동적 통제 양육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부모로부터의 분리와 지각된 존재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32**(2), 43-64.

성한기 (2001). 한국판 사회정체화 척도의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15**(3), 33-48.

송채수 (2018). 이중언어사회화가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의 자기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동남아출신 결혼이주여성과 한국인 아버지의 자녀를 중심으로. **아시아문화연구, 48**, 245-280.

신숙재 (1997).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사회적 지원과 부모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신재현 (2017). 통합교육 내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의 학습활동 및 사회정서발달에 관한 종단연구. **통합교육연구, 12**(1), 53-74.

심우엽 (2009). 다문화학생의 민족정체성 및 정서적 특성. **초등교육연구, 22**(4), 27-47.

양계민 (2018).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2018: 신규패널보고서** (연구보고 18-R14-1).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양계민, 강경균 (2017).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V: 총괄보고서** (연구보고 17-R12).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양계민, 김승경, 박주희 (2011).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발달과정 추적을 위한 종단연구 Ⅱ: 총괄보고서** (연구보고 11-R07).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양계민, 신현옥, 박주희 (2014).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Ⅱ: 총괄보고서** (연구보고 14-R16).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양계민, 윤민종, 신현옥, 최홍일 (2016).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Ⅳ: 총괄보고서** (연구보고 16-R13).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양계민, 정진경 (2008). **사회통합을 위한 다문화교육 활성화방안 연구** (연구보고 08-R07).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양계민, 황진구, 연보라, 정윤미 (2018).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2018: 총괄보고서** (연구보고 18-R14).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여성가족부 (2019). 2019년 청소년사업 안내 (11-1383000-000010-10). 서울 :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연보라 (2017).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V: 다문화청소년의 발달 추이 분석** (연구보고 17-R12-1).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오승환, 좌현숙 (2015). 중도입국 청소년과 일반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비교. **학교사회복지, 32**, 385-412.

오은진, 성경미 (2018).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 자아개념의 구조모형: 생태체계

모형을 기반으로. **동서간호학연구지, 24**(2), 171-181.
오인수 (2014).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교 괴롭힘 피해 경험과 심리 문제의 관계: 심리적 안녕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아시아교육연구, 15**(4), 219-238.
유성경, 심혜원 (2002). 적응 유연한 청소년들의 심리적 보호요소 탐색. **교육심리연구, 16**(4), 189-206.
유지희, 황숙연 (2018). 다문화청소년의 차별경험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부모와의 대화시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20**(4), 169-193.
유한구, 김영식, 류지영, 신동중, 이은혜 (2016).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Ⅱ**(기본사업 2016-10). 세종: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이경상, 김진호, 오해섭, 김희진 (2003). **한국청소년패널조사(KYPS)Ⅰ-조사개요 보고서-**(연구보고 03-R15).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이경상, 백혜정, 이종원, 김지영 (2011).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 2010Ⅱ 사업 보고서**(연구보고 11-R10).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이경상, 조혜영, 박연수 (2004). **한국 청소년 패널조사(KYPS) Ⅱ -조사개요보고서.**(연구보고 04-R01).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이경아, 이정윤, 양현정 (2005). 집단 따돌림이 청소년기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내면화 문제행동, 또래기술 및 자기존중감의 매개 중재효과. **상담학연구, 6**(2), 531-543.
이기학, 한종철 (1997). 진로태도 측정도구의 타당화를 위한 도구. **진로교육연구, 8**, 219-255.
이민경, 이수정(2010). 정책용어로서 이주배경청소년 제안과 정책 방향성 고찰: 다문화청소년의 한계와 대안 모색. 무지개청소년센터, 여성가족부.
이상록, 김은경, 윤희선 (2015). 청소년의 행복감이 청소년 발달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26**(4), 413-438.
이소래 (1997). **남한이주 북한이탈주민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소연 (2018).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 변화궤적과 관련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29**(1), 179-208.

이승종 (1995). **문화이입과정 스트레스와 유학생의 신념체계 및 사회적 지지와의 관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영주 (2007). 국제 결혼한 여성의 자녀에 대한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보호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2**(2), 83-105.

이은설 (2005). **초중고 여학생 진로장벽 척도의 개발 및 구인 타당도 검증**.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자영, 강석영, 김한주, 이유영, 양은주 (2010). 학업중단 위기청소년이 지각한 학업중단의 위험 및 보호요인 탐색: 개념도 연구법의 활용. **청소년상담연구, 18**(2), 225-241.

이지선, 김정민, 주아란 (2018). 다문화가정 아동의 부모화 경험이 심리적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구조분석: 일반가정 아동과의 비교. **청소년시설환경, 16**(2), 117-130.

이해경, 김혜원 (2001). 초등학생들의 집단괴롭힘 가해행동과 피해행동에 대한 사회적, 심리적 예측변인들: 학년과 성별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5**(1), 117-138.

장용희 (2018).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임파워먼트 영향 요인들의 구조적 관계분석: 발달자산, 사회적 지지, 다문화수용성, 적응유연성을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2), 809-830.

전자배 (2018). 다문화가정 부모의 문화적응 태도가 다문화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다문화교육연구, 11**(3), 121-146.

정문경 (2013). **다문화가정 초등학생 역량지각이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 연구: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조선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정화실 (2009). **초등학생의 모애착과 학교생활적응이 낙관성에 미치는 영향**.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정희정, 김소연 (2014). 다문화가족 중도입국자녀의 사회연결망에 관한 사례연구: 청소년 상담지원체계를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19**(4), 831-853.

조아라, 윤성근, 양은주 (2013).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진로관련 행동척도 (Korean Parental Career-related Behaviors)의 한국판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10**(3), 389-408.

천희영, 이미란 (2015). 다문화가정 초등학교 아동의 삶의 만족도 관련 변인의 유형화: 개인가정환경학교생활요인을 중심으로. **한국영유아보육학, 95,** 1-24.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아동복지연구소 (2018). **국내 난민아동 한국사회 적응 실태조사** (연구보고 2017-11). 서울: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아동복지연구소.

최경숙 (2007). 자기존중감과 긍정 심리학. **스트레스 연구, 15**(3), 205-214.

최영애 (2006). **원주시 학업중단청소년의 진로욕구에 관한 실태조사 연구**. 상지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유선, 손은령 (2015). 청소년이 지각한 대인관계 양상, 학업성취, 삶의 만족도의 관계: 성별, 학교급별 비교. **상담학연구, 16**(2), 233-247.

최은희, 김경은 (2018). 중도입국 학교청소년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탐색. **디지털융복합연구, 16**(8), 27-39.

통계청 (2018). 2017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 http://m.kostat.go.kr/board/file_dn.jsp?aSeq=371776&ord=2에서 2019년 2월 11일 인출

통계청 (2019). **2019년 국가통계 품질관리 매뉴얼 정기통계품질진단**. 대전: 통계청 품질관리과.

통계청 (2019.11).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 2019년 정기통계품질진단 결과보고서. 대전: 통계청 품질관리과.

하형석, 이종원, 김성은, 한지형 (2018).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 Ⅸ: 사업보고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미현 (1996). **아동의 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지 지각과 행동문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한상분 (1992). **아동의 자아개념과 가족체계의 기능유형: Circumplex Model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허묘연 (2000).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행동 척도개발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허청아, 그레이스 정 (2018). 다문화청소년의 차별경험, 스트레스, 자아존중감의 잠재프로파일 분류 및 영향요인 검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6**(4), 177-190.

홍진주 (2004). **몽골출신 이주노동자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황여정, 김경근 (2006). 일반계 고등학생의 학교만족도 결정요인. **교육사회학연구, 16**(2), 181-203.

황정규 (1997). 한국청소년의 생활만족도, 심리적 건강, 신체건강: 심리·사회적 형성 요인. 교육·윤리연구실(편). **한국청소년문화: 심리-사회적 형성요인**(연구논총 97-8). 경기: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91-343.

Asparouhov, T., & Muthén, B. (2014). Auxiliary variables in mixture modeling: Three-step approaches using Mplus. *Mplus Web Notes: No.15.* https://www.statmodel.com/examples/webnotes/webnote15.pdf에서 2019년 9월 27일 인출.

Barry, D. T. (2001). Development of a new scale for measuring acculturation: The East Asian Acculturation Measure (EAAM). *Journal of Immigrant Health, 3*(4), 193-197.

Berry, J. W., Phinney, J. S., Sam, D. L., & Vedder, P. (2006). Immigrant youth: Acculturation, identity, and adaptation. *Applied Psychology: An International Review, 55*(3), 303-332.

Block, J., & Kremen, A. M. (1996). IQ and ego-resiliency: conceptual and empirical connections and separate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2), 349.

Carolina Population Center (2009). ADD Health. http://cpu.unc.edu/projects/addhealth에서 2017년 3월 3일 인출.

Cattaneo, L. B., & Chapman, A. R. (2010). The process of empowerment: A model for use in research and practice. *American Psychologist, 65*(7), 646-659.

Cawte, J. (1972). *Cruel, Poor and Brutal nations*.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Collins, L. M., & Lanza, S. T. (2010). *Latent class and latent transition analysis: With applications in the social, behavioral, and health science*. Hoboken, NJ: John Wiley & Sons, Inc.

Curtis, P., Thompson, J., & Fairbrother, H. (2018). Migrant children within Europe: a systematic review of children's perspectives on their health experiences. Public Health (2018), https://doi.org/10.1016/j.puhe.2018.01.038에서 2019년 9월 27일 인출.

Dwairy, M., & Dor, A. (2009). Parenting and psychological adjustment of adolescent immigrants in Israel.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3*(3), 416-425.

Gibaud-Wallston, J., & Wandersman, L.P. (1978, August). Development and validity of the Parenting Sense of Competence Scale. Paper presented at the meeting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Toronto, Ontario.

Hovey, J. D., & King, C. A. (1996). Acculturative stress,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among immigrant and second-generation Latino adolescent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35*(9), 1183-1192.

Jia, X., & Shi, B. (2017). Perceived discrimination and subjective

well-being in Chinese migrant adolescents: Collective and personal self-esteem as mediators. *Frontiers in Psychology, 8*: 1213.

Kamata, A., Kara, Y., Patarapichayatham, C., & Lan, P. (2018). Evaluation of analysis approaches for latent class analysis with auxiliary linear growth model. *Frontiers in Psychology, 9*: 130.

Kim, S. Y., Chen, Q., Li, J., Juang, X., & Moon, U. J. (2009). Parent-child acculturation, parenting, and adolescent depressive symptoms in Chinese immigrant familie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3*(3), 426-437.

Kim, U. (1988). *Acculturation of korean immigrants to Canada: Psychological, Demographic, and Behavioral Profiles of Emigrating Koreans, Non-Emigrating Koreans, and Korean-Canadians*. Unpublished Ph.D. dissertatin, Queen's University, Kingston, Canada.

Li, T. M., & Wong, P. W. (2015). Youth social withdrawal behavior (hikikomori): A systematic review of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studies. *Australian & New Zealand Journal of Psychiatry, 49*(7), 595-609.

Lubke, G., & Muthén, B. (2007). Performance of factor mixture models as a function of model size, covariate effects, and class-specific parameter.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14*(1), 26-47

Nylund-Gibsosn, K., Grimm, R., Quirk, M., & Furlong, M. (2014). A latent transition mixture model using the three-step specificatio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21*, 1-16.

Portes, A., & Rumbaut, R. G. (2008). *Children of immigrants longitudinal study*(CILS), 1991-2006. Ann Arbor, MI: Inter-university

Consortium for Political and Social Research.

Rog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Singelis, T. M., Triandis, H. C., Bhawuk, D.P.S., & Gelfand, M. J. (1995). Horizontal and vertical dimensions of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A theoretical and measurement refinement. *Cross-Cultural Research, 29*(3), 240-275.

United Nations (2019).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1989). https://www.unhcr.org/uk/4aa76b319.pdf 에서 2019년 10월 10일 인출.

Vanderbilt-Adriance, E., & Shaw, D. S. (2008). Protective factors and the development of resilience in the context of neighborhood disadvantage.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6*(6), 887-901.

Walsh, D., Fogel-Grinvald, H., & Shneider, S. (2015). Discrimination and ethnic identity as predictors of substance use and delinquency among immigrant adolescents from the FSU and Ethiopia in Israel.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46*(7), 942-963.

Yu, A. B., & Yang, K. S. (1994). The nature of achievement motivation in collectivistic societies. In U. Kim, H. C. Triandis, C. Kagicibasi, S. C. Choi S., & G. Yoon (Eds.),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Theory, method, and applications, 18*. Cross-Cultural Research and Methodology Series.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 239-250.

Zimmerman, M. A. (2000). Empowerment theory: Psychological, organizational and community levels of analysis. In J. Rappaport & E. Seidman (Eds.), *Handbook of community psychology* (pp. 43-63). Boston, MA: Springer.

인터넷사이트

고입정보포털 (2017). www.hischool.go.kr에서 2017년 3월 15일 인출.

교육부 (2019). 2018년도 학생 건강검사 표본통계 발표. 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294&boardSeq=77144&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20402&opType=N에서 2019년 8월 13일 인출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18). 2018년 교육기본통계 주요내용. https://kess.kedi.re.kr/post/6670508?itemCode=04에서 2019년 2월 11일 인출.

드림스타트 (2019). **사업소개 〉 드림스타트란**. https://www.dreamstart.go.kr/contents/sub01_01_01.asp에서 2019년 10월 24일 인출.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9). **기관소개 〉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 〉 사업소개**. http://www. korea1391.go.kr/new/page/business_part.php에서 2019년 10월 24일 인출.

이주배경청소년청소년지원재단 무지개청소년센터 (2019). **센터사업**. http://www.rainbowyouth.or.kr/에서 2019년 10월 24일 인출.

통계청 (2017). **2017년 사회조사표(청소년)**. http://kostat.go.kr에서 2018년 7월 27일 인출.

행정안전부 (2018). 2017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jsessionid=inhPNzYoI33U8Ciq3mKgq4R4.node50?bbsId=BBSMSTR_000000000014&nttId=66841에서 2019년 2월 11일 인출.

KOSIS 국가통계포털 (2019). 소득 10분위별 가구당 가계수지(전국, 2인이상). http://kosis.kr /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L9H008에서 2019년 9월 16일 인출.

Wee 프로젝트, 우리가 희망이다 (2019). https://www.wee.go.kr/home/main.php에서 2019년 10월 24일 인출.

법령 참고자료

다문화가족지원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99550&efYd=20180613#0000에서 2019년 1월 31일 인출.

아동복지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6676&efYd=20190716#0000에서 2019년 10월 24일 인출.

아동복지법시행령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9945&efYd=20190716#0000에서 2019년 10월 24일 인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83629#0000에서 2019년 10월 24일 인출.

청소년 기본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5824&efYd=2019 0619#0000에서 2019년 10월 24일 인출.

청소년복지 지원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5826&efYd=20181218#0000에서 2019년 1월 31일 인출.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9767&efYd=20190702#0000에서 2019년 1월 31일 인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6168&efYd=20190101#0000에서 2019년 1월 31일 인출.

통계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96492&efYd=20180210#0000에에서 2019년 1월 31일 인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1174&efYd=20180717#0000에서 2019년 10월 24일 인출.

부 록

: 다문화청소년 패널데이터 활용논문 정리

다문화청소년 패널데이터 활용논문 정리

1. 학위논문

김서정 (2019).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문화적응 전략과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변화에 따른 잠재계층 분류 및 적응특성 탐색.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평화 (2019). 다문화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 발달궤적에 미치는 영향. 충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남상혁 (2019). 다문화청소년의 외모만족도와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순천향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신연주 (2019). 다문화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진로결정성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신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오세비 (2019). 어머니의 문화통합수준과 다문화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과의 관계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우영숙 (2019).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지각하는 정서요인, 부모진로지지, 자아존중감, 진로장벽과 진로태도결정성과의 구조적관계. 가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육주홍 (2019). 다문화청소년의 이중문화경험이 진로결정성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윤빛나 (2019). 또래요인이 다문화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숭식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은정 (2019). 다문화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에 대한 종단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임정소 (2019). 다문화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 학술논문

고은선, 김성순 (2018).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이중언어능력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이중언어학, 72, 1-23.

김기영, 고은선 (2018). 다문화교육지원정책에 대한 이주배경 청소년의 인식과 요인 분석. 교육혁신연구, 28(1), 405-425.

김민주, 윤기봉 (2018). 다문화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문화적응스트레스 및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한국웰니스학회지, 13(1), 373-388.

김우진, 정지아, 심태은, 이송이 (2017).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한 다문화청소년의 언어능력과 이중문화수용성에 따른 자아탄력성 변화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28(4), 167-194.

김준범, 박성훈 (2018).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학교부적응에 관한 연구-자아탄력성의 종단적 매개효과를 중심으로-.학교사회복지, 41, 77-100.

김지혜 (2019). 다문화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우울과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시설환경, 17(3), 115-124.

김춘경, 조민규 (2018).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가 우울을 매개로 비행경험에 미치는 영향. 정서·행동장애연구, 34(4), 501-521.

노보람, 정정화, 최나야, 이강이 (2019).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대한 외모만

족도와 한국어능력의 종단적 영향 및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57(3), 407-417.

딩징야, 진미정 (2019). 외국인 어머니의 문화적응이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학습활동 적응에 미치는 영향: 가정 내 교육참여, 공적 교육 지원, 사교육의 매개효과. 한국가족관계학회지, 24(2), 65-84.

모상현 (2018).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가 다문화청소년의 사회적 위축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문화포럼, 54, 67-93.

목소리, 서보림, 정재경, 강민주 (2019).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태도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57(3), 341-352.

박동진 (2019). 다문화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교사 지지의 조절효과 분석. 융합정보논문지, 9(9), 175-184.

박동진 (2019). 다문화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분석. 한국청소년활동연구, 5(2), 57-74.

박동진, 이지연 (2019). 다문화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교우관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분석. 미래청소년학회지, 16(3), 73-92.

박명희 (2017).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학업성취 영향요인들 간 구조적 관계. 다문화교육연구, 10(4), 27-54.

박용한, 이신동 (2017).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초-중 전환기 학교적응 및 학업성취 발달 요인에 대한 탐색. 한국교육문제연구, 35(4), 1-19.

박혜숙, 양상희 (2017). 한국의 다문화가정 아동의 삶에 대한 만족도 변화 양상. 한국교육문제연구, 35(4), 95-121.

백승희, 박소영, 정혜원 (2018). 분할함수 성장혼합모형을 적용한 다문화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종단적 변화추정. 교육학연구, 56(1), 187-217.

백종규, 염동문 (2018). 이중문화특성의 잠재프로파일에 따른 다문화가정 청소년

의 심리정서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연구. 다문화사회연구, 11(1), 295-319.
봉초운, 정윤화, 홍세희 (2018). 다문화가정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의 종단적 관계. 한국청소년연구, 29(3), 41-69.
신연주, 이경순 (2019).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진로결정성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평생학습사회, 15(3), 95-120.
안혜진 (2019).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 관계에서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12), 789-807.
연은모, 최효식 (2019). 다문화가정 부모의 진로관련행동에 따른 잠재집단 탐색 및 잠재집단별 자녀의 진로, 심리, 학업 특성 차이 검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8), 305-325.
연은모, 최효식 (2019).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문화적응스트레스, 양육효능감, 진로관련행동, 진로장벽인식 간 관계: 자녀의 성별에 따른 다집단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10), 121-140.
염동문, 임채영, 김한솔 (2019). 결혼이주여성 문화적응 유형에 관한 영향요인 연구-잠재프로파일분석 활용. 사회과학연구, 35(3), 187-208.
오동균 (2019). 다문화청소년이 인식하는 부모의 방임이 사회적 위축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다변량 잠재성장모형. 중등교육연구, 67(3), 439-459.
유효은, 이원기, 이창한 (2019). 다문화청소년의 집단괴롭힘피해 원인에 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8(1), 137-166.
윤은영 (2019).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적용한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 성취동기, 학교적응의 종단적 관계 연구. 다문화와 평화, 13(2), 1-22.
윤지영, 허은정 (2017). 다문화가정의 부모효능감, 학생의 자아존중감과 학교적응 간 관계에 대한 종단 연구. 교육문화연구, 23(6), 775-798.

은선민, 이수현, 이강이 (2019). 다문화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변화 궤적 유형화: 유형 예측요인과 유형별 심리·사회적응. 한국청소년연구, 30(2), 177-211.

이래혁, 장혜림 (2019).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자녀의 성취동기에 미치는 영향-양육효능감과 자아탄력성의 이중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66, 65-95.

이소연 (2018).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 변화궤적과 관련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29(1), 179-208.

이영주, 박륜경, 이수경 (2017).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이중문화 수용태도와 심리적 적응 및 학교적응. 교육문화연구, 23(5), 347-372.

이원기, 유효은, 이창한 (2019). 다문화청소년의 비행발달궤적과 선정요인에 대한 연구. 치안정책연구, 33(1), 183-224.

이원기, 유효은, 이창한 (2019). 다문화청소년의비행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학회보, 74, 65-90.

이원석 (2019). 다문화가정 학부모의 학교활동 참여가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다문화와 디아스포라연구, 14, 41-61.

이윤영 (2019). 다문화청소년의 여가활동과 일탈 친구의 관계에 대한 연구.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43(1), 77-90.

이윤영 (2019). 다문화청소년의 학교 폭력 피해 경험이 문화적응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범죄학, 13(1), 27-48.

이윤정 (2019). 사회적 지지가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가족·교사·친구지지를 중심으로. 인문사회21, 10(2), 1197-1210.

이응택, 이은경 (2017).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한 다문화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의 발달적 변화와 부모 자아존중감의 관계 연구. 미래청소년학회지, 14(4), 21-40.

이혜미, 김유미 (2019).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장벽과 진로의식발달의 관계: 성취동

기와 진로관련 부모행동의 매개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10), 665-689.
이희정 (2018).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정체성 변화과정과 학교 적응. 한국사회학, 52(1), 77-115.
인효연 (2017).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지각된 가족지지, 삶의 만족도 및 어머니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간의 종단적 관계. 청소년학연구, 24(10), 459-482.
임선아 (2018). 다문화청소년의 집단괴롭힘 경험과 학교적응: 자아탄력성과 도움을 주는 어른의 보호역할 검증. 아동과 권리, 22(2), 195-214.
장혜림, 이래혁 (2019).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부모지지가 자아존중감과 학교적응을 매개로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학교사회복지, 47, 189-218.
조옥선, 방해순 (2018). 융복합 시대에 다문화 부모의 일상생활스트레스가 자녀의 학습 케어 형태에 미치는 영향: 부모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융합정보논문지, 8(4), 173-180.
한광현, 강상경 (2019). 다문화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우울수준 및 자아존중감의 관계-스트레스 과정 모델 검증.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47(1), 231-257.
홍나미, 박현정 (2017). 부모방임이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위축, 우울의 매개효과. 미래사회복지연구, 8(2), 125-151.

3. 학술대회

〈MAPS 학술대회〉
김기영, 고은선 (2017). 다문화 교육 지원 정책에 대한 대상·내용·방법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탐색 연구. 2017 다문화청소년 패널 학술대회, 419-434.
김남희 (2017). 다문화 수용성이 다문화청소년의 심리, 정서, 인지적 요소에 미치는 영향. 2017 다문화청소년 패널 학술대회, 531-551.

김민주, 윤기봉 (2017). 사회적 지지가 다문화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문화적응스트레스의 매개적 효과. 2017 다문화청소년 패널 학술대회, 517-530.

김양희 (2017). 다문화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가 진로결정성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2017 다문화청소년 패널 학술대회, 403-418.

김우진, 심태은, 정지아, 이송이 (2017).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한 다문화청소년의 자아탄력성 변화 연구. 2017 다문화청소년 패널 학술대회, 195-221.

김원영, 김경식 (2017). 사회적 지지가 남녀 다문화청소년의 학교폭력 피해경험에 미치는 영향: 우울과 사회적 위축을 매개로. 2017 다문화청소년 패널 학술대회, 297-313.

김준범, 박성훈 (2017).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학교부적응에 관한 연구: 자아탄력성의 종단적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2017 다문화청소년 패널 학술대회, 3-26.

김지연 (2017).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 2017 다문화청소년 패널 학술대회, 388-402.

박명희 (2017).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학업성취 영향요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 2017 다문화청소년 패널 학술대회, 27-49.

박애스더, 김두영 (2017).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출신국별 부모효능감: 2011-2015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를 중심으로. 2017 다문화청소년 패널 학술대회, 129-143.

박용한, 이신동 (2017). 다문화청소년의 초-중 전환기 학교적응 및 학업성취 변화 요인에 대한 탐색. 2017 다문화청소년 패널 학술대회, 69-85.

박혜숙, 양상희 (2017).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의 만족도 변화. 2017 다문화청소년 패널 학술대회, 255-268.

백승희, 박소영 (2017). 분할함수 성장혼합모형을 적용한 다문화 초·중학생들 삶

의 만족도의 종단적 변화추정과 영향요인 검증. 2017 다문화청소년 패널 학술대회, 609-633.

백종규, 염동문 (2017). 이중문화특성의 잠재프로파일에 따른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심리적응에 미치는 영향 연구. 2017 다문화청소년 패널 학술대회, 503-516.

봉초운, 정윤화 (2017). 다문화가정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의 종단적 관계: 잠재성장모형을 이용한 행위자-상대자 상호의존 모형(APIM)의 적용. 2017 다문화청소년 패널 학술대회. 584-608.

서봉언 (2017). 다문화청소년의 비행경험 실태 및 관련요인 탐색. 2017 다문화청소년 패널 학술대회, 329-344.

오정아, 한애경 (2017). 데이터마이닝을 이용한 다문화청소년의 학업중단 의도 예측모형 탐색. 2017 다문화청소년 패널 학술대회. 363-387.

유봉애, 옥경희 (2017). 자아존중감, 가족지지, 부모 사회·경제적 지위가 전환기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 성별에 따른 차이 연구. 2017 다문화청소년 패널 학술대회, 96-111.

윤지영, 허은정 (2017). 다문화가정의 부모 효능감, 학생의 자아존중감과 학교적응 간 자기회귀 교차지연모형 검증. 2017 다문화청소년 패널 학술대회. 50-66.

이소연 (2017). 다문화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 변화궤적, 청소년과 어머니의 이중문화요인 및 청소년의 심리정서적응의 구조관계. 2017 다문화청소년 패널 학술대회, 458-479.

이영주, 박륜경, 이수경 (2017).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이중문화 수용태도 및 심리적·학교적응에 관한 연구. 2017 다문화청소년 패널 학술대회, 480-499.

이응택, 이은경 (2017).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한 다문화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발달적 변화와 부모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연구. 2017 다문화청소년 패널 학술대회, 314-328.

이희정 (2017).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정체성이 한국사회 어울림에 미치는 영향 분석. 2017 다문화청소년 패널 학술대회, 437-457.

인효연 (2017).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지지, 삶의 만족도 및 어머니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간의 종단적 관계. 2017 다문화청소년 패널 학술대회, 175-191.

임선아 (2017). 다문화청소년의 따돌림경험이 자아탄력성을 매개하여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학교 내·외 지지자의 존재 여부에 따른 차이 검증. 2017 다문화청소년 패널 학술대회, 86-95.

장주리 (2017). MAPS를 활용한 다문화청소년의 탄력성(Resilience)이 결핍에 미치는 영향력. 2017 다문화청소년 패널 학술대회, 269-293.

정민아, 김은혜 (2017). 다문화가정 중학생이 인식한 부모지지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학교생활적응과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및 성차 비교. 2017 다문화청소년 패널 학술대회, 112-126.

정호용 (2017). 정부 지원 정책이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국가정체성 형성에 미치는 영향. 2017 다문화청소년 패널 학술대회, 555-583.

조옥선, 방해순 (2017). 다문화 부모의 일상생활스트레스가 자녀의 학습 케어 형태에 미치는 영향: 부모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2017 다문화청소년 패널 학술대회, 144-157.

최현주, 하영진 (2017).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대한 영향요인 탐색: 개인 간/개인 내 변화를 중심으로. 2017 다문화청소년 패널 학술대회, 222-254.

한애경, 김평화, 오정아 (2017).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성취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탐색: 성별과 학령기를 중심으로. 2017 다문화청소년 패널 학술대회, 345-360.

홍나미, 박현정 (2017). 부모방임이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위축, 우울의 매개효과. 2017 다문화청소년 패널 학술대회, 158-174.

〈외부 학술대회〉

노보람, 정정화, 최나야, 이강이 (2018). 성장혼합모형을 적용한 다문화청소년의 또래지지 변화유형 및 예측요인. 2018한국아동학회 춘계학술대회, 173-174.

신형진 (2017). 다문화청소년의 이중언어 사회화 유형: 2015 다문화청소년 패널 조사의 분석. 전남대학교 세계한상문화연구단 국내학술회의, 63-70.

이형하, 라연희, 송현주, 용정이, 윤정희 (2019). 다문화청소년 부모의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컴퓨터정보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7(2), 181-182.

이형하, 김지선, 김지원, 송현경, 최은 (2019).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장벽과 사회적 위축이 진로결정성에 미치는 영향: 성취동기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컴퓨터정보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7(2), 183-184.

임양미 (2019). 부모의 지지 및 감독이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scientific evidence for the direction of policies and policy tasks to support multicultural youth by constructing the basic data on the development of multicultural youth and analyzing trends in their development. To achieve these research purposes, the study has conducted two main areas of research. At first, we conducted the 9th follow-up survey of the first panel established in 2011 and analyzed the accumulated data. The in-depth interview was also conducted to derive effective supporting polices for the psychological and social adaptation of multicultural youth. Second, the second panel with the fourth grade multicultural youths was established in trying to consider and reflect the changed multiculrual environment. The key findings of the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positive factors affecting psychological and social adaptation of multicultural youth were the degree of social supporting from their family and school, and the negative factors were the experience of bullying victimization, respectively. Second, when it comes to needs for psychological adaptation programs, teachers are found to have higher needs for such program compared to multicultural youths and parents. Third, both multicultural youths and mothers are found to have low awareness of community psychological counseling center with somewhat negative

perceptions of the role of school counseling center. Fourth, field experts highly demanded the customized psychological counseling services and crisis support system for multiculral youth. Lastly, the study has come up with three different strategies and eight policy tasks designed to facilitate the psychological and social adaptation and to provide crisis support for multicultural youth based on the research findings above.

2019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행물 안내

기관고유과제

19-R01 청소년 '일 경험' 제도 운영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II : 대학교 실습학기제를 중심으로 / 김승경·최정원·강정한

19-R02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IV / 김형주·연보라·유설희

19-R02-1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IV - 전년도 공개데이터 심층분석보고서 / 김형주·연보라·유설희

19-R02-2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IV - 기초분석보고서 / 김형주·연보라·유설희

19-R03 국가 미래인적자원으로서 재외동포청소년 성장과 지원방안 연구II / 김경준·김정숙

19-R04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 지원체계 구축 방안 연구 / 강경균·성윤숙·김승보·장현진

19-R05 청소년 체험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업사회공헌 사업과의 협업 추진 방안 연구 / 임지연·황세영·김도영

19-R06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청년정책 개선 방안 / 김지경·변금선·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19-R07 정보기술을 활용한 위기청소년 사회서비스 확충 방안 / 김지연·이경상·노법래

19-R08 남북한 청소년 교류협력을 위한 중장기 전략연구 / 배상률·이정민

19-R09 미래지향적 청소년관련 법 정비 방안 / 김영한·서정아·권일남

19-R10 청소년지도자 양성시스템 재구축 방안 I : 청소년 활동분야 중심으로 / 최창욱·좌동훈·남화성·박정배

19-R11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조사 및 조성사업 연구VII / 오해섭·문호영·염유식

19-R12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아동·청소년 인권실태 2019 - 총괄보고서 / 김영지·김희진·이민희·김진호

19-R12-1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아동·청소년 인권실태 2019 - 심화분석보고서 / 강지영

19-R12-2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아동·청소년 인권실태 2019 - 기초분석보고서 / 김영지·김희진

19-R13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청소년 성장지원정책 추진체계 구축방안 연구 I / 최인재·이윤주·송민경·조윤정

19-R14 한국 아동·청소년패널조사X - 사업보고서 / 하형석·김성은·이용해

19-R14-1 한국 아동·청소년패널조사X - 데이터분석보고서 / 김성은·김준엽

19-R15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2019 - 총괄보고서 / 양계민·장윤선·정윤미

19-R15-1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2019 - 기초분석보고서 / 양계민·장윤선·정윤미

협동연구과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9-59-01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모델 개발연구II : 질적 패널조사를 중심으로 / 장근영·윤철경·서고운·이동훈 (자체번호 19-R16)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9-59-02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모델 개발연구II : 지역사회 지원 모델 개발을 위한 중소도시 지역 질적 연구 / 조아미·임정아·김남은 (자체번호 19-R16-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9-60-01 청년 핵심정책 대상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II : 학교 졸업예정자 / 김기헌·유민상·김창환·정지운 (자체번호 19-R17)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9-60-02 청년 핵심정책 대상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II : 학교 졸업예정자-해외사례조사 / 김기헌·유민상(자체번호 19-R17-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9-61-01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I / 임희진·백혜정·김동식 (자체번호 19-R18)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9-61-02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I - 학생 청소년의 건강 불평등 실태 분석 / 김동진·정연·채수미 (자체번호 19-R18-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9-61-03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I - 기초분석보고서 / 임희진·백혜정 (자체번호 19-R18-2)

연구개발적립금

19-R52 청소년정책 재구조화 방안연구 / 김기헌·최정원·변금선·이종원·이민정·정지희

19-R21 청소년 참여 연구사업 운영을 통한 청소년활동 활성화 및 역량 증진방안 연구 / 모상현

19-R21-1 청소년 참여 연구사업 운영을 통한 청소년활동 활성화 및 역량 증진방안 연구 : 10대연구소 연구사업 운영보고 / 모상현·함세정

수 시 과 제

19-R53 아동청소년 성보호를 위한 연령조정 방안연구 / 이정민

19-R54 청소년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 김형주·이종원

19-R55 학교 밖 청소년 추정치 추계방안 연구 / 하형석·이종원·이정민

19-R56 2030 혁신리더 양성개발 및 평가 / 최정원·김현철·문호영·이윤주·박지숙·정은진

19-R57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역기관 연계 종합지원모델 개발 / 연보라·이윤주·김현철

수 탁 과 제

19-R19 포용사회 구현을 위한 이주배경아동·청소년 성장기회격차 해소방안연구 : 통계구축방안을 중심으로 / 양계민·김지연·장윤선

19-R20 한국 아동·청소년 삶의 질 지표 구축 방안 연구 :한국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지표 DB 구축 및 보고서 작성 / 유민상·이용해

19-R22 청소년 비즈쿨 지원사업 교육운영모형 개발 및 활성화 방안 연구 / 강경균

19-R23 학교폭력 예방 또래활동 프로그램(초등학교) / 성윤숙·이혜정

19-R24 학교폭력 예방 또래활동 프로그램(중학교) / 성윤숙·이혜정

19-R25 학교폭력 예방 또래활동 프로그램(고등학교) / 성윤숙·이혜정

19-R26 2018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프로그램 적용효과 분석 / 성윤숙·김현수

19-R27 2019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 매뉴얼 / 성윤숙·장안서

19-R28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심층 프로그램 / 성윤숙·서정아·문호영·장안서

19-R29 2018 개정 학부모 어울림 프로그램 : 초등학교 저학년,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고등학교(24종) / 성윤숙·김현수

19-R30 2015 개정교육과정을 반영한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교과 연계 프로그램 : 중학교 국어·도덕 · 사회 및 고등학교 국어 ·통합사회(5종) / 성윤숙·황세영·김성은·김현수

19-R31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실 프로그램 모듈 개발(중등용) 및 프로그램(5종) / 황세[영·한지형

19-R32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 김지연·서고운·김태완

19-R33 2019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 김경준·김영지·임지연

19-R34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 윤철경·최인재·김승경·김성은

19-R35 고양시 청소년재단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 연구 / 김영한

19-R36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분석 연구 - 아동권리협약 이행 제5·6차 심의자료 및 권고사항(국문) / 김영지·이윤주·유설희

19-R36-1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분석 연구 - 아동권리협약 이행 제5·6차 심의자료 및 권고사항(영문) / 김영지·이윤주·유설희

19-R37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개선방안연구 / 양계민·장윤선

19-R38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정책 중장기발전 계획수립 연구용역 / 최창욱·좌동훈·문호영·남화성

19-R38-1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정책 중장기발전 계획 / 최창욱·좌동훈·문호영·남화성

19-R39 소년 범죄피해자 인권보호 실태분석 및 제고방안 / 김지연·정소연·김혁·이경상

19-R40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사전 연구 / 김지경·김균희

19-R41 청소년 보호법 체계 개선 방안 연구 / 김지경·장근영·고은아

19-R42 2019년 학교 시민교육 정책 네트워크 운영 / 배상률·장근영·이정민

19-R43 천안시 청소년재단 설립 타당성 연구 / 최창욱·좌동훈·문호영·남화성·노자은

19-R43-1 천안시 청소년재단 설립 타당성 연구 요약보고서 - 천안시 청소년재단 기본구상 및 중장기 계획 - / 최창욱·좌동훈·문호영·남화성·노자은

19-R44 중국 청소년의 한류 인식 및 수용 실태 연구 / 배상률·문수정·장수

19-R45 지역아동센터 아동패널조사 2019 / 김희진·임희진·하형석·정윤미

19-R46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사업 평가지표 개발 연구 / 김지연·백혜정·류정희·이상정

19-R47 발명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 연계 방안 연구 / 강경균

19-R48 2019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효과만족도 연구 / 서정아·조아미

19-R49 지역사회 기반 직업계고 운영 활성화 방안 / 강경균

19-R50 고등교육 고비용부담 및 양극화 현상 진단과 대안 / 김기헌·김형주

19-R51 청년정책 체계성 강화 연구 / 변금선·김기헌·하형석·이용해

19-R58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실 프로그램 모듈 개발(초등용) 및 프로그램(2종) / 황세영·김성은·김현수

19-R59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실태조사 연구 / 오해섭·박지영·이지혜·임하린

19-R60 홈스쿨링 도입 방안 연구 / 이종태·하태욱·차상진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19-S01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실 프로그램 모듈 시범적용 결과 발표회 및 활용방안 워크숍(1.11)

19-S02 2019 학교폭력예방교육 운영학교 담당자 워크숍(1.24)

19-S03 학교폭력예방교육 운영학교 우수사례집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1.31)

19-S04 2019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학교 담당자 연수(1차-초등학교)(2.12~13)

19-S05 2019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학교 담당자 연수(1차-중학교)(2.14~15)

19-S06 2019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학교 담당자 연수(1차-고등학교)(2.19~20)

19-S07 2019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실(꿈지락) 프로그램 워크숍 자료집(4.15~16)

19-S08 2019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단 워크숍(2.22)

19-S09 제13회 청소년정책포럼(3.6)

19-S10 2019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학교 담당자 연수(2차) 초등학교(3.27~4.10)

19-S11 2019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학교 담당자 연수(2차) 중학교(3.29~4.17)

19-S12 2019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학교 담당자 연수(2차) 고등학교(3.29~4.17)

19-S13 제14회 청소년정책포럼(4.29)

19-S14 제15회 대한민국 청소년박람회 토크콘서트 자료집(5.24)

19-S15 2019년 대안학교(각종학교 및 특성화 중·고교) 관리자 협의회(6.4)

19-S16 2019년 대안학교(각종학교 및 특성화 중·고교) 담당자 연수(6.5)

19-S17 제20차 NYPI 직원 역량강화 콜로키움(6.10)

19-S18 제15회 청소년정책포럼(6.14)

19-S19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개원 30주년 기념 국제 컨퍼런스(6.18)

19-S20 제16회 청소년정책포럼(7.26)

19-S21 제17회 청소년정책포럼(8.28)

19-S22 제21차 NYPI 직원 역량강화 콜로키움(8.14)

19-S23 2019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당 워크숍(8.13~14)

19-S24 2019년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관리자 연수(8.22)

19-S25 2019년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담당자 연수(8.23)

19-S26 2019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시도교육청 협의체 워크숍(8.26)

19-S27 제18회 청소년정책포럼:청소년지도사 양성체계 및 처우개선 방안 제1차 재구조화 포럼(9.19)

19-S28 제22회 청소년정책포럼: 2019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 포럼(10.25)

19-S29 제19회 청소년정책포럼: 미래지향적 청소년관련 법 정비 방안(9.26)

19-S30 제20회 청소년정책포럼(9.27)

19-S31 2019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발전방안 포럼(9.26)

19-S32 제22차 NYPI 직원 역량강화 콜로키움(잠재프로파일 분석의 이론과 실제)(9.27)

19-S33 제23회 청소년정책포럼: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성장지원 체계 강화를 위한 지역자원 연계 방안(11.7)

19-S34 제24회 청소년정책포럼:청소년 주도적 참여기반 확대 및 활성화 방안(11.19)

19-S35 제23차 NYPI 직원 역량강화 콜로키움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정책 협력 추진 방안(11.12)

19-S36 제8회 한국아동·청소년패널 학술대회(11.15)

19-S37 제21회 청소년정책포럼:2019 전국청소년 지표조사 결과 발표 및 청소년활동 활성화 방안(10.1)

19-S38 제25회 청소년정책포럼:청소년을 위한 NPO-기업 사회공헌사업의 협업추진 방안(12.6)

19-S39 제24차 NYPI 직원 역량강화 콜로키움: 정책평가를 위한 이중차분법의 활용:이중차분법의 이해와 한국아동청소년패널 데이터 이용 사례(12.2)

19-S40 제26회 청소년정책포럼: 한국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현황 및 전망(12.12)

19-S41 제27회 청소년정책포럼: 2019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발전방안 포럼- 해외사례를 통한 국내 학교폭력 예방교육 활성화 방안 모색(12.12)

19-S42 고교학점제와 지역사회 청소년 체험활동 자원의 연계방안 모색을 위한 포험(12.16)

19-S43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교육청 공동 세미나: 서울 학교 밖 청소년 실태와 정책 진단, 그리고 미래(10.8)

학 술 지

「한국청소년연구」 제30권 제1호(통권 제92호)

「한국청소년연구」 제30권 제2호(통권 제93호)

「한국청소년연구」 제30권 제3호(통권 제94호)

「한국청소년연구」 제30권 제4호(통권 제95호)

기타 발간물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13호 : 가정 밖 청소년의 실태와 자립지원 방안 연구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14호 : 제4차 산업혁명시대 대비 청소년활동정책 전략 연구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15호 :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모델 개발연구 I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16호 : 위기청소년 교육적 선도제도 실효성 제고방안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17호 : 청소년을 위한 NPO-기업 사회공헌사업(CSR) 간 협업추진을 위한 '협업지침'과'중추지원조직 기능·추진사항'개발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18호 : 미래지향적「청소년복지 지원법」정비 방안

NYPI Bluenote 통계 46호 :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V

NYPI Bluenote 통계 47호 : 청년 핵심정책 대상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I : 청년 니트(NEET)

NYPI Bluenote 통계 48호 : 부모 특성과 아동·청소년 발달의 관계

19-R15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2019
: 총괄보고서

인 쇄 2019년 12월 23일
발 행 2019년 12월 31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발행인 송 병 국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주)아르빛 전화 044)863-0933 대표 유채란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44) 415-2125(학술정보관)
ISBN 979-11-5654-247-6 94330
979-11-5654-246-9 (세트)

OPEN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연구보고 19-R15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2019

- 총괄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D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6/7층
Social Policy Building, Sejong National Research Complex,
370, Sicheong-daero, Sejong-si, 30147, Korea
Tel. 82-44-415-2114 Fax. 82-44-415-2369 www.nypi.re.kr

9 791156 542476 94330
ISBN 979-11-5654-247-6 94330
ISBN 979-11-5654-246-9 (세트)